

韓國書院學報

제 9 호

韓國書院學會
2019. 12



차례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특별기고

'한국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과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 이상해 ◦ 1

일반논문

16~18세기 함양 정여창 가와 남계서원의 노론화 과정 박소희 ◦ 31

17세기 淸州 莘巷書院과 宋象賢 추모의 정치적 함의 정수환 ◦ 63
-송상헌 祠廟와 書院을 중심으로-

19세기 남양향교의 운영과 지역사회에서의 위상 김자운 ◦ 93

70년 동안의 중국 서원 연구 초영명·류염위 ◦ 125

상주 玉洞書院 소장 자료의 유형과 특징 김순환 ◦ 141

宋代의 서원교육과 士人 사상의 통합	주한민	187
---------------------------	-----	-----

조선왕조 서원제도 수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등홍파·조위	207
-조선 서원 문헌을 중심으로 한 토론-		

조선후기 礪山 竹林書院의 운영과 위상	이경동	231
----------------------------	-----	-----

휘보

- 연혁·활동 보고 | 262
- 한국 서원학회 회칙 | 264
- 편집 규정 | 271
- 논문투고 규정 | 274
- 원고작성 규정 | 278
- 연구윤리 규정 | 282
- 한국서원학회 임원 및 편집위원 | 284

[특별기고]

‘한국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과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이상해*

-
- I.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개요
 - II.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목록 등재 과정 대강
 - III.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시 중점 고려 사항 대강
 - IV.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

I.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개요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가 1972년 제17차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에 관한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의결한 ‘탁월한 보편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국민대학교 석좌교수 / lsh-skku@hanmail.net

이 글은 중국서원학회, 한국서원학회, 湖南汨羅屈子文化園管理中心, 屈子書院이 “書院文化傳統與現代發展”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第8屆東亞書院國際學術研討會暨 2019年中國書院學會年會”에서 2019년 10월 12일에 본 연구자가 발표한 내용을 좀더 보완한 것이다.

적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 흔히 OUV로 약칭)를 지닌 유산을 말한다.¹⁾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을 시행하기 위해 1975년 구성되었으며, 1978년부터 신청 유산을 심의하여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 시작하였다.²⁾

이 글은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기까지의 과정과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다.

‘한국의 서원’은 2019년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7월 6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 중에서 문화유산에 속하며, 등재된 유산의 숫자가 하나가 아니고 모두 9개이기 때문에 연속유산(serial properties)이다.

1) 유네스코는 세계유산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지침에는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개별 국가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소중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다. 이처럼 매우 소중한 자산이 퇴락하거나 소실된다면 세계 모든 사람들의 유산이 빈곤해진다. 그러한 유산의 일부는 그 독보적인 특성으로 인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점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운영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어떤 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유네스코는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여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여 그 유산이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만 보존되고 전승되는 차원을 넘어 인류 전체를 위해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보호하여 미래 세대에 전승토록 한 것이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정의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49항에서 53항까지 명시되어 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의결하는 등재 가, 보류, 반려, 등재 불가에 대한 내용은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153항에서 160항까지 명시되어 있다.

2)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을 인준한 국가 중에서 선출되며, 21개 국가로 구성되고, 임기는 6년이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된다. 문화유산은 유적, 건축물, 문화유산적 가치를 지닌 장소 등 인류 문명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보유한 유산을 말하는데, 기념물(monuments), 건축물(groups of buildings), 유적지(sites)를 세계유산 목록 등재 대상으로 한다. 문화유산은 또한 부동산 유산(유형유산) 이어야 하고, 무형유산적 가치를 구비하면 더 좋게 평가된다. 세계유산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19항에서 26항까지, 그리고 제61항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영문 명칭은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이다. 이 명칭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서원,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이 되지만, 우리나라 문화재청은 한국어 공식 명칭을 ‘한국의 서원’으로 결정하였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은 경상북도 영주 소수서원(紹修書院), 경상남도 함양 남계서원(濫溪書院), 경상북도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경상북도 안동 도산서원(陶山書院), 전라남도 장성 필암서원(筆巖書院), 대구광역시 달성 도동서원(道東書院), 경상북도 안동 병산서원(屏山書院), 전라북도 정읍 무성서원(武城書院), 충청남도 논산 돈암서원(遯巖書院)이다.³⁾ 이들 아홉 서원을 소재지, 건립 및 사액 연도, 주향 인물, 건립 배경, 서원을 구성하는 건물의 배치 및 특성, 주변 경관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⁴⁾



소수서원은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에 위치한다.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안향(安珦, 1243-1306)을 제향하는 사우인 체인묘(體仁廟)와 강학당인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1543년 건립한데서 시작한다. 안향은 순흥 출신으로, 원(元)나라로부터 성리학을 한국에 처음 도입한 유학자이다.

3) 등재 서원의 서술 순서는 각 서원의 건립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4) 여기에 소개한 9개 서원에 관한 내용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바탕으로 하였다.

조선시대 한국에 최초로 건립된 이 서원은 1550년 조정으로부터 ‘소수(紹修)’라고 사액을 받아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한국 서원의 제향 의식과 강학의 전형을 제시한 서원으로 평가 받는다. 소수서원의 사우, 강당, 재사, 장서각, 정자 등은 조선시대의 서원을 구성하는 건물들의 기본이 되었다.

남계서원은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에 위치한다. 사림이 주도하여 1552년 성리학자인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의 학덕을 숭앙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수동면은 정여창의 고향이다. 그는 동국(東國) 도학(道學)의 종(宗)으로 숭상되는 인물이다. 소수서원 다음으로 건립된 이 서원은 1566년 ‘남계(瀟溪)’로 사액되었으며, 1612년 현재 위치에 중건되었다. 강학 공간이 서원 영역의 앞에, 제향 공간이 그 뒤에 위치하는 전학후묘(前學後廟) 배치를 하여, 조선시대 서원 건축 배치의 전형을 제시한 서원이다. 서원 앞으로 임야와 하천인 남계를 바라보는 야경(野景) 입지의 전형을 보여준다.

옥산서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에 위치한다. 성리학자인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의 학덕을 숭앙하기 위해 1573년에 창건하였다. 1574년에 ‘옥산(玉山)’으로 사액을 받았다. 이언적이 만년에 관직에서 밀려나 6년 넘게 성리학 연구에만 전념하며 은거한 서재이자 별업(別業)이었던 독락당(獨樂堂) 근처에 있다. 이언적의 학문은 이황에게 이어져 영남학과 성리학의 선구가 되었다. 한국의 서원 중에서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서원 중 하나이다. 서원 앞으로 흐르는 자계(紫溪)와 그 넘어 멀리 자옥산(紫玉山)을 바라보며 세워진 계경(溪景) 입지를 한 서원이다. 강학하는 건물인 구인당(求仁堂)과 재사가 서원 영역의 앞에 있고, 제향을 지내는 체인묘(體仁廟)가 뒤에 위치한 전학후묘 배치를 하였다. 서원은 기하학적인 건물 배치를 하면서도, 주변 자연 경관과 어울리는 외부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도산서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에 위치한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유학자이자 선비의 전형인 이황(李滉, 1501-1570)의 학덕을 숭앙하기 위해 건립한 서원이다. 이황이 학문하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성하기 위해 1561년 지은 도산서당 뒤쪽에 1574년 창건되어 이듬해인 1575년 사액을 받았다. 서원 앞으로 낙동강이 흐르는 경관과 그 넘어 들판을 바라보는 강경(江景)과

야경 입지를 보여준다. 성리학 강학의 전통과 학맥의 형성, 서원 의례, 서원 주변의 경관과 조화하는 건물 배치와 공간 구성은 한국의 서원을 대표한다. 현재도 사회인 연수를 통해 유학의 가치를 보급하는 교육과 교화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필암서원은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에 위치한다.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학덕을 숭앙하기 위해 1590년 ‘김인후서원(金麟厚書院)’으로 장성 기산리에 창건되었다. 김인후는 조선 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성리학자다. 이 서원은 1597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어 1624년 재건되었다. 1662년 ‘필암서원’으로 사액 받았으며, 1672년 현 위치로 이건하였다. 서원은 호남지방 유학의 본산이며, 이 지방 사람들의 여론 형성의 진원지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강당이 강학 공간의 앞에 위치하여 제향 공간을 바라보는 배치를 하였다. 조선시대 서원의 지방 교육, 경제 기반과 운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고문서들이 소장되어 있다. 평지에 서원이 자리를 잡아 농경지를 바라보는 야경 입지를 하였다.

도동서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에 위치한다.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의 도학과 덕행을 숭앙하기 위해 비슬산 기슭에 쌍계서원(雙溪書院)으로 창건되었다. 1605년 현 위치에 보로동서원(甫勞洞書院)으로 중건되었으며, 1607년에 ‘도동서원’으로 사액 받았다. ‘도동(道東)’이란 ‘공자의 도(道)가 동(東)쪽으로 왔다’는 의미다. 김굉필은 성리학의 정통을 계승한 조선 전기의 중요한 성리학자다.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으로 구성된 건물들의 전학후묘 배치는 한국의 서원 중에서 가장 규범적이고 전형적이며, 건물의 완성도와 공간 구성의 위계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원 앞으로 전개되는 낙동강과 주변 경관은 서원과 일체가 되는 강경 입지의 특성을 창출한다.

병산서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에 위치한다. 류씨 문중의 교육 기구인 풍악서당을 모체로 해서 1614년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학덕을 숭앙하기 위해 존덕사(尊德祠)를 건립하면서 서원으로 바뀌었다. 1863년 조정으로부터 ‘병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류성룡은 임진왜란 때 왕을 수행하며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재상이다. 서원은 전형적인 전학후묘의

건물 배치와 공간 구성을 하였다. 낙동강과 병산을 바라보는 강경, 산경(山景) 입지의 서원이다. 만대루(晩對樓)에 올라 서원 앞으로 흐르는 낙동강과 병산을 바라보면 자연, 건축, 인간이 하나가 되는 공간이 전개되는 성리학적 자연관을 읽게 해준다. 이 서원은 17세기 이래 지방 유림들의 공론(公論)을 수렴하여 각종 상소를 올리며 여론을 형성하는 중심 역할도 하였다.

무성서원은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에 위치한다. 이곳에서 현령을 지낸 최치원(崔致遠, 857년-?)의 선행(善行)과 흥학(興學)을 숭앙하기 위해 고려 시대에 창건한 태산사(泰山祠)에 기원을 두고 있다. 1615년 태산사와 정극인(丁克仁, 1401-1481)의 가숙(家塾)인 향학당(鄉學堂)을 합하여 태산서원으로 창건되었으며, 1696년에 ‘무성(武城)’으로 사액 받았다. 사우-강당-누로 연결되는 중심 축을 따라 서원을 구성하는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으나, 재사인 강수재(講修齋)는 강당의 동쪽 담 밖에 조성되었다. 마을 안에 위치하는 서원이며, 지방관(地方官)에 의해 흥학과 교화를 목적으로 향약을 통하여 운영되었다. 한말에는 외세의 침략에 항거한 의병 봉기의 장소였다.

돈암서원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에 위치한다. 1634년에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을 숭앙하기 위해 연산면 하임리에 창건되었으며, 1660년 조정으로부터 사액 받았다. 홍수의 수해를 피하기 위해 1881년 현 위치로 이건하였다. 김장생은 조선의 예학(禮學)을 대성시킨 성리학자다. 서원은 조선시대 예학 논의의 산실이었으며, 소장하는 문집과 예서(禮書) 책판의 간행을 통해 호서 지역 사람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원이 지방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강당인 응도당(凝道堂)은 김장생이 저술한 『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 제시한 예학에 근거하여 지은 건물로 주목을 받는다.

이상 소개한 9개 서원은 모두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에 건립되었다. 이들 서원은 한국 서원의 제도적 정착, 제향 전통의 전형 확립, 사회적 역할 주도, 건축 유형의 정립, 지역 건축 기술과의 결합을 보여준다. 특히 9개 서원은 공간구성, 건물 배치, 경관, 의장, 전망 등의 측면에서 개별적인 특성과 함께 한국 서원의 총체적 속성을 보여준다. 이들 9개 서원은 건축 관점에서 한국 서원의 정형을 뚜렷하게 완성하여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정착한 사실을 가시적으로 입증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서원문화의 전통을

건축으로 구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추고 있다. 요약하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은 성리학이 동아시아 전역에 확산되어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며 정착된 중요한 사례가 됨을 보여준다.

II.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목록 등재 과정 대강

조선시대 서원의 건립은 사회 전반에 성리학이 정착되고, 퇴계 이항에 의해 서원이 사림 계층의 강학(講學) 장수처(藏修處)로서 그 성격이 분명해지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⁵⁾ 사람들이 서원을 건립한 목적은 그들이 중심이 되어 성리학이 지향하는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전인(全人) 교육을 할 근거지를 확보하는데 있었다. ‘사림’이란 향촌에서 ‘유교 경서(經書)를 독서하는 선비 집단’을 말한다. ‘전인 교육’이란 성리학에서 이상으로 삼는 인물을 배양(培養)하는 교육을 뜻한다. 이는 성리학이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다.

2011년 당시 대통령 직속위원회 중의 하나인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는 조선시대의 서원이 지금까지 잘 보존, 관리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목표한 전인 교육과 건전한 인간성의 형성은 현대사회에서도 순기능을 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하기 시작하였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2011년 4월 14일 조선시대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 추진할 것을 선포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에 근거하여 세계유산 목록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는 준비를 하였다.⁶⁾

5)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 연구』, 일조각, 2001, 38쪽.

6) 2011년 4월 14일 개최된 한국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식은 국가브랜드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37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는 추진준비위원회 10명,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사적 지정 9개 서원 소재 광역지자체 국·과장 7명, 9개 서원 소재 기초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 8명, 한국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는 특정 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려면

서원연합회장, 9개 서원 대표 9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었다. 이 발족식에서 가칭 ‘한국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추진위원회 기능 및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하였다. 한국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원은 이배용(위원장), 정만조, 이상해, 이해은, 이해준, 정순우, 이왕기, 김덕현, 박성진, 문화재청 담당관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논의는 국가브랜드위원회가 2011년 4월 14일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발족식을 하기 이전부터 있었다. 2009년 9월 16일에는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문화재청, ICOMOS 한국위원회, 문화재위원회, 학계, 단체 등에 속하는 8인이 참석하여 조선시대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문 회의가 있었다. 2010년 4월 15에는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사무실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 개발을 위한 회의를 하고, “한국서원의 문화유산 가치”란 제목으로 공주대학교 이해준 교수가 발제를 하였다. 같은 해 10월 4일에는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달개비에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준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된 제반 준비 사항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배용 위원장, 정만조, 이상해, 정순우, 박성진, 이해준 위원이 참석하였다. 같은 해 11월 8일에는 추진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국가브랜드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이배용 위원장, 정만조, 이상해, 이해은, 정순우, 박성진, 이해준 위원이 참석하여 세계유산 등재 로드맵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관련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2011년 1월 28에는 국가브랜드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추진준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추진위원회 조직, 문화재청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MOU 체결, 세계유산 등재 대상 서원 선정, 로드맵 작성, 학술세미나 개최 등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으며, 참석자는 이배용 위원장, 이건무 문화재청장, 전택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정만조, 이상해, 정순우, 이해준, 박성진 위원과 남희숙 연구관(간사)이었다. 같은 해 2월 22일에는 추진준비위원회 4차 회의 및 9개 서원 원장 연석회의를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서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방안, 추진 로드맵과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 예산 확보 방안, 추진 일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배용 위원장, 정만조, 이상해, 이해은, 정순우, 이해준, 이왕기, 김덕현, 박성진 위원과 여문필 서원연합회 사무총장, 남희숙 연구관, 문화재청 담당과장과 사무관, 그리고 국가 사적 지정 9개 서원 원장이 참석하였다. 같은 해 3월 18일에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추진준비위원회 5차 회의를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협의하였는데, 추진위원회는 분과위원장, 각 서원 원장, 유관기관장으로 구성하고,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남, 대구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MOU 체결을 추진하고, 분과위원회는 등재신청서작성위원회(이상해, 이해은 외), 연구학술위원회(정순우, 정만조, 김덕현 외), 보존관리위원회(이해준, 이왕기 외), 홍보위원회(이해은, 박성진, 남희숙 외)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 3월 28일에는 추진준비위원회 6차 회의를 하였다. 참석자는 이배용 위원장, 정만조, 이상해, 정순우, 이해은, 이왕기, 김덕현, 이해준, 박성진, 남희숙이고, 논의 사항은 분과위원회 사업계획 검토, 준비위원회 발족식 행사 세부 내용이었다.

그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잠정목록(Tentative List)에 등재된 후 1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 이 운영지침에 따라 ‘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준비위원회’에서는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는 팀을 만들어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⁸⁾ 그런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에 들어갈 목차와 내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유산의 세계유산등재신청서에 포함해야 할 목차와 내용과 일치한다. 무엇보다도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려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운영지침에 명시한 아래 내용이 충족되어야 해당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한 것으로 해석한다.

- 신청 유산이 문화유산일 경우 그 유산은 기념물(monuments), 건축물(groups of buildings), 유적지(sites) 중 어느 하나(또는 여럿)에 속하여야 한다.⁹⁾
- 문화유산에 속하는 유산은 세계유산 평가기준(criteria)의 (i)에서 (vi) 항목 중 어느 하나 또는 여럿에 속하여야 한다.¹⁰⁾
- 신청 유산은 완전성(integrity)을 충족하여야 한다.¹¹⁾
- 신청 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을 구비하여야 한다.¹²⁾
- 신청 유산은 국내외 유사 유산에 대한 비교 분석(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해당 유산의 중요성과 차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¹³⁾
- 신청 유산의 보호 및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¹⁴⁾

7)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62, 65항. 잠정목록 등재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62항에서 제76항까지 명시되어 있다.

8)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양식과 신청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129항에서 139항까지, 그리고 Annex3에 명시되어 있다.

9) 기념물, 건축물, 유적지에 관한 정의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45항에 명시되어 있다.

10) 세계유산 평가기준 (i)에서 (x)까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77항에 명시되어 있다.

11) 문화유산의 완전성에 대한 평가 내용은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87항에서 95항까지 명시되어 있다.

12)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주요 평가 내용은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97항에서 86항까지 명시되어 있다.

13) 비교 분석에 대한 기본 지침은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132항에 명시되어 있다.

14) 신청 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은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 제96항에서

이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세계유산위원회는 그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구비한 것으로 해석하고,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가결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600여개의 서원이 존재한다. ‘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준비위원회’는 그 중에서 1871년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되지 않은 47개 서원과 사우를 대상으로 각 서원이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제시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9개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9개 서원의 명단은 위에 적은 바와 같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려면, 그에 앞서 그 유산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준비위원회’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할 서원을 선정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워크숍, 국내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 등을 십여 차례 시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12월 한국의 9개 서원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를 하였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2012년 4월 18일 9개 서원이 소재하는 14개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세계유산, 한국사, 유학, 교육사, 건축사, 지리학 등을 전공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을 발족하였다. 그 후 작성된 세계유산 목록 등재신청서에 대한 세계유산 국외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다음, 2015년 1월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목록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십여 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워크숍, 국내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 등을 개최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에서는 신청 서원들의 보호와 관리 상태를 점검하였고, 신청 서원이 소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비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각 서원의 유산구역(nominated property)과 완충구역(buffer zone)을 설정하였다.¹⁵⁾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에서

119항까지 명시되어 있다.

15)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설정과 관련된 내용은 세계유산 운영지침 제103항에서

는 각 서원의 현장 조사, 유형 무형 가치 및 의례 조사와 정리, 각 서원의 건축, 경관, 제향, 활용 등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배치 및 건축 실측과 도면 작성, 한국의 서원과 문화를 연구한 도서 발간, 서원 홍보 자료 제작 등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 중에, 2015년 9월에는 연속유산인 ‘한국의 서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을 설립하여 이 관리단에서 ‘한국의 서원’의 보존과 관리를 문화재청, 각 지방자치단체, 각 서원의 유림들과 협의하며 실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유네스코에 제출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목록 등재신청서에 대한 심사 과정의 하나가 되는 이코모스(國際紀念物遺跡協議會,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약칭 ICOMOS) 전문가 현지 조사가 2015년 9월 있었다. 그 후, 문화재청은 2015년 10월 이코모스 현지 조사자가 요구한 보완 자료를 제출하였고, 세계유산 등재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하는 이코모스의 패널(panel) 회의 결과를 주시하였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4월 이코모스 패널 회의에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반려(Defer)할 것을 권고하는 평가를 하였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 받고, 제출한 등재신청서를 2016년 7월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하기 전에 철회하였다. 이 때 이코모스 패널 회의에서 한국의 서원 등재신청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에 소재한 600여개의 서원 중에서 9개 서원의 대표성에 대한 설명 부족과 연속유산 선정 논리의 강화 필요
- 해당 유산이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한 성리학 교육기관과 차별되는 독특성의 연구 보완
- 서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개별 유산의 특징을 기술한 사례의 부적합성
- 완충구역을 확대하여 주변 자연 환경에 위치하는 유산의 중요 속성을 포함
- 서원 관계자 및 현장 관리자들이 참여하는 유산 해설 프로그램 미흡

그 후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이사회는 2016년 7월 ‘한국의 서원’을 다시 세계유산 목록 등재 신청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는 2016년 9월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 우선 대상으로 의결하였다. 그 후, 같은 해 12월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1월 수정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였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문화재청과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과 학술회의는 물론이고,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가 되는 2017년 2월말까지 이코모스가 추천한 2명의 세계유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며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때 검토한 주요 내용에는 다음 사항들도 포함된다.

- 한국의 수 많은 서원들 중에 이 9개 서원이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
- 등재 추진 과정에서 세계유산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완전성, 진정성의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보완한 내용
- 연속유산으로서 가치를 도출할 수 있는 속성 비교표 Matrix와 경내 정비 방안 제시
- 평가기준 항목 (iii), (iv)를 입증할 각 서원 별 속성과 비교표 작성을 통한 설명 내용 보완
- 중국의 서원, 일본의 사숙(私塾) 등과 교육 기구의 전통 유지, 물리적 특징 등 비교 연구 구체화
-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모두 포함되는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확정 원칙 마련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의 소유권 현황 등을 보이는 도면, 표 등의 작성 및 적용되는 관련 법규 제시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에 대한 방재 계획 작성
- 서원 관계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유산 해설 및 관리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목록 등재신

청서’를 2018년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다시 제출하였다.

그 후, 2018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이코모스 전문가의 현지 실사가 있었다. 현지 실사자의 실사를 바탕으로 이코모스가 요구한 자료를 2018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였고,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문화재청 담당자,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담당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집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이코모스 패널 총괄 심사자 면담 회의를 하고 질문에 답하였다. 그 후 2019년 2월에는 이코모스 패널 회의에서 요구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같은 해 5월 13일 이코모스로부터 이코모스 패널 회의에서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는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서원’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019년 7월 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가 의결되었다.¹⁶⁾

Ⅲ.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시 중점 고려 사항 대강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팀에서는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를 보여주는 속성을 어떤 내용으로 정리하여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 워크숍, 국내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 이코모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작성하였다.

3-1. 등재신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관련된 사항

- 신청 유산의 영어 명칭 채택

16) 참고로, 2019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새로 등재된 유산은 모두 29점인데, 그 중에서 문화유산이 24점, 자연유산이 4점, 복합유산이 1점이다.

- 신청 유산의 개요와 탁월한 보편적 가치 제시
- 평가기준 해당 항목 선정
- 완전성과 진정성 입증과 설명
- 국내외 유사 유산 비교 분석을 위한 기본 주제어 설정

3-2. 세계유산 운영지침의 평가기준과 관련된 가치 추출

- 유형유산적 가치
- 역사적 가치
- 예술적 가치
- 과학적 가치
- 심미적 가치
- 문화적 가치
- 경관적 가치
- 무형유산적 가치
- 공동체적 가치
- 문화인류학적 가치

3-3. 한국 서원의 속성과 관련된 사항

- 동아시아 유학 문화권과 한국 서원의 지역적 속성
- 조선 유학의 학맥과 연계된 속성
- 시기별 한국 서원의 속성
- 성리학과 연계된 한국 서원의 속성
- 한국의 선비 문화와 연계된 속성
- 문중 서원적 속성
- 지방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서의 서원
- 향촌 교화적 속성
- 서원의 입지 유형적 속성: 산경, 강경, 계경, 야경
- 서원 건축의 유형적 특성
- 서원 건축의 공간적 특성
- 각 서원의 강학 특성
- 각 서원의 제향 의례 특성

- 기록물의 특성

3-4. 한국 서원의 보호 관리와 관련된 사항

- 유형유산의 보존 상태
- 무형유산의 보존 상태
- 유산구역, 완충구역 설정,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소유자 동의, 승인 획득
- 보호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 문화재청의 역할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서원별 유림의 역할
- 관광객 대처 방안
- 모니터링
- 이해 당사자(stakeholders) 대응 방안
- 개발 위협 요소
- 환경 위협 요소
- 자연 재해 위협 요소
- 관광 위협 요소

3-5. 세계유산 목록 등재 신청서 작성시 준비한 자료들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 보존관리계획서
- 도면사진집
- 영상 자료
- 한국의 서원 연구 책자
- 한국의 서원 소개 홍보 책자와 자료

IV.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특정 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려고 할 때, 그 유산의 가치가 여러 평가기준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 유산이 유사한 유산보다 더 우월한 유산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오히려 특정 유산을 하나 이상의 평가기준을 갖춘 것으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면, 그 유산은 적용된 모든 평가기준들에 일관되게 관통하는 세계유산 가치가 있음을 제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에서 평가기준 항목 (iii), (iv)에 해당한다고 하였지만, 이코모스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가 평가기준 항목 (iii)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서 평가기준 항목 (iii)은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소멸된 문명과 관계되면서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를 지니고 있는 것”¹⁷⁾에 속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기준 항목 (iv)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건조물, 건축 또는 기술의 총체이거나 경관인 것”¹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코모스는 ‘한국의 서원’이 평가기준 항목 (iii)에만 적용된다고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이 연속유산은 조선시대 서원의 시작과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코모스는 당사국이 추가로 제출한 신청 유산의 비교 분석이 해당 유산의 세계유산 목록 등재 고려를 정당화한다고 판단한다.

당사국은 해당 유산이 문화유산 평가기준 항목인 (iii)과 (iv)에 근거하는 것으로 신청하였으나, 이코모스는 신청 유산이 평가기준 항목 (iii)은 충족하지만, 평가기준 항목 (iv)는 충족하지 않으며, 완전성과 진정성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한다.

평가기준 항목 (iii)과 관련하여, 신청 유산은 교육적, 사회적 관행의 형태로 한국에서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우수한 증거라고 생각되며, 그 중 많은 부분이

17) Criterion iii): Bear a unique or at least exceptional testimony to a cultural tradition or to a civilization which is living or has disappeared.

18) Criterion iv): Be an outstanding example of a type of building, architectural or technological ensemble or landscape which illustrates (a) significant stage(s) in human history.

계승되고 있다. 이는 또한 성리학의 지역화에 대한 뛰어난 증거를 보여준다. 서원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성리학이 한국의 현지에 맞게 변화된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며, 이는 변화 및 지역화 과정의 탁월한 증거인 서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코모스는 신청 유산이 평가기준 항목 (iv)에 근거한 성리학 교육의 세계유산 맥락에서 탁월한 사례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코모스는 중국의 영향과 변화 및 지역화 과정은 주목하지만, 이 기준이 요구하는 우수한 특성을 정당화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019년 7월 바쿠에서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21개 이사국 중에서 의견을 개진한 이사국은 쿠웨이트, 튀니지, 중국, 인도네시아, 스페인, 아제르바이잔이었으며, 모두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면서 등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 특히, 중국 대표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며 지지하였다.

중국은 이코모스의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권고와 이코모스의 문안 내용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세계유산 목록에 새로운 유산을 포함시킨 한국 대표단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중국어로 ‘슈유안’(shūyuàn, 書院)으로 불리는 성리학 교육기관이 비록 중국에서 시작되기는 했지만, ‘한국의 서원’ 역시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동아시아의 유가 문화의 보급과 지역화에 기여한 중요한 유산입니다. 이러한 서원은 자연 환경과 잘 조화되어 한국의 독자적인 서원 건축 형식을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에서 성리학이 추구하는 이상이 꽃피도록 하였습니다. . .

우리는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가 아시아 지역과 전세계 국가들 간의 더 많은 문화교류를 위한 촉매제가 되어 세계유산 목록상의 대표적인 성리학 유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국 대표는 이상과 같이 ‘한국의 서원’이 중국의 서원과 다른 점을 부각시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게 하는 결정적인 지지 발언을 해주었다. 중국 대표가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측면에서 중국의

서원과 분명하게 차별성을 보인다는 지지 발언을 해주었기 때문에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는데 크게 도움을 받았다.

이에 더하여, 다섯 국가의 대표가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에 대하여 지지한 발언을 쿠웨이트, 튀니지, 인도네시아, 스페인, 아제르바이잔 순서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저는 이 훌륭한 보고서에 대해 이코모스의 자문기관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학문과 과학을 다루는 몇 안 되는 보고서들 중 하나라고 확신하기에 이를 수정하는 것이 더욱 더 긍정적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저는 이 뛰어난 유산의 신청서를 철회하고 다시 제출하여 등재에 이른 당사국의 인내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신청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산은 학문적 그리고 과학적 장소에서 시작되어 한반도 전역에 퍼진 문화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문화 유적지와 문화 건물들을 보지만, 우리는 그것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이 모든 기록들을 보관했는지, 사람들이 어디서 배움의 경험을 얻었는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세계유산센터에 신뢰할 수 있는 유산으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튀니지는 우선 우리가 해당 유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준 이 신청서에 대해 이코모스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신청서의 우수함에 대해 당사국에 축하를 전합니다. 저희 역시 이 유산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신념과 과학이 연결된 과정의 역사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단순히 문화적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대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유산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존의 관점에서도 자문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사국에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먼저 ‘서원,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에 대한 훌륭한 보고서에 대해 자문기관에 먼저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당사국에 축하를 전하고 싶습니다. 16세기 중엽부터 17세기 중엽까지의 9개의 서원으로 이루어진 해당유산은 교육적, 사회적 관습의 형태로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

에 대한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사국의 해당유산에 대한 보호와 보존의 필요와 그 지속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신청서를 철회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문제없이 등재될 수 있도록 이코모스와 함께 한 진행과정의 결과를 원했던 것입니다. 스페인 대표단은 해당유산의 완벽한 수준의 보존상태에 정말 놀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이 유산의 근간을 이루는 무형적인 측면에서도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 학교는 보통 공무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이 경우에는 지식의 보호가 그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훌륭한 등재이며 한국에 축하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제르바이잔도 신청에 대해 당사국에 축하를 전합니다. 이 유산은 교육적, 사회적 관행의 형태로 한국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에 대한 훌륭한 증거입니다. 이는 또한 성리학과 그 발전의 각 단계들의 뛰어난 증거이자 건축학적 원형입니다. 우리는 이 유산에 대한 당사국의 신청과 이코모스와 협력하여 신청을 갱신하고 세계유산목록에 성공적으로 포함시킨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의결하면서 채택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서원’(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건립)은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기관의 유형을 대표하는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으로, 한국의 성리학과 연관된 문화 전통에 대한 탁월한 증거이다.

‘한국의 서원’은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으로 구성된 9개 서원이며, 대한민국의 중부와 남부 여러 지역에 걸쳐 위치한다.

서원은 중국에서 도입되어 한국의 모든 측면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성리학을 널리 보급한 성리학 교육기관으로서 탁월한 증거가 되는 유산이다.

서원의 향촌 지식인들은 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교육 체계와 유형적 구조를 만들어냈다. 학습과 배향, 상호교류는 서원의 핵심적인 기능이었으며 이는 건물의 배치에 잘 드러나 있다. 서원은 그 지역 지식인들인 사람이 이끌었으며, 사람의 이해관

계에 따라 향촌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번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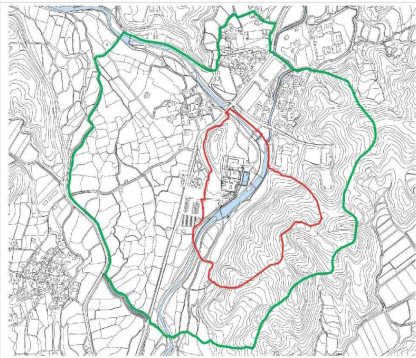
서원의 위치에 가장 크게 고려되는 요소는 선현과의 연관성이다. 두 번째 요소는 경관으로, 자연 감상과 심신 단련을 위해 산과 물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서원에서 누마루 양식의 개방적인 건물은 그러한 경관과의 연결을 더욱 원활하게 한다. 학자들은 성리학 경전과 문학작품을 공부했으며, 우주를 이해하고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했으며, 고인이 된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을 배향하고 강력한 학문의 계보를 형성했다. 나아가 서원에 근거한 다양한 사회 정치적 활동을 통해 성리학의 원칙을 널리 보급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유네스코가 해마다 세계유산 목록을 등재하는 이유는 지구상의 중요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국가, 소유자, 그리고 세대를 초월하여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가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계유산 등재 제도를 성립시킨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대사회가 과학의 발달과 기술의 만남으로 산업혁명을 일으켜 그 이전의 시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로 진입한 것과 맞물려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인간들이 이룩한 유산이 철거, 훼손되거나 경시되어가는 것에 대한 보존,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이 소재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규정, 제도, 관리 조직 등을 갖추어 해당 유산을 보호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탈 국가주의, 탈 정치성, 탈 지역이기주의, 해당 유산과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의 이해, 협조, 참여 등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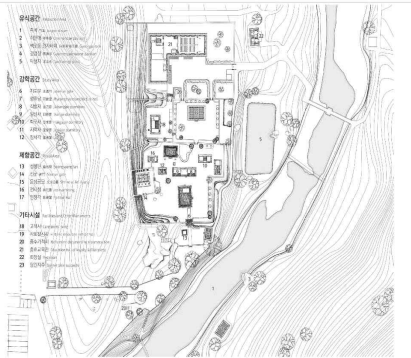
‘한국의 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됨으로써, 세계유산협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인류가 함께 보호 관리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다. ‘한국의 서원’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교육 시설과 공유하는 점이 많지만, 성리학이 지향하는 사상이 서원에 반영된 건물 배치, 공간 구성, 경관 조성 등을 통해 한국화된 서원 건축의 속성을 형성한 증거를 보여준다. ‘한국의 서원’에는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여러 문헌들이 소장되어 있고 제례를 비롯한 무형유산들이 전승되고 있다.

그런데, 이코모스와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보호 관리의 측면에서 두 가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하나는 ‘한국의 서원’이 연속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한국의 서원’을 관리할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9개의 서원을 하나의 유산으로 관리할 ‘종합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산을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유산의 정체성을 회복, 유지하여 다음 세대에게 유산의 속성을 온전하게 물려주자는 데 있다. 이코모스와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두 가지 사항은 9개 ‘한국의 서원’이 향후 지속가능한 세계유산이 되게 하는데 초석이 되는 역할을 할 것이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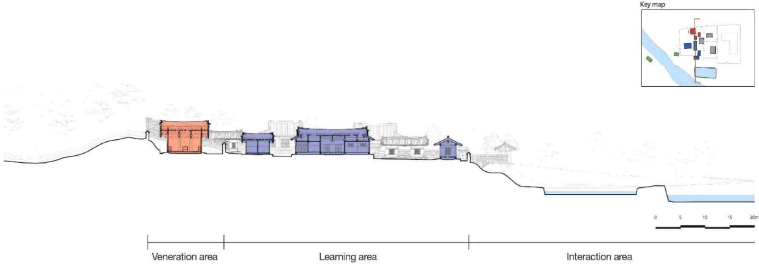
19) 이 글에 사용한 모든 도면과 사진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 신청서’와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의 자료에서 허가를 받고 가져왔다.



소수서원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소수서원 배치도



소수서원 단면도



소수서원 전경



소수서원 사우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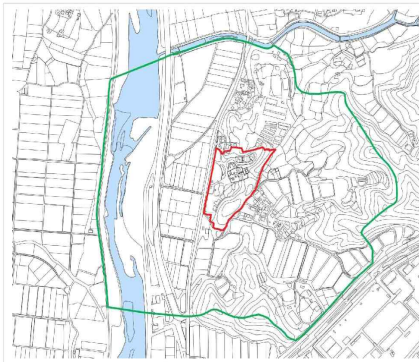
소수서원 제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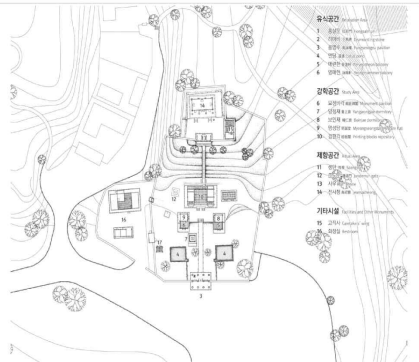
소수서원 강학공간



소수서원 죽계(竹溪)



남계서원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남계서원 배치도



남계서원 대지 단면도



남계서원 전경(全景)



남계서원 강학공간



남계서원 풍영루(風詠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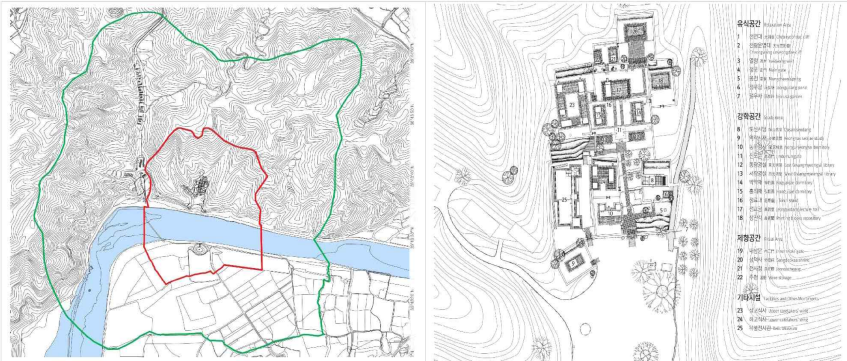


남계서원 강학공간 전경(全景)



남계서원 제향공간





도산서원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도산서원 배치도



도산서원 대지 단면도



도산서원 전경(全景)



도산서원 강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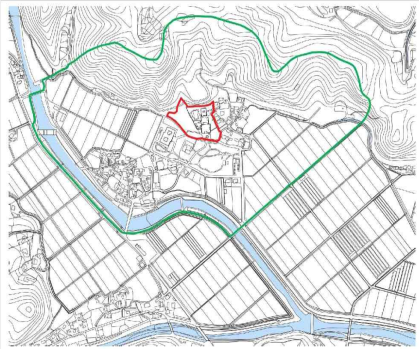
도산서원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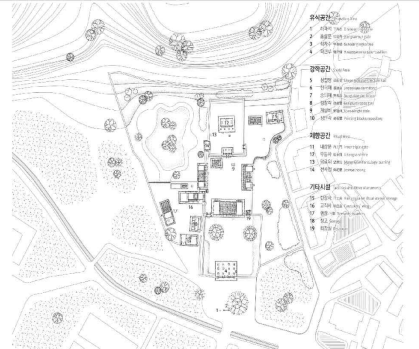
도산서원 제향



도산서당(陶山書堂)



필암서원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필암서원 배치도



필암서원 대지 단면도



필암서원 전경(全景)



필암서원 강학공간



필암서원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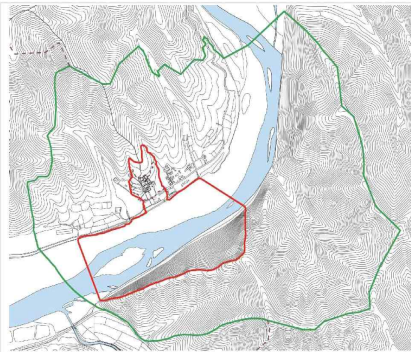


필암서원 제향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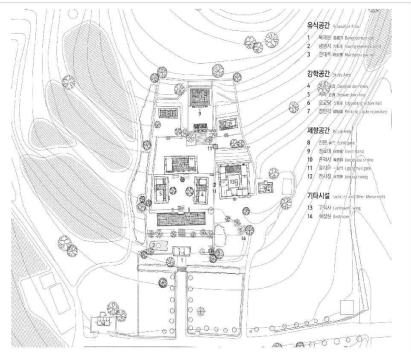


필암서원 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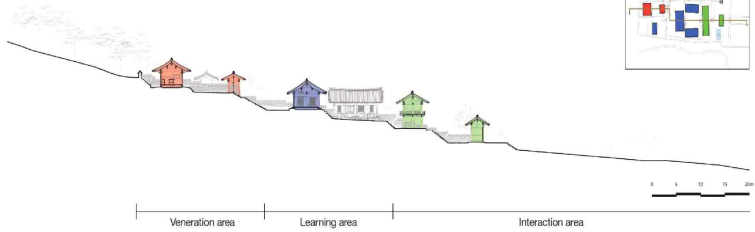




병산서원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병산서원 배치도



병산서원 대지 단면도



병산서원 전경(全景)



병산서원 전경(前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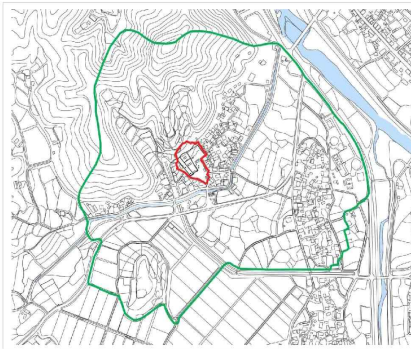
병산서원 만대루(晩對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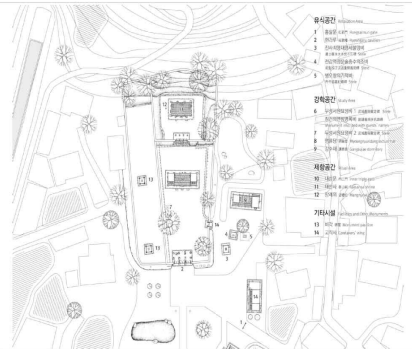
병산서원 강학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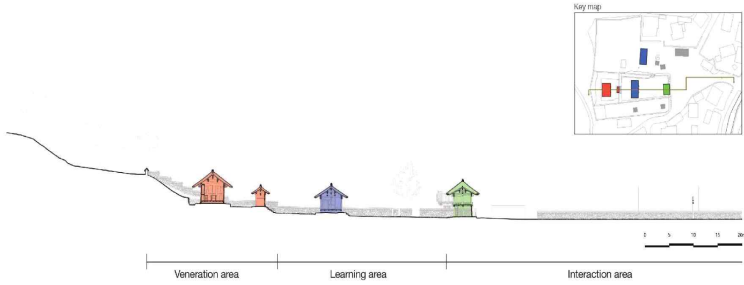
병산서원 제향



무성서원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무성서원 배치도



무성서원 대지 단면도



무성서원 조감(鳥瞰) 전경(全景)



무성서원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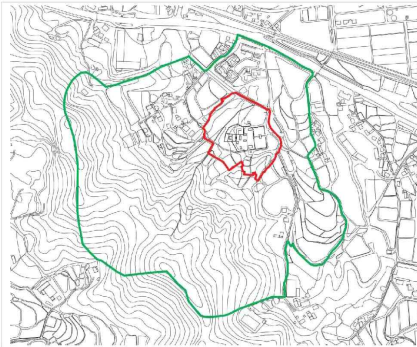
무성서원 전경(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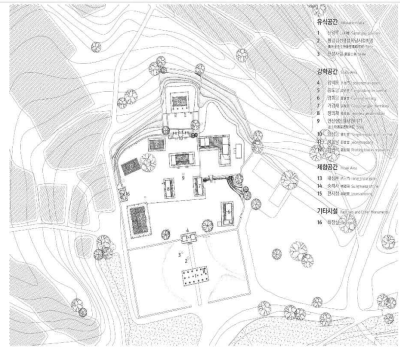
무성서원 강당



무성서원 사우 내부



돈암서원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돈암서원 배치도



돈암서원 대지 단면도



돈암서원 전경(全景)



돈암서원 응도당(凝道堂)



돈암서원 강학공간



돈암서원 제향공간



응도당 내부공간

16~18세기 함양 정여창 가와 남계서원의 노론화 과정

박소희*

-
- I. 머리말
 - II. 정여창 가의 노론화 과정
 - III. 남계서원의 노론화 과정
 - IV. 맺음말
-

<국문요약>

경상우도는 남명학파의 본거지이자 인조반정 이전까지 북인세가 강한 지역이었다. 특히 함양은 정인홍의 문인들이 많아 선조 연간 양홍주, 노사예 등 일부 서인계 인사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하동정씨 정여창의 차남 계열인 정홍서가 노사예를 두둔함으로써 정인홍의 문인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는 광해군 대 정인홍의 비호를 받던 정여창의 장남 측과 종사문제로 이어졌다. 이후 정홍서의 후손들은 서인으로 좌절, 무신난에 창의하면서 노론계로 전향하였다.

한편 인조반정 이전 남계서원은 풍천노씨의 참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신계서원 [향현사] 내 위치문제를 두고 향론이 분열되면서 이는 남계서원 내 분열로 이어지게 된다. 이후 광해군 대 남계서원은 정인홍의 문인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북인계 서원을 표방하였다. 그리고 『원록』의 입록 범위도 함양에 한정되지 않고 우도 지역으로 확대되어 갔다.

그러나 인조반정 후 북인의 실각으로 남계서원은 자구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온과 강익, 유희인의 별묘 제향을 통해 남인화로 변모하였다. 하지만 효종 연간 원장朴以燾·유사朴鳴震을 통해 남계서원의 서인화도 일정 부분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숙종 연간 하동정씨를 비롯한 서인계 가문의 참여도 확대되어 갔다.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thgml0819@hanmail.net

이후 영조 대 무신난을 겪으면서 남계서원에도 노론계 인사들이 경원장을 지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무신난 때 창의학 하동정씨 가문의 참여도 점차 높아졌다. 특히 순조 이후가 되면 과거 많이 참여했던 반남박씨, 남원양씨, 삼척박씨 등은 감소하고 하동정씨의 압도적인 참여 속에 진양하씨, 풍천노씨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향안을 둘러싼 향전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남계서원은 1820년(순조 20) 정여창의 종사를 되찾아온 정홍서를 별묘에 배향, 1849년(헌종 15) 정환필 주도로 風詠樓를 중건하는 등 하동정씨 중심으로 운영되어 갔다.

키워드: 남계서원, 복인, 정여창, 하동정씨, 노론

I. 머리말

인조반정 이전 경상우도는 남명학파의 본거지였다. 따라서 이 일대에는 정인홍·정구 등 남명 제자와 재전 문인, 또 남명의 사숙문인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서인세력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중 남명문인들은 선조 대 기축옥사에 대해 동인의 입장을 취하였으며, 일부 서인세력들은 성혼·정철을 옹호함으로써 갈등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광해군 즉위 이후 우도의 사림은 대체로 정인홍을 중심으로 한 복인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구가 정인홍과 결별하면서 복인에 반대하였고 남명의 사숙문인 역시 1614년(광해군 6) 정온의 「갑인봉사소」에 동조, 또는 은거하면서 대북에 반대하기도 했다.¹⁾

이후 인조반정으로 복인이 대거 실각하자 여기에 가담한 우도 사림들은 생존책을 모색해야만 했다. 이들은 남명·퇴계 양 문하에서 수학한 정구를 매개로 남인화, 또는 당시 미미하게 존재하던 서인을 통해 당색을 변모시키기도 했다.

우도의 재지사족들은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서원을 통해 정치적 공론을 형성하였다. 특히 1566년(명종 21) 사액된 남계서원이나 남명을 제향한 덕천·용암·신산서원 등은 인조반정 이전 복인의 대표 출입처였다. 그러나 반정

1) 이재철, 「18세기 경상우도 사림과 정희량난」, 『대구사학』31권, 대구사학회, 1986, pp.5-8.

이후 이 서원들 역시 서인, 남인계로 변모하게 되는데 남계서원이 전자, 덕천 서원이 후자의 대표적 경우이다. 본 연구는 서인화에 초점을 두고 남계서원을 조망하였다.

남계서원 연구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윤희면은 서원의 건립·사액부터 활동·운영, 향론분열에 따른 서원의 변화상 등 전반적인 모습을 다루었다. 또 이정희는 함양향안과 사마재, 남계서원을 함께 검토하여 재지사족의 동향을 확인하였다. 단편적으로는 『경임안』²⁾ 내 인적 구성을 분석하여 서원의 당색변화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³⁾ 이러한 성과로 복인계였던 남계서원은, 인조반정 후 강악·정온·유호인의 별묘 제향과 숙종 남인집권기 강악·정온의 본원 승향을 통해 남인화하였고→영조연간 경원장제 도입으로 노론화→이후 노론계 하동정씨 가문의 참여 확대로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원임조직의 변화에 따라 당색을 규명하다 보니, 서원에 참여한 가문의 변화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계서원의 원임을 가문별로 분석하여 서원의 서인·노론화 과정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다만 남계서원의 서인·노론화는 하동정씨 일문의 서원 참여와 함께 하고 있으므로 먼저 하동정씨 가문의 노론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정여창 가의 노론화 과정

2) 『경임안』은 1552년(명종 7)~1687년(숙종 13), 1777년(정조1)~1795년(정조 19), 1795년(정조 19)~1852년(철종 3), 1886년(고종 23)~1917년, 1917~1993년까지가 남아 있으며 1962년에 작성된 『經任案正單』이 있다. 『원록』은 1651년(효종 2)~1658년(효종 9)·1671년(현종 12), 1552년(명종 7)~1705년(숙종 31) 상·하본, 1962년의 원록이 남아 있다.

3) 윤희면, 「경상도 함양의 남계서원 연구」, 『남명학연구』2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이정희, 「16·17세기 咸安·咸陽 在地士族의 동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이재철, 앞의 논문(1986).; 강상택, 「조선 중·후기 서원 발달에 관한 연구-현 경상남도 지방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제59집, 국사편찬위원회, 1994.; 이수환, 『朝鮮後期 書院研究』, 일조각, 2001.

1. 정홍서와 정인홍 문인과의 갈등

함양에 세거하고 있는 정여창 가문은 1738년(영조 14) 이수해가 영남 내 서인 명문가로 언급⁴⁾했듯이 대표적인 서인·노론계 가문이다. 이들은 鄭國龍(1世), 鄭芝衍(2世)으로 이어지는 하동정씨 문헌공파로, 정여창의 증조부 鄭之義가 寶城宣氏와 혼인하면서 처향인 함양으로 이주하였다.⁵⁾ 향후 이 가문은 정여창을 배출하고 그가 문묘에 배향되면서 향촌 내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된다.

정여창에게는 장자 希稷과 차자 希高이 있었다. 이 둘의 후손은 광해 연간 정여창의 宗祀 문제를 두고 서로 대립하게 되는데, 이때 희직의 후손은 복인의 편에서, 희설의 후손은 그 반대편에 서게 된다. 희설의 후손이 반대편에 서게 된 것은 선조 연간 일어난 기축옥사에 대해 동인과 입장을 달리 했기 때문이다. 1594년(선조 27) 영남 유림들은 기축옥사와 관련하여 서인계였던 정철을 공격하기 위해 상소를 올리기로 하였다. 여기에 소두로 함양의 풍천 노씨 노사예가 추대되었는데 노사예는 오히려 정철을 옹호하였다.⁶⁾ 그리고 노사예의 제자이자 정여창의 4대손인 정홍서가 스승의 편을 들면서 정인홍의 문인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은 것이다.⁷⁾

4) 『승정원일기』 영조 14년 7월 22일.

5) 이수건,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4, p.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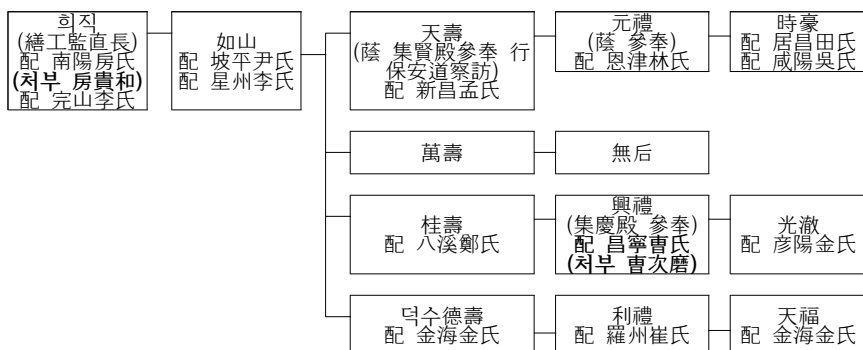
6) 노사예는 남계서원 초창기인 1578년(선조 11)~1581년(선조 14)까지 원장을 지낸 바 있다. 노사예의 서인계 행보는 서인계 행보는 1561년(명종 16) 상유사를 지낼 무렵 우계 성혼과의 만남이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노사예는 파주에서 성혼의 강론을 들은 바 있는데, 이후 성혼은 양홍주에게 “고향에 있는 盧某[노사예]는 사람 된 바탕과 성품이 純熟하고 여질다”며 칭찬하였다. 1579년(선조 12) 思庵 朴淳과 정철도 “一見極稱長者”라 하였으며 정철은 그를 童蒙敎官, 繕工監役 등에 천거하였다. 이후 노사예는 1584년(선조 17)~1589년(선조 22)까지 한 번 더 원장을 지냈다. 그러나 1589년(선조 22) 기축옥사가 일어났고 그는 더 이상 서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1594년(선조 27) 봄, 기축옥사의 주범인 정철을 공격하는 상소에 노사예가 소두로 추대되어 정철을 옹호한 것이다. (노사예, 『弘窩先生實紀』권2 「年譜略」 “嘉靖四十年辛酉先生二十四歲春報蜀南省路由坡州訪牛溪成先生講論數日成先生深加獎許—後成先生謂梁公弘澍曰爾鄉盧某資稟純熟君可歸而觀善云”)

7) 김봉곤, 「15, 16세기 지리산권(남원·함양) 사족의 혼인관계와 정치·사회적 결속」, 『역

정흥서의 이러한 입장은 그의 혼반 관계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흥서는 순창의 남원양씨 가문과 혼반을 맺고 있었는데⁸⁾ 이 남원양씨는 남원 내 서인계였던 삭녕최씨와도 혼반이 형성되어 있었다. 특히 흥서의 처부 양사형의 처남은 1583년(선조 16) 동인이 을곡 이이를 비판할 때 이이를 옹호했던 崔尙重이었다.⁹⁾

이처럼 정흥서와 정인홍 문인과의 갈등은 광해군 즉위 이후 정여창의 종사 문제로 이어졌다. 이는 정여창의 장자 희직의 후사가 庶子인 如山으로 이어지면서 차자 쪽에서 종사를 모셨기 때문이다. 여산의 후손들은 서자였지만 정여창 사후 묘표를 주관하는 등 정여창의 직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¹⁰⁾ 또 희직의 증손 정흥례는 조식의 서자인 曹次磨[1557~1639]와 혼반을

<표-1> 정여창의 장남 희직 가계도



사학연구』49, 호남사학회, 2013. p.94.;노사예, 『홍와선생실기』 부록, 「연보」

정흥서는 정인홍, 『來庵集』 「문인록」에도 이름이 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정인홍 문인들과는 결별한 것으로 보인다.

- 8) 희직의 후손들은 본래 함양 내 풍천노씨, 나주임씨 등과 혼반을 형성하다가 정흥서대부터 전라도로 혼인권이 확대되었다. 흥서의 여동생은 남원의 대표사족 남양방씨 방원진과 혼인하였다.
- 9) 처부는 盧禎과 柳希春 문하에서 수학한 楊士衡이다. 양사형은 순창의 남원양씨 가문으로 임진왜란 당시에는 의병으로 창의하여 원종공신 2등에 녹훈되기도 하였다. 최상중 역시 유희춘에게 수학했으며 1583년(선조 16) 성균관의 호남 유생을 이끌고 李珣를 伸救하기 위해 상소를 올린 바 있다. 이후 삭녕최씨 최상중 가문은 서인으로 자정하게 되었다. (김봉근, 앞의 논문(2013), p77.; 김봉근, 「智異山圖(南原)土族 朔寧崔氏家系記錄과 通婚圖」, 『고문서연구』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p.153.

맺으면서¹¹⁾ 지역 내 남명 문인들과도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광해군 대 대북정권의 핵심인 정인홍이 정여창의 묘표명¹²⁾을 쓴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묘표명에 정여창의 2남 4녀 중 장자 희직과 4녀만 기록하고 차남계열은 누락한 것이다. 이는 앞서 정홍서와 정인홍 문인과의 갈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묘표명에는 희직이 후사가 없어 양인으로부터 여산을 낳았는데 희설이 정여창의 제사를 주관하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종사 문제와 관련하여 『하동정씨문헌공파보』에는 희직이 죽은 후 희설이 奉宗祀하였다고 하며 『일두집』에는 “四世의 大宗을 서자에게 전할 수 없으므로 희직이 임종할 때 아우 희설에게 부탁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광해군 대 여산의 손자 원례가 정인홍, 이이첨에게 청탁하여 문헌공의 宗統을 빼앗으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¹³⁾ 정홍서의 『松灘集』을 토대로 사건을 정리하면, 서자였던 원례는 먼저 이이첨으로부터 서얼 신분에서 허통, 유학이 되고 동반 정직을 제수 받았다. 이후 자신의 모계를 속이고 차자 측이 양자를 들여 종사를 이음이 부담하다는 상언을 올렸다. 차자 희설은 후사가 없어 종질 언남을 양자로 삼았는데, 사촌으로 대를 잇게 한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었다.¹⁴⁾

이에 홍서는 원례의 모계에 대해, 증조모는 학생 韓算의 딸로 되어 있으나 양인 閒山の 딸이며, 조모는 함양의 勸農 不古殺의 딸이라고 하였다. 또 어머니는 孟氏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안음 水軍 孟云同의 딸이라고 상언하였

10) 『河東鄭氏文獻公派譜』 여산의 3子 桂壽[1566~?, 초명 季壽]는 묘표를 주관하였고 정여창의 신도비를 지으려고 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 외에 조카 원례는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받들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희직의 자손들이 정여창에 대한 추모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1) 「南冥先生從享疏軸」 “次石男晉明察訪次磨男敬明益明復明女適奉鄭興禮”(『고문서집성-덕천서원편-』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12) 정인홍, 『來庵集』 卷十三, 「一蠹 鄭先生墓表銘」.

13) 정여창, 『一蠹集』 附錄, 「世系源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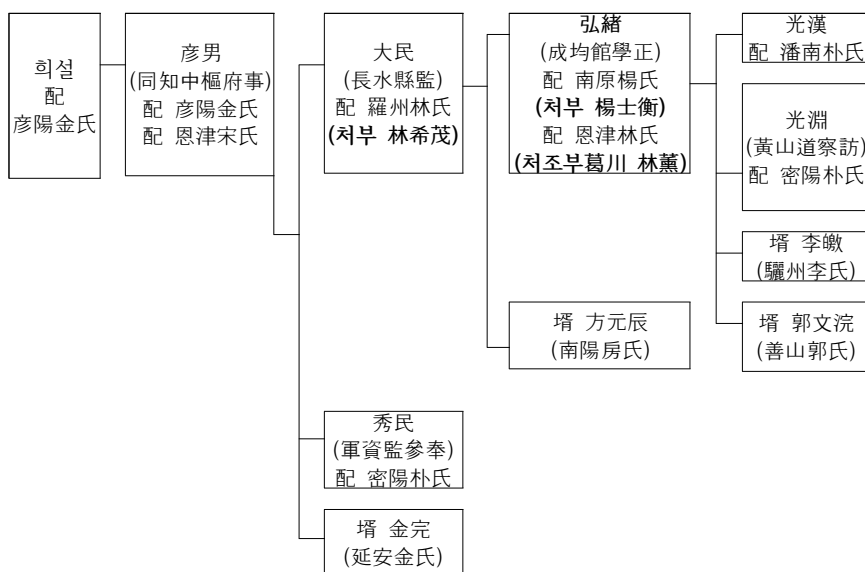
14) 정홍서, 『松灘集』 卷2, 疏 「請還宗祀疏」, 「禮曹立案」, 「呈營書」.

「청환종사소」는 계해년, 즉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직후에 올린 소이며 「예조입안」은 그해 6월 22일 예조에서 내린 입안이다. 「呈營書」는 1644년(인조 22) 당시 경상도 관찰사였던 林潭 재임 시절 감영에 제출한 것으로 원례의 아들 시호가 다시 상소하자 올린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 기록들을 토대로 사건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 그리고 이미 흥서의 3대 때부터 종사를 받아들여오고 있었으므로 양자로 가계를 이은 부분은 문제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서자의 자손들이 종사를 받드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였다. 이 갈등은 결국 인조반정 후 왕의 특명이 내려진 뒤에야 차남 측으로 복원되었다. 이후 원례의 아들 시호가 再疏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들은 출척·유배되었다.¹⁵⁾ 이후 정흥서는 대북에 반대하던 정온과 교유하였으며 선대의 묘갈명을 정온에게 부탁하는 한편 정온 사후에는 제문을 짓기도 했다.¹⁶⁾ 그리고 흥서의 후손들은 이후 서인으로 좌정, 노론화 되어갔다.

2. 서인으로의 좌정과 무신난 창의

<표-2> 정여창의 차남 희설 가계도



정흥서는 3남 2녀를 두었다. 장남 光漢[1588~1648]은 함양의 반남박씨 박

15) 『조선환여승람』 谷城 蔭仕 鄭元禮.

16) 정온, 『동계집』 속집, 「答鄭學正 弘緒」, 「士林祭文[鄭弘緒]」.

葳의 딸과 혼인하였고 둘째 光睨은 요절했으며 3남 光淵[1600~1667]은 안의에 거주하던 밀양박씨¹⁷⁾와 혼인하였다. 홍서의 1녀는 이언적의 증손 李鰲¹⁸⁾에게 출가했다. 증조가 회재 이언적인 만큼 영남 대표 남인 가문과 혼반을 맺었는데 이는 정여창, 이언적이 모두 문묘종사에 배향되었다는 공통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녀는 홍서와 은진임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선산 박씨 세거지인 충북 옥천의 郭文滄에게 출가했다. 광문완은 송시열의 외종 사촌 형이다.¹⁹⁾ 이처럼 전라도 사족들과 혼반을 맺은 홍서와 달리 그의 자녀들은 당색을 떠나 영남, 호서까지 광범위하게 혼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 가문이 대외적으로 서인을 표방하게 된 계기는 차남 광연이 우율 문묘종사에 가담하면서 부터였다. 당시 형 광한은 1633년(인조 11) 생원시에, 광연은 같은 해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그리고 2년 뒤인 1635년(인조 13) 광연은 동향출신으로 함께 합격한 朴以燾[1601~?, 반남박씨]²⁰⁾와 성균관 시절 우율 문묘 종사에 가담하게 된다.²¹⁾ 박이도 역시 우율 문묘 종사를 계기로 서인화한 것으로 보인다. 연대기 자료상, 경상도 내 우율 문묘 종사와 관련된 조직적 행동은 1650년(효종 원년) 경상도 유생 柳樓 등이 올린 반대소가 처음이었다.²²⁾ 이를 통해 볼 때 정광연과 박이도의 우율 승무 찬성은 굉장히 이른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자는 함양으로 돌아온 뒤 1635년(인조 15) 신계서원의 원생으로 지내게 된다.²³⁾ 이후 정광연은 신계서원 청액소를 작성하였는데, 소두는 삼척박씨 朴鳴震이며 우암 송시열이 筆削하였다. 신계서원은 1659년(효종 10)

17) 처부는 知足堂 朴明博로, 그는 1590년(선조 23) 급제하여 동계 정온과 함께 광해 연간 영창대군 사사 및 인목대비 유폐에 반대하다가 사헌부로부터 사판에서 삭제 당한 인물이다. (『광해군 일기』 1615년(광해 7) 2월 19일 기사.)

18) 여주이씨 양졸당파. 한강의 문인이다.

19) 善山郭氏大東譜所, 『善山郭氏大東譜』, 回想社, 1996, p.712.

20) 우율종사에 함께한 박이도는 하동정씨 가문과도 혼반이 형성되어 있었다. 박이도의 조부 박위가 광연의 형 광한의 처부이다.

21) 정광연, 『滄州遺稿』卷3, 「牛栗兩先生從祀時辨誣疏」.

22) 『효종실록』 효종 1년 2월 22일.

23) 「維崇禎十年歲次丁丑十二月乙未朔十四日戊申 咸陽新溪書院院生 朴以燾, 盧亨運, 朴以燾等謹菲薄之 奠敢昭告于」(인동장씨 여헌종택 소장 문서,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唐洲書院’으로 사액을 받음으로써²⁴⁾ 지역 내 서인계 서원으로 위상을 높여 갔다.

효종대가 되면 정광연과 박이도 역시 남계서원에 출입하게 된다. 특히 1658년(효종 9) 박이도는 남계서원의 원장을 지냈으며²⁵⁾ 정광연 역시 비슷한 시기 『원록』에서 확인된다. 즉 성균관에서 돌아온 직후에는 신계서원을 출입처로 삼다가 효종 연간부터 남계서원을 출입한 것이다. 특히 박이도가 남계서원 원장을 지냈다는 것은 이 무렵 남계서원의 서인화 역시 상당부분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광연의 서인계 행보는 이후에도 계속된다. 그는 梁弘澍의 손자 梁用濟를 사위로 맞았는데, 1603년(선조 36) 정인홍이 기축옥사의 배후자로 성혼을 지목했을 때, 양홍주는 성혼의 문인임을 자처하여 회가출향 당한 바 있다. 또 용제의 아버지 梁橈 역시 김장생의 문인으로²⁶⁾ 그의 묘소가 함양 지곡면 공배리에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양홍주와 장자 계열은 타향으로 떠나고 이들은 함양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²⁷⁾ 양홍주의 손자를 사위로 맞이했다는 것은 하동정씨 가문이 서인에 밀착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1728년(영조 4)에 일어난 무신난은 이 가문이 노론계임을 알리는 결정적 사건이었다. 무신난은 경종 즉위 후 정치적 우위를 점했던 소론이 영조 즉위와 함께 노론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일어났다. 당시 朴弼顯, 李有翼 등 소론 강경파는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있던 일부 남인과 합세, 영조 즉위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난을 일으켰다. 난의 주도층은 당론을 바탕으로 자파 세력을 선별하였고 우도에서는 鄭希良이 가담하였다.²⁸⁾

정희량의 반군은 3월 20일 기병하여 안음·거창을 점령, 3월 28일 거창에서 함양을 통과해 전라도 경계를 넘으려고 하였다. 이에 함양군수였던 朴思

24) 노진, 『玉溪集』 속집 卷之四, 「新溪書院請額疏」 “疏頭進士朴鳴震製疏察訪鄭光淵筆削宋尤菴時烈”; 『효종실록』 효종 10년 윤 3월 28일.

25) 『고문서집성 24 -남계서원편-』 「經任案 下」 1651년(효종 2), 1658년(효종 9), 1671년(현종 12)의 『경임안』과 『원록』

26) 김장생, 『沙溪全書』 권47 附錄 「문인록」.

27) 『남원양씨용성군파대동보 문절공편』 제1권, 남원양씨용성부원군파대동보편찬위원회, 2018, pp.35-36.

28) 이재철, 앞의 논문(1986), pp60-62.

漢은 방어에 나섰으나 백성들이 모두 적과 내통하고 있어 실패하고 피신하였다. 이후 반군이 함양에서 철수하자 박사한은 다시 들어와 적을 따른 자들을 모두 처형하였다.²⁹⁾ 이처럼 당시 함양은 반군에 흡수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광연의 손자 熙運과 증손인 紹獻, 重獻, 尙獻, 師獻이 창의하였고, 형 광한 쪽에서는 증손 胤獻, 纘獻, 承獻과 鎭堽[술헌의 子] 등이 창의하게 된다.

이들은 반군이 함양으로 들어오기 전날인 3월 27일 군수 박사한에게 창의에 대한 방도 7가지를 진언하였다. 그리고 본 읍에도 격문을 보내 다음날 새벽 향교에 모여 창의하고 관군과 합세할 것을 제안하였다. 군수에게 진언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³⁰⁾

—각리의 상유사로 하여금 장정을 뽑고 안음 경계 요해처 陌亭과 거창 경계 요해처 葛嶺에 里任으로 하여금 장건하고 성실한 군관을 시켜 주야로 보살피 방어해야 합니다.

—병영과 진영 양영이 서로 향응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필히 배회하며 망설이는 태세에 빠져 괴로울 것입니다. 군율을 강하게 세워 엄하게 하고 조금의 틈도 없게 하며, 산음과 단성 양 읍에 격문을 보내 합세함으로써 討破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비치해둔 군기는 변란에 사용하고자 한 뜻이 있는바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언제 사용할 것입니까? 급박한 상황에 분급하여 사용하는 여하에 달렸습니다.

—병가에서 이기는 것은 강약과 허실이 수시로 변하는 법에 달려 있습니다. 군졸은 항상 성 중에 배치하여 적으로부터 방비를 해야 합니다. 낮에는 밖에서 연습하고 밤에는 안을 지켜 강하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응변이 가능한 장교를 가려 뽑아 그로부터 사람들을 먼저 지휘케 해야 합니다. 또 전의 일을 익히 알고 있는 장교 某某 등 15인을 위급한 일의 전령으로 삼고 진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淸책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모두 합하를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혹여 근심을 줄이는 방편으로, 군대의 사기가 꺾였다면 別加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을 살피 군졸을 撫恤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하고 사력을 다하는 것이 제일선무입니다.

29) 『영조실록』 영조 4년 3월 28일.

30) 정희운, 『東峯實記』 書 「上地主朴候思漢書戊申亮變時」.

一적진에 투속된 무리들은 만약 그 다스림을 느슨히 한다면 간사한 짓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먼저 겉으로 드러난 무리들을 엄히 형벌한다면 모두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니 인심을 하나로 묶어 그 나머지를 벌해야 합니다.

4월 26일 난이 진압되고 어사 박문수는 정희문 일가에게 還米 10석을 분급해줄 것을 유향소로 하달했다. 또 정희운의 포상과 녹용도 이루어졌다.³¹⁾ 그런데 7월 23일이 될 때까지도 시행 되지 않자 박문수와 본 읍·도 유생들의 정서가 이어졌고, 안핵사 吳光運·관찰사 閔應洙 등의 장계도 올라갔다. 결국 희운은 15년 만인 1743년(영조 19) 10월 30일 경기전참봉, 1745년(영조 21) 후릉참봉에 제수되었다. 그리고 1783년(정조 7) 공조좌랑에 증직되었다.³²⁾

이후 정광연의 증손 鄭重獻은 노론 李緯의 문인이 되었고 중헌의 조카 鎭望[1740~?]은 俞拓基와 이재에게 사사하였다. 이는 이재가 鄭世楨, 鄭熙運의 행장을 써준 배경이 되었다.³³⁾ 그리고 진망이 유척기에게 사사한 데는 1746년(영조 22)~1769년(영조 45)까지 유척기가 남계서원 원장을 맡았던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문은 이후 단성의 대표 노론계인 신안 영당[주자·송시열 배향]의 춘추향사 시 헌관으로 참여하는 등 인근 지역의 노론계 인사들과도 연대해 나갔다.³⁴⁾

Ⅲ. 남계서원의 노론화 과정

1. 향론의 분열과 남계서원의 복인화

31) 정희운, 『東峯實記』附錄「御史朴文秀關咸陽留鄉所文 戊申四月二十六日」, 「咸陽留鄉所報文」, 「觀察使 朴文秀 狀啓」.

32) 『승정원일기』 영조 4년 7월 23일 기사.

33) 이재철, 앞의 논문(1986), p.24.

34) 『新安影堂經任錄』, 이 가문에서는 鄭友民[자 德川, 생 癸亥, 戊辰 추향], 鄭汝鉉[자 泗鉉, 생 庚申, 庚午 춘향], 鄭宇鉉[자 聖夫, 생 己巳, 戊寅 추향], 鄭孝鉉[자 百源, 생 庚戌, 甲申 3월 祝], 鄭道鉉[자 敬夫, 생 乙未, 辛丑 3월 15일], 鄭庸鉉[자 子中, 생 戊申, 癸卯 3월 15일 執禮]이 참여하였다. (경상대학교문천각 남명학교문헌시스템)

함양은 정여창의 고향이지만, 사후 50년이 되도록 그를 제향한 서원은 설립되지 못했다. 이에 1552년(명종 7) 강익의 주도 아래 朴承元, 盧祿, 鄭復顯, 林希茂 등이 참여하여 서원 건립이 시작되었다.³⁵⁾ 이들은 鄭希輔[1488~1547]의 문인이자³⁶⁾ 향안 입록과 사마재 건립 등을 주도하며 향촌을 영도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남계서원 건립까지 주도하였다. 건립초기 남계서원의 운영 주체들은 『經任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표-3> 명종~선조 연간 경임안 명단

연대	院長	有司	典穀有司
1552년(명종7)~ 1567년(명종22)	姜翼	盧士豫 [1556~1567]	梁弘澤[1556~], 林希秀[1556~1563]
1567년(명종22)~ 1568년(선조1)	盧祿	林希秀 [1567~1569],	鄭棄[1566~1572]
1569년(선조2)~ 1573년(선조6)	盧士訓	河孟寶 [1569~1573]	林希榮[1572], 趙大忠[1569~1574]
1573년(선조6)~ 1578년(선조11)	鄭摯	盧士佻 [1573~1577]	盧士溫[1574], 崔應會[1574~1576], 盧士齊[1574~1576], 姜渭老[1576~1578], 趙光立
1578년(선조11)~ 1581년(선조14)	盧士豫	朴 +++選 [1581]	趙安性[1578~1581], 河季寶[1579~1580], 朴汝櫟[1579~1581], 鄭慶雲[1580~1582], 鄭淳[1581~1582], 河悌[1581~1582],
1582년(선조15)~ 1584년(선조17)	河孟寶	盧士誨 [1582~1585]	趙光遂[1582~1585], 朴泓[1582~1583], 林濟民[1583~1585]
1584년(선조17)~	盧士豫	禹致績	許賓[1585~1587],

35) 『고문서집성24-남계서원편』 「瀞溪書院誌」 권1 書院事實.

36) 이 외에 함양 출신으로 梁喜[양흥주의 父], 盧祿[노진의 弟], 都希齡, 양흥택, 禹績, 鄭摯 등이 있다. (정희보, 『唐谷鄭先生實記』 下 「諸賢讚述」.; 이영숙, 「玉溪盧禎研究」,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6.)

1589년(선조22)		[1585~1589]	河悌[1585~1587]
1589년(선조22)~ 1593년(선조26)	河孟寶	*院貳 忠義 衛 趙安性 [1589~1593]	林澤民[1587~1590], 柳夢龍[1587~1590], 李銓[1590], 姜渭璜[1590~1592], 金得鎔[1591~1592], 盧胤[1592~1594], 陳慶胤[1592]
1594년(선조27)~ 1598년(선조31)	盧士尙	鄭慶雲 [~1603]	姜應璜[1595~1597], 梁桂[1599~1602], 梁弘胤[1599]
1600년(선조33)~ 1603년(선조36)	盧士佻		趙世絕[1602년]
1603년(선조36)~ 1604년(선조37)	前縣監 盧士誨	盧胄, 姜縝 [1604~1605], 盧胤 [1605~1606]	趙應瑜[1602~1606년], 朴梓[1604~1607년]
1606년(선조39)	李維	鄭沃	朴文龜[1606~1607년]

<표-4> 명종~선조연간 가문별 원임 횟수

성관	임명횟수	성관	임명횟수	성관	임명횟수
풍천노씨	14	반남박씨	2	화순최씨	1
진양하씨	6	동래정씨	2	여양진씨	1
진주강씨	5	서산정씨	2	풍산류씨	1
나주임씨	5	진양정씨	1	죽산박씨	1
함안조씨	4	삼척박씨	1	하양허씨	1
남원양씨	3	성주이씨	2	미상	4

위 표를 보면 남계서원 운영에 풍천노씨의 비중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원장의 경우 강익 포함 盧祿, 盧士訓, 鄭摯, 盧士豫(2회), 河孟寶(2회), 盧士尙, 盧士佻, 盧士誨, 李維 등 총 10명 중 6명이 풍천노씨 인만큼 그 비중은 압도적이다.³⁷⁾ 이는 함양향안, 사마안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풍천노

씨 가문이 함양 내 유력 재지사족이었음을 시사한다.³⁸⁾

한편 1595년(선조 28) 11월부터 남계서원은 새로운 터[羅村]로 이건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진을 제향한 新溪書院과 충돌이 발생하였다. 당시에는 신계서원이 아니라 鄉賢祠로 불렸는데³⁹⁾ 남계서원과 향현사를 같은 곳으로 나란히 이건하는 것과 향현사의 위치가 노진 주향, 강익 배향에서 병향으로 변경되는 문제였다.

향현사는 정유재란으로 사우가 소실되자 남계서원 측에 위패를 잠시 모시고 있었는데, 나촌으로 이건되면서 향현사와 남계서원을 같은 곳에 옮기게 되었다.⁴⁰⁾ 『고대일록』에 의하면 1601년(선조 34) 11월 10일 兩祠宇의 터를 나촌으로 정하였는데⁴¹⁾ 노진의 사우와 정여창의 廟가 한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상접하자 갈등이 생긴 것이다.⁴²⁾

향현사는 임진왜란 당시 정경운이 행군하여 숙박했다거나, 군수가 향현사에서 군대를 점검했다는 기록,⁴³⁾ 임난 중 疏頭 鄭惟明 등이 향현사에 모여 소를 고쳐썼다는 기록⁴⁴⁾ 등을 통해 볼 때 전쟁 중 함양 사람의 공동체로도

37) 이 외에 나주임씨 林希秀는 강익과 함께 서원 건립에 참여했던 임희무의 동생이며 1582년~1584년과 1589~1593년까지 각각 전곡유사를 맡았던 林濟民, 林澤民은 임희무의 아들이다.

38) 『함양향안』권1에는 30개 성관(297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풍천노씨(67), 나주임씨(25), 진양하씨·남원양씨(23), 삼척박씨(17) 순이다.(박병련 외, 『남명학파와 영남우도의 사람』, 예문서원, 2004, p.73.)

『사마안』에 등재된 명종~선조연간 인물은 10개 성관(14명)이며 진주강씨·풍천노씨(각 3), 이외 안동김씨·성주도씨·나주박씨·삼척박씨·함양여씨·연안이씨·서산정씨·창령조씨가 각 1명씩이다.(윤희면, 「조선시대 경상도 함양 사마안 연구」, 『역사교육논집』제52집, 역사교육학회, 2014, p/16.)

39) 정경운의 『고대일록』에도 향현사라고 나오며 문경호, 『嶧陽文集』권4, 雜著「通諭咸陽士林」에도 향현사라 기록되어 있다. 또 정온, 『동계집』권3, 行狀「介庵姜先生行狀」에도 “만력 신사년(1581년, 선조14)에 고을 사람들이 사당을 건립하고 선생[강익]을 옥계 노 선생께 배향하였다.…처음에는 滄洲에 건립했던 것을 중간에 나촌으로 옮겼다가, 뒤에 신계로 옮기고 나서 이름을 신계서원이라고 하였다.”라고 한다.

40) 이정희, 앞의 논문(1994), p.47.

41) 『고대일록』 권3 임인년(선조 34)11월 10일.

42) 문경호, 『嶧陽集』권4, 雜著「通諭咸陽士林」“玉溪之祠與一蠹先生廟同時一牆之中不惟棟宇相接門牆”

43) 정경운, 『고대일록』, 1592년(임진) 6월 18일, 8월 16일

44) 학봉 김성일이 경상좌도 감사가 되어 우도를 떠나게 되자 이를 만류하는 상소이다. 합천, 초계, 삼가, 의령, 진주, 단성에서는 진사 박이문(朴而文)이 소두(疏頭)가 되고,

인식되었던 것 같다. 그런 향현사를 남계서원과 나란히 이건하려 하자 노진의 후손들은 열읍에 통문을 보내며 이를 저지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덕천서원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文景虎의 문집에 보면, ‘남계서원이 새로운 터로 이건하는 것을 사람과 모의하지 않은 점’, ‘노진의 향현사와 나란히 한 곳에 이건하는 점’을 비판하고 있었다. 그리고 덕천서원에서는 남계서원을 옛터에 짓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⁴⁵⁾ 당시 함양의 수령 역시 재차 서원 이건자들을 불러 옛터에 지을 것을 통보했다.⁴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5년(선조 38) 남계서원은 나촌에 이건을 완료하고 3월 12일 위판봉안식을 거행했다. 이건을 결정하고 10년 만의 일이었으나 모인 사람은 40여 명 밖에 되지 않았다.⁴⁷⁾ 일례로 이 해 8월 삼가현의 용암서원에서 남명의 위패 봉안식이 있었는데 100여 명의 선비들이 참가했다는 것⁴⁸⁾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또 향현사의 위차문제에 있어서 강익의 후손과 문인들은 이전부터 불만이 있었고 이에 정구에게 품의하여 병향의 의견을 받게 된다. 정인홍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이에 노진 주향 측은 정구, 정인홍까지 비난하였고 이는 정인홍 문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주향을 주장한 이는 河愾(하맹보)·[子], 이유, 정옥, 禹熙吉, 盧胄, 盧肱, 盧胥, 朴文模, 박문귀, 河悌, 趙世纘, 盧士諗, 盧脊 등이다. 이들은 정인홍의 문인인 정경운이 ‘盧玉溪(노진)가 정철과 함께 깨끗하고 의로움을 겸하여 서로 表裏가 되었다’라는 말을 정인홍에게 고하였다며 정경운을 비방하였다.⁴⁹⁾ 즉 정인홍 문인들이 노진 주향 측을 서인계 정철과 연결시킴으로써 향후 복인과 서인의 대립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인 것이다.⁵⁰⁾ 당시 주향 측 인사들도 『경임안』과 『원록』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어 남

거창, 안음, 산음, 함양에서는 진사 정유명이 소두가 되었다. (정경운, 『고대일록』, 1592년(임진) 8월 21일; 김성일, 『학봉집』 부록 2, 행장.)

45) 문경호, 『嶧陽集』권4, 雜著「通諭咸陽士林」.

46) 정경운, 『고대일록』, 1595년(을미) 11월 14일, 11월 23일.

47) 정경운, 『고대일록』, 1605년(을사) 3월 12일.

48) 구진성, 「龍巖書院운영주체들의 활동과 그 지향에 대한 일고찰 -17세기 초반의 德川書院·新山書院과 비교하여-」, 『남명학연구』39권,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3, p.79.

49) 정경운, 『고대일록』권4, 무신년 정월 4일.

50) 남계서원과 신계서원의 마찰에 대해서는 윤희면, 앞의 논문(2008), 383쪽~391쪽 참

계서원 내 분열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논란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던 前縣監 河應圖를 원장으로 추대하고 원규를 새로 만들면서 일단락되었다. 노진 주향 측은 노진의 위패를 집으로 가져갔으며⁵¹⁾ 1651년(효종2) 『원록』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완전히 신계서원으로 출입처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⁵²⁾

하응도는 1606년(선조 39)~1610년(광해군 2)까지 원장을 지냈으며 그와 함께 유사를 맡은 강린, 정운, 하제, 강응황은 모두 정인홍의 문인⁵³⁾이었다. 이후 광해군 대 남계서원은 남명학파의 결집처이자 북인계 성향을 강하게 띠게 된다. 이는 『경임안』을 비롯, 『원록』의 인적 구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원록』을 보면 원생의 지역적 범위가 경상우도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액서원으로서의 위상과 남명학파의 본거지로서 대표 출입처가 된 것이다.⁵⁴⁾

다만 선조 연간까지 원임은 함양 재지사족이 중심이 된 반면, 광해군 대에는 타 지역 출신도 원임을 맡고 있었다. 1606년(선조 39)~1610년(광해군 2)까지 원장을 지낸 하응도는 진주, 유사 정운은 안의였다. 그리고 1611년(광해군 3) 원장을 지낸 이대일은 거창 출신인 만큼 타 지역 출신들도 서원 운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해군 대는 자료의 한계로 서원의 실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문경호의 『역양집』에서 서원 운영상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1617년(광해군 9) 문경호가 함양 사람에게 보낸 통문⁵⁵⁾에 의하면, 남계서원이 춘·추 향

고. 한편 노진 주향을 주장한 쪽을 구파, 강익의 진주강씨 쪽을 신파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신파 측에서는 경상우도의 학통을 김광필·정여창·조식·정인홍으로 이어짐을 내세우며 정인홍이 내세운 병향을 강조하였다. (홍순민 외, 『조선시대사-국가와 세계』1, 도서출판 푸른역사, 2015, pp.141-142.)

51) 『고대일록』 권4, 병오년(선조 39년) 10월 8일.

52) 1651년 원록에 수록된 풍천노씨 인물들은 노사온의 손자 亨震·亨鼎·亨重, 노사예의 손자 亨遠·亨造, 노사소의 아들 論, 노사훈의 손자 亨達, 노사회의 손자 亨後, 노사상의 손자 亨至, 노사소의 손자 亨履·亨大, 노우명의 동생 盧友英 계에서는 노사충의 손자 亨哲, 노사위의 손자 亨慶 등이다. 노진 주향 측인 盧士諄, 盧胄, 盧肱, 盧尙, 盧脊 계열은 확인되지 않았다.

53) 이상필, 앞의 논문(1998), pp.111-113.

54) 정구[성주], 李光友·曹應仁[합천], 朴而章·朴廷璠·金應成[고령], 李大期[초계], 文景虎[야로], 文緯[거창] 등이다.

사에 있어 집사나 예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합천의 용암서원 원장을 지낸 문경호는 남계서원이 별도로 新規를 세우고 용암서원의 예에 따라 거창 1읍의 선비들을 서원 향사 시 집사에 속하게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당시 우도에서 남명을 제향한 용암·덕천·신산 세 서원은 원록에 遠近을 나누지 않고 참여하고 있으며 용암서원은, 삼가·합천 양 읍의 선비들을 향례 시 집사로 선정하고 있었다. 집사 선정 방법은 양 읍의 향교에서 춘추대제를 지낼 때 각 읍의 원생 중 15인을 서원 집사로 정하고 별도로 명단을 서원에 보내주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남계서원 역시 이를 준용하여 당시 원장인 정경운에게 상유사는 尹信男으로 삼고, 함양 유사 1員은 원장이 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윤신남의 거주지 역시 거창이었다.

즉 대다수 복인이었던 우도 사림들에게도 남계서원은 복인계 서원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용암·덕천·신산서원은 대표적인 복인계 서원으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원록에 원근을 나누지 않고 여러 지역 유림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아마 남계서원 『원록』에서 원생들의 지역적 범위가 확대된 것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우도 사림들은 용암·덕천·신산서원과 함께 남계서원을 출입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타 지역 인사가 집사를 지낼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남계서원의 향사가 용암서원의 예에 따라 시행이 되었는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알 수 없다. 다만 남계서원의 향사가 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남계서원은 나촌으로 이건하는 과정에서 신계서원과 갈등이 있었고 결국 1615년(광해군 7) 원래의 터로 옮기게 되었

55) 문경호, 『嶧陽集』권4, 雜著「通諭咸陽士林」“故藍溪之院則每於春秋享祀。執事無形。無以成禮。此在吾士林中。實莫大可愧事。誠不忍使聞於他。不得已今與僉尊。更議處置。別立新規。略放此龍巖書院之例。以居昌一邑士子。專屬此院享祀執事。不知諸賢以爲如何也。惟此龍巖德川新山三書院。亦我南冥曹先生享祀所。院錄之員。不分遠近。苟有從事於儒林。皆許參錄。而獨以春秋享祀執事。或慮有不齊之虞。故龍巖則特以三嘉陝川兩邑士子稍可與共爲執事者。皆許院錄。兩邑鄉校。每於春秋大祭之會。以邑中院錄諸員。各定院享執事十五員。以所定諸員姓名。別書一紙。待院享之時。各委送院中。此龍巖久遠之式也。今聞以鄭慶雲爲院長。此中公論。又以尹君信男爲上有司。咸陽有司一員在院長之所擇定耳。”

다.⁵⁶⁾ 그리고 2년 뒤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이건 후 완전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또 남계서원이 중건되기 전인 1609년(광해군 1) 이미 용암·덕천·신산서원이 모두 사액을 받는 등 우도 내 조식을 제향하는 서원도 늘어나고 있었다. 이에 우도 내 유림들이 분산되면서 향사 참여자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선조 대 남계서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풍천 노씨 일부가 신계서원으로 옮겨간 것 역시 집사 구성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도 있다.

2. 서인계 가문의 참여 확대

인조반정으로 복원이 실각하자 남계서원 역시 자구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1634년(인조 12) 신계서원에서 노진과 강익의 병향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에 남계서원은 강익이 초창기 건립과 운영을 주도하였으므로 정온에게 품정하여 남계서원 별묘에 제향하기로 결정하였다.⁵⁷⁾ 그리고 정온 사후 1년 뒤인 1642년(인조 20) 정온과 俞好仁도 별묘에 병향하였다. 정온은 광해군 대 폐모살제에 반대한 인물이자 반정 후 대북으로부터 절의를 지킨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다.

이후 효종 연간 서원의 원임은 『경임안』에 남아 있지 않고 『원록』에서 극소수 확인되고 있다.⁵⁸⁾ 특히 1658년(효종9) 원장을 지낸 반남박씨 박이도는 전술한 바 정광연과 함께 우율종사에 참여한 인물이다. 같은 해 유사였던 삼척박씨 박명진 역시 앞서 언급한 대로 1635년(인조 13) 성균관 시절 신계서

56) 문경호, 『嶧陽集』권4, 雜著「通諭咸陽士林」“往在乙卯春經始改築公私齊力廟貌重新香火有所幸莫大焉”에 따르면 1615년(광해군 7) 남계서원이 이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天嶺誌』 瀞溪書院 “萬曆丁酉爲倭寇所焚後移設於羅村 壬子萬曆四十年光海四年重建于舊址”와 『남계서원지』에 따르면 1612년(광해군 4) 이건한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는 당대 기록인 『嶧陽集』에 따라 이건 시점을 1615년(광해군 7)으로 보았다.

57) 『고문서집성24-남계서원편』 「瀞溪書院誌」권2, 別廟事蹟.

58) 「辛卯二月二十日 院錄修定」, 「戊戌二月二十日院錄修定」. 『경임안』에서 누락되었던 1651년(효종2) 원장 梁樞, 유사 姜汝載, 1658년(효종9) 원장 朴以燾, 유사 朴鳴震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원 청액소의 소두를 맡았다.⁵⁹⁾ 박명진이 성균관에서 수학한 시절은 정광연, 박이도가 성균관에서 우을 승무소에 찬성한 때였다. 아마 박명진 역시 이 시기 서인계로 기울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서인계 성향을 지녔던 이들이 원장·유사를 맡았다는 것은 과거 북인계였던 남계서원에도 점차 서인계 인사들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⁶⁰⁾ 이후 이들의 후손 역시 『경임안』에서 확인된다.

숙종 대로 접어들면 서원 운영에도 큰 변화가 나타난다. 우선 <표-5>를 통해 숙종 대 남계서원의 원임 구성을 살펴보자. 일단 기존 원장·유사·전곡유사 체제가 원장·도유사·유사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685년(숙종 11)부터 군수가 7차례, 현감이 1차례 원장을 역임하였다.⁶¹⁾ 이는 인조반정 후 서원 측이 실세를 만회하고 향촌사회에서의 지위 향상을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⁶²⁾ 또 과거 비중이 크지 않았던 남원양씨·반남박씨·삼척박씨·하동정씨 가문의 참여도 확인된다.⁶³⁾ 이 역시 인조반정 후 북인의 몰락으로 향촌을 주도하던 재지사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남원양씨의 경우 남인계와 서인계가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남원양씨에서 양천익은 1686년(숙종 12) 강익의 문집 간행 및 기사환

59) 박여량, 『感樹齋先生文集』 권8, 「附思庵公實錄」.

60) 이밖에 이 시기 『원록』에는 하동정씨 정광연을 비롯하여 박이도의 형제들인 朴以熙·朴以熟·朴以然, 박문영의 아들 朴以赫과 이혁의 아들 朴尙圭·崇圭 등 반남박씨의 입록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었다. 박상규의 경우 李緯가 찬한 묘갈명이 전하고 있어 향후 이들 가문이 서인·노론화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박송규는 중복계열이던 무민당 박인의 문인이었으나 1703년(숙종 29) 안음의 노론계 거창신씨가 성천서원을 건립하고 청액을 요청할 때 참여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들 壽泰가 하동정씨 정세정의 딸과 혼인하였다.

61)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인조반정 후 북인세력이 몰락하면서 광해군 대까지 독립·독자적으로 향촌의 자치기구 역할을 하던 남계서원이 그 자치성과 경영에 있어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강상택, 「조선 중·후기 서원 발달에 관한 연구-현 경상남도 지방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제59집, 국사편찬위원회, 1994. pp.237-238.)

62) 이수환, 앞의 책(2001), p.129.

63) 남원양씨 17회, 반남박씨 12회, 삼척박씨 10회, 하동정씨 9회, 선산김씨 8회, 진주강씨 6회, 풍천노씨·성주이씨·진양하씨 각 5회, 나주임씨·하양허씨 2회, 안동권씨·풍산류씨·동래정씨·여양진씨 각 3회, 무안박씨·거창신씨·함안조씨·화순최씨·신창표씨 각 1회, 미상(朴聖中, 邊海翼) 순이다.

<표-5> 숙종 연간 남계서원의 원임

기간	院長	都有司	有司	비고
1683년(숙종9)		陳聖謨, 愼處中, 梁天翼, 柳潤河, 梁堧	朴廷佑, 姜碩徵, 朴尙禮, 金增	
1685년(숙종11)~ 1687년(숙종13)	郡守 沈轍	鄭世禎	朴廷懿	
1687년(숙종13)~ 1688년(숙종14)	朴崇圭	梁道濟, 盧潁, 柳光河	梁重基, 鄭厚慶, 鄭熙道, 許葦, 梁雲翼	
1689년(숙종15)~ 1690년(숙종16)	梁城	鄭熙章, 梁汝翼	朴重昌, 朴壽泰, 柳後元, 朴文熙	
1691년(숙종17)~ 1692년(숙종18)	鄭世楨	朴重圭, 權萬績	朴泰震	기사환국 이후 남인 집권기
1692년(숙종18)~ 1693년(숙종19)	縣監 河世元	盧潁, 朴壽齋, 金明厦	朴廷綸, 朴桓圭, 趙梓, 朴廷稷	
1694년(숙종20)~ 1697년(숙종23)	金薛	鄭熙載, 盧濯	金礪, 許碩祚, 林世厚, 朴桓圭, 李葵	
1698년(숙종24)~ 1699년(숙종25)	郡守 金鏜	梁汝翼	許著	
1701년(숙종27)	生員 梁天翼	姜以遇, 河鎰	林泰秀, 朴聖中	
1702년(숙종28)~ 1706년(숙종32)	朴廷老	鄭國彬, 金相厦, 朴重熙	林碩亨, 朴重盛, 崔命厚, 林德亨	
1707년(숙종33)	郡守 李鼎華			
1708년(숙종34)	金葺			
1709년(숙종35)	郡守 鄭重基	李復陽	許楗	
1710년(숙종36)~ 1713년(숙종39)	朴壽一	盧潁, 姜志厚, 金鎮厦, 鄭熙道, 姜晉厚, 朴壽泰, 朴壽岐	鄭述獻, 鄭壽慶, 鄭熙運, 權熙, 河鉉, 梁重賁, 朴季亮, 陳處大, 李敏	
1714년(숙종40)~ 1715년(숙종41)	盧世鳴, 權萬績	金昌厦	河鉉, 梁重亨, 梁義揆	
1717년(숙종43)	姜謙厚	陳遇厦	李弼+父, 河鉉, 梁重瑗, 姜東載	

1718년(숙종44)	郡守 洪禹傳	梁錫命, 河鐸	朴泰亮, 朴師義, 邊海翼	
1719년(숙종45)	郡守 李洙		表齊華, 梁重翼, 鄭重獻	
1720년(숙종46)	郡守 洪禹采	梁重謙	李萬雄, 梁重泰	

국 후 남인 집권기에 강익의 본원 승향을 주도한 인물이다.⁶⁴⁾ 반면 1687년(숙종13) 도유사였던 양도제는 김장생 문인이었던 양원(양홍주 2子)의 아들이다.

하동정씨의 경우 주향자의 후손임에도 이전까지는 확인되지 않다가 숙종대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는 선조연간 정홍서와 정인홍 문인간의 갈등으로 인해 복인계였던 남계서원에는 출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임을 지낸 하동정씨 인물로, 먼저 정세정은 정광연의 2子이다. 1691년(숙종 17) 원장을 지냈으며 그의 아들 鄭熙道는 1687년(숙종 13) 유사를 지냈다. 정광연의 종손 鄭熙章·鄭熙載도 각각 1689년(숙종 15), 1694년(숙종 20) 도유사를 지냈다. 이후에도 하동정씨 가문에서는 정희도·정희운·정중헌(희운 子)·鄭述獻(희재 子) 등이 꾸준히 도유사와 유사를 맡으며 서원 운영에 개입하고 있었다.

한편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양천익은 윤 3월 9일 강익의 본원 승향을 위한 상소를 올렸다.⁶⁵⁾ 그리고 약 6개월 뒤인 9월 19일 강익의 본원 승향이 이루어졌다. 당시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명종 때의 名儒 강익은 학문이 醇正하고 행실이 독실하며 문헌공 정여창의 道脈을 정통으로 전하였으니, 한 시대의 儒宗으로서 百代의 사표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흠모하여 제사를 지낸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鄉賢祠에 있고 정여창의 위패를 안치한 서원에는 배향하지 못하여 공론이 답답하게 여기고 선비들이 애석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액하는 것은 중대한 일로 남모르게 祔享할 수 없으니, 특별히 생각하여 추락한 은전을 속히 거행하여 강익을 남계서원에 陞配

64) 『남원양씨용성군파대동보 문절공편』에는 양천익의 아버지 梁泰濟를 정온과 하홍도의 제자로 기록하고 있다.(『남원양씨용성군파대동보 문절공편』, 2018. p.28.)

65) 『승정원일기』 1689년(숙종 15) 윤 3월 9일. 「鄭汝昌의 道脈을 이은 姜翼을 藍溪書院에 배향할 것을 청하는 梁天翼 등의 상소」.

하게 하소서.⁶⁶⁾

이처럼 숙종 대 남인집권기 강익의 승향조치를 두고 서원의 남인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원임 구성에는 일정부분 차이가 있었다. 남인집권기 원임의 가문별 비중을 보면, 반남박씨-삼척박씨-하동정씨·남원양씨 순으로 확인되었다.⁶⁷⁾ 반남박씨는 우율종사에 찬성했던 박이도의 자손들과 향후 김장생 종향 승무소에 찬성한 박수재, 박수태였다. 다음 삼척박씨는 전술한 바 신계서원 청액소두 박명진의 손자 박중창이 참여하고 있다. 남원양씨의 경우 선조 연간 원임을 했던 양홍택·양홍해의 후손들이 확인된다. 먼저 양홍택의 증손 梁城은 자료의 부족으로 그 성향을 알 수 없으나 아들 重庠부터는 김장생 종향 승무소에 가담하여 향후 서인계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양홍해의 증손 양여익은 양천익과 재종형제간이며 여익·천익의 후손들은 서인화 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⁶⁸⁾ 따라서 남인 집권기 남계서원은 서인계와 남인계가 혼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1694년(숙종 20)과 1701년(숙종 27) 김장생 종향 승무소에 가담했던 인사들이 원임에 상당수 확인되어 서인계 가문의 참여 비중도 점차 확대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함양에서는 하동정씨, 남원양씨, 반남박씨, 선산김씨 가문이 승무소에 가담했는데⁶⁹⁾ 이중 남계서원 원임을 지낸 인물로는 정

66) 『서원등록』 1689년(숙종 15) 9월 19일 기사. 「남계서원(濫溪書院)에 강익(姜翼)을 추배(追配)하는 건」.

67) 반남박씨[朴重圭, 朴壽齋, 朴壽泰(정세정의 사위), 朴桓圭], 삼척박씨[朴重昌, 朴廷綸, 朴廷穆, 朴泰震], 하동정씨[鄭世楨, 鄭熙章]·남원양씨[梁城, 梁汝翼], 진양하씨[河世元]·안동권씨[權萬績]·풍천노씨[盧澣]·무안박씨[朴文熙]·선산김씨[金明廈]·풍산류씨[柳後元]·함안조씨[趙梓] 순이다.

68) 1701년(숙종 27) 함양에 건립된 구천서원의 『龜川書院 經任案』에는 김장생 종향 승무소에 참여했던 梁錫命·梁重謙과 梁重唐 등이 확인된다. 이중 양석명은 양도제의 아들이며 양중당은 1726년(영조 2) 경상도 유학 권태두 등의 양송문묘 배향 상소에도 참여하였다. 이처럼 서인계였던 구천서원의 경임안에서 양여익·양천익의 후손은 확인되지 않았다.

69) 하동정씨에서는 鄭熙章, 鄭熙文, 鄭熙道, 鄭熙運, 鄭恒基가 참여했으며 남원양씨에서는 梁錫命, 梁重謙, 梁重庠, 梁重宇가 참여, 반남박씨에서는 朴壽岡, 朴壽齋, 朴壽泰, 朴壽鼎, 朴思亮, 朴壽鼎, 朴景亮이 참여, 선산김씨에서는 金簞, 金簞가 참여하였다. (전두한, 『聯芳集』 권9, 疏錄, 「沙溪金先生從享陸廡疏稟錄」.; 박대고, 『景陽齋集』卷4, 附錄下, 「沙溪金先生卞誣同疏錄」.)

희도, 정희운, 양석명, 양중겸, 박수태, 박수정이 참여하였다. 이후 남계서원은 노론계 가문이었던 하동정씨의 참여 비중이 확대되면서 자연스레 노론화 되어갔다.

3. 남계서원의 노론화

1726년(영조 2) 3월 26일 경상도 유학 權泰斗 등이 송시열·송준길의 문묘종사소를 올렸다. 이 유소의 연명자 중에는 함양 출신의 반남박씨, 남원양씨, 하동정씨, 나주임씨, 단양우씨 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경임안』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⁷⁰⁾ 이후 1728년(영조 4) 무신난 창 의와 1748년(영조 24) 2차 양송 문묘종사소의 소청이 함양에 설치된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지역은 노론세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⁷¹⁾

이러한 지역적 분위기에 기인하여 1743년(영조 19) 남계서원에는 이재를

<표-6> 남계서원의 경원장

기간	院長	기간	院長
1743년(영조 19)~ 1745년(영조 21)	李緯	1791년(정조15)	金履安
1746년(영조 22)~ 1769년(영조 45)	俞拓基	1799년(정조 23)~ 1807년(순조 7)	宋煥箕
1770년(영조 46)~ 1775년(영조 51) 1777년(정조 1)~ 1790년(정조 14)	金致仁	1808년(순조 8)~ 1840년(헌종 6)	南公轍
1776년(영조 52) 1792년(정조 16)~ 1798년(정조 22)	李敏輔	1841년(헌종 7)~ 1850년(철종 1)	趙寅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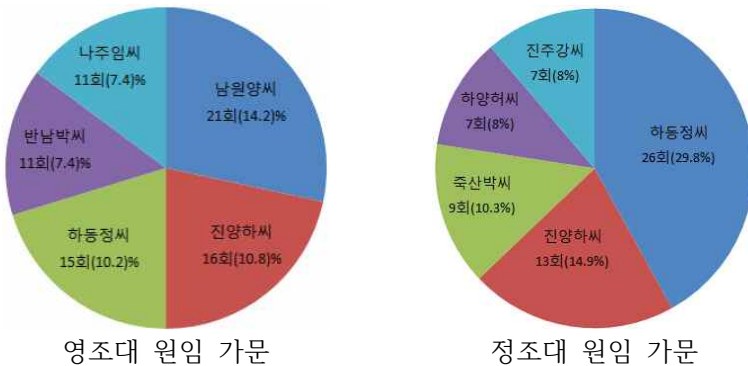
70) 『경임안』 내 남원양씨(梁義揆, 梁仁揆, 梁大揆, 梁震揆, 梁重謙, 梁重唐), 하동정씨(鄭述獻, 鄭熙運, 鄭重獻, 鄭承獻, 鄭紹獻), 반남박씨(朴壽鼎, 朴壽岐, 朴采亮, 朴齊亮, 朴師亮), 나주임씨(林士純, 林再新), 단양우씨(禹洪錫, 禹師疇) 등이 양송 문묘종사소에 참여하였다. (『승정원일기』 영조 2년 3월 26일 기사: 『濫溪書院經任案』.)

71) 『花山世稿』 권7, 菊軒實記, 「戊辰年伏閏日記」.

시작으로 京院長 제도가 채택되었다.⁷²⁾ 경원장 제도는 노론 전제 후 중앙과의 연결을 통한 영남서원의 생존책이었으며 집권세력의 입장에서는 영남 내 자파세력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 여기에 하동정씨 가문의 무신난 창의를 집권 노론계 인사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이후 유척기, 金致仁, 李敏輔, 宋煥箕, 南公轍, 趙寅永 등이 원장을 역임하면서 남계서원은 노론계 서원을 표방하였다. 이 가운데 초대 경원장인 이재는 그의 문인 정중헌과의 사승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중헌은 이미 1719년(숙종 45)부터 원임으로서 서원 운영에 간여하고 있었고, 이재는 원장직 수행 중 정여창 실기 重刊에 발문을 쓰기도 했다.⁷³⁾ 남공철은 조카 南周獻이 1808년(순조 8) 함양군수를 지낸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남계서원의 노론화는 다음 <그래프-1>과 같이 노론계인 하동정씨의 원임 비중이 확대되어 가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실제 영조부터 1899년(고종 36)까지 가문별 역임횟수를 보면, 27개 가문에서 총 402회 원임을 지낸

<그래프-1> 영조~고종대 남계서원 원임 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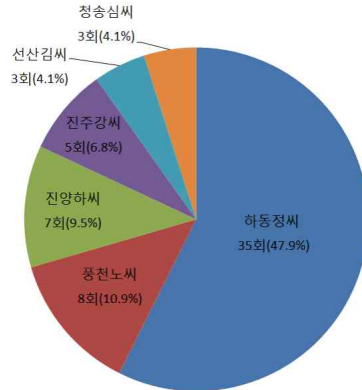


72) 초대 경원장인 이재는 그의 문인 鄭重獻과의 사승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중헌은 이미 1719년(숙종 45)부터 원임으로서 서원 운영에 간여하고 있었고, 이재는 원장직 수행 중 정여창 실기 重刊에 발문을 쓰기도 했다.(『一蠹集』권2 附錄「褒贈祀典」)

73) 정여창, 『一蠹集』권2, 附錄, 「褒贈祀典」.



순조대 원임 가문



현종~고종대 원임 가문

것으로 확인되었다.⁷⁴⁾ 이중 각 왕대별 역임 비중이 높은 5개 가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조 대에 원임을 지낸 가문은 21개 가문이며 역임 횟수는 총 147회였다. 이중 남원양씨-진양하씨-하동정씨-반남박씨·나주임씨가 전체의 50%를 차지하면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본래 숙종 대에는 남원양씨-반남박씨-삼척박씨-하동정씨 순이었으나 영조 대 부터는 하동정씨의 비중이 커지고 있었던 것이다. 또 반남박씨·삼척박씨의 비중은 감소하고, 진양하씨·나주임씨

74)

<표> 영조~고종 연간 가문별 원임 횟수

성관	임명횟수	성관	임명횟수	성관	임명횟수
하동정씨	104회	단양우씨	16회	안동권씨 성주이씨	각 5회
진양하씨	42회	반남박씨 삼척박씨	각 15회	여흥민씨	4회
동천노씨	27회	나주임씨	13회	남평문씨 초계정씨 청송심씨	각 3회
남원양씨	25회	부안김씨	10회	풍산류씨 완산이씨 진양정씨	각 2회
하양허씨 진주강씨	각 20회	선산김씨 여양진씨	각 9회	신창표씨 은진송씨 서산정씨	각 1회
죽산박씨	19회	전주최씨	6회	미상	20회

의 비중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정조 대에는 12개 가문에서 총 87회 원임을 지냈으며 하동정씨-진양하씨-죽산박씨-하양허씨-진주강씨 순으로 원임 비중이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조 대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던 남원양씨는 사라지고 죽산박씨, 하양허씨, 진주강씨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정조 연간 하동정씨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서원의 운영 역시 하동정씨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일례로 영조 대에는 하동정씨, 반남박씨, 진주강씨, 나주임씨 등 여러 가문이 비교적 고루 원임을 지냈다면, 정조 대에는 1779년(정조 3)부터 6년간 鄭鎭衡이 도유사를 연임하기도 했다. 그리고 같은 해 하동정씨 鄭德齊가 남계서원 묘정비의 비문을 노론계 金鍾厚에게 부탁하면서 함양 유림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당시 김종후가 성리학의 도통을 김장생, 송시열, 송준길 등 서인 인사들로만 열거하여 함양 유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김종후가 서원 건립에 간여한 사람으로 노진은 빼고 강익만 언급하자 노진의 후손 盧宣國이 도끼로 비문을 찍는 사건까지 발생했다.⁷⁵⁾ 이는 하동정씨 일문이 함양 유림들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한 까닭에 일어난 것이었다. 이 외에도 1796년(정조 20)부터 4년간은 鄭東民이 別有司를 지내면서 서원 재정에 관여하는 등 하동정씨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갔다.

순조 대에는 19개 가문에서 총 95회 원임을 지냈다. 이중 원임 비중이 높은 가문을 나열하면 하동정씨-풍천노씨-진양하씨-하양허씨-진주강씨-죽산박씨-부안김씨-선산김씨로 전체의 72%를 차지한다. 이 시기 특징은 앞 왕 대에 비해 풍천노씨, 부안김씨, 선산김씨가 더 추가되면서 다양한 가문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1819년(순조 19)까지 거의 매년 하동정씨가 도유사 또는 제유사를 맡았고 그 외에 진양하씨-하양허씨-진주강씨-죽산박씨-부안김씨-선산김씨 가문에서 나머지 원임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820년(순조 20)을 기점으로 남계서원에는 군수가 京有司를 맡기 시작했고 하동정씨, 풍천노씨, 선산김씨가 鄕有司를 역임하게 된다.⁷⁶⁾ 이후

75) 윤희면, 앞의 논문(2008), pp.394-395.

76) 1820년(순조 20)은 정여창의 종사를 되찾아온 하동정씨 정홍서를 남계서원 별묘에

향유사는 1823년(순조 23)~1830년(순조 30), 1832년(순조 32)~1834년(순조 34)까지 약 10년간 하동정씨와 풍천노씨만이 역임하고 있었다. 이는 1824년(순조 24) 함양 지역에 있었던 향전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함양에는 향안을 둘러싼 향전의 여파로 여섯 가문이 향안에서 할거해 갔으며 여기에는 鄭德澄, 盧光殷 등도 연관되어 있었다.⁷⁷⁾ 정덕징은 1812년(순조 12)부터 3년간 도유사를 지냈으며 노광은은 1823년(순조 23)부터 5년간 향유사를 지냈다. 이 영향으로 원임을 지낸 가문에 변화가 생겨 하동정씨와 풍천노씨만 원임을 지낸 것으로 추정된다.⁷⁸⁾

헌종~고종 대에는 11개 가문에서 73회 원임을 지냈다. 원임 비중이 높은 가문은 하동정씨, 풍천노씨, 진양하씨, 진주강씨, 선산김씨·청송심씨 순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이중 하동정씨는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1849년(헌종 15) 정환필 주도로 남계서원 風詠樓를 중건하는 등 남계서원 내 하동정씨 영향력은 더욱 커져갔다.

IV. 맺음말

함양의 하동정씨 정여창 가는 광해군 대 종사 문제를 두고 장남과 차남 계열의 갈등을 보였다. 당시 장남 측은 정인홍의 비호를 받고 있었으며 차남 측은 선조 연간 정인홍 문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그 반대편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인조반정 후에야 차남 계열로 정여창의 종사는 되돌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흥서의 아들 정광연은 성균관 시절 박이도와 함께 우을종사

배향한 해이기도 하다.

77) 呂東植, 「咸陽鄉案序」 “不幸近日鄉中有爭端案中六家後裔割去其累世先祖所題之名”: 「化民柳甲春河必濬盧錫備等誠惶誠恐頓首上書于」 “彼鄭德澄盧光殷金漢臣之貽辱其祖夷滅綱紀其無知妄作之狀固不足責之以士子之常例” (『고문서집성-남계서원편-』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78) 이 향전의 여파는 남계서원 院案을 수정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여섯 가문은 남계서원에 모여 원안을 할거, 또는 불 태우거나, 또는 그대로 두자는 등 여러 논의를 하였다. 「化民李春遇許 淑朴處東等謹齊沐再拜上書于」 “十月二十五日六姓會于濫院雖以破案聲言然或云割去或云燒火或云仍存而其言不一則其虛實未可知也.” (『고문서집성-남계서원편-』2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에 가담하게 된다. 또 함양으로 돌아온 뒤에는 남계서원과 대립하던 신계서원을 출입하고 양홍주의 손자 양용제를 사위로 맞이하는 등 서인계 행보를 보였다. 이후 이 가문은 무신난에 창의하여 공을 세움으로써 노론계 대표 가문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인조반정 이전 남계서원은 풍천노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 당시 이 가문의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계서원[향현사] 내 위차문제를 두고 풍천노씨 주향 측과 정인홍 문인 간의 갈등이 발생했고 이는 남계서원 내 분열로도 이어졌다. 결국 노진 주향 측은 신계서원으로 출입처를 옮기고 만다. 한편 남계서원 내 내암의 문인들은 양홍주가 성혼의 문인임을 자처했을 때 휘가출향을 주도했던 이들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시기 하동정씨 일문의 남계서원 참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조반정 후 복인의 실각으로 남계서원은 자구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함양 내 남아 있는 복인세력들이 자구책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 결과 남계서원은 인조 연간 정온과 강익, 유호인을 별묘에 배향하면서 남인화로 변모하게 된다. 하지만 효종연간 원장 박이도·유사 박명진을 통해 남계서원의 서인화도 일정부분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정광연도 『원록』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하동정씨 가문의 서원 출입도 시작되었다. 그리고 숙종 대에는 양천익이 강익의 본원 승향을 주도하는 등 남인계와 서인계가 혼재되어 있기는 했으나 대체로 서인계 가문의 비중이 우세했다.

이후 영조 연간 무신난을 겪으면서 남계서원에도 노론계 인사들이 경원장을 지내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은 무신난 때 창의한 노론계 하동정씨 가문의 참여 확대로도 이어졌다. 이에 숙종 대에 많이 참여했던 반남박씨, 남원양씨, 삼척박씨 등은 후대로 갈수록 감소하고 하동정씨의 압도적인 참여 속에 진양하씨, 풍천노씨 등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에 서원 운영 역시 묘정비문이나 풍영루 중건 등을 통해 볼 때 하동정씨 중심으로 운영되어 나갔다.

사실 18세기 이후 원임 가문에 대해서는 순조 대 함양에 있었던 향전과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향안을 둘러싼 향전의 여파로 남계서원 『원안』을 할거하자거나 혹은 불태우자는 의견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

존에 원임을 지냈던 가문이 순조 대에 보이지 않는 이유, 그리고 새로운 가문의 참여가 확인되는 점 등을 향전과 함께 살펴보면 남계서원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부분은 향후 연구과제로 두기로 한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 『광해군 일기』, 『효종실록』, 『영조실록』, 『조선환여승람』, 『서원등록』, 『조두록』, 『증보문헌비고』.

『龜川書院 經任案』(남원양씨 용성부원군파 양해근 소장), 『花山世稿』, 노사에 『홍와 선생실기』, 정인홍 『내암집』, 정은 『동계집』, 김성일 『학봉집』, 정여창 『一蠹集』, 정홍서 『松灘集』, 정광연 『滄州遺稿』, 노진 『玉溪集』, 김장생 『沙溪全書』, 정희운 『東峯實記』, 정희보 『唐谷鄭先生實記』, 정경운 『孤臺日錄』, 문경호 『嶧陽集』, 박여량 『感樹齋先生文集』, 전두한 『聯芳集』, 박태고 『景陽齋集』.

이수건,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4.

『河東鄭氏文獻公派譜』, 하동정씨문헌공파대종증, 1994.

『고문서집성-남계서원편-』2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고문서집성-덕천서원편-』2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善山郭氏大東譜所, 『善山郭氏大東譜』, 回想社, 1996.

이상필, 『남명학파의 형성과 전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이수환, 『朝鮮後期 書院研究』, 일조각, 2001.

박병련 외, 『남명학파와 영남우도의 사림』, 예문서원, 2004.

『남원양씨용성군파대동보 문절공편』, 남원양씨용성부원군파대동보편찬위원회, 2018.

이재철, 「18세기 경상우도 사림과 정희량난」, 『대구사학』31권, 대구사학회, 1986.

이정희, 「16·17세기 咸安·咸陽 在地士族의 동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이영숙, 「玉溪盧禎研究」,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강상택, 「조선 중·후기 서원 발달에 관한 연구-현 경상남도 지방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제59집, 국사편찬위원회, 1994.

윤희면, 「경상도 함양의 남계서원 연구」, 『남명학연구』26,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8.

구진성, 「龍巖書院운영주체들의 활동과 그 지향에 대한 일고찰 -17세기 초반의 德川書院·新山書院과 비교하여-」, 『남명학연구』39권,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3.

김봉곤, 「15, 16세기 지리산권(남원·함양) 사족의 혼인관계와 정치·사회적 결속」, 『역사학연구』49, 호남사학회, 2013.

_____, 「智異山圈(南原)士族 朔寧崔氏 家系記錄과 通婚圈」, 『고문서연구』42, 한국고문서학회, 2013.

윤희면, 「조선시대 경상도 함양 사마안 연구」, 『역사교육논집』제52집, 역사교육학회, 2014.

홍순민 외 7인, 『조선시대사-국가와 세계』1, 도서출판 푸른역사, 2015.

한국학자료센터 <http://archive.aks.ac.kr>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경상대학교문천각 남명학교문헌시스템 nmh.gnu.ac.kr

A Study on the Process of Siding to Noron of Jeong Yeochang's Family in Namgye Seowon in Hamyang between 16th and 18th Centuries

Park, So-hee*

Gyeongsangwu-do was the base of Nammyeong school, and before King Injo's restoration, the region had been strongly influenced by Bukin. Especially, in Hamyang, there were many followers of Jeong Inhong. In the process, Jeong Hongseo, a descendant of the second son of Jeong Yeochang, of The House of Jeong in Hadong, sided with Roh Saye, and was criticized by the followers of Jeong Inhong. It resulted in the conflict with the group of descendants of the eldest son of Jeong Yeochang, protected by Jeong Inhong, in the era of King Gwanghaegun due to the problems of sacrifice services. Since then, the descendants of Jeong Hongseo converted to Seoin and participated in raising an army in the cause of loyalty against the Mooshin Revolt, and converting to Noron-line.

Before King Injo's restoration, Namgye Seowon was highly dominated by the House of Roh in Pungcheon. However, because of the issue about the order within Shingye Seowon(Hyanghyeonsa), local opinions were disrupted, resulting

* Institute of Korean Cultural Studies, Yeungnam University/thgml0819@han mail.net

in disruption in Namgye Seowon. Since then, many followers of Jeong Inhong participated in Namgye Seowon in the era of King Gwanghaegun, it became seowon under the Bukin line. After King Injo's restoration, Bukin lost their power, and converted to Namin line. As a result, Namgye Seowon enshrined Jeong On and Gang Ik in the separate shrine, converting to Namin Line. However, In King Hyojong's reign, Namgye Seowon showed considerable conversion to Seoin Line through cases of the head of Seowon, Park Ido, and Confucian teacher, Park Myeongjin. And in King Sukjong's reign, the participation by the house of Seoin Line including the House of Jeong in Hadong was more extended.

After that, the Mooshin revolt occurred during King Youngjo's era, and there were Gyeongwonjang from the Noron Line in Namgye Seowon. In the atmosphere, the House of Jeong in Hadong who participated in raising an army in the cause of loyalty against the Mooshin Revolt, increased their share in the participation. And then, the management of Namgye Seowon had been emphasized by the House of Jeong in Hadong as Jeong Hongseo was enshrined in separate shrine after recovering the task of sacrifice services to Jeong Yeochang in 1820(the 20th year of King Soonjo's reign), and Pungyoungru was constructed by leading of Jeong Hwanpil in 1848(the 15th year of King Heonjong's reign).

keyword: Namgye Seowon, Bukin, Jeong Yeochang, Jeong in Hadong, Noron

이 논문은 2019년 12월 4일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2월 2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26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결정된 것임.

17세기 淸州 莘巷書院과 宋象賢 추모의 정치적 함의*

-송상현 祠廟와 書院을 중심으로-

정수환**

I. 머리말

II. 泉谷 宋象賢과 祠廟

III. 殉節, 莘巷書院 그리고 宋時烈

IV. 맺음말

<국문요약>

이 연구는 양란을 전후한 16~17세기 전쟁영웅의 현창 과정에서 작동한 정치적 배경을 송상현을 제향하는 전국의 祠廟와 청주의 莘巷書院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17세기 전란 직후의 위기상황에서 정치적 부침이라는 환경과 서원 건립과의 관련성을 추적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임진전쟁 당시 동래성에서 죽음을 맞이한 송상현에 대한 전후 추모 및 현창 양상을 평가했다. 전국에 산재한 송상현을 위한 祠廟의 건립 추이를 추적하여 시대적 배경이 17세기 중엽에 있음을 확인했다. 사묘의 건립 배경으로 전쟁 중 그리고 전쟁 후 그의 죽음을 둘러싼 평가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인조반정을 계기로 서인에 의해 그의 죽음이 殉節로 규정되면서 추숭사업이 본격화하는 과정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이 효종조 이후 송준길과 송시열 등 노론에 의해 집중적으로 그의 행적에 대한 정리와 청주 신항서원에 대한 사액 성취로 연결되었음을 파악했다. 이를

* 이 논문은 2019년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특별 학술대회 “천국 송상현의 학문과 사상”(2019.12.6.) 발표문을 바탕으로 수정하였다. 이남옥 선생의 토론과 익명의 심사자들 의견은 원고의 보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 swan@aks.ac.kr

통해 송상현의 죽음이 17세기 중엽 송시열에 의해 순절로 규정되고, 그에 대한 현창사업의 일환으로 신항서원 향사와 사액을 달성하게 되면서 17세기까지 전국에 송상현을 위한 묘우 건립이 실현되었음을 규명했다.

청주의 신항서원에 송상현을 병향하고 서원을 사액하는 과정에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의 영향력이 작용하여 송상현에 대한 忠節을 상징화 했으며, 이는 정치적 함의를 가지면서 전국에 송상현 祠廟의 건립과 사액으로 이어 졌다는 이 연구성과는 조선 초기의 이념적 忠보다는 17세기 실천적 忠으로서 송상현에 대한 형상화가 필요했던 17세기를 규명하는데 기여한다.

키워드 : 송상현, 송시열, 신항서원, 청주, 충렬사, 순절, 서원, 사우, 사묘, 임진전쟁

I. 머리말

이 연구는 송상현이 임진전쟁 당시 동래성에서 세상을 떠난 뒤 전개된 그를 향한 포양과 추모를 17세기 사회와 관련하여 의미를 추적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송상현을 위한 전국적인 祠宇와 祠廟의 건립 동향이 청주 莘巷書院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청주 사림의 그를 향한 추모는 또한 중앙 정계와 연계한 활동의 결과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조선전기와 달리 조선후기 성리학적 질서와 정치현실에서 ‘忠’의 가치 형상화 과정을 규명하는데 기여한다.

미증유의 전란으로 기록되고 있는 임진왜란, 임진전쟁에 대한 연구는 전쟁사적 관점에서 전쟁의 양상이나 전쟁으로 대두한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했다.¹⁾ 이 후 전쟁당시 의병의 활약에 대해 주목하면서도 관군의 활약에 새로운 조명을 시도하고 있다.²⁾ 그리고 임진전쟁을 전후한 시기 사회적 실상과 현실 대응에 대한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 일기를 분석하거나 매매명문 등의 고문서를 활용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는 등 연구 영역과 자료가 확장되

1) 李炯錫, 『壬辰戰亂史』上·下, 서울大學校出版部, 1967; 陸軍本部, 『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陸軍本部, 1976; 崔永禧, 『壬辰倭亂中の社會動態』, 1975.

2) 李樹健, 「月谷 禹拜善의 壬辰倭亂 義兵活動-그의 『倡義遺錄』을 中心으로-」, 『民族文化論叢』13, 1992; 임진왜란사연구회, 『임진왜란과 전라좌의병』, 보고사, 2011; 장준호, 「임진왜란시기 朴毅長의 慶尙左道 방위활동」, 『군사』76, 2010; 정해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수령의 동향과 의병지원 활동」, 『朝鮮時代史學報』70, 2014.

고 있다.³⁾ 이러한 임진전쟁 관련 연구 경향과 관련하여 인물에 대한 연구는 전란 중 활동에 대해 주목했다.

泉谷 宋象賢(1551~1592)은 전쟁 ‘영웅’ 중 한 명으로 조선후기 동안 추송 받았다. 먼저 그의 사상에 대해서는 《천곡수필》을 분석함으로써 성리학적 가치에 충실했던 충의정신을 추적하거나 그가 남긴 한시 28수를 이용하여 절은 시절의 결기를 추출해 내어 형상화 했다.⁴⁾ 전란 중 그의 행적에 대해서도 전쟁 당시 동래성의 실상에 대한 복원 시도와 함께 일기에 서술된 송상헌 관련 기록과 그를 향한 哀祭文을 바탕으로 그의 죽음을 ‘節義’로 평가했다.⁵⁾ 전쟁 이후 송상헌에 대한 평가와 그 의미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전쟁당시 부산진과 동래성 전투를 묘사한 殉節圖에 묘사된 사실을 밝혀 전후 崇揚 양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송상헌을 분석했다.⁶⁾ 임란 직후 17세기 초 동래부사로 부임한 이안눌의 시를 분석하여 전후 재건의 입장에서 송상헌을 표상했던 시대 배경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⁷⁾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 조선후기 ‘충절’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유교적 영웅화의 결과로 분석하면서, 선조대의 자율적 충성으로 평가하던 경향이 효종대 의리와 명분에서 강조된 사실을 규명하기도 했다.⁸⁾

-
- 3) 박병련, 『《孤臺日錄》에 나타난 정치사회적 상황과 의병활동의 실상』, 『南溟學』15, 2010; 신병주, 「16세기 일기자료 《瑣尾錄》연구-저자 吳希文의 피난기 생활상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60, 2012; 정수환, 「왜란과 호란기 매매와 분재, 그리고 家計 운영-평산신씨 申礪 宗家 고문서 사례」, 『역사와 실학』66, 2018.
 - 4) 박종천, 「천곡 송상헌의 사상과 《천곡수필》」, 『국학연구』38, 2019; 조영임, 「泉谷 宋象賢에 대한 哀祭文 연구」, 『東方漢文學』76, 2018.
 - 5) 민덕기, 「임진왜란기 정경운의『孤臺日錄』에서 보는 아래로부터의 聞見정보」, 『한일관계사연구』45, 2013; 崔孝軾, 「임란 초기 동래성의 항전에 대하여」, 『新羅文化』26, 2005; 조영임, 「泉谷 宋象賢의 한시 연구」, 『大東漢文學』57, 2018.
 - 6) 許善道, 「壬辰劈頭 東萊(釜山)에서의 여러 殉節과 그 崇揚事業에 대하여(上)」, 『韓國學論叢』10, 1988.
 - 7) 변광석, 「임진왜란 이후 동래부사의 동래지역 인식과 기억사업」, 『지역과 역사』26, 2010. 한편, 임란 당시 무장을 잃은 시를 분석하여 작자는 17-8세기 정치적 부침이 격심한 현실을 대변하고자 했다(장미경, 「壬亂 武將의 상징화 양상」, 『열상고전연구』23, 2006).
 - 8) 오인택, 「임진왜란기의 삶과 죽음, 그 표방 방식-김해부사 백사림과 동래부사 송상헌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인물과 라이벌』, 2008; 오인택, 「조선후기 ‘忠烈公 宋象賢 敘事’의 사회문화적 성격」, 『역사와 세계』40, 2011.

임진전쟁이라는 전란과 전쟁영웅 발굴의 성과로서 송상현에 대해 분석한 연구 방법과 성과를 바탕으로 그의 행적에 대한 평가와 의미를 정치사적 관점에서 서원 및 사우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송상현이 순절로 평가된 후 전국적으로 전개된 추모의 한 양상으로서 사우 건립과 사액 운동의 추이를 먼저 살펴본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을 추적하기 위해 전란 중 그의 죽음에 대한 평가의 변화 양상과 순절로 귀결되는 과정 및 추송의 배경을 살펴보고, 송상현 현창의 중심인 청주와 신항서원을 중심으로 지역 사람과 송시열 등 중앙정계 인사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II. 泉谷 宋象賢과 祠廟

송상현이 동래부사로 전사한 뒤 청주에 묻히고 충렬사에 향사하면서 그의 자손들은 청주의 사족 일원으로 활동했다. 임란이 종결된 17세기 이후 송상현을 추모하고 그를 향사하는 움직임이 그와 그의 가계 인물과 관련이 있는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여기에는 그의 죽음이 순절로 평가되고 그를 충절의 상징으로 전통화하려는 의도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을 추적하기 위해 그를 향사하고 있는 사우와 사묘가 설치된 전라도 고부, 평안도 개성, 경상도 동래 그리고 충청도 청주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사묘의 특징을 추적한다.

송상현의 본관은礪山이며, 그의 故鄕은 전라도 고부였다. 1610년(광해군 2) 간행한 여산송씨 초간보에는 시조 宋惟翊(?~?)을礪良縣 鄉役을 수행하다 등과하였으며, 사후에礪山郡 東鎭山에 묻힌 것으로 적고 있다.⁹⁾ 그 후 宋松禮(1207~1289)와 그의 아들 宋玠(?~1318)이 고려조에 사환한 후 長

9) 『礪良宋氏族譜』(丙午譜), 宋惟翊條. 이 초간보는 宋言愼(1542~1612)이 1606년(선조 39) 편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1610년(광해군 2) 宋駟(1557~1640)이 청주목사 재임시 宋克訥(1573~1635) 등 인근의 동종 수령들과 함께 청주목에서 간행했다. 한편 송유익은 진사로 고향에 은거하였으며, 아들 宋淑文도礪良縣 호장을 지내다가 문과에 급제했다(한희숙, 「17세기礪山 宋氏 愚谷 宋亮의 家系와 사회적 위상」, 『韓國系譜研究』8, 2018, p.71).

湍에 분묘가 설치된 사실 또한 초간보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조선 개국 후 宋禧(1342~1425)가 “古阜田畓”를 따라 귀향한 이래로 그의 직계 후손들은 고부에 세거하면서 “泉谷塔洞”선영을 경영했다.¹⁰⁾ 송희의 역대 후손들은 물론, 송상현 부모 분묘 또한 이곳 정읍 ‘泉谷’에 마련되었으므로 이곳은 송상현의 고향이었다(표 1 참조).

송상현의 고향 전라도 고부에 그를 향사하기 위한 사우가 설립되었다. 고부의 송상현 사우는 1656년(효종 7) 경 편집한 『東國輿地誌』에는 慕忠祠, 1759년(영조 35) 경 작성한 『輿地圖書』에는 旌忠祠로 건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¹¹⁾ 일찍이 1633년(인조 11) 고부의 유생 趙克訥(?~?) 등은 송상현을 위한 사우를 건립하고 사액을 청원하기도 했다.

조선 천지의 먼 곳에서도 또한 듣고서 그들을 슬퍼하는데 하물며 같은 社에서 같은 우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저희들은 세월이 멀어져 사람들이 죽고 사적이 매몰 될까 두려워해서 올해에 비로소 사우를 처음 만들고는 송상현과 金浚의 위판을 두어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宇’를 이루었지만 이름이 없고 ‘祠’의 제사 의식을 잘못 빠뜨렸으니 褒忠하고 旌烈에 의거하여 특별히 사액하시어 성대하게 하는 영광을 바라나이다.¹²⁾

고부에서는 임란과 호란에 순절한 지역 출신 인사로 송상현과 金浚(1582~1627)에 대한 향사를 위한 사우를 같은 해에 마련하고 사액을 요청했다. 이들은 왜란과 호란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고부 출신 인사들에 대한 포충과 정려의 전례를 적용해 줄 것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묘호란 직후 김준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 사액을 성취하지는 못했다. 그

10) 『礪山宋氏泉谷派譜』(己巳譜), 宋禧條.

11) 『東國輿地誌』, 全羅道 古阜, 祠廟條; 『輿地圖書』, 古阜郡邑誌, 書院條. 『동국여지』는 1656년 유형원이 편집한 전국 지리지이다(박인호, 「유형원의 동국여지에 대한 고찰」, 『淸溪史學』6, 1989). 『여지도서』는 1757~1765년 경 작성되었으나(崔永禧, 「解說」, 『輿地圖書』, 國史編纂委員會, 1973, p.4) 환국 현황은 1759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문용식, 「『輿地圖書』를 통해 본 18세기 조선의 환국 운영 실태」, 『한국사학보』 25, 2006, pp.502~503).

12) 『인조실록』권34, 인조 11년 12월 기묘.

후 1657년(효종 8) 고부 유학 金良器(?~?) 등은 전쟁에 공이 있는 신하의 고을에 사당을 세우고 사액한 전례에 따라 송상현과 함께 申浩(1539~1597), 김준을 위한 사우에 대한 사액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¹³⁾ 임진전쟁 중 산화한 송상현, 신호와 함께 호란에서 목숨을 잃은 김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액이 결정될 수 있었다. 따라서 송상현을 위한 사우 건립과 사액은 1633년(인조 11) 1차시도 당시 김준에 대한 평가가 확정되지 않아 보류되었으나, 1657년(효종 8) 향사 인물 모두에 대한 포충이 되면서 사액이 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본다면 송상현 사우는 고부의 인사들이 1633년(인조 11) ‘慕忠祠’를 먼저 건립하고 24년 뒤 ‘旌忠祠’로 사액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고부에서는 “忠信節士之鄉”에 사우를 세우는 통례를 강조하면서 충신 송상현을 위한 사우에 사액을 요청함으로써 고부가 그의 고향이라는 인연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송상현이 그의 고향 선영의 지명 ‘천곡’을 따서 자호한 것도 그의 고향의식을 반영한 사실로 볼 수 있다.¹⁴⁾

송상현의 고향 뿐 아니라 그의 선대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지역에서도 사우를 건립했다. 개성부에 송상현을 향사하기 위한 사우가 설립되었다. 송상현의 조부 宋璵(1505~1534) 부부의 묘역은 실전하고 개성부 고려太宗陵 경내에 존재했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¹⁵⁾ 송상현과 개성부와의 인연은 그의 사후에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전통’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유형원은 『동국여지지』에 개성에 ‘宋象賢祠’와 개성의 인물로 그를 소개하면서 “아버지가 일찍이 우거했다. 송상현이 개성에서 生長했는데 그 집이 北部의 鞍子里에 있다.”라고 밝혔다.¹⁶⁾ 그가 송상현을 개성에 우거한 인물로 분류한 이유는 이러한 내용이 17세기 개성에서는 지역의 전통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었

13) 『효종실록』18권, 효종 8년 2월 갑오. 사액 후 서원은 院任 3人, 額內儒生 20人, 額外儒生 15人 중심으로 운영했다(『輿地圖書』, 古阜郡邑誌, 書院條).

14) 趙炳喜, 「壬辰倭亂의 殉節功臣 泉谷 宋象賢」, 『全北人物志』(下), pp.113~114. 송상현은 고부 천곡 출신으로 『호남절의록』(1799刊)에 수록되어 있다.

15) 『礪山宋氏泉谷派譜』(己巳譜), 宋璵條.

16) 柳馨遠, 『東國輿地誌』, 開城府, 祠廟·流寓. 『동국여지지』가 1656년(효종 7)에 편집된 점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이 전에 ‘송상현사’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달리 송상현 종가는 “泉谷 出生地 京城 皇華坊”이라 하여 한양에서 그가 출생한 사실을 계승하고 있다.

다. 이러한 전통은 18세기에도 이어졌다. 1731년(영조 7) 개성유수로 재임한 朴師益(1675~1736)은 송상현의 집터를 찾지 못하자 舊里에 유허비를 세움으로서 개성을 송상현 고향으로 형상화 했다.¹⁷⁾ 이를 계기로 송상현과 개성과의 인연은 확고부동의 사실로 정착했다.

개성부에 崇節祠가 있는데, 부사 송상현, 부사 金鍊光, 부원수 劉克良은 이 땅에서 生長하다가 임진년에 절의를 지켜 죽은 사람들로 조정에서 사액하여 제향을 하게 했습니다.¹⁸⁾

위의 1783년(정조 7) 개성부 유수 徐有防(1741~1798)이 올린 상소에는 임진전쟁 때 전사한 개성출신 인사들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개성이 송상현의 생장지라는 전통에 따라 개성부는 일찍이 1666년(현종 7) 송상현과 더불어 金鍊光(1524~1592), 劉克良(?~1592)을 지역 출신 인물로 규정하고 사우를 건립했으며, 그 후 사우는 1694년(숙종 20) ‘崇節祠’로 사액 받았다.¹⁹⁾

송상현의 고향과 선대 연고지의 사우 건립과 더불어 전사지에도 사묘를 건립했다. 임진전쟁 개전 초기 鄭撥(1553~1592)이 지키던 부산진이 함락된 다음날 4월 15일 송상현은 동래성에서 죽음을 맞이했다.²⁰⁾ 동래부는 전쟁이 종결된 뒤 전란 당시 전사한 인사들, 특히 송상현에 대한 현창과 추송에 집중했다. 동래부사 尹暄(1573~1627)이 1605년(선조 38) 남문 안에 廟를 설치하였으며, 그 뒤 1624년(인조 2)에 ‘忠烈祠’로 사액 받았다.²¹⁾ 그리고 尹文舉(1606~1672)는 동래부에 부임하고 1년 뒤 1652년(효종 2) 8월에 총렬

17) 宋象賢, 『泉谷先生集』, 『松都遺墟碑記』(留守 朴師益). 박사익은 송전이 본래 송도사람으로 그 곳에서 세상을 떠나자 송복흥이 봉사조로 田民을 개성에 두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당시 송도사람이 송상현을 송도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서술했다. 이와 관련하여 송전은 부인 화산(안동)전씨의 고향 개성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으며, 이러한 사유로 그의 분묘가 개성에 마련된 것 전하고 있다.

18) 『정조실록』16권, 정조 7년 7월 계묘.

19) 鄭昌順 補編(1782), 『開城府誌』권2, 學校-崇節祠條. 송절사 賜額 당시 致祭文에도 송상현이 거주한 인연을 강조했다.

20) 『선조실록』26권, 선조 25년 4월 임인; 『선조수정실록』26권, 선조 25년 4월 계묘.

21) 『輿地圖書』, 東萊鎮東萊都護府, 壇廟條.

사를 이 건했다.

천국 송상현은 임진왜란 때 동래 부사로 殉節했다. 정발도 부산첨사로 또한 난리에 죽었다. 고을 사람들이 祠堂을 세워 제사를 지냈는데 건물이 초라하여 여러 곳에 물이세고 기울었다. 마침 한 갑자가 지난 때가 되었기에 절개를 드러내어 풍속을 일으키고자 가능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동래부의 동문 밖에 자리를 구해서 祠宇를 이 건하여 규모와 제도를 확대하고 사우를 서원으로 바꾸며 강당과 재사 그리고 의절이 비로소 갖추었다. 그리고 관재를 덜어서 雇役을 썼으므로 사람들은 역사가 있는 지를 몰랐다.²²⁾

윤문거는 전쟁 발발 周甲을 기념하여 사우를 동문 인근으로 이 건하면서 규모를 확장하고 서원으로 개편하는 것은 물론 향사를 위한 의절을 정비했다.²³⁾ 이어서 그는 송상현에서 발원하는 ‘순절’의 가치가 정발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면서 동래부 교수 盧蓋邦(1563~1592)에게도 이를 확장 및 소급하여 그를 송상현의 廟宇에 配享 하고자 했다. 충렬사 사액과 안락서원 중수 후 윤문거는 추송 범위 확장을 시도하고 있었다.

송상현에서 출발한 임진전쟁 당시 동래부 일대 전사자들에 대한 추송과 향사 범위의 확산이 18세기에도 지속되었다. 동래부사 權以鎭(1668~1734)은 1709년(숙종 35) 이전하고 남은 옛 충렬사 터에 別祠를 마련하고 교수 노개방을 비롯하여 양산군수 趙英圭(?~1592)를 향사 했다. 나아가 그는 별사에 대한 사액을 요청하며 “미천한 裨吏나 천한 하인들도 나라의 어려움에 같이 목숨을 걸고 義理를 위해 절개를 지켰으니 같이 표양하여 인륜의 당연한 도리를 북돋을”것을 청원하는 장계를 올렸다.²⁴⁾ 이를 계기로 이듬해 사액을 받았다. 1742년(영조 18) 동래부사 金錫一(1694~1742)은 송상현이 전사한 객사의 靖遠樓 터에 ‘宋公壇’을 설치했다.²⁵⁾ 그리고 경상감사 閔應洙(1684

22) 尹文舉, 『石湖先生遺稿』권7, 附錄上-年譜(崇禎25年 8월).

23) 安樂書院에 忠烈祠를 移安할 당시 역사를 도운 부내 유생은 朴友桂, 宋繼商, 李培成, 宋興殷 등이었다(宋象賢, 『泉谷先生集』卷2, 祝文, 安樂書院記實文(俞榮)).

24) 『忠烈祠志』卷7, 分享錄, 別祠·府使權以鎭別祠請額狀啓(己丑10月)·賜額忠烈別祠·府使權以鎭上疏(辛卯).

25) 『輿地圖書』, 東萊鎮東萊都護府, 壇廟條.

~1750)는 “절의를 포양하는데 문무의 차별과 존비의 등급이 같이 절개를 지킨 사람에게 구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장계를 올려 별사를 충렬사에 합사하는 조치를 내렸다.²⁶⁾ 이와 같이 17세기의 추송 분위기 연장으로 18세기까지 송상현을 중심으로 전란 당시 동래부를 지킨 인사들에 대한 포양을 실시했다.

고향, 선대 연구지 그리고 전사지에서 진행된 송상현에 대한 향사와 더불어 그의 묘역이 조성된 청주에서도 묘우를 건립했다. 송상현이 동래성에서 전사 한 후 返葬을 실현하여 청주에 묘역을 조성했다. 이에 앞서 1594년(선조 27) 병사 金應瑞(1564~1624)가 울산에서 加藤清正(1562~1611)을 만나 반장에 대해 담판이 있었다.²⁷⁾ 1595년(선조 28) 반장을 계기로 충신문을 건립하고, 1610년(광해군 2) 忠烈廟 설치가 순차적으로 진행 되었다. 송상현의 묘역은 淸州牧(淸原郡) 加布谷에 설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선조가 명나라 지관 杜師忠(?~?)으로 하여금 전국의 명당에서 송상현의 장지를 정하도록 하였다고 가전하는 이야기가 있다.²⁸⁾ 그러나 청주에 그의 묘역을 정하게 된 배경은 송상현의 가내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 할 필요가있다.

<표 -1> 여산송씨 송상현 가계도²⁹⁾



* 범례: ‘■’=配位, ‘㉔’=墓所, ‘||’=혼인관계

26) 『忠烈祠志』卷8, 分享錄, 觀察使閔應洙狀啓.

27) 『선조수정실록』권26, 선조 25년 4월 계묘.

28) 宋象賢, 『泉谷先生集』(家藏本)卷5, 年譜.

29) 『礪良宋氏族譜』(丙午譜), 淸州牧, 1610년(광해군 2); 『礪山宋氏泉谷派譜』(己巳譜), 淸州 1989년.; 『星州李氏大同譜』

송상현이 전장에서 1592년(선조 25) 세상을 떠나고 1595년(선조 28) 반장을 실시하기까지 배워 성주이씨 부인의 역할이 있었다. 성주이씨 부인은李文樞(1494~1567)의 손녀로 그녀의 선대 성주이씨 일족은 충청도 괴산에 세전하는 터전을 유지하고 있었다. 성주이씨 부인의 외가도 청주 일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성주이씨 부인의 외조부는 청주 梧根村, 즉 梧倉에 기반을 둔 김해김씨 金增壽(?~?)로 이 혼사는 이문건의 처 안동김씨 부인이 주관한 것이기도 했다.³⁰⁾ 청주 일대에는 안동김씨들이 세거하고 있었다. 성주이씨 부인의 조모는 괴산과 청주의 세족이었던 안동김씨 金彦黻(1472~1506)의 딸이었다.³¹⁾ 뿐만 아니라 그녀의 외외가 또한 안동김씨로 오창에 세거하고 있었다(표-1 참조). 성주이씨 부인은 송상현 사후 젊은 시동생들을 대신하여 시모 안동김씨 부인과 가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친정, 외가 등이 포진하고 있던 청주를 반장지로 선택했다.³²⁾ 특히, 성주이씨 부인의 시모도 안동김씨로, 金承碩(?~?)의 큰딸이 청주의 세족 忠州池氏 池蘭(?~?)에게 출가하는 등 청주 일대 그녀의 혈연적 기반이 확고했다.³³⁾ 송상현 사후 성주이씨 부인은 친정과 시외가의 기반이 있는 충청도 청주를 반장지로 결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녀가 며느리들을 청주의 세력가인 전주최씨와 고령신씨에서 맞이함으로써 여산송씨 일족이 청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데에도 기여했다.

30) 金素銀, 「李文樞家の 경제 운영과 지출-槐山入鄕을 관련하여」, 『古文書研究』21, 2002, p.35.

31) 金素銀, 앞의 논문, pp.32~34.

32) 이문건이 경상도 성주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동안 그의 처 안동김씨 부인도 1546년 경 친정이 있는 충청도 괴산으로 돌아왔다(金素銀, 앞의 논문, p.34). 이와 같이 혼인 및 상속 관행과 관련하여 16세기 남편 유고시 부인이 친정과의 관련 속에서 가계를 운영한 사실은 송상현의 처 성주이씨 부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16세기 子女均分相續의 특징을 고려할 경우 일대에 토지와 노비가 산재해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러한 보이지 않는 기여가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도승지 이덕형의 청에 따라 공신의 助哀하는 예를 준용하여 훈전을 내리는 데에도 작용했다. 내용은 木 5필, 棺 1部, 紙 7卷, 油芻 등의 물력이었다(『광해군일기(중초본)』권 178, 광해군 14년 6월 무자).

33) 李政祐, 「17-18세기초 淸州地方 士族動向과 書院鄕戰」, 『朝鮮時代史學報』11, 1999, p.129.

송상현 사후 그를 향한 추모와 향사는 그와 인연이 있는 각처에서 진행했으며, 17세기 전반 이후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 했다. 그의 선영이 있는 고향 전라도 고부에서 사우를 건립하고 1657년(효종 8) 旌忠祠로 사액 받았다. 뿐만 아니라 송상현의 조부 묘역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개성부에서는 그와 관련한 유허를 주장하고 1656년(효종 7) 이전 ‘宋象賢祠’를 건립 한 뒤 1694년(숙종 20) 崇節祠 로 사액 받았다. 그리고 송상현이 순절한 동래에 부사가 1605년(선조 38) 그를 위한 廟를 설치한 하고 1624년(인조 2) 忠烈祠로 사액 되자 순절 周甲을 계기로 1652년(효종 2) 서원으로 개편했다. 이러한 일련의 송상현을 위한 추모와 현창 움직임은 인조조 시작하여 효종조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출발은 송상현을 청주에 返葬한 데 있었으며, 본격적인 추모와 추송운동은 17세기 전반 이후 송상현 후손들과 청주지역 사족, 그리고 중앙 정계의 연대를 통해 실현될 수 있었다.

Ⅲ. 殉節, 莘巷書院 그리고 宋時烈

1) 殉節의 형상화, 宋象賢

전란 초기 송상현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혼란상을 보이고 있었다. 왜군이 부산포를 함락했다는 소식은 4월 17일 상주·함창 일대에까지도 알려지면서 관군의 대응 움직임이 있었다.³⁴⁾ 전쟁의 개시와 부산의 상황은 전국에 빠르게 전파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상도 함창일대 의병장으로 활약한 郭守智(1555~1598)는 동래와 부산포 함락 소식으로 지역에 큰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많은 헛소문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³⁵⁾ 이런 현실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래부사 송상현의 죽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유통되기 시작했다.

34) 郭守智, 『浩齋辰巳日錄』卷1. 壬辰 4월 17일.

35) 郭守智, 『浩齋辰巳日錄』卷1. 壬辰 4월 19일·5월 17일.

4월 14일 부산포가 함락되고 잇달아 동래부사 송상현이 살해되었다. 나머지 군관과 사졸들도 죽은 자를 헤아릴 수 없었다.³⁶⁾

개전 초 송상현의 단편적인 죽음에 덧붙여 동래성의 상황에 대한 추가 내용이 가미되어 동래성의 참상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나고 전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송상현이 동래부에서 세상을 떠난 사실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선조실록』의 기사이다.

- ① 적이 이제 동래에 다다르자 송상현은 서문 밖에서 패해서 북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적이 작은 돈대에 올라서는 수 없이 포를 쏘아대니 사람들이 도저히 성을 지킬 수 가 없었습니다. 적이 바야흐로 성에 들어오자 송상현과 高允寬은 모두 죽음을 당했습니다.³⁷⁾
- ② 정발, 송상현이 어떤 이는 죽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죽은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말이 잘못 전해져 송상현이 賊將이 되었다고 일컫는데 이르렀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포위당했을 때에 洪允寬이 성을 나갈 것을 권하자 바로 송상현이 “지금 비록 성을 나가더라도 장차 안전하게 갈 곳이 있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문에서 손을 모으고 앉아 있자 적이 들어와서는 그를 죽여서 바로 머리를 대마도로 보냈다고 합니다.³⁸⁾

동래부 함락 소식이 1592년(선조 25) 4월 조정에 전달된 뒤에도 선조는 전황에 대한 파악을 계속 시도했다. ①은 김해부사 金敬老(?~1597)가 1592년 8월 선조에게 아뢰는 송상현 최후의 모습이다. 그는 송상현이 서문 밖에서 전투를 하였으나 중과부적 상황에서 분전하다가 성이 함락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3개월 뒤 11월의 기록 ②는 경상감사를 역임했던 金睟(1547~1615)가 송상현의 죽음을 의심하는 선조의 물음에 대한 답이다. 그는 송상현의 죽음 및 행적을 둘러싸고 와전된 풍문이 사실이 아님과 더불어 出城 권유를 뿌리치고 전장에서 적에게 죽임을 당한 사실을

36) 郭守智, 『浩齋辰巳日錄』卷1. 壬辰 5월 6일.

37) 『선조실록』권29, 선조 25년 8월 갑오.

38) 『선조실록』권32, 선조 25년 11월 신사.

확인했다. 전란 초기 송상현의 최후와 행적에 대한 논란의 정리되면서 그의 죽음에 대해 평가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었다.

송상현의 최후와 관련한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그의 생사여부와 대처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 부분이 정리되고 전쟁이 소강기에 접어들자 그의 죽음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송상현에 대한 평가는 1594년(선조 27) 경상우병사 김응서가 현장을 조사하여 적장도 “從容就死”한 내용을 언급한 장계를 근거로 송상현을 “褒贈”하여 “表忠”할 것을 건의한 홍문관 수찬 鄭經世(1563~1633)의 입장에서 잘 드러난다.³⁹⁾ 동래부에서의 송상현의 죽음을 충절로 간주하는 분위기는 이듬해 1595년(선조 28) 선조가 송상현의 영정에 내린 賜祭文에 잘 드러난다.

구차하게 사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으니 가벼운 육신은 태산처럼 무거우며 義를 중하게 여기고 목숨을 가벼이 여겼도다! 어찌 전쟁을 당해 患을 위해 죽는 것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만나서 충성스런 죽음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이때 일을 듣게 되어 비로소 褒典을 시행하여 患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다.⁴⁰⁾

선조는 송상현이 전장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것을 “忠殞”이라 평가하고 그의 행위는 “義重”의 발로라고 칭송했다. 이에 따라 그의 죽음을 충의로 규정하고 이를 포증함으로써 소강상태였던 전쟁을 대비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동래부에서 청주로 실시된 1595년(선조 28)의 송상현에 대한 반장도 전쟁 극복에 필요한 전장에서의 충신을 형상화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그의 반장에 30년 지기 청주목사 閔仁伯(1552~1626) 등은 제문을 올려 그의 충의를 칭송해 마지않았다.⁴¹⁾

충의의 상징으로 평가된 송상현의 이미지는 빠르게 현장에 확산되었다. 경상도 함양일대 의병으로 활동한 鄭慶雲(1556~1610)은 1594년(선조 27) 12월 일기에 송상현이 절개를 지키며 죽음을 맞이하자 왜장인 小西行長(?~

39) 『선조실록』권58, 선조 27년 12월 병진.

40) 宋象賢, 『泉谷先生集』卷2, 賜祭文-宣廟乙未 賜廟祭文(車雲輅 製進).

41) 박종천, 앞의 논문, 2019, p.259.

1600)마저도 동문 밖에 시신을 묻어 주었다고 하는 당시의 소문을 기술했다.⁴²⁾ 정경운은 송상현이 “堅節不變”한 행위에 대해 적장이 “表賢”한 것으로 당시의 평가를 요약했다. 이를 계기로 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상세한 정황이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정경운이 이듬해 봄에 접한 송상현의 최후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적들이 서문을 넘어서 들어오자 사졸들이 모두 흩어졌지만 송상현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굳게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왜적 5명이 남문으로 돌입해서는 상현을 참수하여 깃대 위에 걸고 깃발로 말아서 왜장에게 달려가 바쳤다.⁴³⁾

永川 유생 俞玉卿(?~?)으로부터 전해들은 송상현의 최후 모습이 이와 같았다. 유옥경이 전한 이야기는 결연한 장수 송상현과 야만적인 왜군의 만행을 대비한 구조로서 송상현에 대한 현창과 왜군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고 있었다. 이는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임진년 전쟁 당시 충의를 상징하는 송상현에 대한 조정의 현창노력이 현장에서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운경은 유옥경의 이야기를 듣고 송상현을 “節義之士”로 칭송하면서 놀라워 모골이 송연해 진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기록은 당시 송상현 죽음을 둘러싼 평가와 인식의 실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임진전쟁이 종료된 후 다시 송상현의 충의와 절의에 대한 평가가 시도되었다. 柳成龍(1542~1607)은 송상현의 죽음이 있는 현장을 전쟁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왜적이 동래에 들이 닥치자 송상현은 성의 남문에 올라 반일 동안 독전하였으나 성이 함락되었다. 송상현은 굳게 앉아 칼을 받고 죽었다. 왜인들도 死守한 것을 기려서 관에 넣어 성 밖에 묻고 나무를 세워 그것을 표시했다.⁴⁴⁾

42) 鄭景雲, 『孤臺日錄』卷2, 萬曆甲午(1594) 冬12月 17日 庚申. 全有亨은 4월 15일 동래부사 송상현이 왜군에 맞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왜군이 관을 갖추어 장사를 지내준 내용을 그의 일기에 적었다(全有亨, 『鶴松集』, 『鶴松日記』).

43) 鄭景雲, 『孤臺日錄』卷2, 萬曆乙未(1595) 春3月 2日 甲戌.

44) 柳成龍, 『懲毖錄』卷1, 4월 15일

류성룡의 기록은 전란 당시의 상황은 물론 종전 후의 평가가 결합된 결과였다. 송상현이 동래부를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켰으며, 이러한 무장의 모습을 왜군들도 존중했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류성룡은 송상현의 죽음을 절의나 충의로 직시하기보다 사실 서술에 집중하되, 왜군이 그를 묻어 준 행위에 대해 성을 “死守”한 무장에 대한 존중의 발로로 평가함으로써 忠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야만성을 암시했다. 송상현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반영하듯 전쟁 후 李廷龜(1541~1600)은 전장에서 생을 마감한 8인을 시로 읊으면서 송상현을 “義魄忠魂”으로 상징했다.⁴⁵⁾

송상현의 죽음을 절의를 향한 순절로 규정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전란 후 편찬한 실록에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 ① 송상현은 비록 활 쏘고 말 타는 재주는 있었으나 본디 사람의 명망은 없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從容就義’한 것이 이처럼 우뚝하여 흉악한 왜적마저도 그를 ‘義’롭게 여겼다.⁴⁶⁾
- ② 요즘 우리나라의 褒忠하는 은전은 그때그때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략) 송상현, 金鍊光과 같이 성을 지켜 굴복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모두 ‘忠義’가 매우 뛰어난 자들입니다.⁴⁷⁾

인용문 ①은 전란 후 1610년(광해군 2) 복인 정권 주도로 편찬한 『선조실록』이다. 내용은 “死節”한 송상현을 적장도 칭송하였다고 기술한 뒤 이어진 사관의 평가이다. 사관은 송상현을 사림의 중망 없이 무예를 갖춘 인사였음에도 동래성에서의 ‘義’로운 행적으로 갑자기 높은 명망을 얻었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반면, 인조반정 후 1657년(효종 8) 편찬한 『선조수정실록』의 기록 ②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⁴⁸⁾ 송상현이야말로 ‘忠義’가 뛰어난 사람

45) 李廷龜, 『四留齋集』卷4, 七言律詩. 이정암이 읊은 8인은 전사 시점에 따라 宋象賢, 高敬命, 趙憲, 金千鎰, 崔慶會, 金德齡, 李舜臣 순 이었다.

46) 『선조실록』59권, 선조 28년 정월 을유.

47) 『선조수정실록』권26, 선조 25년 12월 정해.

48) 송상현이 대마도사람의 권유에도 피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자 대마도도주의 가신이 시신을 관에 넣어 풋말을 세운 것으로 구체화 한 것은 『선조수정실록』에서였다(민덕기, 앞의 논문, 2013, p.147).

으로 포상해야 마땅한 인물이라는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한 인물이 바로 우참찬 成渾(1535~1598)이라는 점이다. 성혼은 자신의 『便宜時務』 9조에서 유극량, 高敬命(1533~1592), 趙憲(1544~1592)을 전장에서 전사한 인물로, 송상현과 김연광을 전장에서 ‘不屈’한 인사로 구분하면서 송상현을 적시하여 포충 할 것을 주장했다.

동래부에서 송상현의 전사를 둘러싼 미묘한 입장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점은 광해조 정치적 전개 속에서 피화된 송상현의 아우 宋象仁(1569~1631)과 관련이 있었다. 인조반정 뒤 서용된 송상인에 대한 『인조실록』 기사는 아래와 같았다.

송상인은 송상현의 아우인데, 본성이 본디 剛直하고 깨끗하여 탐욕 없는 것이 남과 달라서 布衣 시절에 동지들을 이끌고 소장을 올려 선현 成渾의 억울함을 호소하니 士論이 옮겨 여겼다. 광해군 때 壬子년의 獄事로 화를 입어 제주도에 유배되었고, 반정 뒤에 바로 부름을 받아 서용되었다.⁴⁹⁾

‘임자년의 옥사’는 바로 1612년(광해군 4)에 있었던 이른바 ‘金直哉의 獄事’를 지칭한다. 이옥사는 金直哉(1554~1612)가 順和君(?~1607)의 양자 晉陵君(1594~1612)을 왕으로 추대하려 역모를 꾀했다는 내용의 무고를 대북파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소북파, 남인과 서인들을 대거 숙청한 사건이었다.⁵⁰⁾ 김직재는 바로 송상현과 송상인의 외사촌이었다(표-1참조). 송상인은 공초에서 김직재와 異姓四寸弟로 골육간의 도리가 있으나 무고와 관련이 없음을 강력 주장하면서 송상현의 동생임을 적극 강조했다.⁵¹⁾ 이로 인해 송상인은 제주도에 10년간 유배되었다. 그리고 이에 앞서 1601년(선조 34) 성균진사 송상인은 당시 己丑獄事와 관련하여 성혼이 崔永慶(1529~1590)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혐의에 대해 적극 비호한 사실도 있었다.⁵²⁾ 송상인의 성

49) 『인조실록』권3, 인조 1년 윤10월 정해.

50) 신병주, 「광해군대의 정국과 李德洞의 정치, 외교활동」, 『朝鮮時代史學報』67, 2013, pp.237~239.

51) 『광해군일기』50권, 광해군 4년 2월 정해.

52) 張維, 『鷄谷先生集』卷12, 墓碣-故通政大夫守全羅道觀察使宋公墓碣銘 并序. 그의妹兄 韓孝祥 또한 성균관에서 성혼에 대해 송상인과 같은 행보를 이어갔다. 인조반정

혼을 향한 이러한 행적은 인조반정 주도세력인 서인들에게 중요한 의미-서인 도통의 축을 이루는 성혼에 대한 비호-를 갖고 있음에 따라 반정 후 바로 서용되는 것은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 바로 임란 당시 忠義를 지킨 송상현의 아우라는 사실이 부각되었다. 특히, 송상현에 대한 포양을 성혼이 제기했다는 사실도 반정세력에 있어서는 주목할 내용 중 분명 하나였다.

17세기 초 송상현 가계는 청주를 지역기반으로 하면서 안동김씨, 청주한씨 등 서인세력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를 뒷받침할 성혼을 중심으로 한 송상인의 학통 및 정치적 함의도 반정세력에게는 중요한 의미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인조조에는 송상현에 대한 추숭이 본격화 했다. 인조반정 직후 1624년(인조 2) 동래에 忠烈祠에 대한 사액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송상현에 대한 적극적인 恤典이 검토되었다.⁵³⁾ 1633년(인조 11)에는 지방 중 고부에서 그를 향사하기 위한 사우, 慕忠祠를 건립했다. 그리고 이 사우에 대한 사액을 청원한 상소에 대해 조정에서는 송상현에 대한 향사는 인정하되 안주목사 김준을 송상현과 대등하게 대우할 수 없다고 지적함으로써 송상현의 “守義不屈”을 강조했다.⁵⁴⁾ 그리고 송상현에 대한 시호 추증 논의가 비로소 촉발되었다.⁵⁵⁾ 송상현에 대한 추모와 추숭은 인조반정을 계기로 서인세력에 의해 현실화 하고 있었다. 이제 청주에 세거하고 있던 송상현의 후손들은 지역의 사족, 특히 노론 성향 사족들과 연대를 통해 송상현에 대한 추숭과 서원 향사 실현을 도모했다.

2) 莘巷書院과 宋象賢 그리고 宋時烈

이후 이이와 성혼에 대한 문묘 종사 움직임 대해 기축년, 즉 1649년(인조 27) 영남 남인은 기축옥사 당시 성혼의 행적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여 서인 노론세력을 압박했다(김정신, 「기축옥사(己丑獄事)와 조선후기 서인(西人) 당론(黨論)의 구성, 전개, 분열-노(老)소(小)분기 과정에서 성혼(成渾)에 대한 논란과 평가를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53, 2016, pp.128~129).

53) 『인조실록』권7, 인조 2년 10월 계묘; 『인조실록』권15, 인조 5년 3월 계유.

54) 『인조실록』권28, 인조 11년 12월 기묘. 실록의 기사 중 송상현의 죽음에 대해 최초로 ‘殉節’이라 명시한 내용은 1681년(숙종 7) 강화유수 李選이 임란 중 순절한 인사를 언급한데서 찾을 수 있다(『숙종실록』권11, 숙종 7년 5월 계유).

55) 『인조실록』권44, 인조 21년 4월 병자.

17세기 중엽 산림 宋時烈(1607~1689)의 후원으로 1650년(효종 1) 송상현이 有定書院에 追享되는 것은 물론 이 서원은 후일 莘巷書院으로 사액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의 출발은 효종의 즉위 이후부터 본격화 했다. 1653년(효종 4) 송상현에게 贈諡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1657년(효종 8) 비로소 그에게 ‘忠烈’의 시호가 내려졌다.⁵⁶⁾ 뿐만 아니라 응교 趙復陽(1609~1671)의 건의에 따라 1658년(효종 9) 효종은 송상현의 충절을 상징하는 묘표석을 세우도록 조치했으며, 이는 효종의 행장에도 비중 있게 언급되었다.⁵⁷⁾ 그리고 1660년(현종 1) 현종의 즉위와 함께 유정서원이 신항서원으로 사액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송상현에 대한 추모와 추송 움직임은 효종과 송시열 그리고 유정서원에서 시작했다.

유정서원 창건을 주도한 인사는 趙綱(1527~1599), 卞景壽(1529~?), 李得胤(1553~1630) 등의 청주사람들이었다. 유정서원 건립 배경은 선조 즉위 후 李滉(1501~1570)·李珥(1536~1584)에 의해 기묘·을사사화에 연류되었던 사람에 대한 복권시도와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청주 지역 사람은 지역 인사 중 기묘명현 朴薰(1484~1540)과 을사명현 宋麟壽(1499~1547)에 대한 제향을 도모했다.⁵⁸⁾ 조강은 명종조이던 1563년(명종 18) 청주지역에 향약이 실시되자 유력 사족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주도한 뒤 스승 송인수가 복위 되는 것을 계기로 1570년(선조 3) 유정서원 건립을 성취했다.⁵⁹⁾ 유정서원은 창립 당시 慶延(?~?), 박훈, 송인수를 향사하다가 임란 후 서원을 改建하면서 金淨(1486~1521)을 추향했다. 그리고 1632년(인조 10)에 韓忠(1486~1521) 그리고 1650년(효종 1)에 송상현과 이득윤, 이이, 李穡(1328~1396)을 다시 추향했다.⁶⁰⁾ 송상현 향사 결정 이후 10년 뒤, 유

56) 『효종실록』권10, 효종 4년 3월 경오; 『효종실록』권19, 효종 8년 11월 임인. 시호 ‘忠烈’에 대한 諡註는 “危身奉上忠, 剛克爲伐烈”이다(『忠烈祠志』卷1, 議諡).

57) 『효종실록』권20, 효종 9년 6월 무진; 『효종실록』권1, 『孝宗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行狀』

58) 이재학, 「조선시대 청주 莘巷書院」, 『실학사상연구』21, 2001, p.103.

59) 金義煥, 「慕溪 趙綱의 鄉村社會 活動과 淸州土林의 動向」, 『朝鮮時代史學報』32, 2005, pp.71~73.

60) 『莘巷書院誌』, 「莘巷書院沿革」. 서원과 관련해서는 책판과 서원 운영 관련 기록자료를 들 수 있으나 대부분의 서원은 자료의 망실과 산실이 심한 상황이다(이수환, 「서원 기록자료의 정리현황과 과제」, 『韓國書院學報』2, 2013, pp.8~10). 신항서원 또한 서원의 운영상을 담고 있는 자료가 일천한 현실이다.

정서원 창건으로부터 90년 뒤가 되는 1660년(현종 1)에 신항서원으로 사액되었다.

송상현을 유정서원에 추향한 배경 중에는 임진정쟁과도 관련이 있었다. 유정서원 창립을 주도한 변경수의 동생 卞景福(1538~1629)은 임란 때의 효행으로 그의 행적이 『三綱行實圖』에 수록되었다.⁶¹⁾ 조강은 유정서원을 건립한 후 임란이 발발하자 66세의 나이에 의병을 창의하여 공주 일대에서 항전하였으며, 그의 문인 중에는 송상현의 아들 宋仁及(1576~1608)을 비롯하여 13명이 임란 공훈으로 관직을 역임한 특징이 있었다.⁶²⁾ 송상현이 유정서원에 향사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상현에 대한 향사와 그에 이은 추송 배경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성혼과의 인연, 인조반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인연이었다.

1650년(효종 1) 송상현을 신항서원에 추향하고 서원에서의 입지를 강화한 인물은 宋浚吉(1606~1672)과 송시열이었다. 특히 송시열은 그의 종증조부 송인수를 향사하는 유정서원에 송상현을 추향하고, 사액서원으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송상현에 대한 절의의 가치 증대를 도모했다. 1650년(효종 1) 유정서원에 송상현을 추향하는 통문은 송준길이 청주목사를 대신하여 지었으며, 이 글에 그의 송상현에 대한 평가와 추향의 당위성이 서술되어 있다.

이 통문은 세상을 떠난 동래부사 송상현의 순수한 충정과 위대한 절의(精忠大節)가 너무도 빛나게 사람들의 이목에 남사 지금 장차 斯文의 公議로서 이 청주 고을의 유정서원의 祠宇에 醺享하기 위해서이다. (중략) 선생은 보잘 것 없는 일개 수령으로 처음 적을 맞이함을 당해서 앞장서서 절의를 지켜 항거해서(抗義) 죽는 것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여겼다. 이로부터 앞 뒤 수십 년 여생을 이루고 의로움을 취(成仁取義)하여 사람의 기강을 드러내고, 國脈을 심고 가꾼 사람이 진실로 한 둘이 아니었지만 진실로 선생이 강장 먼저이다. 그러하므로 국가를 얻어 지금이 있는 것이 아! 누구에게 힘입는 것이겠는가? (중략) 일찍이 잠시 관리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모두가 선생의 수립한 내용이 이미 하늘과 땅에 우뚝하고 달과 태양처럼 빛이 나서 스스로 영원히 밝게 비춰 백세의 스승으로 표본(師表百世)이 된다고 여기

61) 이재학, 앞의 논문, p.111.

62) 金義煥, 앞의 논문, pp.79~80.

고 있었다. 그러므로 숭후 하는 일을 금석에 물어 보아도 거의 의심할 바가 없을 것이다.⁶³⁾

송준길은 송상현을 유정서원에 추향하고 봉안례를 알리는 이 통문에서 청주 사림의 공의에 따라 시행된 당연한 귀결임을 먼저 상기시켰다. 그리고 송상현이 전란 중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의리를 지킨 무거운 공이 있음을 강조한 뒤, 이는 곧 백세의 사표로 의미를 부여했다. 송준길의 송상현에 대한 평가는 결국 “精忠大節”과 “師表百世”로 요약되었다.

효종조 이후 송상현에 대한 추숭은 청주를 중심으로 지속했다. 청주지역 사림은 유정서원의 사액 이후 신항서원의 위치를 둘러싼 논쟁으로 향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적어도 1650년(효종 1) 송상현이 유정서원에 제향 될 때 까지 지역 안에서 큰 갈등은 없었다.⁶⁴⁾ 이러한 배경에서 송준길과 송시열이 주도한 송상현의 추숭은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효종조 중앙정계의 비중이 상승한 송시열과 송준길이 1654년(효종 5년) 유정서원에 대한 사액을 추진하면서 청주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다가 1660년(현종 1) 사액이 달성되자 이에 대한 향사 문제를 둘러싸고 일대의 서인세력과 남인·소론과의 갈등이 시작되었다.⁶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준길과 송시열은 중앙정계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송상현에 대한 추숭을 멈추지 않았다.

현종은 신항서원을 사액할 당시 서원에 내린 치제문에서 서원 향사 인물들과 관련한 치제의 취지를 “尊道尙賢 王政之大, 表忠旌孝 民彝是楷”로 밝힘으로써 송상현의 충효를 암시했다.⁶⁶⁾ 그리고 송상현을 치제했다.

위태로움에 처하여 절의를 지켜 깨끗이 정도를 지키고, 조용히 칼날을 받아 이로운 목숨을 편안히 하였으니 이 風聲이 미치는 곳에 누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리오.⁶⁷⁾

63) 宋浚吉, 『同春堂集』권16, 雜著-淸州書院泉谷宋公追享通文 代牧伯作.

64) 이재학, 앞의 논문, pp.127~128.

65) 李政祐, 앞의 논문, pp.101~102.

66) 『莘巷書院誌』, 「懸鍾朝御製 賜額莘巷書院致祭文」.

67) 『泉谷先生文集』卷2, 「顯廟庚子 賜額莘巷書院文(尹鑠製進)」.

신항서원 사액의 명분과 관련하여 목숨으로 절의를 지킨 송상현을 형상화하고 있었다. 사액 후에도 1665년(현종 6) 송준길의 건의에 따라 기묘·을사 사화에 연루된 명현 김정과 송인수를 송상현과 함께 치제하기도 했다.⁶⁸⁾

청주 지역과 중앙 정계의 동향과의 관련 속에서 신항서원에 대한 송시열의 영향력은 확대하고 있었으며, 송상현에 대한 추송도 그 궤와 함께하고 있었다. 송시열은 1673년(현종 14) 4월 신항서원을 중수할 때 기문을 통해 향사 인물들의 “精忠高節 震耀今昔”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송상현을 忠節로 묘사했다.⁶⁹⁾ 뿐만 아니라 金壽恒(1629~1689)은 신항서원이 사액된 뒤 이건할 때 지은 상량문에서 송상현에 대해 “泉谷之殉節 可與日月而爭光 君臣父子之間 判輕重於恩義”라고 평가하면서 순절과 의리를 강조했다.⁷⁰⁾ 효종조 착수한 송상현에 대한 충절의 평가는 현종조 순절로 귀결되어 정리되었으며, 그 배경에 송시열이 있었다.

송시열이 정치적 수세에 있을 때에도 청주를 중심으로 한 송상현 추송은 지속했다. 재지사족간의 갈등이 폭발한 것은 2차 예송논쟁의 전개와 궤를 같이 하면서 1675년(숙종 1)부터 전개되었다. 당시 송시열은 바로 신항서원의 院長이었다. 신항서원을 둘러싼 지역 사림의 갈등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의 정치적 부침에 따라 대립의 양상에 변화를 수반하였으며, 여기에는 중앙정계의 동향과 더불어 지역에서 혈연적으로 연결된 정치적 성향이 작용한 결과였다.⁷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시열은 1685년(숙종 11) 신항서원 묘정비에서 송상현을 “有成仁就義之懿”로 집약했다.⁷²⁾ 송상현에 대한 추송과 현창, 그리고 서원향사 및 사액과 관련해서는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의 가치가 투영되어 있었다.

청주 지역 사림에서 출발한 송상현에 대한 현창이 서인, 특히 노론의 정치

68) 『현종개수실록』권13, 현종 6년 5월 임인.

69) 宋時烈, 『宋子大全』卷143, 記-淸州莘巷書院重修記.

70) 金壽恒, 『文谷集』권25, 上梁文-莘巷書院重建上梁文.

71) 李政祐, 앞의 논문, 107~108쪽.

72) 宋時烈, 『宋子大全』卷171, 碑-莘巷書院廟庭碑. 그는 신항서원의 춘추향사에 쓴 글에서도 송상현의 節義와 綱常을 강조했다(宋象賢, 『泉谷先生集』卷2, 祝文-莘巷書院春秋享祀文).

적 대두를 계기로 고부, 개성, 동래는 물론 청주에서의 서원과 사우 향사로 파급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목적과 더불어 송상현 현창의 배경은 17세기라는 시대적 배경도 작용했다. 17세기는 왜란 이후 사회적 혼란과 두 번의 호란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으며, 17세기 중반 대외정세의 불확실성과 도적 창궐로 인한 사회적 불안에 이어 17세기 말 대기근으로 불안 요소가 끊이지 않았다.⁷³⁾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이른바 北伐을 통해 사회를 결속시키고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려 했던 송시열에게는 송상현이 필요했다. 이 시기 정몽주에 대한 의리를 주도한 점도 충효 가치를 점유하기 위한 포석의 일환이었다.⁷⁴⁾ 따라서 송준길과 송시열은 17세기 중엽 이른바 북벌의 분위기 속에서 송상현과 같은 충절인사의 발굴과 현창을 지속했다.⁷⁵⁾ 서원향사를 통한 추모뿐만 아니라 그의 행적에 대한 형성화와 의미 부여도 동시에 진행했다. 송준길은 1650년(효종 1) 신항서원 사액에서 향중에 보낸 통문의 내용에 송상현의 행적 중 ‘충’을 우위에 둔 ‘효’의 실천과 관련 한 행적을 언급했다.

동래성이 함락되려 할 때 공복을 갑주 위에 걸치고 왕이 있는 북쪽을 향해 절을 마치고 그의 아버지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포위된 외로운 성에 달그림자 드리웠는데 여러 진영은 편안해 보이는구나. 임금과 신하의 의리는 중하고(君臣義重) 부자의 은혜는 가법도다(父子恩經).”라고 읊었다. 그가 읊조린 말은 천년지 지나도 또한 반드시 감격하여 분발해서 흐르는 눈물을 스스로 멈추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다.⁷⁶⁾

송준길은 전장에서 끝까지 국왕을 위해 예의를 갖추었으나 부모에게는 도

73) 정수환, 「17세기 경주 국당리(菊堂里) 동계(洞契)의 전통과 호혜 원리」, 『한국학』 42-4, 2019, pp.46~48.

74) 정몽주 종가의 계후와 관련해서도 17세기 중반 송시열은 정몽주의 의리를 강조하고 현창했다(김학수, 「18세기 圃隱家門 繼後의 정치사회적 의미」, 『圃隱學研究』10, 2012, pp.224~228).

75) 송시열이 송상현을 위해 지은 묘갈명은 북벌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임란당시 목숨을 바친 인물들을 칭송하면서 忠君愛國정신을 강조했다(趙赫相, 「忠壯公 鄭撥에 대한 再考察」, 『東方漢文學』60, 東方漢文學會, 2014, p.153). 송시열은 효종조 동안 존주론을 주도하면서 정치적으로 북벌론을 거듭 전개했다(李迎春, 「尤庵 宋時烈的 尊周思想」, 『淸溪史學』2, 1985, pp.151~152; 李京燦, 「조선 효종조의 북벌운동」, 『淸溪史學』5, 1988, pp.244~246).

76) 宋浚吉, 『同春堂集』권16, 雜著-淸州書院泉谷宋公追享通文 代牧伯作.

리를 다할 수 없었던 상황에 직면한 송상현을 서술했다. 송준길이 드러내고자 했던 사실은 ‘충’을 위해 ‘효’를 다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비분강개한 상황에 대한 공감을 서술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에서 송상현의 결단을 존중하고 표상으로 제시하는데 있었다. 송준길의 이러한 입장과 행보의 이면에는 역시 송시열이 있었다.

송시열은 행장을 통해 전란당시 송상현의 행적을 1655년(효종 6) 정리하였으며, 이 내용을 1657년(효종 8) 송상현 신도비명에도 그대로 전개했다.⁷⁷⁾ 송시열이 정리한 송상현의 행적 내용은 서인들에 의해 1657년(효종 8) 완성한 『선조수정실록』에 그대로 반영되었다.⁷⁸⁾ 송시열이 서술한 송상현 행적이 반영된 실록에서 송상현의 주요 행적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왜군의 침입소식을 듣고 부민들을 통솔하여 성을 굳게 지켰으며, 그 과정에서 병사 李珪과의 갈등이 있었음.
- ② 성이 포위당하자 성에 올라 전투를 독려하다 반일 만에 성이 함락되면서 갑옷 위에 조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죽음을 기다렸다.
- ③ 친분 있는 왜군의 도망 조언을 듣지 않고 항거하다 죽음을 맞았다. 죽음에 앞서 아버지에게 부체에 ‘포위당한 외로운 성에 달빛은 희미한데 큰 진영의 구원병은 오지 않네, 군신의 의리는 중하고 부자의 은혜는 가벼워라’라는 시구를 보냈다.
- ④ 그가 의연히 죽음을 맞이하자 왜군도 그의 죽음을 의롭게 여겨 그를 죽인 왜군을 죽이고, 그의 시체를 관에 넣어 묻은 뒤 標를 세웠다.
- ⑤ 왜장이 返葬을 허락하자 성중의 유민들이 울면서 전송했다.

송시열은 송상현의 최후에 대한 서사를 다섯 주제로 분류하였다. 전쟁 초기 그의 전사와 행적에 대한 논란을 모두 일소한 정리된 입장을 기초로 하면서 몇 가지 추가된 사실을 포함하였다. 류성룡이 서술했던 ‘死守’의 모습과는 다른 ‘충절’을 향한 죽음, 즉 순절을 암시했다. 즉, 송시열이 서술한 송상

77) 『忠烈祠志』卷1, 「東萊府使贈吏曹判書泉谷宋先生行狀(宋時烈)」; 宋時烈, 『宋子大全』 159, 碑-泉谷宋公神道碑銘 并序. 신도비명은 1657년(효종 8)에 지었으나 신도비 건립은 1661년(현종 2) 실행했다.

78) 『선조수정실록』26권, 선조 25년 4월 계묘.

현의 행적은 전란 초기 단순한 죽음 묘사와는 상이하며, 인조조 이래 절의로 평가된 상황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송준길도 강조한 사실과 동일하게 “君臣義重 父子恩經”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송시열이 형상화 한 송상현은 의리의 상징으로 이를 선점한 노론의 정치적 성취였다. 송시열은 새로운 ‘忠臣’의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이제 송상현은 17세기적 충신, 즉 국가적 위기에 부모에 대한 효 보다는 국가와 국왕에 대한 충을 강조하는 인간상을 창출하였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17세기 중엽 이미 정몽주 등으로 상징되는 의리를 상징하는 인물에 대한 추송작업의 연장선에서 송상현을 새로운 의리의 인물로 승화시키는데 있었다. 즉, 17세기 중엽 북벌이라는 정치적 명분 속에 사회적으로 송상현의 죽음을 순절로 평가하고 그의 의리가 바로 충에 있음을 강조한 결과로 송시열은 정치적 명분과 의리를 모두 취하고자 했다. 송시열의 이러한 평가는 빠르게 전파되고 공유하고 있었다.

고부의 유학 金良器 등이 소하였다. (중략) 송상현은 대간 출신으로 외직으로 나와 동래부를 지켰습니다. 임진년의 난에 먼저 왜적의 선봉을 맞아 공복을 입고 상에 의지해서 몸소 적들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君臣義重, 父子恩經하여 임금이 있는 북쪽을 향해 두 번 절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적들도 이것을 ‘義’롭게 여겨서 그를 시해한 자를 가려서 죽이고 시신을 수습해서 斂葬하고 나무를 심어 그곳을 표시했습니다.⁷⁹⁾

송상현의 충효가치 실현과 순절의 평가 분위기에 따라 그의 고향 고부에서 1633년(인조11) 시도되었던 사우에 대한 사액 시도가 비로소 1657년(효종 8) 실현될 수 있었다. 인용문은 사액이 이루어질 당시 고부 유학 김양기가 올린 상소의 내용으로, 송시열이 정리한 사실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상소 내용은 송상현이 충효를 실현하는 과정을 상술하면서 그의 최후를 묘사하였다. 이로써 왜군들마저도 그를 의롭게 여긴 점이 바로 이러한 충절

79) 『효종실록』18권, 효종 8년 2월 갑오.

에 있음을 독자들에게 암시하는 구조이다.

1655년(효종 6)~1657년(효종 8) 집중 실현된 송시열의 송상현에 대한 추숭은 이후 지속되었다. 1658년(효종 9) 동래부사 閔鼎重(1628~1692)이 임란 당시 동래성의 상황을 잘 아는 노인의 묘사를 토대로 「동래부순절도」를 그려 송상현의 순절을 시각화 했다.⁸⁰⁾ 그리고 1670년을 전후한 시기 송시열은 「東萊南門碑記」를 통해 송상현의 순절에 따른 일화를 추가했다.

절을 마치고 편지를 써서 그 아버지에게 이별하고 그 아랫사람에게 일러 “너는 나의 배 아래의 사마귀로 나를 찾아라.”고 하였다. (중략) 동래부 아전 宋伯, 관노 鐵壽와 邁손이 공의 시신을 거두어 체를 거두어 北山の 栗林에 임시로 묻으니 적들도 그 喪을 돕고 글을 지어서祭를 올렸다. 또한 金蟾도 함께 묻으면서 적중에서 공을 해친 자를 끌려내어 무참히 죽였다. 이때부터 남문 위에 항상 보라빛 상서로운 기운이 하늘에 뻗쳐서 여러 해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갑오년(1594)에 조정에서 帥臣으로 하여금 적장에게 말해서 송상현의 家人에게 적의 점령지에 가서 공의 관을 맞아오게 하였다. 적장이 이 행렬을 우연히 만자나자 말에서 내려 경의를 드러내었다. ⁸¹⁾

송시열은 송상현의 죽음에 대한 평가와 정리 작업을 주도하여 일단락 한 뒤에도 극적인 죽음의 비애, 그리고 사후의 순절에 감응한 상서로운 기적을 묘사했다. 이를 통해 송상현의 순절을 천인감응으로 묘사하여 17세기 후반의 내외적 위기와 국내적 정치상황에 대한 충의의 가치 확산을 모색했다. 대외적 위기는 淸과의 대립이었으며, 정치상황은 대외적 환경과 연계하고 斯文亂賊으로 상징되는 사상 무장의 강화였다. 이러한 체제에서 송시열은 자신이 확보한 정치적, 학문적 위상을 송상현에 대한 현창과 충절의 형상화에 투여했다.

80) 민정중은 殉節圖 3개에 대해 1개는 조정에, 1개는 본손가 그리고 1개는 자신의 집에 보관했다.

81) 宋時烈, 『宋子大全』卷171, 碑-東萊南門碑.

IV. 맺음말

이 연구는 양란이라는 조선 17세기적 상황을 내부적으로 혼란과 위기의 시대로 보고, 송상현의 죽음과 그에 따른 평가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17세기 영웅상의 확립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발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송상현을 추모하는 祠宇와 廟宇의 분포와 성격들을 살펴 본 다음 전란 중 그의 행적이 형상화 되는 과정을 청주의 신항서원을 중심으로 추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추송의 배경이 바로 17세기적 정치상황 속에서 송시열로 상징되는 학문적·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인물에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임진전쟁 이후 1624년(인조 2)에서 1694년(숙종 20)까지 송상현을 위한 사우와 서원의 건립이 이어졌다. 특히, 1657년(효종 8)을 전후한 시기에 송상현의 고향인 전라도 고부를 비롯하여 선대의 유업이 있는 것으로 형상화된 개성,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동래에 사우와 서원이 각각 건립되었다. 이러한 17세기의 집중적인 송상현 사묘 건립과 서원 향사 배경은 인조반정에서 출발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송상현의 처 성주이씨 부인이 친정 청주에 返葬을 결정하고 지역사회에서 중첩적인 혼인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서인과의 연계된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혼이 송상현에 대한 표충을 건의했고, 송상현의 아우 송상인이 성혼을 적극 비호하거나 김직재의 옥사에 연루되어 유배간 행적은 반정세력으로 하여금 송상현에 대한 표충에 집중하게 한 배경이었다.

선조조에 그의 죽음에 대한 평가는 일시적으로 논란을 일으켰으나 전장에서 忠義를 지켰다는 선에서 의미가 소극적으로 정리 되었다. 인조반정 후에는 송상현 후손가가 내재하고 있는 정치적 입지에 따라 노론 세력에 의해 그의 죽음을 殉節의 가치로 격상시켰다. 이 과정에서 송시열은 자신의 학문적·정치적 권위를 바탕으로 송상현의 행적을 정리하고 이를 확산하고자 했다. 청주의 대표적 서원인 有定書院에 송상현을 並享한 뒤 莘菴書院으로 사액 받는 과정도 그 일환이었다. 비록 서원을 둘러싸고 지역 사족과 중앙정계와

의 갈등이 노정되기는 하였으나 17세기 동안 신항서원은 송시열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노론서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했다. 이를 통해 송상현은 忠孝라는 節義를 위해 순절한 영웅으로 형상화 되었다.

송상현의 동래성에서의 순절은 전란 당시에는 전란 극복을 위한 忠義之士로 추송되었으며, 전란 이후에는 선비이자 무장으로서 절의를 지킨 모델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송시열은 위기상황으로 분석한 동 시기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충’의 가치를 송상현에서 발견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추모와 현창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송시열의 활동은 청주의 신항서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송상현과 인연이 있는 각지에 사우와 사묘가 건립되었다.

 참고문헌

『輿地圖書』, 『開城府誌』, 『東國輿地誌』

『礪良宋氏族譜』(丙午譜), 『礪山宋氏泉谷派譜』(己巳譜), 『星州李氏大同譜』

『莘巷書院誌』, 『忠烈祠志』

金壽恒, 『文谷集』

李廷穉, 『四留齋集』

宋象賢, 『泉谷先生文集』

宋時烈, 『宋子大全』

宋浚吉, 『同春堂集』

張維, 『鷄谷先生集』

金義煥, 「慕溪 趙綱의 鄉村社會 活動과 淸州士林의 動向」, 『朝鮮時代史學報』32, 朝鮮時代史學會, 2005.

김정신, 「기축옥사와 조선 후기 서인 당론의 구성, 전개, 분열」, 『韓國思想史學』53, 韓國思想史學會, 2016.

김학수, 「18세기 圃隱家門 繼後의 정치사회적 의미」, 『圃隱學研究』10, 圃隱學會, 2012.

민덕기, 「임진왜란기 정경운의 『孤臺日錄』에서 보는 아래로부터의 聞見정보-實錄의 관련정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45, 한일관계사학회, 2013.

박종천, 「천국 송상현의 사상과 《천곡수필》」, 『국학연구』38, 한국국학진흥원, 2019.

신병주, 「광해군대의 정국과 李德沔의 정치, 외교활동」, 『朝鮮時代史學報』67, 朝鮮時代史學會, 2013.

李京燦, 「조선 효종조의 북벌운동」, 『淸溪史學』5, 淸溪史學會, 1988.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의 정리현황과 과제」, 『韓國書院學報』2, 한국서원학회, 2013.

李迎春, 「尤庵 宋時烈的 尊周思想」, 『淸溪史學』2, 淸溪史學會, 1985.

이재학, 「조선시대 청주 莘巷書院」, 『실학사상연구』21, 무악실학회, 2001.

李政祐, 「17-18세기초 淸州地方 士族動向과 書院鄉戰」, 『朝鮮時代史學報』11, 朝鮮時代史學會, 1999.

정수환, 「17세기 경주 국당리(菊堂里) 동계(洞契)의 전통과 호혜 원리」, 『한국학』4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趙赫相, 「忠壯公 鄭撥에 대한 再考察」, 『東方漢文學』60, 東方漢文學會, 2014.

한희숙, 「17세기 礪山 宋氏 愚谷 宋亮의 家系와 사회적 위상」, 『韓國系譜研究』8, 韓國系譜研究會, 2018.

How Seowon and Sawoo could be a politically ways and means.

-A case study on Song Sang-Hyun's one-

Jung, Su-hwan*

This essay explores political background in enshrining and establishing Seowon (private academy) and Sawoo (shrine) between 16th and 17th century Choson. The case is Song Sang-Hyun(1551~1592) who died on the battlefield in the second day of the Imjin war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his Seowon and Sawoo. His dying was regarded as a kind of righteous death during the war due to boosting fighting spirit and suggesting role model. The meaning of his death was highly appreciated from the Manchu invasion of Choson between 1627 and 1636. Noron Party, accomplished King Injo Restoration in 1623, evaluated his death as dying in defense of his royalty for country and ideology (Neo-Confucianism), and started worship movement. The leader of this party, Song Si-Yeol, took a key role to enshrine Song Sang-Hyun in Seowon and to appoint royally chartered one. This is because the party and the leader created political doctrine so called northern campaign, wiping away a disgrace in 1636, they need to invent a model case and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Chief Researcher) / swan@aks.ac.kr

seize the initiative. Their political rhetoric was sending an expedition to conquer the Qing, as Choson was surrendered by barbarian Manch Qing. After the ShinHang Seowon was to be royally bestowed where he buried, many Sawoo established across the country for him where his birthplace, hometown and battlefield in 17th century. Noron took Song Sang-Hyun's royalty and make him a symbolic icon for their political agenda, then they stay in power for a century. This research proposes that political doctrine was also one of the reasons in founding a Swowon and Sawoo compared with general idea, Neo-Confucian ideological factor.

Key words : Seowon, Sawoo, Song Sang-Hyun, Injin War(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ShinHang Seowon,

이 논문은 2019년 12월 5일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2월 2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26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결정된 것임.

19세기 남양향교의 운영과 지역사회에서의 위상

김자운*

-
- I. 서론
 - II. 남양향교의 건립과 역사
 - III. 19세기 남양향교의 이건 과정
 - IV. 19세기 향교 전답의 유실과 회복
 - V. 청금록의 문란과 재정비
 - VI. 결론
-

<국문요약>

이 연구는 현존하는 고문서 자료들을 토대로 19세기 남양향교의 운영 실상을 분석하고 당시 지역사회 내에서 남양향교의 위상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남양향교의 역사를 간략히 검토하고, 둘째, 조선후기 남양향교의 운영상을 19세기 남양향교의 이건 과정, 향교 전답의 유실과 회복, 청금록의 문란과 재정비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19세기 남양향교의 운영에 양반과 평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들 각 계층은 향촌에서 자신들의 존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향교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는지 검토함으로써 조선후기 지역사회 내에서 남양향교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대해 해석하였다.

조선후기 향교는 흔히 교육기능을 상실하고 군역을 면제받기 위한 피역소로 전락한 채 간신히 제향활동만을 유지해온 황폐화된 모습으로 묘사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과 달리, 19세기 남양향교는 향교 이건 시 재원의 60% 이상을 양반 유생들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확보할 만큼 향교 운영에 유생들의 참여가 매우 활발하였다. 이는 같은 시기 직산향교나 진주향교의 사례와 비교해볼 때 대단한 규모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 남양향교는 언제부터인가 국가에서 지급했던 學田이 제대로 확정되지 않아 재정 기반이 사라지자, 향교 자체 내에서 인근의 전답을 마련하여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였다. 향교의 재정난과 관리의 부실로 19세기에는 그 일부가 유실되었으나 19세기 후반 지방관과 교임들의

*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 jaunkim@hanmail.net

노력으로 유실된 토지를 되찾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절목을 마련함으로써 활로를 모색하였다. 이 때 작성한 절목과 1884년 향교 유생들이 작성한 완의의 내용에 따르면, 19세기 남양향교는 단지 제향 활동 뿐 아니라 疏廳으로 활용되는 등 지역 유생들의 향론 집결지이자 다양한 향촌 활동의 근거지로서 기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8세기 이래로 나타나기 시작한 청금록의 혼입은 당시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상승을 도모했던 남양지역 평민층의 성장과 함께 향교 내 양반유생들의 지위가 점차 위협받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교유생들이 명분과 교화를 앞세우며 끝까지 향교에 남아 모친유학들을 찾아 사적하고 청금록을 재정비하며 향교를 독점하고자 한 것은 남양향교가 양반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행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마지막 활동 근거지였기 때문이다. 특히, 19세기 후반에는 남양 지역의 유일한 서원이었던 안곡서원과 사우 용백사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모두 훼철된 상태에서 지역문화의 중심지로서 남양향교의 위상은 이전보다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키워드 : 19세기, 남양향교, 사회적 위상, 이건, 향교전담, 청금록

I. 서론

이 연구는 현존하는 몇 가지 고문서 자료들을 토대로 19세기 남양향교의 운영 실상을 분석하고 당시 지역사회 내에서 남양향교의 위상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기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 향교는 전기 이래로 교육기능을 상실한 채 제향을 지내는 장소로 그 명맥만 이어왔으며 후기로 갈수록 교생에 대한 면역특전으로 인해 점차 군역 도피처로 전락하는 등 사회경제적 폐해를 초래한 곳으로 평가되어 왔다.¹⁾ 한편, 초창기 연구가 교생이나 향교의 폐해 등 향교의 부분적인 면에만 치중되었던 한계를 지적하고 향교의 전체적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반들의 향촌기구로서 향교의 실체와 사회적 위치를 동태적으로 살펴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²⁾

이 같은 연구 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례 연구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남양향교의 사례를 통해 조선후기 향교가 정말 제향 기능만 행하며 간신히 명

1) 송찬식, 「朝鮮後期 校院生考」, 『국민대논문집』 11, 1976; 김용덕, 「朝鮮後期 鄕校研究」, 『한국사학』 5, 1981.

2) 윤희면, 『조선후기 향교연구』, 일조각, 1996, pp.3-6.

맥만 유지해왔는지, 그렇다면 향촌의 양반 및 평민들에게 향교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곳이었는지, 양반을 포함한 지역민들은 향교 운영에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계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남양향교의 역사를 간략히 검토하고, 둘째, 조선후기 남양향교의 운영상을 19세기 남양향교의 이건 과정, 향교 전답의 관리, 청금록의 문란과 재정비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19세기 남양향교의 운영에 양반과 평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들 각 계층은 향촌에서 자신들의 존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향교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는지 검토함으로써 조선후기 지역사회 내에서 남양향교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대해 해석하고자 한다.

남양향교에 대한 선행연구는 2009년 화성시에서 간행한 『남양향교지』 외에 시도된 바가 없다. 선행연구에서는 남양향교의 연혁, 건립과 정비, 조선시대부터 일제시기 및 현재에 이르기까지 문묘의 변화, 향교의 운영과 역사적 변천 등을 다루고 관찬사료와 고문헌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집성하여 소개하는 등 남양향교에 대한 종합적, 통시적인 연구가 시도되었다.³⁾ 그러나 19세기 『校土量案』에 수록된 토지의 성격을 잘못 파악하는 등 몇 가지 해석상의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⁴⁾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몇 가지 해석상의 오류를 보완하고 19세기 남양향교의 운영과 지역사회 내 남양향교의 위상이라는 주제에 보다 초점을 두어 선행연구를 진전시켜보고자 한다.

남양향교에는 18세기 이래로 향교의 운영과 재정 현황을 보여주는 청금록, 선생안, 양안 등의 고문헌이 약 20여 종 현존하고 있다.⁵⁾ 그 중 본고의 분석 대상은 19세기 향교의 이건 과정 및 전답 관리, 운영 실태 등을 보여주

3) 김자운, 『남양향교지』, 화성시, 2009 참조. 본고는 그 중 제 2부 IV장 ‘조선후기 남양향교의 역사와 변천’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4) 『남양향교지』 제 2부 IV장 3절에서는 『校土量案』에 수록된 전답 총 6결 8부 6속에 대하여 『속대전』에 규정된 7결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이다’고 함으로써 이 전답의 성격을 국가에서 지급한 學田으로 파악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이는 본고 IV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5) 남양향교 소장 고문헌 전체의 상세 목록과 해제는 『남양향교지』(김자운, 화성시, 2009) 제 3부를 참조.

는 「남양향교대성전이건상량문」, 「남양향교상량문」, 『교궁이건시부역전봉상
용하정탈구별성책』, 『향교전안』, 『교토양안』, 『청금록』, 「완의」 등이다. 대
상 자료의 세부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자료 목록

문서명	작성시기	발급자	내용
南陽鄉校大成殿移建上樑文	同治 11년 (1872) 9월 초2 일	南陽都護府使 安驥泳 撰	*
南陽鄉校上樑文	同治 11년 (1872) 9월 초2 일	本官 安驥泳 외	*
校宮移建時赴役錢捧上用下呈頃區別成冊	同治 12년 (1873)	*	향교 移建 시 재정 운영 현황
鄉校田案	乙亥(1875)	南陽都護府使	남양향교 소유 전답안
完議	甲申(고종21, 1884) 閏 5월 초6일	齋中	校畚의 도조를 매년 1두락에 한 말씩 더 거두기로 함
校土量案	光 緒 1 7 年 (1891)	南陽都護府使 李容泰	남양부사가 유실된 향교의 위토 를 회복하고 작성한 양안
靑衿錄(총 4권)	18-20세기	*	남양향교 유생들의 명부
完議	19세기	都有司 洪塾 등	불법으로 모록한 평민들의 명단 을 삭제하고 청금록을 개정

II. 남양향교의 건립과 역사

현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남양향교에 대한 최초의 기록⁶⁾은 성종 12년(1481)에 간행된 『동국여지승람』에 보이며, 창건 시기는 1981년에 작성된 향교중수기⁷⁾에서 태조 7년(1398)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외 창건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문헌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현재 화성시에 해당하는 지역은 조선시대에 수원도호부와 남양도호부의 두 지역에 분할 소속되어 있었으므로, 남양향교의 역사는 남양부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남양부의 역사적 궤적에서 그 단서를 찾아 남양 지역에 향교가 처음 건립된 상한선을 추정해볼 수 있다.

고려 후기 남양의 읍호는 江寧都護府로서 界首官에 해당하는 고을이었다.⁸⁾ 고려의 과거제도는 두 단계의 예비시험을 거쳐야 본시험인 禮部試에 응시할 수 있었는데 그 첫째 관문이 바로 界首官試였으며 계수관시는 계수관의 향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계수관은 관내에서 계수관시를 거쳐 선발된 鄉貢을 도성에 選上하고, 이들이 다시 국자감에서 2차 관문인 국자감시를 통과하면 비로소 예부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⁹⁾ 따라서 계수관에 해당하는 고을에는 계수관시의 시행을 위해 반드시 향교가 있어야 했으므로, 비록 읍호는 다르지만 남양이 강령도호부가 된 충렬왕 31년(1305)을 이 지역에 최초로 향교가 건립된 상한선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 남양의 읍호는 충렬왕 34년(1308) 益州牧을 거쳐 충선왕 2년(1310) 仁州의 속군인 남양부로 다시 강등되고¹⁰⁾ 태종 13년(1413)에는 수원도호부

6) 학교 조와 사묘 조에 “향교는 부의 동쪽 2리 되는 곳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제9권, 경기, 남양도호부).

7) “조선 국조께서 유교를 근본으로 하여 태조 7년 무인년 서울 명륜동에 성균관을 창건하고 전국 각 읍에 향교를 모두 360개소를 개설하였는데 남양향교도 그 중 하나이다”(『鄉校重修記』, 1981).

8) 李存熙, 『조선시대지방행정제도 연구』, 일지사, 1990, p.53.

9) 『고려사』, 권 73, 選舉志 1, 科目 1.

10) 『고려사』 제 56권「지리지」, 楊廣道, 仁州.

관할 하에 남양도호부가 되었다.¹¹⁾ 이후 17세기에 이르러 역적의 출신지라는 이유, 노비가 주인을 시해한 사건으로 부와 현으로 강등과 승격을 되풀이하다 현종 15년(1674)에 다시 남양부가 되었다.¹²⁾ 따라서 남양 지역에 향교가 처음 건립된 상한선은 충렬왕 31년(1305)으로, 하한선은 중수기에 기록된 태조 7년(1398)으로 추정할 수 있다.¹³⁾ 건립 이후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남양향교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향교는 부의 동쪽 2리 되는 곳에 있다.”, “文廟는 향교에 있다.”¹⁴⁾고 한 『동국여지승람』의 기록 외에 초창기 남양향교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이후 15세기 남양향교에 대한 기록은 성종 23년(1492) 1월에 처음 보인다. 조정에서 각 고을 향교교육의 흥폐를 논할 때, 향교에 생도를 많이 모으고 교육에 일정한 성과를 거둔 공으로 남양부사 박처륜에게 벼슬을 가자하고, 감사로 하여금 향교에 순행하여 강과 제술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여 포상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그것이다.¹⁵⁾ 이를 통해 당시 침체된 향교를 부흥하기 위한 성종 연간의 지속적인 향교 진흥책이 적어도 남양향교에서만큼은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에는 남양부사 宋之翰이 향교를 중수하고 제복을 새로 마련하였고,¹⁶⁾ 17세기에는 인조 21년(1643) 남양부사 成夏宗이,¹⁷⁾ 현종 7년(1666)에서 8년(1667) 사이에는 남양현감 閔蓍重이¹⁸⁾ 대성전을 중수하였으며 숙종 5년(1679)에는 남양부사 洪茂가 동무와 서무를 중수하였다.¹⁹⁾

그 외 17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는 병자호란 당시 문묘 위판을 수호한 공으로 남양향교 교생들이 포상 받은 사건과 남양향교에 명륜당이 처음 건립된 것을 들 수 있다. 병자호란 당시 열읍 향교 위판의 태반이 유실되었

11) 『세종실록』, 「지리지」 경기, 수원 도호부, 남양 도호부.

12) 『여지도서』 京畿道, 南陽, 建置沿革.

13) 그 외 남양향교의 건립 시기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은 김자운, 같은 책, 제 2부 Ⅱ장, 2절을 참조.

14) 『신증동국여지승람』 제9권, 京畿, 南陽都護府.

15) 『성종실록』, 성종 23년 1월 21일(임진).

16) 『頤庵先生遺稿』, 권 7, 「先世墓道文」; 「남양향교상량문」(1553).

17) 「남양향교상량문」(1872).

18) 『宋子大全』, 권 141, 「南陽府道源齋朴先生祠宇記」.

19) 『學校謄錄』 4책, 「己未 八月 十六日」.

으나 남양향교만큼은 몇 몇 교생이 지성으로 수호한 끝에 무사히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남양향교의 堂長을 맡고 있던 교생 房浩天은 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몸소 향교에 들어와 문묘를 수호하였다. 그러다가 급기야 전쟁이 임박하자 교생 庾偉, 庾勳, 奎得榮 및 남양부의 예리 洪景仁 등과 함께 위판을 이안하여 남양부 화량진의 정결한 곳에 매안하여 병자호란이 끝날 때까지 남양향교의 위판은 무사히 보호될 수 있었다. 이에 인조 19년(1641) 남양부사 閔仁侏는 경기감사에게 牒呈을 올려 남양향교 교생들의 免講을 청하고, 경기감사는 이를 다시 예조에 보고하여 예조로부터 임금의 윤허를 받아낸다. 그 결과 교생 방호천은 15년에 한하여, 나머지 교생 유위, 유훈, 전득영은 10년에 한하여 교생 고강을 면제받는 특혜를 받았으며, 예리 홍경인은 免役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²⁰⁾

명륜당의 건립은 현종 7년(1666)에서 현종 8년(1667) 사이 남양현감 閔蓍重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우선 무너진 대성전을 수리하고, 동서무 아래쪽의 터를 닦아 명륜당을 건립한 뒤 담가에 해나무를 새로 심었다. 명륜당상량 문에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先聖께 석전제를 올리는 의식에는 비록 益州²¹⁾의 廟가 있으나 제생이 游息하는 장소는 아직까지 湖學의 堂이 없었다. 이에 講席이 황폐하여 膠序의 자취를 찾기 어려웠으며, 靑衿이 쓸쓸하여 弦誦하는 소리를 누구도 듣지 못했다. 지난날 명륜당을 짓지 못했음을 개탄하면서도 오늘을 기다렸음을 알겠노라. … 어느 누가 明府께서 몇 개월 다스리는 사이, 한 고을에서 천 년 동안 없었던 일을 거행할 줄 알았겠는가²²⁾

그런데 남양향교가 건립된 지 수백 년이 경과하도록 명륜당 없이 존속되었다는 점은 다소 의아하다. 그렇다면 15세기에 제생을 잘 가르쳐 포상을 받

20) 『학교등록』 1책, 辛巳 4月 初4日.

21) 益州는 고려시대(1308년) 남양의 古號이다. 남양은 충렬왕 34년에 익주목이 되었는데, 이는 역대 이래 남양이 지닌 최고의 읍격이었다. 상량문에서는 으레 고호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여기서도 과거 남양의 최고 읍호였던 '익주목'을 남양의 고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2) 『松谷集』, 「南陽鄉校明倫堂上樑文」.

은 남양부사 박처륜은 어디서 제생을 가르쳤을까? 정확한 것은 확인할 수 없지만 남양향교처럼 강학공간이 없어 인근 정사나 불사에서 생도를 모아 가르쳤던 여말의 강릉향교²³⁾나 이천향교²⁴⁾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으로 이분화된 향교의 공간 구조는 전국에 향교가 보급된 조선 초기부터 완벽하게 확립된 제도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7세기 후반에 와서야 남양향교에 비로소 명륜당이 건립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 향교나 서원 같은 지방 학교는 지방관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사회적 지위 및 역량에 따라 크게 번성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당시 남양현감에 부임한 인물이 어떤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지닌 존재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명륜당 건립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원활히 동원할만한 역량을 지닌 지방관은 바로 현종 6년(1665)에 남양현감으로 부임한 閔蓍重(1625~1677)이었다.²⁵⁾

민시중은 여흥 민씨 삼방파 출신으로 1650년 생원시, 1664년 문과 모두에서 장원한 뒤 관직에 진출하였다. 그의 가문은 삼방파의 파조이자 민시중의 아버지 민광훈 대부터 조선 말기까지 문과 급제자만 총 163명을 배출한 조선의 대표적 명문가이자 후일 인현왕후를 배출한 왕실의 외척이 된다. 또한 동생 정중, 유중을 포함한 민시중 3형제와 그 아들들은 송시열, 송준길의 제자이자 정치적 동지로서 17-18세기의 조선 정계를 주도한 서인, 노론의 중추 세력이었다.²⁶⁾

23) 金承印, 「花浮山鄉校創立律詩」(『江陵鄉校誌』).

24) 『陽村集』, 제14권, 記類, 「利川新置鄉校記」.

25) 『남양읍지』의 「읍선생안」에 따르면, 민시중은 을사년(1665, 현종 6) 6월에 부임하여 정미년(1667, 현종 8) 12월까지 남양현감으로 재직하였다.

26) 송시열, 송준길과 민시중 3형제의 인연은 13세 민충원이 외가 근처인 유성으로 이거하면서 그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들은 16세기부터 17세기 중후반까지는 회덕, 유성 지역의 재지사족으로 사회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과 회덕, 유성을 오가며 지냈다. 21세 민시중, 민정중, 민유중 형제와 그 후손들에 이르러 회덕에서 재지사족으로서의 삶은 송시열, 송준길과 학문적, 혈연적으로 연계되고 정치적으로 서인, 노론으로서 정체성을 띠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민시중 3형제와 그 아들들은 송시열의 문하에서 기호학통을 계승, 송시열과 송준길이 서인 산림으로서 산당을 형성하고 정국을 주도하던 효종-숙종대에 서인-노론으로서 兩宋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며 갑인예송, 기사환국 등의 파란을 함께 겪은 정치적 동지가 되었다. 현종 9년(1668) 무렵 민정중이 경기도 양주에 선산을 마련하고 회덕의 선묘를 천

상량문에 따르면, 당시 명륜당 건립은 ‘많은 사람들의 지원으로 役事는 감독하는 데에 번거로움이 없었고 몇 개월 사이 공사가 순식간에 이루어져 귀신이 몰래 돕는 듯하였다’고 할 정도로 탄탄한 지원 하에 이루어졌다. 그 뿐 아니라, 민시중은 우선 무너진 대성전을 수리하고 명륜당을 건립한 뒤 남양부에 제갈량과 호안국을 모신 사우 龍栢祠를 지었으며, 남은 재력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후일 안곡서원의 전신이 된 박세희의 사우까지 세웠다.²⁷⁾ 당시 정치사회적 입지와 가문을 배경으로 한 그의 자원 동원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명륜당상량문에서는 민시중을 明府라 칭하며 ‘어느 누가 明府께서 몇 개월 다스리는 사이, 한 고을에서 천 년 동안 없었던 일을 거행할 줄 알았겠는가’라고 기록하고 있다.

18세기 영조 20년(1744)에는 문묘 위판이 훼손되어 남양부사 鄭來周가 탄핵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는 당시 집안에 우환이 있어 잠시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나이 어린 그의 女壻 申文錫이 남양 관아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향교에 들어가 실수로 신위를 건드렸으나, 대신들은 衙客이 향교에 몰래 잠입하여 신위를 훼손한 것으로 오해하여 결국 남양부사가 체직되었다고 한다.²⁸⁾

19세기 이르러 남양향교는 총체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우선 향교의 터가 습하고 좋지 않아 17세기부터 건물이 썩고 기울어지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 19세기에 이르러 대성전의 正間柱가 썩고 수축하여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터 자체가 좋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보수나 중수로는 한계가 있었다. 19세기 후반 대들보가 무너져 내릴 지경에 이르자 마침내 향교 이건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향교 전체의 이건은 대규모의 비용과 노동

장하면서 서울에서의 세거가 본격화되고 숙종 6년(1680) 민유중의 딸이 숙종비 인현 왕후로 간택되면서 여흥 민씨 전체를 주도하는 지도적 집단으로 성장하였고, 이후 왕실의 외척이자 서인, 노론의 중추로서 17-18세기의 조선 정계를 주도하게 된다(김명숙, 「관직 진출 동향으로 본 조선 후기 여흥 민문 성장의 구조」, 『한국사상과 문화』 제 57집, 2011, pp.216-221).

27) 민시중은 이 때 박세희의 사우를 짓고 스승 송시열에게 기문을 부탁하였다(『宋子大全』, 「南陽府道源齋朴先生祠宇記」).

28) 『승정원일기』, 영조 20년 5월 26일 (계묘).

력이 소요되는 일이었으므로 지방관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19세기 말에는 도조나 경작인에 대한 관리 소홀로 그나마 유지해오던 향교 전답의 태반이 유실되어 남양향교는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였다. 또한 조선후기 富民으로 성장한 남양 지역 평민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도모하고자 일부 유생들과 결탁하여 18세기부터 사사로이 뇌물을 바치고 청금록에 불법으로 모록을 일삼기 시작하다가 19세기에는 청금록의 문란이 더욱 심해져 마침내 향교 내 양반유생들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다. 청금록의 문란, 전답의 유실, 향교 이건의 과업 등 19세기 남양향교가 직면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갔는지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남양향교는 소화 8년(1933) 건물 전체를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서재를 신축하였으며, 한국전쟁 때 폐허가 된 향교를 1970년대부터 복원하기 시작하여 1990년 복원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꾸준한 보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Ⅲ. 19세기 남양향교의 이건 과정

남양향교는 고종 8년(1871)부터 고종 10년(1873)까지 3년에 걸친 공사 끝에 역골[驛谷]에서 글판이[文坂]로 이건함으로써 오랜 숙원사업을 완성하게 된다. 이건을 위한 재원의 마련은 고종 8년(1871)부터 고종 10년(1873)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고종 9년(1872) 가을에 대성전을 이건하고, 고종 10년(1873) 봄에 그 외 건물의 이건을 모두 완료하였다.

당시 향교의 이건과 관련하여 현전하는 고문서는 동치 11년(1872)에 작성된 「남양향교대성전이건상량문」과 「남양향교상량문」, 3년에 걸쳐 재원의 확보 과정과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기록한 『校宮移建時赴役錢捧上用下呈頃區別成冊』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향교를 이건하게 된 배경, 이건 당시 구성된 임원조직의 직책과 구성원, 재정 운영의 규모와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향교를 이건하게 된 배경은 당시 남양도호부사 安驥

泳이 지은 「남양향교대성전이건상량문」에서 살필 수 있다.

향교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고 사람이 탄식함을 매우 걱정하게 되었다. 대성전은 집터가 좋지 않음을 늘 싫어하였고, 여름장마와 봄에 얼음 녹은 물에도 棟宇가 쉬이 기울어짐을 면하기 어려웠다. 글판에[文版]가 태양을 향한 언덕에 있음은 얼마나 다행인가? 風水家가 길하다고 택한 땅이 실로 들어맞는다.²⁹⁾

이 때, 이건과 관련한 실무 책임을 맡은 임원단이 구성되었는데 각 직책과 구성원의 성명이 「남양향교상량문」에 기록되어 있다. 구성원은 총 11명으로 남양도호부사 안기영을 수장으로 하고 營建有司 4인, 監官 3인, 色吏 3인으로 구성되었다. 영건유사는 崔亨植, 李亮植, 李重善, 鄭錫永, 감관은 洪裕權, 金玄圭, 洪亮煥, 색리는 洪浩明, 洪義淵, 朴世煥이다.³⁰⁾

『校宮移建時赴役錢捧上用下呈頤區別成冊』³¹⁾에는 이건에 관련된 재정의 운영을 ‘捧上[수입], 用下[지출], 呈頤’ 특정한 사유로 납부를 면제해 준 경우를’의 세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먼저 이건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는 남양부의 평민, 교생, 양반 등 지역민들에게 거둔 수입과 관에서 마련해준 官下錢, 구향교터를 매매한 비용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 지역민들에게는 고종 8년(1871)부터 고종 10년(1873)까지 3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다양한 항목으로 비용을 거두었다. 먼저 남양부 전체 14개 면의 민호들에게는 역의 일종으로 부역전을 부과하기 위해 부사에게 稟目을 올려 허가를 받은 뒤 두 차례에 걸쳐 호당 2전씩 거두고, 양반유생들에게는 儒學錢과 分排秩의 항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거두었다. 마지막으로 두 차례에 걸쳐 교생 총 87명에게 거둔 기록이 있는데, 이들은 액외교생 중 향교의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모집했던 교생으로, 향교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대가로 군역을 면제해준 募入校生으로 보이며,³²⁾ 이들은 1인당 10냥에서 30냥까지 납부하였다. 이상 총 6

29) 「南陽鄉校大成殿移建上樑文」.

30) 그 중 영건유사 3명은 청금록과 선생안에 수록되어 있어 본관을 확인할 수 있다. 영건유사 최형식은 삭녕 최씨로 『청금록』 2권과 『선생안』 1권에, 이중선은 전주 이씨로 『청금록』 3, 4권과 『선생안』 1권에, 정석영은 초계 정씨로 『청금록』 2권과 『선생안』 1권에 수록되어 있다.

31) 이하 편의상 『구별성책』으로 약칭.

차례에 걸친 재원 확보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거둔 것은 고종 8년(1871) 8월에 평민들을 대상으로 한 부역전으로 ‘每戶 2錢式 收捧秩’의 항목으로 기록하고 있다. 남양부의 14개면에서 각 면별 해당 동마다 역을 부과하여 부과된 役軍의 인원수를 기록하고 1인당 2전씩 계산하여 그 아래 총 금액을 기록하였다. 役軍 1인당 2전씩 납부하면 대신 부역을 면제해주고,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역에 응하게 하였다. 부과 대상 호수는 총 3,858호에 771냥 6전이었으나 그 중 사망자 1명, 流離된 자 2명, 부역으로 대신한 자 340명을 제외하고 실제 거둔 금액은 총 703냥이다.

다음 해 고종 9년(1872) 8월에는 양반유생들에게 ‘幼學錢’이라는 명목으로 거두었는데, 액수가 최저 1냥에서 최고 100냥까지 다양한 것으로 보아 부역전처럼 일정 금액을 정하여 부과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부금조로 거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애초에 목표 금액은 4,510냥이었으나 유리 혹은 呈減된 액수를 빼고 실제 거둔 금액은 총 4,392냥이다. 남양부 전체 14개 면 별로 나누어 각 면 이하 해당 동별로 성명을 쓰고 그 아래 금액을 기록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두 달 전 유학전 봉상질에서 누락된 호에 대해 추가로 거둔 뒤 ‘漏戶追分排秩’이라는 항목으로 기록하였다. 450냥을 목표로 하였으나 呈減액을 빼고 누락된 14호에서 총 246냥 6전을 거두었다.

이처럼 평민들과 양반유생을 대상으로 세 차례나 거두었으나 여전히 재원이 확보되지 않자 다음 해 고종 10년(1873) 2월과 4월 양반과 교생들에게 다시 ‘分排秩’을 부과하였다. 유학과 교생을 합하여 총 106명에게 1,069냥을 거두었는데, 그 중 유학이 67명, 교생이 39명이며 납부금액은 2냥부터 40냥까지 다양하다. 2월의 분배질로도 목표 금액이 충당되지 않자 두 달 뒤 4월에도 역시 분배질의 명목으로 다시 유학과 교생을 대상으로 466냥 8전 5푼을 더 거두었다.

이상과 같이 평민들에게 한 차례, 양반유생들에게 세 차례, 교생들에게 두

32) 고종 8년(1871)년에 편찬된 『경기읍지』, 「남양부읍지」에 수록된 ‘事例大概’의 향교 조에는 ‘유생 36인, 교생 70인, 납속교생 32인, 모입교생 80인’이라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교생 70인은 액내교생, 납속교생과 모입교생은 액외교생을 가리킨다. 남양향교 이건은 남양부읍지가 간행된 직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건 과정에서 재원의 확보를 위해 읍지에 수록된 인원수보다 모입교생의 수를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

차례, 총 5차례에 걸쳐 세금과 기부금의 형식으로 기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이건 비용이 턱없이 모자라자 남양향교 유생들은 한 달 뒤 다시 한 번 부사에게 품목을 올려 평민들에게 부역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같은 해 5월 부사의 허락을 받고 평민들에게 부역전을 부과하여 14개 면에 호당 2전씩 분배하고 총 705냥 7전을 거둔 뒤 ‘因儒稟各洞分排錢捧上秩’의 항목으로 기록하였다.

그 외의 수입으로는 관에서 마련해준 관하전 100냥과 구 향교 터를 매매한 돈 200냥이 있었다. 당초 지역민들에게 부과했던 금액 총 9,055냥 3전 중에서 呈頃 1,015냥, 관에서 내린 下帖에 따라 부과를 취소한 457냥 1전 5푼, 유학전과 부역전 중 미납액 7냥 5전을 제하고 지역민들에게 모금한 실제 금액은 총 7,625냥 6전 5푼, 관하전과 구향교 매매액을 합하면 총 수입은 7,925냥 6전 5푼이다.

<표 2> 남양향교 이건 시 수입 내역

항목	대상	금액	비율(%)
부역전	평민	1,408냥 6전	17.7
유학전	유학	4,688냥 6전	59
분배질	유학+교생	1535냥 8전 5푼	19.3
官下錢	*	100냥	1.3
구향교터 매매	*	200냥	2.5
합계	*	7,925냥 6전 5푼 ³³⁾	100

다음으로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고종 9년(1872) 봄에 이건 전 구 향교의 명륜당과 庫舍의 공사비용으로 739냥을 지출하고, 이건 공사에 쓸 石灰 비용 30냥을 선불 지출하였으며, 고종 9년(1872) 가을에 대성전 이건 비용으로 4,615냥 9전 2푼을, 고종 10년(1873) 봄에 그 외 건물의 이건 비용으로 2,385냥 5전 5푼, 齋服 修補 비용으로 155냥 8푼을 지출하였다. 향교 이건에만 지출된 비용은 총 7,770냥 4전 7푼으로, 명륜당과 고사의 역사에 사용

33) 표에 정리된 수입내역을 합산하면 실제 총 수입은 7,933냥 1전 5푼이다. 그러나 『구별성책』의 결산내역에는 총 수입이 7,925냥 6전 5푼으로 기록되어 약간의 차이가 난다. 여기서는 문서상의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된 739냥의 10배가 넘는 비용이다. 여기에다 재복 수보까지 합산한 총 지출액은 7,925냥 5전 5푼이다.

<표 3> 남양향교 이건 시 지출 내역

항목	시기	금액	비고
舊鄕校 明倫堂 및 庫舍 役事	고종 9년(1872)	739냥	*
石灰	*	30냥	先 買
대성전 이건 비용	고종 9년(1872) 가을	4,615냥 9전 2푼	*
기타 건물 이건	고종 10년(1873) 봄	2,385냥 5전 5푼	*
齋服 修補	고종 10년(1873)	155냥 8푼	*
총지출액	*	7,925냥 5전 5푼	*
잔액	*	1전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양반유생들이 납부한 유학전이다. 분배질에도 교생과 함께 양반들의 납부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가 유학전에 기록된 명단과 중복되므로 분배질을 제외하고 유학전의 비중만 따지더라도 4,688냥 6전으로 전체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이 사라진 조선후기 향교 운영에 지역 유생들의 참여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그러나 결핍된 국가재정을 대신하기 위한 운영책은 각 지역 향교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이를 19세기 다른 지역 향교의 운영 사례와 비교해보자.

헌종 7년(1841)에 대성전을 중수한 稷山鄕校의 경우³⁴⁾, 부족한 향교 재정을 대신하여 마련된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남양향교처럼 유생의 부조가 아닌, 관에서 지급해준 劃下錢이었다. 대성전 중수에 총 650냥 2

34) 임선빈,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직산향교의 운영실태」, 『고문서연구』 21, 한국고문서학회, 2002.

전이 소용되었는데 그 중 70%에 해당하는 450냥을 관에서 지원 받은 것이다. 그 중 유학전은 25%에도 못 미치는 122냥 2전에 달하는 액수였다. 또 순조 32년(1832) 晉州鄉校의 경우 향교 중수 시 73개 리에서 元儒와 別儒를 합하여 양반유생 4,418호에서 각 3전씩 1,325냥을, 일반 民戶에게는 1호당 2전씩 2,836냥을 거두어 공사비용을 마련하였다.³⁵⁾ 진주향교 역시 유학전의 비중이 일반 민호에게 걷은 부역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양반유생들의 호당 납부 금액 역시 남양향교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후기 국가의 재정 지원이 사라진 상황에서 향교의 중수나 이건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관의 지원 외에 양반들이 유학전을 각출하거나 개인 재물을 희사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이와 같은 양반들의 자발적 참여는 향교가 양반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향촌기구였고 향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양반으로서의 신분 유지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직산향교나 진주향교의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남양향교는 전체 이건 비용의 약 60%를 스스로 마련할 만큼, 유생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조선후기 남양향교가 문묘 행사를 통한 유림 집결지로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면역특전을 보장 받고, 양반으로서의 사회문화적 지위를 획득하고 행사할 수 있는 이 지역의 유일한 근거지였음을 보여준다. 19세기 후반에는 남양 지역의 유일한 서원이었던 안곡서원과 사우 용백사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모두 훼철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문화의 중심지로서 남양향교의 위상은 이전보다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IV. 19세기 향교 전답의 유실과 회복

35) 『晉州鄉校修理時財物收集記』(규장각 소장); 이해준, 「조선후기 진주지방 儒戶의 실태-1832년 진주향교수리기록의 분석-」, 진단학보 제 60호, 1985, pp.82-87에서 재인용.

조선후기 언제부터인가 흩어지기 시작한 남양향교의 전답은 19세기 후반 무렵에는 논 4섬 9말 7되지와 밭 12말갈[斗耨]을 제외한 나머지 태반이 모두 유실되었는데, 고종 28년(1891) 10월 남양부사 李容泰³⁶⁾가 부임하여 유실된 전답을 되찾고 『校土量案』을 새로 작성하여 1건은 관아에 1건은 향교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校土量案」에 수록된 서문과 절목에는 당시 전답이 유실된 배경 및 회복 과정, 향후 관리 방안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서문은 남양향교 유사 洪堉가 작성하고, 부사 이용태는 절목을 작성한 뒤 마지막에 서압을 하고 측량색리와 예리의 성명을 함께 기록하였다. 본문에는 전답 소재지를 면리 단위로 기록한 뒤, 전답의 字號와 地番을 적고, 그 아래 토지의 등급, 형태, 장광, 면적, 소출량 등을 기록하였으며 지번 위에는 작은 종이를 덧붙여 자호 별로 1명씩 소작인의 성명을 기록하였다. 먼저, 서문에서는 이 양안을 작성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本府 校宮의 位土는 다 흩어져 사라져 버렸으니 또한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선비들이 그것을 한스럽게 생각하였다. …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신묘년 봄이 되어 부사인 이용태가 마침 이 고을을 맡아서 정사가 인화를 도모하여 없어졌던 온갖 것들이 모두 흥성하게 되었다. 또한 성인을 숭모하는 정성과 특별히 예를 사랑하는 중함을 유념하여 옛 땅을 찾아 회복하고 문서를 작성하여 1건은 관부에 두고 1건은 교궁에 두어서 영원히 제사를 지내고 오랫동안 지킬 규칙으로 삼았다. … 이후로부터는 만일 사사롭게 팔거나 몰래 갈아먹는다면 象魏가 위에 있고 法鼓가 아래에 있을 것이다.³⁷⁾

양안에 수록된 전답의 소재지는 陰德里面, 禾尺只面, 旆知串面, 麻道面, 西如堤面, 水山面, 雙樹里面 등 남양부에 소속된 7개 면으로, 남양향교가 있는 음덕리면을 포함하여 모두 향교 인근에 있는 토지였다. 전체 전답의 규모는 논이 총 7섬 8두 2승락, 밭이 총 4일같이 8두락이며 結負로는 논과 밭을 합하여 총 6결 8부 6속이었다.

36) 『남양읍지』 「읍선생안」에 따르면, 이용태는 고종 27년(1890)에 부임하여 고종 29년(1892)까지 남양부사를 역임하였다.

37) 「校土量案」, 「光緒十七年十月日校宮量案序」.

전답의 경작 방식은 대부분은 소작인에게 경작을 주고 소작료를 거두었으며, 일부는 향교에 소속된 水門直, 首奴, 고직, 수복 등의 구실아치들에게 직접 私耕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향교에서의 각종 잡역을 담당하는 대가로 향교 근처에 있는 校田을 경작해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소작인으로 기록된 성씨는 박씨, 김씨, 윤씨, 이씨, 홍씨, 공씨 등이다.

여기서 작인의 명단과 경작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것, ‘給價還退’, ‘還推’라는 기록에 따르면, 이 때 되찾은 향교 전답의 성격은 국가에서 지급한 ‘學田’이 아니라 향교 자체에서 마련하여 소유한 전답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에서 지급한 학전은 소유권이 아니라 收租權만을 지급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군현에서 거둔 조세 가운데 학전의 결수에 상당하는 租를 지방관의 주관과 책임 하에 향교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만 지닌 향교에서는 학전을 사고 팔수도 없었고 경작에 관여할 필요도 없었다. 따라서 이 때 양안에 ‘사사로이 돈을 받고 판 토지를 값을 치루고 되찾아왔다’거나 경작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것은 이 토지가 학전과는 별개로 향교에서 따로 마련하여 소유권을 지닌 전답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조선후기 남양향교에서 학전 외에 별도의 전답을 마련한 것은, 수조권만 제공했던 학전은 조선후기 군현의 재정난에 따라 규정대로 획정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군현의 급박한 재정사정에 따른 관에서의 轉用, 수령의 자의에 의한 처리 등의 우려로 향교의 경제기반으로서 매우 불안정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후기 많은 향교에서는 학전 이외에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사유지를 마련할 필요가 제기되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전과는 별개의 校田이 마련, 증대되었다. 남양향교의 경우처럼 향교에 따라서는 교임들의 유용, 재정의 부족으로 중간에 전답이 매각되기도 하였으나, 항구적인 경제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복구와 매입을 반복하면서 校田은 점차 조선후기 향교 경제기반의 대종을 이루게 되었다.³⁸⁾ 서문에 이어 수록된 절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⁹⁾

38) 윤희면, 같은 책, pp.219-231 참조.

39) 『校土量案』, 「節目」.

일. 기왕에 값을 받고 팔아치웠거나 잃어버렸거나 몰래 밭을 갈아먹을 것을 조사하여 찾아낸 것은 논이 2섬 8말 5되지기, 밭이 3일같이 3마지기이고 구양안에서 남은 답[餘在畓]이 4섬 9말 7되지기, 밭은 12두경[斗耕]이니 합하여 논은 7섬 8말 2되지기, 밭은 4일같이 8마지기로 자호, 짐수, 장광을 모두 수정하여 새롭게 양안 2건을 작성하였다. 1건은 교궁에 놓아두어 유사가 관리하고 1건은 관아에 놓아두어 禮吏가 관리한다. 만일 간혹하여 잃어버리는 폐해가 있으면 감영에 보고하여 법으로 처벌하고 지금 남아있는 1건은 수정하고 잃어버린 1건을 도로 완전하게 복원하여, 변치 않고 맡아 지킬 것.

일. 지금부터 향교의 일이나 읍의 일이나를 논하지 말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조 절할 것이 있으면 비록 조그만한 땅이라도 유림이 애초에 팔기를 청해서도 안되고 관도 파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비록 관가와 유림이 팔도록 허락한 실적을 얻고 자 한 일이 있더라도 사서 얻은 사람은 오로지 盜買律에 의거하여 값을 치루기를 허락지 말며 도로 찾아서 납부한 뒤에 법에 의거하여 형벌을 주고 유배할 것.

일. 작인 중에서 농사에 힘쓰는 일에 힘쓰지 않거나 추수하는 마당에서 간악하게 구는 자가 있으면 교임과 예리가 일일이 관에 아뢰고 엄하게 징벌하여 태척하고 관에서는 관인을 찍어 첩을 작성하여 새로운 작인을 정할 것.

일. 추수할 때에 향교 부치 및 읍의 부치 및 양반, 상놈, 아전 백성을 막론하고 만일 간악하게 구는 폐단이 있으면 徵納하고 엄히 처벌하여 도매율에 의거하여 시행할 것.

일. 추수할 때에 반드시 예리를 정하여 庫員과 함께 看檢하고 수납한 뒤에 섬의 수를 수정하고 책 2건을 작성하여 관에 들어서 첩으로 작성하여 1건은 본부에 두고 1건은 校中에 두고 用下, 出入 등은 유사가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할 것.

일. 춘추향공은 이미 정해진 법례가 있으니 應入은 수조 중에서 배당하여 쓰지 말도록 하며 疏廳의 雜費 등과 같은 것들도 수조 중에서 배당하여 쓰지 말도록 하고 다만 祭器, 齋服, 茵席, 窓戶, 牆垣을 수리하는 등 그만 둘 수는 없지만 항상 비용이 소용되는 것에 대해서 참작하여 들여다 쓸 수 있을 뿐이고 일 없이 재에 들어

와 오고 가며 머무르는 사람에게 멋대로 공궤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

일. 校生, 守僕, 庫直, 校奴, 食婢 등의 명색에게 이미 밥을 먹일 자금이 없으니 추수 후에 들어오는 곡식의 양을 헤아려서 배정하되 흉년이라도 2섬 아래로는 내려가게 해서는 안 되고 풍년이라도 5(3)석을 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울로 삼아야 한다. 유사들은 등급을 나누어 추수 성책의 말단에 기록해 두어서 첩을 작성하여 내리고 추수를 간검하는 예리도 2섬씩 모두 제공할 것.

이를 통해 당시 남양향교의 부실한 운영상과 그 배경 및 향교운영을 둘러싼 지방관과 유생들의 입장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조선 후기 남양향교 전답이 유실된 배경은 첫 번째 조항과 두 번째 조항에 따르면, 사사로이 돈을 받고 팔거나 잃어버리거나 개인이 사점하여 몰래 갈아먹는 것 등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향교 전답을 몰래 팔아먹는 주체에 향교의 유생, 심지어 관가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비록 작은 땅이라도 유림이 애초에 팔기를 청해서도 안 되고 관도 파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혹은 ‘비록 관가와 유림이 팔도록 허락한’ 이라는 기록에 따르면, 향교 유생 뿐 아니라 관가 역시 盜賣를 자행한 당사자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공적이거나 사적인 이유로 유생들이 매매를 청할 경우 관에서 공모하여 이를 허락하거나 혹은 적어도 묵인하는 경우가 그동안 향교 전답이 유실된 이유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에 향후에는 ‘비록 관가와 유림이 팔도록 허락한 실적을 얻고자 한 일이 있더라도 사서 얻은 사람은 오로지 도매율에 의거하여, 값을 치루기를 허락지 말며 도로 찾아서 납부한 뒤에 법에 의거하여 형벌을 주고 유배할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전답을 판 사람 뿐 아니라 산 사람 역시 처벌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둘째, 되찾은 전답의 규모와 구양안에 남아 있던 전답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 조항에 따르면 되찾은 전답은 논이 2섬 18말 5되지기, 밭이 3일갈이 3마지기이고, 구양안에 남아 있던 전답은 논이 4섬 9말 7되지기, 밭은 12두경이다. 합하여 논은 7섬 8말 2되지기이고 밭은 4일갈이 8마지기라고 하였으니, 구양안에 남아 있던 밭 ‘12두경’은 1일 갈이에 해당하는 규모

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양반부터 상한에 이르기까지, 추수 시 간악하게 구는 폐단을 엄금한 조항을 통해 아전부터 작인, 양반, 상한을 막론하고 추수할 때마다 소출을 둘러싼 비리와 농간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추수 시에는 반드시 관에서 禮吏를 파견하여 庫員과 함께 추수 상황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첩으로 작성하여 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작인을 교체할 때마다 관인을 찍은 첩을 작성하여 임명하는 사실을 통해 작인에 대한 관리까지 철저히 관에서 감독, 통제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향교 전담으로부터 얻은 수입의 지출 범위를 알 수 있다. 춘추향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미 정해진 법례가 있으니 해당 비용을 도조에서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疏廳의 잡비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재에 드나들거나 머무르는 사람들을 공궤하는 비용도 일체 향교 재정에서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대신 최소한의 향교 유지와 운영을 위한 祭器, 齋服, 茵席, 窓戶, 墻垣의 수리 등 어쩔 수 없이 소용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참작하여 지출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다섯 째, 향교의 구실아치들에게 소용되던 연간 식비의 규모 및 유사와 예리에게는 수고비 조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조항에 따르면, 校生, 守僕, 庫直, 校奴, 食婢 등의 名色들에게 들어가는 연간 식비의 규모는 흥년이라도 최소 2섬, 풍년이라도 최대 3섬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 또 校奴와 食婢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당시 남양향교 재정에는 전담 외에 향교노비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시 향교 운영을 둘러싼 지방관과 향교 유생들의 입장 차이 및 미묘한 갈등관계를 엿볼 수 있다. 절목 중 소청의 잡비 및 재에 머무르는 유생들의 공궤 비용으로 향교 재정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통해, 당시 남양향교는 단지 제향 활동 뿐 아니라 지역 유생들의 향론 집결지이자 다양한 향촌활동의 근거지로서 기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안이 작성되기 7년 전인 1884년 윤 5월 남양향교 유생들은 다음과 같은 完議를 작성한 바 있다.

이 완의는 근래에 교중에서 필요한 것이 많으므로, 금년부터 校畵의 도조를 매년 1두락에 한 말씩 더 거두는 것을 영원한 규칙으로 삼기 위한 것임. 이후에 교중에서 특별히 사용할 돈 15緡 이하는 유사가 담당하고 그 이상은 재중에서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완의를 작성함.⁴⁰⁾

유생들은 소청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향교 소유 전답의 도조를 상향 조정하고, 15緡錢에 이내로 한정하여 향교 재정에서 활동비용을 지출하는 등 남양향교를 자신들의 자치활동을 위한 향촌기구로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반면, 남양부사는 제향 및 향교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 외에 유생들의 사회적 활동에 따른 지출은 낭비로 생각하고 최대한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당시 잃어버린 향교 전답을 되찾고 이후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해 남양부사 이용태가 작성한 절목의 규정들은 향교 재정에 대한 유생들의 관리 태만과 낭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한편 향교를 자치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유생들에게 간섭과 규제를 가하고, 제향이나 교육 외에 양반유생들의 활동 근거지이자 향촌기구로서의 역할은 최대한 배제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관의 시정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이후의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전언⁴¹⁾에 따르면, 이 때 되찾은 전답은 1950년 농지개혁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다가 농지개혁 때 작인들에게 모두 분배되었다고 한다.

V. 청금록의 문란과 재정부

조선후기 富民으로 성장한 남양 지역 평민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도모하고자 일부 유생들과 결탁하여 18세기부터 사사로이 뇌물을 바

40) 「完議」, 甲申 閏 5월 6일(『校宮移建時赴役錢捧上用下呈頌區別成冊』 말미에 첨부되어 있음).

41) 화성시 향토사학자 홍승길 선생님의 인터뷰에 따름.

치고 청금록에 불법으로 모록을 일삼기 시작하다가 19세기에는 청금록의 문란이 더욱 심해져 마침내 향교 내 양반유생들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다.

남양향교 청금록에 수록된 유생의 수를 비교해보면, 청금록 1권에 152명, 2권에 545명, 3권에 501명, 4권에 1,015명으로 유생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⁴²⁾ 특히 청금록 4권에 입록된 유생의 수는 청금록 1권의 7배나 될 정도로 폭증하였다. 이 같은 유생의 증가는 조선후기 향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이는 조선후기에, 축척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했던 평민들이 유학을 冒稱하여 청금록에 입록하려 하거나, 기존에 청금록에 배제되었던 향족과 서얼들이 입록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조선후기에는 청금록 입록을 둘러싸고 사족과 향족 및 서얼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청금록에 입록되는 유생의 증가는 양반 신분의 지표였던 청금록의 의미를 점차 퇴색시켜갔다.

남양향교에도 모칭유학들이 점차 증가하여 청금록이 문란해지고 향교 기강이 해이해지자, 19세기 향교 유생들은 마침내 完議를 작성하여 모록한 평민들을 찾아내 삭적하고 청금록을 재정비하고자 하였다. 이 때 작성한 완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릇 名分이란 기강이 시작하는 곳이며 풍속을 교화시키는 근본이다. 국가로부터 향읍에 이르기까지 풍속을 바로잡고 백성을 이끄는 데에는 이것을 급선무로 삼았으니 옛날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바꾸지 않고 지키는 떳떳한 큰 법이었다. 대개 학교를 성립한 이후에야 선비를 기를 수 있고 선비를 기른 이후에는 청금록을 두었다. 범상한 서민들이 감히 청금록에 끼어들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그 명분이 지극히 엄하고 그 이치가 지극히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아아! 근래에 세상의 도가 점점 떨어지고 법도가 무너져서 시골구석의 힘 있고 완악한 무리들이 의리와 분수를 저버리고 幼學을 모칭하여 청금록에 섞여 들어와서는 방자하게 자신을 과장하고 교만하고 사납게 굴어서 사대부들이 왕왕 이들에게 욕을 당하기도 하니 상륜을 어지럽게 하는 일은 이것보다 심한 것이 없다. 그 연유를 따져보면 이 모든 일이 齋中에서 일을 주관하는 자가 더럽고 험잡한 데서 나온

42) 남양향교 청금록의 변화와 입록된 주요 성씨는 『남양향교지』, 제 2부 IV장 4절을 참조.

소치이니 이 같은 일을 해놓고서 어찌 감히 명륜당에 서겠는가? 비록 다른 사람의 말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애석하고 애석하다. 사람이 함께하며 분통해 한 지가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다.

이제 여기 재중에서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청금록을 개정하고 모든 부정한 무리들을 영원히 파내어 명분이 다시 바르게 되고 기강이 떨어졌으니 실로 우리 당의 다행이다. 지금부터 만일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평민을 모략하여 옛날처럼 혼탁해 지는 폐단이 있으면 결코 우리들이 죄를 물어 공격할 뿐만 아니라 이름을 파내어 방출함으로써 후일의 본보기로 삼아서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⁴³⁾

완의에는 모칭유학들을 ‘힘 있고 완악한 무리’, ‘부정한 무리’, ‘의리와 분수를 저버린 사람’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사대부들에게 욕을 보이고 상륜을 어지럽힐’ 정도로 향교 내에서 횡포가 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된 원인에는 다름 아닌, 향교 일을 주관하는 교임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 ‘이 모든 일이 재중에서 일을 주관하는 자가 더럽고 험잡한 데서 나온 소치이니’라는 대목을 통해, 다름 아닌 향교 임원들이 모칭유학들과 결탁하여 뇌물을 받고 청금록에 몰래 입록시켜 주는 등 불법을 공공연하게 자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대적으로 삭적을 거행한 뒤 이후에는 마땅히 입록되어야 하는 사족의 경우라도 결코 사사롭게 행하지 말고 반드시 재회의 통의를 거친 뒤 공식적으로 입록할 것을 신칙하고 있다. 현재 도할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청금록 1권에 24명, 2권에 7명, 3권에 2명이며, 도할한 자리에 종이를 덧붙여 새로 기록한 사람은 청금록 3권에 35명이 확인된다. 그 중 청금록 1권은 18세기에 작성된 것이므로 18세기부터 청금록의 문란이 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8세기 이래 혼입을 시도했던 모칭 유학들을 몰아내고 청금록을 재정비한 결과 남양향교의 주도 세력은 남양 홍씨, 전주 이씨, 초계 정씨, 상주 박씨, 청주 한씨 등 5개 가문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들 집안은 18세기 후반 이후 비록 과거합격자나 관직자는 배출하지 못하였으나 대대로 남양 지역에 세거해온 대표적인 양반 가문이었다. 남양 홍씨는 남양을 본관으로

43) 「完議」, 『청금록』 3권에 수록.

하는 대표적인 토성으로 『세종실록지리지』에, 이씨와 정씨, 한씨는 『여지도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 5개 집안은 18세기부터 작성된 청금록과 선생안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된 청금록 4권과 선생안 2권에 수록된 성씨 중 상위 5위권 안에 해당하는 주요 성씨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4> 남양향교 청금록의 주요 성씨

	청금록1		청금록2		청금록3		청금록4		합(명)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남양홍	28	18	112	21	123	25	216	21	474	22
전주이	23	15	64	12	82	16	154	15	323	15
초계정	15	10	27	5	34	7	39	4	115	5
상주박	7	5	24	4	41	8	36	4	108	5
청주한	12	8	33	7	23	5	39	4	107	5
5성 합계	73	56	260	49	303	61	479	48	1127	52
전체	152	100	545	100	501	100	991	100	2189	100

<표 5> 남양향교 선생안의 주요 성씨

	선생안1		선생안2		합(명)	%
	명수	%	명수	%		
남양홍	120	22	92	21	212	22
전주이	81	15	67	15	148	15
상주박	30	5	23	5	53	5
초계정	34	6	16	4	50	5
청주한	30	5	20	5	50	5
5성합계	265	48	198	45	463	47
전체	546	100	434	100	980	100

그 중 청금록과 선생안의 22%를 차지하는 남양 홍씨는 당홍과 토홍의 두 계열이 있는데 청금록과 선생안에 수록된 90% 이상이 토홍에 속한다. 토홍 계열은 고려 고종 연간에 활동하던 洪先幸을 시조로 조선조 이래 과거 급제자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면서 남양 지역의 대표적인 명문가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15세기 후반 이후 문희공파, 정효공파, 참의공파, 주부공파, 대호군파 등 5개 파로 분파하면서 가세가 번창하였고, 남양 지역에서는 홍법리 일대를

중심으로 정효공파가 선영을 조성하고 집성촌을 형성하면서 향촌 내 유력 성씨로 활동하게 된다.⁴⁴⁾

청금록과 선생안의 5%를 차지하는 상주 박씨는 1514년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홍문관응교 등을 지내다 기묘사화 때 조광조 일파로 지목되어 유배지에서 사망한 뒤 1667년(현종 8) 안곡서원에 제향된 道源齋 朴世燾(1491-1530)의 후손들로 송산면에 대대로 세거해온 집안이다.

청금록과 선생안의 5%를 차지하는 초계 정씨는 송산면 마산리, 지화리, 천등리, 중송리에 세거해온 천호장공파와 서신면 궁평리에 세거해온 내급사공파이다. 청금록에 수록된 인물을 중심으로 가계를 추적해보면 그 중 천호장공파가 90%에 해당한다.⁴⁵⁾ 천호장공은 시조 倍傑의 3세 福公의 둘째인 4세 幸夫로, 송산의 초계 정씨는 천호장공파에서 다시 분파하여 송산면 천등리, 중송리, 지화리에는 전서공파가, 마산리에는 만주공파가 15대 이상 거주하고 있다.⁴⁶⁾

그 중 만주공파의 입향조는 18세 鄭景倫(1519-1594)으로 16세기에 송산에 입향하였으며, 行誼로 천거되어 벼슬이 한성부서운에 이르렀다. 21세 時望(1586-1662)은 당론이 소북으로 1613년 성균관 장의로 소를 올려 이이첨 주구 세력을 탄핵하다가 儒籍에서 삭제 당하였으나 1630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지제교를 지냈다. 22세 昌胄(1606-1664)는 1637년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정자, 사헌부지평, 병조좌랑지제교를 두루 역임하고 1646년 重試에 장원급제하여 벼슬이 부제학에 이르렀으며 당시 북인 8문장가의 한 사람으로 꼽혔다. 만주공파는 바로 22세 昌胄의 호인 ‘만주공’을 따서 붙인 이름이다.

23세 鄭元祥(1662~1717)은 통덕랑을 지냈으나 1689년 장희빈 아들의 세자 책봉문제로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집권한 기사환국 이후 은둔하며 벼슬

44) 이근호 외, 『남양홍씨 정효공파』, 화성시, 2010, pp.17-19.

45)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남양향교를 주도한 5개 가문 중 표본으로 초계 정씨 가계만 추적해보았다. 지역사회에 내에서 남양향교의 위상을 정확하게 구명하려면 나머지 4개 가문의 가계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지만 이는 후속 과제로 남긴다.

46) 이하 남양 지역 초계 정씨 가계에 대한 내용은 오영섭, 김자운, 『구국의 마지막 제언-후산 정윤영의 학문과 실천』, 화성시, 2010, 제 1부 1장을 참조.

길에 나가지 않았다. 25세 鄭禹錫(1721~1800)은 1750년 진사시에, 26세 鄭得中(1746~1800)은 1780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정득중은 경기도 이천의 유학자 택당 이식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다.

이후 초계 정씨는 과거합격자나 관직자를 배출하지 못하다가 29세 鄭胤永(1833-1898) 대에 와서 천거로 관직을 임명받게 된다. 그는 한말 성리학의 대가였던 임헌회의 수제자로, 53세에 고을의 인재를 추천하는 향천에 이름이 올라 의금부도사에 임명되었으며, 한 달 뒤 다시 성균관 직강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또한 한말 척사운동 때 경기도를 대표하여 척사만인소를 작성하는 등 경기 척사 운동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는 생전에 송산에 머무르지 않고 안성, 양평 등을 두루 다니며 강학활동을 전개하여 남양향교의 청금록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그의 장자 秀容(1857-1940)이 청금록 3권과 4권에 수록되어 있다. 그 외 초계 정씨는 23세 鄭東昌(1682-1757)부터 32세 鄭載敏(1934년생)까지 10대에 걸쳐 청금록에 꾸준히 수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초계 정씨 가문은 조선조 이래 남양지역에서 대대로 문필을 이어오며 생원, 진사와 문과 급제자를 다수 배출한 명망 있는 소북계 양반가문이었으나 노론계 벌열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한 세도정권 하에서 점차 중앙정계와 멀어지다가 18세기 후반 정득중 이후로는 아예 과거 합격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채 영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음식으로 관직에 진출한 남양 홍씨 洪大夏 외에 현재 청금록과 선생안에 과거나 관력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⁴⁷⁾ 19세기에 남양향교의 주도권을 장악한 나머지 4개 집안도 초계 정씨 가문과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이들은 대대로 남양지역에 세거해온 대표적인 양반 가문이었으나 18세기 후반 이후로는 더 이상 과거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여 점차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가 향촌에서 양반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민들과의 구별짓기를 시도하고 남양향교 내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한 것

47) 청금록과 선생안을 통틀어 과거나 관력에 대한 기록은 『청금록』 2권에 수록된 계해생(1803년) 洪大夏가 유일하다. 홍대하의 관력은 『蔭案』(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575)과 『摺紳譜』(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 929.3-Eu55)에도 수록되어 있다.

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18세기 이래로 청금록의 혼입은 당시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상승을 도모했던 남양지역 평민층의 성장과 함께 향교 내 양반유생들의 지위가 점차 위협받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교유생들이 명분과 교화를 앞세우며 끝까지 향교에 남아 모칭유학들을 찾아 삭적하고 청금록을 재정비하며 향교를 독점하고자 한 것은 남양향교가 양반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마지막 활동 근거지였기 때문이다. 즉, 18세기 이후 남양향교는 경제적으로 성장한 평민들에게는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양반유생들에게는 향촌사회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근거지로 활용되고 있었다.

VI. 결론

이상에서 19세기 남양향교의 운영상 및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조선후기 향교는 흔히 교육기능을 상실하고 군역을 면제받기 위한 피역소로 전락한 채 간신히 제향활동만을 유지해온 황폐화된 모습으로 묘사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과 달리, 19세기 남양향교는 향교 이건 시 재원의 60% 이상을 양반 유생들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확보할 만큼 향교 운영에 유생들의 참여가 매우 활발하였다. 이 때 남양향교 유생들이 낸 기부금은 1인당 1냥에서 100냥으로, 이는 1841년 향교 중수 시 전체 비용의 25%를 냈던 직산향교의 유생, 1832년 향교 중수 시 1인당 3전씩 각출했던 진주향교 유생들의 사례와 비교해볼 때 대단한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 남양향교는 언제부터인가 국가에서 지급했던 學田이 제대로 확정되지 않아 재정 기반이 사라지자, 향교 자체 내에서 인근의 전답을 마련하여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였다. 향교의 재정난과 관리의 부실로 19세기에는 그 일부가 유실되었으나 19세기 후반 지방관과 교임들의 노력으로 유실된 토지를 되찾고 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절목을 마련함으로써 활로

를 모색하였다. 이 때 작성한 절목과 1884년 향교 유생들이 작성한 완의에 따르면, 19세기 남양향교는 단지 제향 활동 뿐 아니라 疏廳으로 활용되는 등 지역 유생들의 향론 집결지이자 다양한 향촌활동의 근거지로서 기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지방관은 향교를 자치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유생들에게 간섭과 규제를 가하고 제향 외에 향촌기구로서의 향교의 역할은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향교 운영을 둘러싼 지방관과 향교 유생들의 미묘한 갈등관계는 지역사회 내 양반유생들에게 남양향교가 어떤 사회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편, 18세기 이래로 나타나기 시작한 청금록의 혼입은 당시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상승을 도모했던 남양지역 평민층의 성장과 함께 향교 내 양반유생들의 지위가 점차 위협받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양반들이 모칭 유학들을 몰아내고 청금록을 재정비한 결과 19세기 남양향교의 주도 세력은 남양 홍씨, 전주 이씨, 초계 정씨, 상주 박씨, 청주 한씨 등 5개 가문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들 집안은 18세기 후반 이후 비록 과거합격자나 관직자는 배출하지 못하였으나 대대로 남양지역에 세거해온 대표적인 양반 가문이었다. 이들이 명분과 교화를 앞세우며 끝까지 향교에 남아 모칭유학들을 찾아 삭제하고 청금록을 재정비하며 향교를 독점하고자 한 것은 남양향교가 양반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행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마지막 활동 근거지였기 때문이다.

특히, 19세기 후반에는 남양 지역의 유일한 서원이었던 안곡서원과 사우용백사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모두 훼철된 상태였다. 따라서 지역문화의 중심지로서 남양향교의 위상은 이전보다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즉, 19세기 남양향교는 경제적으로 성장한 평민들에게는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교생 및 구실아치들에게는 군역 면제의 수단으로, 양반유생들에게는 향촌사회에서의 주도권 및 양반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근거지로 적극 활용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위상이 이전보다 더욱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南陽鄉校大成殿移建上樑文」, 「南陽鄉校上樑文」, 「完議」(19세기, 남양향교 소장)
 「完議」(갑신 윤 5월, 남양향교 소장), 「鄉校重修記」(1981, 남양향교 소장)
 『江陵鄉校誌』, 『경기읍지』(1871), 『고려사』, 『남양읍지』, 『성종실록』, 『세종실록』
 『松谷集』, 『先生案』(1권-2권, 남양향교 소장), 『宋子大全』, 『승정원일기』, 『陽村集』
 『校宮移建時赴役錢捧上用下呈頃區別成冊』(남양향교 소장),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蔭案』(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575), 『頤庵先生遺稿』, 『學校謄錄』
 『搢紳譜』(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 929.3-Eu55), 『晉州鄉校修理時財物收集記』
 『靑衿錄』(1권-4권, 남양향교 소장), 『鄉校田案』(남양향교 소장)
- 김명숙, 「관직 진출 동향으로 본 조선후기 여흥 민문 성장의 구조」, 『한국사상과 문화』 제 57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 김용덕, 「朝鮮後期 鄉校研究」, 『한국사학』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 김자운, 『남양향교지』, 화성시, 2009.
- 송찬식, 「朝鮮後期 校院生考」, 『논문집-인문과학편-』11, 국민대학교, 1976.
- 오영섭, 김자운, 『구국의 마지막 제언-후산 정운영의 학문과 실천』, 화성시, 2010.
- 윤희면, 『조선후기 향교연구』, 일조각, 1996.
- 이근호 외, 『남양홍씨 정효공파』, 화성시, 2010.
- 李存熙, 『조선시대지방행정제도 연구』, 일지사, 1990.
- 이해준, 「조선후기 진주지방 儒戶의 실태-1832년 진주향교수리기록의 분석-」, 진단학보 제 60호, 진단학회, 1985.
- 임선빈,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직산향교의 운영실태」, 『고문서연구』 21, 한국고문서학회, 2002.

The management of Namyang-Hyanggyo(南陽鄉校) in the 19th century and its social status in the local community.

Kim, Ja-woon*

The Noron of Youngnam may largely be classified in two typ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nagement of Namyang-Hyanggyo in the 19th century and to examine its status in the local community. First, the history of Namyang-Hyanggyo was briefly reviewed. Second, the state of management of Namyang Hyanggyo in the late Joseon Dynasty were reviewed in terms of the transfer process of Namyang Hyanggyo in the 19th century, the loss and recovery of Hyanggyo-owned land, and the disturbance and reorganization of the Cheonggeumrok(靑衿錄). Third, I reviewed how the gentry and commoners used Hyanggyo to secure their presen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examined the social status and role of Namyang-hyanggyo in the local community.

Hyanggyo in the late Joseon Dynasty is often described as a devastated state that has barely retained the function of sacrifice while losing its educational function. However, contrary to this

* Kongju National University/ jaunkim@hanmail.net

prejudice, when the buildings of Namyang-Hyanggyo were transferred in the 19th century, the gentry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process, voluntarily contributing more than 60% of its resources. It can be confirmed that this was a great scale compared with the cases of Jiksan-Hyanggyo or Jinju-Hyanggyo in the same period.

Also, the scholarship which was supposed to be paid from the state was not properly paid to Namyang-Hyanggyo in the late Joseon Dynasty. So they bought the land on their own and used it as working capital. In the 19th century, they lost part of the land due to poor management, but in the late 19th century, Namyang-vice found ways to restore the lost land and to enact regulations to thoroughly manage it.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Nanyang-Hyanggyo in the 19th century served not only as a function of sacrifice but also as a base for various village activities of the local leaders.

On the other hand, the disturbance of Cheonggeumrok(靑衿錄) since the 18th century shows the growth of the common people who were trying to raise their status based on the economic power at that time. And this fact was gradually threatening the status of the gentry in Namyang-Hyanggyo. Nevertheless, the gentry remained in Hyanggyo until the end, reorganizing Cheonggeumrok(靑衿錄), and monopolizing Hyanggyo, because Namyang-Hyanggyo was the last place in the community to maintain and exercise its status as the gentry. Especially, in the late 19th century, both Angok-Seowon(安谷書院) which was the only Seowon in Namyang and Yongbaeksa(龍栢祠) were defeated by Daewon-gun's Seowon abolition. Therefore,

Namyang-hyanggyo's social status as a center of local culture had to be strengthened.

Key words : the 19th century, Namyang-hyanggyo(南陽鄉校), social status in the local community, the transfer of Namyang-hyanggyo, Hyanggyo-owned land, Cheonggeumrok(靑衿錄)

이 논문은 2019년 12월 10일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2월 2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26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결정된 것임.

70년 동안의 중국 서원 연구

肖永明*·刘艳伟**

I. 序論

II. 本論

一、书院史研究

二、书院制度研究

三、书院与文化研究

III. 結語

< 국문요약 >

민국 20, 30년대부터 신식교육에 대한 반성에 비롯하여 학계에서는 서원 연구의 열풍을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풍성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된 이후, 학자들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서원연구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확대 시키며 전통사회에서 서원의 가치를 발굴해 왔다. 20세기 말에 들어, 새로운 사학 연구방법의 응용에 따라 중국서원사 연구는 연구내용, 방식, 관념 등 면에서 진부한 부분에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발전시켜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연구적 시야의 편협, 문제의식의 결핍 등 문제점도 드러나 있었다. 이에 다음 단계의 서원연구발전을 위해 과거 서원연구에 대한 총정리도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신중국학술, 서원사, 서원제도, 서원문화, 서원

* 제 1저자 : 中國 岳麓书院 院长(教授) / wyythsl@126.com

** 제 2저자 : 中國 西华师范大学 历史文化学院 讲师 / 309083694@qq.com

I. 序論

1923年，胡适在东南大学演讲，提及中国古代的书院，称“一千年来，书院实在占教育上一个重要位置，国内的最高学府和思想的渊源，唯书院是赖”，“书院之废，实在是吾中国一大不幸事”。¹⁾胡适此言，乃是出于学者对彼时教育的反思，欲以传统教育弥补其缺陷，有其时代语境。但他道出了一个事实，即书院在中国教育、学术思想上确有较高地位。于今天看来，这一独具特色的教育文化组织，对中国古代的教育、科举、学术、思想、文化等方面，产生了深远影响。也正因书院在传统时期的重要性，学者们对其展开了大量的研究。从新中国成立至今，中国的书院研究走过了七十年，经历过前期的波折之后，从八十年代开始，学者们在研究内容、研究方法、范式上，推陈出新，取得了成果丰硕，实有必要做一总结，反思过往，展望未来，以促进下一阶段书院研究的发展。概而言之，在有关书院的研究成果中，书院史、书院制度、书院与文化是为大宗，本文主要针对这三个方面，作一大致梳理。

II. 本論

一. 书院史研究

历史时期的书院发展历程，一直是学者们关注的重点。早在20世纪20-30年代，无论是较长时段通论性的书院研究，还是某一断代书院的研究，乃至区域书院的研究，都产生过一些有影响的成果。²⁾新中国成立后，马克思主

1) 胡适：《书院制史略》，《胡适文集》第12册，北京：北京大学出版社，1998年，第449页。

义在学术研究领域成为主导性的理论,强调阶级斗争,批判封建社会,书院在这一时期也是批判的对象,研究成果基本上是一片空白。“文革”结束之后,随着真理标准问题讨论的展开,学界思想进一步开放,在80、90年代形成了书院史研究的高潮,为后续的研究打开了局面。

(一) 通论性研究

通论性的书院研究方面,民国时期成果较少,主要有盛朗西《中国书院制度》、曹松叶《宋元明清书院概况》两部。但在八十年代以后,短短十几年时间内,就产生了几部通论性的书院史著作,且各具特点。1981年是书院史研究的丰收之年,这一年出版了章柳泉《中国书院史话——宋元明清书院的演变及其内容》³⁾、张正藩《中国书院制度考略》⁴⁾、陈元晖《中国古代的书院制度》⁵⁾三部著作。《中国书院史话》一书在详细辨析书院涵义、归纳书院特点的基础之上,对宋至清书院建置、传授学术内容及方法的演变作了梳理,并对书院的学风进行了总结。该书最主要的特点,在于结合不同时期主流学术思想,来讨论书院的演变,将学术史与书院历史结合了起来,这对后来的书院研究产生了很大影响。《中国书院制度考略》是张正藩之前发表论文的选辑,第一至五章探讨唐代至清代书院之起源、规制、演变及其影响,较成系统。其后六章分别探讨宋初四大书院、明末东林书院、中国古代书院的特点、书院讲学与学术关系等专题。其中,第十一章“中国书院制度对韩国的影响”是

2) 通论性的研究,有陈东原《书院史略》(《学风》第1卷第9期)、曹松叶《宋元明清书院概况》(《中山大学语言历史研究所周刊》,1929年12月、1930年1月)等;区域性的书院史研究,有吴景贤《安徽书院沿革考》(《学风》第4卷第7期)、雷震《广西宋元明书院纪略》(《广西通志馆馆刊》第2期)等;断代书院史的研究,有钱穆《五代时之书院》(《贵善半月刊》第2卷第17期)、陈东原《清代书院风气之变迁》(《学风》第3卷第5期)等;著名书院的研究,有陈东原《庐山白鹿洞书院沿革考》(《民铎杂志》第7卷,第1、2期)等。这一时期的书院研究,郑刚《民国时期书院研究述评》(《大学教育科学》2011年第2期)有较细致的梳理,可供参考。

3) 章柳泉:《中国书院史话:宋元明清书院的演变及其内容》,北京:教育科学出版社,1981年。

4) 张正藩:《中国书院制度考略》,台北:中华书局,1981年。

5) 陈元晖:《中国古代的书院制度》,上海教育出版社,1981年。

较早探讨中国书院与东亚其它国家书院关系的文章。陈元晖《中国古代的书院制度》对书院在各代的发展,进行了提纲挈领式的讨论,较为简略,唯对书院在教学上的特点概括甚详,反映出其对现实教育的关怀。

1994年,李国钧主编的《中国书院史》⁶⁾出版。该书是书院研究中十分重要的一部著作,全书分五编,二十二章,主要介绍唐至清时期的书院历史、书院教育、书院与学术等内容。该书采取宏观概览与具体案例相结合的方法,在论述每一时代的书院时,先以总论阐明该时代书院发展的特点及书院与科举、书院与学术的关系,而后以大量篇幅论述著名学者创办兴建书院、书院讲学活动、学术群体的书院活动等内容。与八十年代的三部通论性著作相比,该书取材丰富,不但在呈现书院制度方面更为详尽细致,而且,该书关注书院在不同时期教育发展中所处的地位,弥补了以往研究中的疏漏,颇具后发意义。该书延续了《中国书院史话》的风格,将书院的历史与学术发展、变迁相结合,使得这一书写模式传播开来。

2004年,邓洪波所著《中国书院史》⁷⁾出版,该书是书院研究中另一部重要著作。邓洪波长期从事书院研究,积累了大量素材,在充分利用史料的基础之上,对唐至清各个时期书院的特点、功能形态、数量及区域分布都作了细致的分析,在呈现书院的整体规模、分布特点及不同时期书院的特色方面,远较前述几部著作详尽。如果说李国钧《中国书院史》更多呈现的是书院历史的纵深剖面,邓著则为读者呈现了不同时期书院的波澜壮阔图景。

与民国时期的书院研究不同,章柳泉、李国钧等人抛开了以资料汇编呈现书院历史的形式,而是将史料融汇论述之中,梳理书院历史发展的脉络;他们也不再只是呈现不同时段书院规模变化的大势,而是试图深入探讨书院与教育、政治、学术等的联系,呈现复杂的历史情景。毫无疑问,这在广度与深度上都对书院研究作了很大的推进。

(二) 断代书院史与区域书院史

6) 李国钧主编:《中国书院史》,长沙:湖南教育出版社,1994年。

7) 邓洪波:《中国书院史》,上海:东方出版中心,2004年。

民国时期的断代书院史、区域书院史研究，同当时的通论性研究一样，多是以资料汇编的形式，呈现书院的历史。建国后的书院研究，已很少有学者再用这种历史叙述方式，同时，他们开始关注新的议题，采用新的研究范式。

宋代是书院兴盛的第一阶段，这一时期的书院形态、士人创办书院的理念、书院制度对后世影响深远，在书院史研究中占有十分重要的地位。陈雯怡《由官学到书院——从制度与理念的互动看宋代教育的演变》⁸⁾一书，在吸收并反思前人研究成果的基础之上，通过观察南宋朱熹等人倡导的私学理想如何具体落实为士人的书院活动，以及形成后的书院制度又如何决定了教育理念的方向，揭示出宋代教育重心由官学向书院转变的过程。陈雯怡的研究，无论是在方法上，还是在结论上，都突破了以往的书院研究。

徐梓《元代书院研究》⁹⁾一书，重点关注元代不同时期书院政策之演变及其具体表现形式，也即是元代书院官学化的问题。该书是七十年来研究元代书院的第一部专书，影响甚大。陈雯怡《元代书院与士人文化》¹⁰⁾一文（2013），将书院置入元代具体的时代背景之下（儒户政策、理学的正统化），分析了元代书院在其时的特质，以及在社会文化中所扮演的角色。该文新见迭出，其中对徐梓《元代书院研究》中南宋遗民与书院以及第三至五章中朝廷的“使书院官学化”措施所作的商榷，尤值得重视。

时代愈是靠后，文献存留越多，研究越是精细专门，历史研究大致如此，书院研究也不例外。学者围绕明、清两代某一专题的研究成果众多，但综合性研究反而薄弱，主要有美国学者约翰·麦斯基尔（John Meskill）所著《明代书院散论》（Academies in Ming China: A Historical Essay）¹¹⁾和白新良《明清书院研究》¹²⁾两部著作。前者主要探讨明代在中国书院史中的地

8) 陈雯怡：《由官学到书院——从制度与理念的互动看宋代教育的演变》，台北：联经出版公司，2004年。

9) 徐梓：《元代书院研究》，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0年。

10) 陈雯怡：《元代书院与士人文化》，收入《中国史新论：生活与文化》，台北：联经出版公司，2013年。

11) John Meskill, Academies in Ming China: A Historical Essay, Tucson: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82.

12) 白新良：《明清书院研究》，北京：故宫出版社，2012年。

位、明初期的书院、明代书院的复兴、明前期书院的建构与活动、改革中的书院等内容。书中所论及的议题，有些是国内学者早已关注过的，诸如书院与佛教之关系、地方官员在书院兴建与维持中的地位等；有些则是较新的课题，例如对书院中祭祀孔子使用画像的探讨。此书在美国学界颇有影响，《美国历史评论》称赞该书是“领域的奠基之作（Foundation）”。白新良所著《中国古代书院发展史》，曾于1995年由天津大学出版社，后经修订，改名为《明清书院研究》。该书主要根据地方志中的记载，以数量统计的方式呈现明清两代书院发展的大势，并对各省的情况作了统计，对清代书院发展趋势的梳理，尤为详细，可谓一部“清代书院兴衰史”。

区域书院史研究的成果，有李才栋《江西古代书院研究》¹³⁾、胡昭曦《四川书院史》¹⁴⁾、吴洪成、刘园园《河北书院史》¹⁵⁾、邓洪波《湖南书院史稿》¹⁶⁾、张晓婧《清代安徽书院研究》¹⁷⁾等，这些著作涵盖历史时期某一区域的书院盛衰情形、数量规模、管理制度、学术倾向等方面的内容，呈现了区域书院历史的整体状况。与民国时期的书院研究相比，这些著作无论是在材料使用上，还是观点的突破上，都有长足的进步。

（三）著名书院的研究

著名书院因其在区域乃至全国的影响，材料存留丰富，学者关注较多，也取得了不凡的研究成就。如杨慎初、朱汉民、邓洪波《岳麓书院史略》¹⁸⁾、李才栋《白鹿洞书院史略》¹⁹⁾、王立斌《鹅湖书院研究》²⁰⁾等，这类研究多是在梳理各书院历史的基础之上，探讨其制度、发掘其在不同时期与主流学术的关系，对某一书院的历史轨迹与发展情形进行了较为全面细致的分析。

13) 李才栋：《江西古代书院研究》，南昌：江西教育出版社，1993年。

14) 胡昭曦：《四川书院史》，成都：巴蜀书社，2000年。

15) 吴洪成、刘园园：《河北书院史》，保定：河北大学出版社，2011年。

16) 邓洪波：《湖南书院史稿》，长沙：湖南教育出版社，2013年。

17) 张晓婧：《清代安徽书院研究》，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9年。

18) 杨慎初、朱汉民、邓洪波：《岳麓书院史略》，长沙：岳麓书社，1986年。

19) 李才栋：《白鹿洞书院史略》，北京：教育科学出版社，1989年。

20) 王立斌：《鹅湖书院研究》，南昌：江西高校出版社，2019年。

二、书院制度研究

民国二、三十年代，学者们出于对当时新式教育的反思，开始关注中国传统教育，希望从中获取有益的资源，这促进了中国古代书院的研究。在现实关怀的引导之下，他们对书院教学、管理、藏书、讲学等活动的研究热情尤高，取得了不少成果。在八九十年代书院研究的热潮之中，学者们重新探讨了这些主题，取得了新的研究成果。

一些通论性的书院史著作，虽然其研究重点在于历史时期书院的整体状况，但对书院讲学、藏书、祭祀等内容也有所涉及，如前文提及的陈元晖《中国古代的书院制度》一书，其主要探讨了书院的历代发展情况，但也涉及了书院学规、讲会制度、书院祭祀等内容。这与民国时期学者所著通论性书院史重在叙述书院发展变化的风格很不一样，表现出更为全面的研究视野。

90年代以后，随着相关研究成果的积累，研究内容也不断深化，开始出现一批有影响的著作。陈谷嘉、邓洪波《中国书院制度研究》²¹⁾一书是关于书院制度研究的重要著作，该书对书院的类型、等级、职事类别、藏书、刻书、经费及管理、教育特点、考试制度等方面作了全面、系统的研究，提出了诸多新论，大大推进了书院制度研究的发展。

需要说明的是，同是对“书院制度”的表述，民国时期的学者将其视为一个整体，涵盖书院全部的历史，与官学制度相并列。有关“书院制度”的论著，其主体内容也是书院的历史，间及书院的活动。八十年代以后，学界对书院制度的所指发生变化，学者们多将书院的运作形式、书院活动视为书院制度，与书院兴衰的历史分别开来。这一变化的本身即反映出新时期书院研究的深入、细化。

讲学是宋、明两代书院的重要活动之一，明代书院讲学最为兴盛，学者们对此课题的关注尤多。陈时龙《明代中晚期的讲学运动1522-1626》²²⁾一书，对明代讲学运动的历史有十分细致的梳理，作者从纷繁的史料中为读者呈现

21) 陈谷嘉、邓洪波：《中国书院制度研究》，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7年。

22) 陈时龙：《明代中晚期的讲学运动1522-1626》，上海：复旦大学出版社，2005年。

出明代中晚期讲学活动的脉络，并归纳明代讲学运动中的特点，及讲学运动的变化趋势。此书虽非专门探讨书院讲学之作，但极具参考价值。以往的书院史论著，多将讲学、讲会理所当然地视为书院的重要活动，但陈时龙认为，讲会并非书院的内部教学活动，它更像是一种社会活动。这就启发我们从不同的视角，重新审视“书院讲学”“书院讲会”这些议题。王崇峻《明代书院讲学的研究》²³⁾一书，以书院讲学为线索，围绕明代三次禁毁书院，梳理了书院讲学的起源，明代书院讲学的兴起，以及讲学与政治、社会之间的关系。有关明代书院讲学的成果甚多，如李国钧《中国书院史》、陈时龙《明代中晚期讲学运动1522-1626》等，但作者利用甚少，这影响了研究的进一步深入。

有关书院藏书、刻书的研究，有肖东发、赵连稳《中国书院藏书》²⁴⁾和赵连稳、朱耀廷《中国古代的学校、书院及其刻书研究》两部较有影响力的著作。肖东发、赵连稳对书院藏书的历史、藏书来源、藏书的管理与利用、藏书特点以及书院藏书的意义作了较了详尽的论述。学界论及书院藏书者，大致不出上述这几部分内容。书中对16个省份的36所书院的藏书情形作了大致梳理，也值得参考。赵连稳、朱耀廷《中国古代的学校、书院及其刻书研究》²⁵⁾一书，第八至十一章论及五代、两宋、元、明、清前期的书院刻书活动，是笔者所见七十年来少有的对历代书院刻书活动的较长时段梳理。

祭祀是书院重要的日常活动之一，但民国时期学者对书院祭祀关注甚少。近三十年来，不少学者对书院祭祀的功能、意义有过探讨，取得了不少成果。生云龙《中国古代书院学礼研究》²⁶⁾一书是目前学界研究书院祭祀的专著，该书将书院日常的祭祀活动与会讲礼仪统归入学礼，梳理了唐代至清代的书院学礼、学仪；归纳了书院学礼、学仪的特点；分析了书院学礼中的学理；并对书院学礼在书院教学活动中的意义及其文化价值作了探讨。该书首次对历代书院祭祀活动进行了梳理，于后来的研究，颇有参考价值。肖永

23) 王崇峻：《明代书院讲学的研究》，台北：花木兰文化出版社，2009年。

24) 肖东发、赵连稳：《中国书院藏书》，贵阳：贵州人民出版社2009年。

25) 赵连稳、朱耀廷：《中国古代的学校、书院及其刻书研究》，北京：光明日报出版社，2007年。

26) 生云龙：《中国古代书院学礼研究》，北京：清华大学出版社，2014年。

明、唐亚阳曾论及书院祭祀在确立、增强士人对儒家道德伦常观念的认同，引发士人对儒学信仰，激发士人道德使命感与社会责任感，以及书院在社会教化方面的功能。²⁷⁾其后，蒋建国又做了补充，他在《仪式崇拜与文化传播——古代书院祭祀的社会空间》²⁸⁾一文中，从制度和文化层面分析书院祭祀活动的社会意义，揭示其在文化传播方面的功能。

三、书院与文化研究

书院既是教育组织，也是学术研究机构，千年来的发展历史，赋予了它深厚的文化内涵。新中国成立后，因思想意识形态中对封建社会的批判，书院的价值未能彰显。到了八十年代，学者们从思想文化层面反思“文革”，不少人开始重新认识传统文化的价值。受此思潮影响，书院研究再度兴盛。这一时期成果众多，学者们除了对书院自身历史及书院制度进行研究外，还试图将书院置于社会文化的大背景之中，研究书院与学术、学派之间的关系、书院与文化的关系以及书院与科举之间的关系。

(一) 书院与学术、学派

民国时期，学者们对明代书院讲学、清代书院的学风就有探讨，但无论是在研究的广度与深度，还是研究成果的数量上，当时的研究都难以同近些年相提并论。书院与学术、学派的研究，1991年有吴万居《宋代书院与宋代学术之关系》²⁹⁾、朱汉民《湖湘学派与岳麓书院》³⁰⁾两部著作。吴著主要是对宋代书院历史及教育精神、教育宗旨、书院与经学、理学之间的关系的探讨。朱著则重点梳理了湖南书院与理学的历史，认为湖南在北宋时期有了书院创

27) 肖永明、唐亚阳：《书院祭祀的教育及社会教化功能》，《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5年第3期。

28) 蒋建国：《仪式崇拜与文化传播——古代书院祭祀的社会空间》，《现代哲学》，2006年第3期。

29) 吴万居：《宋代书院与宋代学术之关系》，文史哲出版社，1991年。

30) 朱汉民：《湖湘学派与岳麓书院》，北京：教育科学出版社，1991年。

建,尔后有了理学传播的基础,并于南宋初年完成了理学与书院的一体化,形成了以书院为基地的学派。该书提出的“理学与书院一体化”,在书院研究中较有影响。

2000年之后,学界对书院与学术、学派的研究则更加深入细致,具体表现在区域书院与文化史研究成果的增多。因区域在范围上相对狭小,资料更为集中,以及地方政府对发掘地方文化资源的鼓励,不少学者将书院史置于区域文化的框架之中。钱茂伟《姚江书院派研究》³¹⁾一书,将姚江书院归入浙东学术史的脉络之中,对姚江书院主要学人的学术旨趣及其对书院发展的作用作了论述,其中对姚江书院殿军邵廷采的讨论尤详。书院是一地文化的中心,对地方学术、文化都有诸多影响。徐雁平《清代东南书院与学术及文学》³²⁾一书,对书院在江浙文学发展中的推助之功,学术传播之用,以及文士群体形成之力,都有精彩的论述。

李晓宇的博士学位论文《尊经·疑古·趋新:四川省城尊经书院及其学术嬗变研究》³³⁾,对成都尊经书院的学术变迁有精彩的探讨。与传统书院研究将书院与学术径直接对接不同,他将尊经书院学术变化的历史置于清末特殊的时代之中,探究书院不同学术流派、风格的山长对书院学风的影响及其在书院中的冲突,梳理尊经书院三大学术派别(成均派、南皮派、湘绮派)各自的特点、治学主张、学术倾向,以及他们间的相互关联与分歧,并对尊经学术走向分裂瓦解的过程作了细致分析,是研究书院与学术关系的力作。

王建梁所著《清代书院与汉学的互动研究》³⁴⁾一书,以苏州紫阳书院、徽州紫阳书院、扬州安定书院与梅花书院、广州菊坡精舍为例,探讨了清代汉学主要学派吴派、皖派、扬州学派、东塾学派著名学者执教书院后对学派产生的影响,以及学派兴盛后对书院的影响,以此揭示汉学与书院的互动关系;尔后对诂经精舍、学海堂的历史进行梳理,认为它们开创了书院与汉学互动的制度化阶段;最后探讨了诂经精舍、学海堂影响之下汉学书院的发展状

31) 钱茂伟:《姚江书院派研究》,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文化艺术出版社,2005年

32) 徐雁平:《清代东南书院与学术及文学》,合肥:安徽教育出版社,2007年。

33) 李晓宇:《尊经·疑古·趋新:四川省城尊经书院及其学术嬗变研究》,博士学位论文,四川大学历史文化学院,2008年。

34) 王建梁:《清代书院与汉学的互动研究》,武汉:武汉出版社,2009年。

况，试图以此呈现书院对清代汉学发展的巨大作用。

(二) 书院与文化

丁钢、刘琪《中国书院与中国文化》³⁵⁾一书探讨了传统文化对书院形成的影响、书院对儒家文化发展传播的推进作用、中西文化交织下的书院变革等问题，对书院与佛道的关系，书院与西学的关系论述相当详细。在书院与文化关系研究方面，是较早较有代表性的一部著作。

同是对书院与文化的探讨，胡青《书院的社会功能及其文化特色》³⁶⁾一书，则更多关注书院制度形成的历史背景和文化传统，作者视书院为私学，从家族文化、乡土文化对教育的重视，理解书院之兴起，虽与学界对书院起源的认识并不一致，但提供了思考此问题的另一角度；第二章论及书院的山林文化，严耕望先生早有研究，³⁷⁾但其对书院选址由山林转向城市的探讨，颇具后发意义。

书院本身即是一种文化组织，对书院与传统文化的研究是为应有之义。但自20世末，社会文化史作为一种新的史学研究范式兴起，在研究对象上，它更多地关注观念、认同、心态等内容，采用跨学科的研究方法，探讨个人、组织机构、群体与社会变迁的内在关系，从更多角度、纵深地呈现历史发展的细部。这一研究范式同样被应用到了书院史研究之中。

肖永明《儒学·书院·社会——社会文化史视野中的书院》³⁸⁾一书，在充分吸收已有研究成果，反思前人有关书院研究的基础之上，着眼于书院与儒学学派、书院与社会、书院与文化等的互动关系；从社会文化史的视角，具体探讨书院兴起、发展的社会文化环境、社会动力；揭示书院与程朱理学、阳明心学之间、书院与社会政治之间的互动关系，以及书院对地域文化的促进作用。该书对书院与学术关系的探讨，揭示出书院与学术之间的内在逻辑，突

35) 丁钢、刘琪：《中国书院与中国文化》，上海：上海教育出版社，1992年。

36) 胡青：《书院的社会功能及其文化特色》，武汉：湖北教育出版社，1996年。

37) 耕望：《唐人习业山林寺院之风尚》，《唐史研究丛稿》，香港：新亚研究所，1969年，第367-424页。

38) 肖永明：《儒学·书院·社会——社会文化史视野中的书院》，北京：商务印书馆，2012。

破了自80年代以来的，径直将书院史与学术史对接起来的书写模式，在具体的历史脉络中呈现书院的特质及其功能、历史地位，推动书院研究的继续深入。

美国学者麦哲维《学海堂与晚清岭南学术文化》³⁹⁾一书，围绕阮元在广州创办的学海堂，考察不同身份背景的广东士人（寓居广东的士人与珠江三角洲腹地的土著），对成为新的文化重地的学海堂态度的差异，揭示出参与学海堂活动的流寓广东的士人如何借助学海堂这一学术机构，建构本地人身份，提升自己的地位。书中对鸦片战争后学海堂运作状况的探讨，更是其它与学堂有关的研究者较少关注的。麦哲维将学海堂的研究，由书院史、学术史的领域，扩展至社会文化史，为书院研究选题的扩充与深化开启了新思路。

（三）书院与科举有关书院与科举的关系，学者多能识其大概，以为书院受科举影响，但少有人细心求证。李兵《书院与科举关系研究》⁴⁰⁾一书是这一研究专题最为重要的成果。他通过广泛搜集史料，揭示出宋至清不同时期书院与科举的关系，并利用统计学中的相关性分析，较为直观地呈现出书院与科举关系的紧密程度，较有新意。此外，在探讨书院与科举的同时，亦将官学的发展规模、办学质量纳入考察范围，对官学、书院、科举有较为全面的把握，这种宏观视野在书院研究中尤为难得。

III. 结语

新中国成立至今，中国书院史研究走过了七十年。前期受阶级斗争及“文化大革命”的影响，研究基本处于停滞状态。拨乱反正之后，中国书院史研究迅速发展起来。20世纪末，新的史学方法的运用，推动书院史的研究向前迈进。由上面的大致梳理可以看出，既有较长时段的通论性研究，又有断代

39) [美]麦哲维著，沈正邦译：《学海堂与晚清岭南学术文化》，广州：南方出版传媒、广东人民出版社，2018。

40) 李兵：《书院与科举关系研究》，武汉：华中师范大学出版社，2008年。

的、较为深入细致的专门研究，成果丰硕，是为继民国之后的又一个高潮。与民国书院研究不同的是，这一时期的书院研究呈现出新的特点。

八、九十年代，学者反思“文革”中对传统文化的毁弃，试图进行弥补与修复，这一时期，学者重在呈现书院的历史面貌，彰显其在中国古代历史中的价值与地位，因而概述书院发展历史的通论性著作，以及揭示书院的文化价值的著作大量涌现。有关书院的研究议题得以拓展，原有的研究得到深化。20世纪末，随着西方史学研究方法、范式的传入，不少学者受其影响，开始反思以往的研究，采用新视角、新方法的论著层出不穷，书院史的研究迈上了新的台阶。但不容忽视的是，这一时期的书院研究中也存在一些问题，需要加以反思。

如在呈现整个书院历史发展的大势之时，不少学者采用计量统计的方法，这种方法的缺陷在于，面对海量且分属不同系统的文献，研究者难以逐个考辨文献所载是否真实，在利用所得数据做较为细致的分析之时，结果的可靠性便存在问题。在书院与学术的关系方面，多数学者将书院与不同时代的主流学术径直对接起来，从程朱学到阳明学，再到考据学，将书院与学术的历史书写成了以书院为中心的学术史，而对书院与学术产生实际关联的具体线索往往语焉不详。这种研究方式先入为主地将历史研究中的曲折复杂过程化约为直线式的演进，其结论很可能偏离历史真实，难以令人信服。书院与官学、科举关系密切，在研究书院历史之时，理应将之置于教育史、科举史发展的脉络之中，但当前的很多研究还停留在就书院论书院的层面，在研究书院的同时，观照科举制度、教育政策的情形依旧不多。

实际上，书院作为一种文化教育组织，它是社会大系统中的重要组成部分，要了解把握书院制度的特色、地位、功能与作用，就不能局限于对书院发展历史过程与其制度本身的研究，而应该放宽视野，将书院置入教育史、科举史、学术史乃至地方社会的发展脉络之中，避免抽离时空的概括与表面上的系统化，在历时性的研究中把握结构性的变化。只有这样，才能真正了解书院在当时社会中所扮演的角色，认识书院在社会运作过程中所发挥的作用，把握书院活动、制度建置所体现的社会功能及文化内涵。

要之，经过七十年的积累、反思，书院研究迈上了新的台阶，最近几年的

一些成果，反映出学者开始有意识地改变过去那种直线式或化约式的研究，试图将书院归入朝廷教育政策、地方学术传统、时代变迁等的脉络之中，采用新的研究方法，从多维的视角观察书院在教育、学术、地方社会中的作用的努力。这足以令我们相信，随着研究方法改进、研究视角的变化，书院研究的新突破必然可期。

A Studies about Seowon in China for 70 Years

Xiao, Yongming*, Ryu, Yeomwi**

Since 1920's and 1930's in the Chinese Republic, including reflection on modern education, academics have paid attention on studies about Seowon with rich research results. After the establishment of New China(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cholars have explored and extended the studies about Seowon based on the Marxist theories with lots of mistakes, and digged the values of Seowon in traditional society. In the late 20th Century, according to new historical methodologies, the contents of Chinese Seowon History, without insisting cliches in research contents, methods, and ideologies, developed new directions and achieved lots of progress. However, there have been problems such as prejudices of research perspectives and lack of research question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ummarize the studies about Seowon from the past in order to develop the study to next phase.

Keywords : New Chinese Academics, History of Seowon, Seowon System, Seowon Culture, Seowon

이 논문은 2019년 12월 13일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2월 2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26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결정된 것임.

* Director, Akrokseowon, China

** Lecturer, History & Culture Institute, Xihua Normal University, China

상주 玉洞書院 소장 자료의 유형과 특징

김순한*

-
- I. 머리말
 - II. 옥동서원 소장 자료 현황
 - III. 옥동서원의 자료 유형과 특징
 - IV. 맺음말
-

<국문요약>

본 논문은 옥동서원 소장 자료 중 기존에 공개된 자료와 미공개 자료까지 포함·정리하여 그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였다. 옥동서원은 황희 영정을 봉안한 黻堂이 효시이며 이후 祠宇로, 또 影堂으로 발전하였고, 1714년(영조 40)에는 사서 전식을 배향하여 서원으로 승원 하였다. 이듬해 헌재 자리로 이건 후 1789년(정조 13)에 사액 되었다. 옥동서원은 1984년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많은 연구자에 의해 서원 연구가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3년 국가 문화재 준비과정에서 서원의 많은 자료가 새롭게 발굴되어 서원의 인적 구성·운영·사액·승무(陞廡)·제향 의례 등 연구 범위도 다양해졌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만으로 서원의 종합적인 내용과 특징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미공개 자료와 함께 모든 자료를 재조사·수집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옥동서원의 모든 자료는 3차에 걸쳐 상주박물관에 기탁 보관하고 있다. 기탁된 자료는 크게 成冊古文書·古文書·影幀·책판 등으로 구분되며, 현대 자료를 제외한 고문서는 약 246종 397건이다. 이들 자료는 165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자료가 두루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서원의 설립과 승원·사액·운영·경제·제향 등을 밝힐 수 있으며 나아가서 서원의 위상까지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 서원의 서적과 책판 자료는 교육과 출판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starjji@yu.ac.kr

주제어: 옥동서원, 옥동서원 고문서, 황희, 방촌승무소(龐村陞廵疎), 서원자료

I. 머리말

서원연구는 1980년 이후 많은 연구자에 의해 조명되기 시작하여 현재 대부분의 전망이 밝혀졌다.¹⁾ 또 서원 연구에 활용했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지역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²⁾

조선시대 서원은 교육과 교화의 중심지였고, 사림의 정치사회 활동을 위한 여론과 공론의 수렴처였던 만큼 이와 관련된 많은 기록자료를 남겼다. 그러나 전란과 대원군의 서원 훼철령을 거치면서 귀중한 자료들은 대부분 소실되었다. 미훼철된 서원들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근대화 과정에서 관리 소홀과 도난 및 소실이 많아 남은 자료는 서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³⁾

옥동서원의 경우는 많은 자료가 망실된 것이 사실이지만, 여타의 서원에 비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옥동서원의 자료는 1984년 경상북도 문화재 기념물 지정을 위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처음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지자체와 대학연구소 등에서는 소장 자료뿐만 아니라 건축, 제향 의례 등

-
- 1) 강상택, 『조선후기 경남지역의 書院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김학수, 『17세기 영남학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영남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 사회적 성격」, 『조선시대 서원의 지역성과 정치적 성격』, 한국국학진흥원, 2007; 정진영, 「18세기 서원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 『조선시대사학보』 72, 조선시대사학회, 2015;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이병훈,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과 역할』,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채광수, 『18세기 영남지역 노론계 서원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등.
 - 2)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의 정리현황과 과제」,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옥영정, 「서원 자료의 보존 관리, 활용방향」,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김학수, 「상주 진주정씨 우복종택 산수헌 소장 전적류의 내용과 성격」, 『장서각』 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 강학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유학연구』 4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9 등.
 - 3) 이수환, 「영남서원의 자료 현황과 특징」, 『대구사학』 65, 대구사학회, 2001.

의 조사를 진행하면서 연구성과물도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2013년 국가지정문화재 준비⁴⁾ 때는 분야별로 종합적인 재조사를 시행하였고, 당시 서원의 많은 자료가 새롭게 발굴되어 공개되었다. 이에 옥동서원의 연구 범위도 확대되었고, 현재까지 공개된 서원의 고문서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공개되어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⁵⁾ 하지만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서원의 종합적인 내용과 현황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공개된 서원 자료뿐만 아니라 미공개 자료까지 상세하게 현황을 정리하고, 내용을 검토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한다.

II. 옥동서원 소장 자료 현황

옥동서원 자료는 원래 사당과 강당 내부에 소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많은 문서가 망실되어 2015년 9월부터 3차에 걸쳐 모든 고문서와 책판 등을 상주 박물관에 기탁 보관하고 있다.⁶⁾ 전체 자료는 316종 550건이며, 이를 成冊古文書·古文書·影幀·책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조선후기 서원을 비롯한 향촌 사회의 구체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일차 사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성책 고문서와 고문서의 자료는 크게 서원의 건립과 사액, 인적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문서로 구분된다. 또 경제기반 관련 문서, 방촌 황희의 승무 관련 문서, 기타 고문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고는 소장 자료 중 조선시대 자료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현대 자료를 제외한 고문서는 약 246종 397건이며, 이중 황희 영정 원본 1점과 모사본 3점, 서원 현판 11점, 책판 5종 94

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는 옥동서원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한 사전 조사를 위해 자문과 원고작성에 참여하였고, 이후 옥동서원은 2015년 11월 10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32호로 지정되었다.

5) 옥동서원의 일부 자료는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kostma.aks.ac.kr>)에 소개되어 있다.

6) 옥동서원 자료와 황희 영정, 목판 등 서원내 사당인 경덕사(景德祠)에 보관하다가 2015년 9월 14일, 12월 9일, 2016년 10월 21일 3차에 걸쳐 총 316종 550건을 상주 박물관에 기탁하였다. 기탁 자료 중 묶음으로 된 고문서나 帖 등 정확한 건수는 다소 차이가 있다.

장을 포함 시켰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옥동서원 소장 자료 현황

구분	종류	내용
정책 고문 서 · 고문 서	건립·사액 관련 문서	『本院日錄』, 『疏廳日記』, 『玉洞書院要覽』, 『長水黃氏世牒(世譜)』
	인적 구성·운영 관련 문서	『任員錄』, 『院錄』, 『尋院錄』, 『焚香錄』, 『執事分定』, 『謁廟錄』, 『駿奔錄』, 『時到記』, 『到記』, 『追享時敦事錄』, 『玉洞書院文蹟』, 『玉洞書院院規』 등
	경제 관련 문서	『白玉洞書院所納田畝』, 『白玉洞書院本別所田畝卜數記』, 『玉洞書院穀物收支簿』, 『玉洞書院金錢出入簿』, 『玉洞書院賭租及諸收入簿』, 『玉洞書院本別所居齋所田結錄』, 『玉洞書院守護生案』, 『玉洞書院下人案』, 『玉洞書院院生都案』, 『玉洞書院院生等案』, 『本所別所衿記』, 『玉洞書院別所稷案』, 『玉洞書院流用記』, 『玉洞書院流用簿』, 『玉洞書院日用文簿』, 『玉洞書院日用簿』, 『土地目錄』 등
	승무(陞庶) 관련 문서	『厖村先生陞庶疎時事蹟』, 『請陞庶疏廳士林通文』, 『甲申三月十五日發文』, 『寺洞畱宗中通文』, 『疎』, 『士林疎』, 『玉洞書院答疏廳士林通文』, 『幼學宋智修上言』
	고문서	明文, 通文, 稟目, 上書, 單子, 笏記, 簡札, 告目, 下帖 등
	기타	『玉洞書院圖書臺帳』, 『玉洞書院完議冊』, 『玉洞書院元配位諡號職啣別錄成冊』, 『沙西實記』, 『沙西全先生入享事蹟大概』, 『敬菴實記』, 『威襄公實記』, 『蘭菊稷冊』, 『蘭菊稷文簿』, 『厖村先生畫像贊』, 『辨訂錄序』, 『補院稷文書』, 『嶺南文苑』, 『淸遠亭辨正錄』, 『黃□遲尾時日記』 등
영정	원본과 모사본	1424년 원본, 1775·1844·1867년 모사본
책판	문집·세보	『厖村先生文集』, 『厖村集』, 『槃澗集』, 『黃氏世譜』, 『長溪二稿』

현판· 기문 기타	현판·기문	「玉洞書院」, 「玉洞書院重修記」, 「景德祠」, 「蘊輝堂」, 「斷露齋」, 「琢章齋」, 「清越樓」, 「玉洞書院重修記」, 「宣額時致祭文」
-----------------	-------	---

Ⅲ. 옥동서원 자료의 유형과 특징

옥동서원의 소장 자료 중 현대문서를 제외한 246종 397건 중심으로 그 내용과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가운데 현판 11점과 책판류 5종 94장을 제외한 고문서(성책류 포함)는 약 230종 292건이다. 이들 자료는 대부분 18세기 이후의 것으로 서원의 건립과 사액, 인적 구성 및 조직·운영체제·제향과 관련된 자료가 다수이며, 이외에도 서원 경제 관련 자료를 비롯하여 황희의 陞廡와 관련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1. 서원 건립·사액 자료

옥동서원은 건립에 관련된 『考往錄』이나 『창건록』은 없다. 하지만 『본원일록』⁷⁾과 『소청일기』⁸⁾, 『옥동서원 요람』, 『長水黃氏世牒(世譜)』 등을 통해서 서원의 건립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원일록』과 『소청일기』는 사액 전말의 자료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 두 자료는 1788년 청액 상소문을 위한 공문을 수합하는 내용부터 사액 후 사액례 등의 내용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한 일기 형식의 문서이다. 또 청액 상소문 내용과 제향자 사적을 정

7) 『本院日錄』은 필자의 졸고 「18세기 후반 상주 玉洞書院 청액 활동과 사액의 의미」에서 『본원일록』의 표제 결락으로 『소청일기』 서두의 내용을 참고 번역하여 『書院日錄』이라 하였다. 번역했던 『소청일기』의 실제 원문 기록은 “...見上本院日錄...”로 기록되어 있어 『본원일록』으로 수정하고자 한다.

8) 『본원일록』과 『소청일기』의 자료는 1970년 후반 지방문화재 등록을 위한 현장 조사시 영남대 국사학과 이수건 교수와 동행하였던 이수환 교수(현 영남대 역사학과)가 복사하여 소장하고 있던 복사본을 참고하였다.

리한 부분에서 서원 건립과 연혁을 소략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다.⁹⁾

그 외 서원의 건립 내용은 서원 내부에 현판 기문 또는 여러 문집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며, 또 망실된 현판의 기문은 문집 내용에서 일정 부분을 찾아 낼 수 있다. 이를 참고하여 현판 기문과 관련된 문집을 나열하면 영당을 재건한 槃澗 黃紐¹⁰⁾가 지은 『舊基祭文』¹¹⁾과 서원 이건시 蒼石 李垞의 현손인 李曾曄¹²⁾이 지은 景德祠의 『玉洞書院上梁文』¹³⁾, 樊巖 蔡濟恭의 종조부인 希菴 蔡彭胤¹⁴⁾이 지은 『黃厓村 全沙西 玉洞書院上梁文』¹⁵⁾이 있다.

또 입재 鄭宗魯가 지은 『門樓上梁文』¹⁶⁾과 『玉洞書院堂齋及水石命名記』¹⁷⁾, 상주목사 閔種烈¹⁸⁾과 是廬 黃蘭善¹⁹⁾의 『玉洞書院重修記』에서 옥동

9) 김순한, 「18세기 후반 상주 玉洞書院 청액활동과 사액의 의미」, 『민족문화논총』7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9.

10) 황뉴(1578~1626)는 황희의 7대손으로 자는 肅甫, 호는 반간이다. 증조부는 서원의 추향자 黃孝憲이며, 조부는 黃愷, 아버지는 의령현감 黃俊元(1548~1608), 어머니는 여흥민씨 부사직 閔師說의 딸이다. 그는 13세에 우복 정경세 문하에서 3년을 수학하였고, 1612년(광해군 4) 35세의 나이로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이듬해인 1613년(광해군 5) 증광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전적, 예조좌랑, 지평, 경성판관을 역임하였고, 저서로는 문집인 『반간집』이 전한다. 1783년(종조 7)에 증조부 황효헌과 함께 옥동서원에 추향 하였다.

11) 「구기제문」에는 옥동서원이 임진왜란 때 소실 된 내용과 영당으로 재건된 내용, 영당 건립시 반간 황뉴가 책임을 맡아 재건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반간집』권3, 「舊基祭文」.)

12) 이증엽(1674~?)의 본관은 興陽이고, 자는 晦伯이다. 아버지는 진사 李泰至, 1710년(숙종 36) 37세에 증광시 진사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전해지는 문집은 없다. 이태지는 옥동서원이 서원으로 승격되던 1714년 초대 원장을 역임했다. (『任員錄』, 甲午年: 『庚寅增廣司馬榜目』)

13) 黃喜, 『厓村實記』권4, 「玉洞書院上梁文」.

14) 채팽운(1669~1731)의 본관은 平康, 자는 仲耆, 호는 희암, 恩窩이다. 吳光運, 李德壽, 李玄祚, 李玄錫 등과 교유하였다. 채팽운의 조카인 蔡膺一의 아들 채제공의 주도로 『希菴集』을 간행하였다.

15) 채팽운, 『희암집』 권25, 상량문, 「황방촌희 전사서식 옥동서원상량문」.

16) 「문루상량문」은 옥동서원이 1789년(정조 13) 사액 후 1795년(정조 19)에 문루를 건립하고 정종로에 의해 문루의 상량문과 현판 淸越樓를 지어 걸었다. (정종로, 『입재선생문집』 권30, 상량문, 「門樓上梁文」)

17) 「옥동서원당재급수석명명기」에는 정종로가 강당 蘊輝堂과 斷露齋, 琢章齋 등과 같이 당호나 재실 등의 부속 건물들의 편액을 지었다. (정종로, 『입재선생문집』 권29, 기, 「玉洞書院堂齋及水石命名記」)

18) 민종렬의 『옥동서원증수기』는 1889년(고종 26)에 지었고, 현재 강당 온취당에 걸려있다. 민종렬의 상주목사 재임 기간은 1885년(고종 22)~1890년(고종 27) 이고, 자는 景

서원 건립과 승원, 중수, 사액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서원의 건립과 승원, 사액 관련 자료

번호	자료명	작성연대	근거
1	舊基祭文	17세기 초	『반간집』
2	本院日錄	戊申~己酉 四月一日 (1788년 5월~1789년 4월1일)	
3	疏廳日記	戊申 五月二十七日~己酉 三月 二十四日(1788년 5월 25 일~1789년 3월23일)	
4	長水黃氏世牒	미상	
5	옥동서원 요람	미상	
6	玉洞書院上梁文	1715년	『방촌실기』
7	黃厓村全沙西 玉洞 書院上梁文	1715년	『희암집』
8	門樓上梁文	1795년	『입재선생문집』
9	玉洞書院堂齋及水 石命名記	1795년	『입재선생문집』
10	玉洞書院重修記	현판(1889·1967년)	『시려집』
11	玉洞書院奉安文	1783년	『반간집』

- 武, 호는 芝潭이다. 1865년(고종 2) 진사시에 급제하여 양산군수, 밀양부사를 거쳐 상주목사로 부임했다.(『상산지』, 인물조, 100쪽); 옥동서원 무오 3월~계유 8월 『심원록』에 민중열은 1886년 4월 4일에 옥동서원을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다. 또 그는 1885년과 1886년에 옥동서원 원장과 1887년~1890년에는 제 1유사에 추대된 인물이다.
- 19) 황난선(1825~1908년)은 옥동서원 제향자 황뉴의 증손이며 자는 同輔, 호는 是廬이다. 아버지는 黃麟老, 어머니는 慶州孫氏 감찰 孫會慶의 딸이다. 정재 柳致明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典庵 姜稷, 拓菴 金道和, 西山 金興洛, 肯庵 李敦禹, 箕疇 鄭民秉 등과 교유하였다. 저서로 『是廬集』이 전하는데 기문 중 「옥동서원중수기」를 지었다.(황난선, 『시려집』권5, 기, 「옥동서원중수기」)

12	宣額時致祭文	현판 (1886년)	『홍재전서』 권21, 제문3, 『본원일록』, 『소청일기』
----	--------	------------	---------------------------------

<표 2>를 참고하여 옥동서원의 건립 내용을 정리하면 방촌 황희의 차자 黃保身이 처향인 1454년(단종 2) 상주에 입향하여²⁰⁾ 黉堂에 아버지 영정을 봉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황보신의 차자 황종형을 비롯하여 후손들은 상주에 정착하였고, 특히 손자인 月軒 黃孟獻과 畜翁 黃孝獻 형제는 祠廟을 이어갔다. 1580년(선조 13) 황희의 5대손이자 황종형의 증손인 황돈은 白玉洞影堂을 건립하여 춘추로 향사하였다.²¹⁾

이후 임진왜란 때 燒失되어 황희의 7대손인 반간 黃紐(1578~1626)의 주도로 영당을 중건하였고,²²⁾ 1603년(선조 36) 11월에는 외후손인 우복 정경세가 영당 향사에 참석²³⁾하는 등 영당으로서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였다. 1714년(숙종 4)에는 사림들의 중론에 의해 황희를 元位, 사서 奎湜(1563~1642)을 배향하여 서원으로 승원하였다. 이듬해 1715년(숙종 41)에는 현재의 자리로 이건 하였고, 1786년(정조 10)에 축웅 황효헌(1491~1532)과 반간 황뉴를 추배하였다. 1788년(정조 12) 8월 청액소를 올려 이듬해 1월 사액되었다.

이처럼 서원의 건립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황희 영정을 봉안한 횡당에서 사우로, 또 영당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이건 후 승원하여 서원으로 면모를 갖춘 뒤 청액활동을 통해 사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인적 구성 자료

20) 『장수황씨세첩』, 「黃從兄神道碑」의 내용을 살펴보면 황보신이 1454년(단종 2)에 상주 중모로 낙향하여 별업을 형성한 기록이 보인다. 또 황종형은 청도군수 등을 역임 후 상주에 정착하여 아버지 황보신의 뒤를 이어 가학을 물려받은 인물이다.

21) 『장수황씨세첩』, 萬曆 8年, 庚辰; 『厓村實記』권4; 『시려집』권5, 記, 옥동서원중수기.

22) 『반간집』권3, 舊基祭文; 권4, 玉洞書院奉安文.

23) 『우복집』권4, 부록, 癸卯萬曆21年. 11월, “十一月. 與諸族會祭黃翼成喜影堂. 影堂在尙州中牟縣. 先生. 翼成之外裔也.”

옥동서원의 인적 구성 관련 자료는 『원록』, 『임원록』, 『심원록』, 『분향록』, 『집사분정』, 『준분록』, 『시도기』, 『도기』, 『추향시돈사록』, 『옥동서원 수호생안』, 『옥동서원하인안』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임원록』과 『원록』 자료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원임·원생 관련 자료

번호	자료명	작성연대
1	任員錄	甲午~, 光武 10年 3月(1714년~1899년)
2	任員錄	庚子~辛未(1900년~1960년)
3	任員錄	庚子
4	院錄	甲午(1714년)
5	院錄	甲辰 春~丁亥 秋 (1724년~1767년)
6	院錄	壬辰~癸巳(1772년~1833년)
7	院錄	丙子~壬午 秋(1876년~1882년)
8	院錄	乙酉~辛卯

1) 원임 관련 자료

조선시대 서원을 구성하고 있는 실질적인 주체는 원임과 원생이었다. 원임은 ‘院中職任’의 준말로 서원을 운영하고 대표하는 직책이었다. 서원의 효시인 「소수서원 원규」에 院長 1인과 院貳 1인을 두어 서원 일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有司를 두어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처럼 소수서원 설립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원장-유사’체제로 확립되어 있었으나, 지역·당색 또는 그 서원의 제반 조건에 따라 실제 구성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

옥동서원 원임의 경우는 서원으로 승격한 후 본격적으로 원임록을 작성하였다. 현전하는 3책의 『임원록』을 통해 ‘원장-재임’ 체제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과 같이 『임원록』 3책 중 1714년(숙종 40)~1899년(광무 3)에 작성된 문서²⁴⁾는 중요한 자료이다. 기록이 시작된 1714년(숙종 40)은 서

24) 『任員錄』, “甲午 院長 李泰至 齋任 黃汎 宋治文 金益紀 黃濤 金道標 丙申 院長 姜

원으로 승격한 시기였고, 갑술환국 이후 정치적 환경에 의해 서원들은 변화를 모색했던 시기였다. 또한 정조 연간 남인 포용 정책에 힘입어 1789년(정조 13)에 사액된 시기도 포함되어 있어 이 문서의 가치는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또 1714년부터 1868년 봄까지는 기존의 ‘원장-재임’체제가 1868년 가을부터 1885년(고종 22)까지 ‘원장-1유사-재임’ 체제로 전환된 점이다. 이후 1887년(고종 24)에는 원임 중 원장직을 없애고 ‘1, 2유사-재임’ 체제로 변경되었고, 2년이 지난 1889년부터는 ‘유사-掌議’체제로 다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893(고종 30)년 ‘원장-재임’의 체제로 되돌리기 전까지의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옥동서원 원장은 1714년에서 1800년까지 86년간 92명이 평균 11.2개월을 역임하였다. 18세기 이전 여타서원들의 원장 재임 기간은 평균 2년을 상회하던 것과 비교하면, 옥동서원 원장의 재임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난다. 그러나 옥동서원을 1714년 현재의 위치로 이 건한 초창기에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급적 지역 내 명망 있는 인사들을 원장으로 초대하였으며, 2년의 임기는 잘 지켜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초대 원장 진사 李泰至(2년)²⁵⁾, 2대 원장 姜珣(1년), 3대 원장 主簿 洪相民(2년), 4대 원장 縣監 洪道達(2년), 5대 원장 康守楷(1년), 6대 원장 呂以觀(2년), 7대 원장 黃鍾瑞(2년), 8대 원장 掌令 權相一(1년), 9대 원장 진사 李增燁(2년) 등을 들 수 있다.

또, 원장을 역임한 인사들을 성관별로 나열하면 長水黃氏 22명, 豐壤趙氏 16명, 興陽李氏 13명, 晉州姜氏 10명, 商山金氏 5명, 岳林洪氏 5명, 信川康氏 3명, 慶州孫氏 3명, 星山呂氏 3명, 廣州盧氏 3명, 晉州鄭氏 2명, 沃川全氏 2명, 恩津宋氏 1명, 安東權氏 1명, 羅州丁氏 1명, 宜寧南氏 1명 등이다. 다시 이들의 직역을 구분하면 군수·현감 등의 지방관 4명, 장령·都事·納·奉

珣 齋任 黃漪 宋道天 黃鎮國 李增運 黃憲 黃淑 趙允紀 黃龍河 生員 丁酉 院長 洪相民 主簿 齋任 趙允紀.....”

25) 이태지(1674~?)는 그는 창석 이준의 증손이자 영남학파의 영수였던 葛庵 李玄逸과 친교가 있던 인물로 옥동서원의 『원록』과 상주향교 교안에도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事·主簿 등의 관료 8명, 생원·진사 14명으로 나타난다.

이들 원장의 거주지는 장수항·풍양조·흥양이·진주강씨 등 주로 상주 관내에 세거하는 성관이거나 인접 고을 출신의 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원장 역임자는 상주목 내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우호 세력의 확대와 제향 후손인 장수항씨들의 참여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옥동서원의 성격도 문중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또 원장으로 추대되고도 참석하지 않는 ‘未出座’로 표기된 인물들이 18세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옥동서원 원장의 임기는 초창기 10여 년을 제외하고는 평균 11개월이었다. 이처럼 점차 짧아진 임기는 옥동서원의 위상과 지리적 위치에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서원의 위치는 상주목에서 서쪽으로 60리 밖 산중에 위치하였고, 상주에는 도남·옥성·근암서원 등 20개 이상의 원사가 있었다.²⁶⁾ 이 때문에 거리도 멀고 자신의 가문과 많은 교류를 하지 않는 곳의 출입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옥동서원 원장이 인근 고을의 인사들이 선발된 것도 이러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장을 맡은 인사의 성씨 변화에도 19세기 들어서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신천강·나주정·옥천전씨 가문 출신의 원장이 거의 사라졌고, 풍산류씨 가문에서 4명, 여흥민씨 가문에서 2명, 인천채·파평윤·순천박씨 가문에서 각 1명 등 새로운 가문 출신의 인사가 선출되었다. 이외에도 성산여·경주손·풍양조씨의 참여 수가 줄어들었고, 이·홍·노·김·남·권씨의 참여가 소폭 증가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장수항씨 42명, 진주강씨 28명, 진주정씨 15명, 상산김씨 10명 등으로 배향 가문에서 가장 많은 원장을 배출하였다. 반면 배향자 전식의 옥천전씨 가문은 서원중건부터 참여가 저조하기

26) 상주에는 도남서원(1606 건립), 옥성서원(1631), 속수서원(1635), 근암서원(1664), 효곡서원(1685), 봉산서원(1688), 화암서원(1692), 충렬사(1698), 흥암서원(1702), 연악서원(1702), 서산서원(1708), 운계서원(1711) 등이 건립되어 있다. 이들 서원에 제향된 인물들은 풍양조·흥양이·진주강씨·경주손·상산김·옥천전·은진송·안동권·부림홍·연안이·나주정·광주노·창녕성·안동김·평산신씨 등으로 상주를 대표하는 집안들이 총망라되어 있었다. 또 1677년(숙종 3)에 사액된 도남서원은 이미 남인계 인사들의 활동처로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112년 뒤에 사액된 옥동서원은 접근성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작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미미해진 사실은 확인할 사안이다.

이처럼 상주 서부지역 출신의 원장 비율은 18세기에 비해 19세기에는 큰 폭으로 증가했음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독점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서부지역 인사들을 추대하여 서원의 위상을 높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은진송씨 가문의 원장은 19세기 이전과 이후의 인원이 1명, 8명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내용이다.

또, 원장 중 황희의 후손이 증가된 것은 18세기 들어 문중 원사의 건립이 늘어나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고, 1746년(영조 22) 황효헌과 황뉴를 추향한 후에는 더욱 문중 서원의 성격이 강해진 면도 보였다. 이처럼 외부 인사를 추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원 운영은 배향자 가문의 주도로 변모하였고, 지역 사림의 참여율은 점차 저조해졌다.

1789년(정조 13) 옥동서원이 사액 되면서 다양한 가문들이 서원 운영에 참여는 하였으나, 남인의 활동처인 도남서원과 서인[노론]의 중심처인 흥암서원에 비해 활발하지는 못했다. 두 서원이 각기 남인과 서인 내지 노론을 대표하는 곳인 만큼 이곳에 출입하는 인사들 역시 당색에 따라 구분되어 있었다. 영조 무신란 이후 집권한 노론 세력들의 대남인 회유정책으로 인해 상주 지역에 흥암·서산·운계서원을 중심으로 신출 노론이 대거 성장하였고, 남인 세력은 도남서원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옥동서원 중심의 정치·사회적 활동에 대해서는 인근 또는 다른 지역 서원의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19세기 들어 옥동서원에도 중앙 관료의 원장직 추대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1850년(철종 1)에 상주목사가 임명된 이래 1910년까지 13명의 목사[군수]가 원장으로 임명되어 수령과 원장직을 겸하였고, 후반으로 갈수록 빈도는 더 높아져 갔다.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중엽부터 이미 영남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세기에 접어들면 옥동서원도 이를 수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집권당은 서원을 통한 자파 세력의 확대 정책이며 서원측은 원활한 서원 운영을 하려고 하는 상호이해 관계가 결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시기에는 서원 궤철 대상에서 제외된 서원의 원장을

지방 수령이 담당하여 운영·관리토록 했기 때문에 서원 운영체계도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그 변화는 ‘원장-재임’에서 ‘원장-유사-재임’ 체제로 바뀌었고, 유사직의 직임이 추가된 것은 수령의 업무처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조 역할자로 유사를 둔 것이다. 수령은 임기 동안만 원장직을 맡았으며, 유사와 재임은 이전과 같이 매년 춘추 향사 후 새롭게 선발하였다.

1887년(고종 24)에는 임원 구성이 변경되어 ‘유사-재임’체제가 된다. 즉, 수령이 1유사가 되어 원장직을 맡고, 2유사는 향중에서 선발하여 서원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였다. 그 아래 재임을 두었는데, 이들 재임도 1889년부터는 掌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1893년 가을에 이르면 또다시 변경하여 1714년 운영방식이었던 ‘원장-재임’체제로 돌아갔다. 이때는 수령이 원장직을 맡지 않았고, 향내에서 원장을 선발하여 직임을 맡겼다. 원임 임명의 경우에는 1년에 봄, 여름, 가을 3차례 주기로 바뀌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변화 등으로 인해 서원의 운영이 그만큼 어려워졌으며, 원임직의 권위가 이전보다 크게 약화되어 사족들이 기피하는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옥동서원의 『임원록』은 서원의 승원부터 사액 이후까지 운영 사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원생 관련 문서

옥동서원의 『원록』은 5책이 전한다. 작성 연대는 18세기 2.5건, 19세기 1.5건, 미상 1건이다. 당시 옥동서원에 출입하였던 원생의 명단으로 加錄의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직임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1) 1714년(숙종 40)경 『원록』²⁷⁾

이 문서는 모두 71명의 원생이 수록되어 있으며, ‘승호시돈사록’에서 40명, ‘심원록’에서 12명, ‘순사도주시정문’에서 19명을 발췌했다는 기록을 남

27) 『院錄』, 甲午年.

겼다.

여기서 ‘陞號’는 옥동서원으로 승격했던 시기를 의미하므로 1714년(숙종 40)경에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다. 원래 이 문서는 1714년(숙종 40) 이전에 전해지던 자료를 참조하여 승원하던 해에 본 『원록』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해지는 『임원록』과 甲午 11월 19일의 『준분록』, 갑오년 『분향록』, 갑오 11월 19일의 『심원록』 등에서 본 『원록』의 원생들이 산발적으로 확인된다.

『원록』에는 성명만 기록되어 있어 표면적으로 원생들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다른 자료의 명단과 비교했을 경우 지역 내 유력한 재지 사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록』의 처음 등장하는 이태지는 당시 옥동서원 원장이었고, 宋治文과 金益紀는 재임, 姜玉勻(玉+勻)과 呂以觀은 각각 1716년(숙종 40, 丙申)과 1722년(경종 2, 壬寅)의 원장이었다. 이처럼 원장 및 재임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원생의 지위가 지역 사회에서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후대에 새롭게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지만, 서원으로 승격하여 새롭게 면모를 갖춘 후 처음으로 입록한 원생의 명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 자료이다.

한편 『원록』에 수록된 71명의 원생을 성씨별로 나열하면 황씨 20명, 김씨 11명, 이씨 7명, 조씨 6명, 송씨 4명, 성씨 3명, 강·곽·여·노·손·전·채씨 각 2명, 고·권·남·서·한·홍씨 각 1명 순이다. 원생 중 배향자의 후손인 장수황씨 일문이 가장 많았다. 이것은 옥동서원 인근에 주향자 황희의 후손들이 많이 세거하고 있었고, 이들 가문이 서원 운영을 주도하면서 많은 원생을 입록 시킨 것으로 보인다.

(2) 1724년~1767년(영조 43)의 『원록』²⁸⁾

이 자료는 236명의 원생이 수록되어 있다. 1724 · 1728 · 1731 · 1732 · 1759 · 1760 · 1761 · 1764 · 1765년 및 1767년 봄과 가을 등 43년 동안 11회에 걸쳐 입학한 원생들을 기록하였다. 이들을 성씨별로 나열하면 김씨 44명, 이씨 38명, 조씨 24명, 홍씨 13명, 황씨 12명, 신·채씨 각 9명, 고·류·

28) 『院錄』, 甲辰 春~丁亥 秋.

성씨 각 8명, 권씨 6명, 강·하·정·조씨 각 5명, 노·손씨 각 4명, 금·강·남·송·정·한씨 각 3명, 변·정씨 각 2명, 곽·강·서·오·왕·윤·여씨 각 1명 순으로 입록되어 있다.

시기별 각 명부에는 입학 원생의 성명만 기재해 놓았으며, 예외적으로 관직 역임자나 소과 급제자는 성명 위에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또 이들은 명부의 맨 앞에 수록하였고, 명부 작성 후 문과나 혹은 무과, 생원·진사시에 급제하거나, 출사한 원생에 대해서는 성명 아래에 해당 내용을 세주로 기재하였다.

훗날 『원록』을 검토하면서 사망한 원생이 있을 경우 성명 위에 ‘仙’이라 세주로 기재하였고, 원생이 개명했을 경우는 성명 아래에 개명된 이름을 세주로 기재하였다. 원생의 입록은 서원 享祀 때 이루어졌으며 ‘春享時加錄’ 또는 ‘秋享時加錄’이라 표기하여 춘향과 추향을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당시 기록한 년도의 마지막 부분에는 원임에 관한 내용이 있기도 했는데, 기록 방법은 직임을 기재하고 그 직임의 성씨만 기록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기록된 『원록』은 입원생 파악은 물론이고 『원임록』의 내용과 대조하여 운영체제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1회에 걸친 명부의 작성 시기는 일정하지는 않았다. 1724년에 84명, 1728년에 46명이 가록되었고, 그 이후로는 10명 내외의 원생이 입록되어 있었다. 1724년에 입록된 84명의 성씨를 살펴보면 김씨 15명, 이씨 12명, 홍씨 7명, 고·신·曹·趙·채·황씨 각 5명, 柳氏 4명, 宋氏·鄭氏 각 3명, 康氏 각 2명, 姜·邊·徐·손·吳·王·尹·河氏 각 1명 순이다. 관직별로 보면 군수 1명, 현감 1명이며, 생원과 진사도 각 1명씩 포함되어 있다. 명부 작성 후에 기재된 세주를 보면, 이 원생 중 문과 급제자 2명, 무과 급제자 1명, 진사 1명이 추가된다. 당시 원장은 권, 재임은 申·黃이었다.

1728년(영조 4)의 원생은 46명으로 대폭 감소시켜 엄격히 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성씨는 김씨 10명, 성씨 8명, 이씨 7명, 趙氏 4명, 康·권·한·홍·황씨 각 2명, 姜·高·琴·呂·柳·邊·鄭氏 각 1명 순이다. 관직 역임자는 副率·輔德·正字 각 1명이며, 진사·생원도 1명씩 확인된다. 명부 작성 후, 원생 중 2명이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생원시와 진사시에도 각각 1명씩 급제하였

다. 또한 參奉에 제수된 원생도 1명과 당시 재임은 李·趙 였다.

1731년(영조 7)의 입원생은 8명으로 趙氏 3명, 김·채씨 각 2명, 이씨 1명 순이다. 당시 원장은 李, 재임 2인은 모두 金으로 확인된다. 1732년 입원생은 16명으로 김·趙氏 각 3명, 황·이씨 각 2명, 康·高·廉·申·鄭·河氏 각 1명 순이다. 1759년에는 김씨 3명, 권·丁·홍씨 각 1명씩, 모두 6명의 원생이 입학하였다. 1760년의 입학자는 김·趙氏 각 2명, 권·琴·盧·이·鄭·河 각 1명씩, 모두 10명이다. 1761년에는 이씨 3명, 홍씨 2명, 琴·南·柳·申·趙·河氏 각 1명씩 모두 11명이 입학하였다. 1764년의 입학생은 모두 16명이며, 성씨별로는 황씨 3명, 김·이·趙氏 각 2명, 高·盧·손·丁·鄭·채·홍씨 각 1명 순인데, 당시 원장은 姜氏, 재임은 2인 모두 이씨로 확인된다. 1765년에는 김씨 3명, 姜·柳·이·趙·채·韓氏 각 1명씩 모두 9명의 원생이 입학하였다.

1767년(영조 43)에는 두 번의 원생 입학이 있었다. 춘향 때에는 이씨 4명, 趙氏 3명, 申氏 2명, 郭·김씨 각 1명씩, 12명이 입학하였다. 추향은 이씨 5명, 김씨 3명, 권·南·盧·손씨 각 2명, 柳·河氏 각 1명씩 모두 18명이 입학하였으며 원장은 姜氏로 기재되어 있다.

(3) 1772(영조 48)~1833년(순조 33)의 『원록』²⁹⁾

이 문서는 모두 53명의 원생이 수록되어 있다. 연도별 4회로 나누어 입원생의 명단을 기록하였으며 연도는 1772·1782·1784·1883년이다. 성씨별로 통계하면 趙氏 9명, 이씨 7명, 김·송·채·姜氏 각 5명, 홍·황씨 각 3명, 전·노 각 2명, 권·남·류·손·곽·채씨 각 1명, 성씨 미상 1명 순으로 나타난다.

(4) 1876(고종 13)~1882년(고종 19)의 『원록』³⁰⁾

이 자료는 ‘丙子 己卯 壬午 院錄’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는 6년간 3회에 걸쳐 작성되었고, 1876년(고종 13)에 44명, 1879년(고종 16)에 36명, 1882년(고종 19)에 50명으로 전체 130명의 입원생을 기록하였다. 이를 성씨별로 구분하여 전체 인원을 살펴보면 趙氏 23명, 이씨 21명, 김씨

29) 『院錄』, 壬辰~癸巳.

30) 『院錄』, 丙子~壬午 秋.

17명, 황씨 9명, 鄭氏 8명, 姜·曹氏 각 6명, 노씨 5명, 신씨 4명, 康·高·손·南·류씨 각 3명, 송·왕씨 각 2명, 권·廉·박·변·여·민·전·丁·채·河·許·韓·홍씨 각 1명 순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옥동서원은 1714년(숙종 40) 승원 한 초창기에는 경제적 기반 구축과 서원의 격을 높이기 위해 상주 지역 사족들의 입원을 적극적으로 받았지만, 이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입원 자격을 엄격히 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876(고종 13)부터 1882년(고종 19)까지 『원록』에서는 원생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이전까지 대원군 휘철 이후 상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존치된 서원이었다는 점과 19세기 중반 신분제도의 붕괴로 신분이 상승된 인사들의 입록이 증가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서원 재정의 악화, 서원훼철 등의 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여타서원과 마찬가지로 원생 수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3) 방문자 관련 문서

『심원록』은 서원 내방 인사가 자필 서명 또는 목록을 기록한 일종의 방문록으로 본관, 인명, 내방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옥동서원의 방문자 관련 문서인 『심원록』은 <표 4>와 같이 8책과 낱장 1장이 전한다. 이들 자료는 서원으로 승원한 18세기 자료 3.5건, 19세기 4건, 20세기 1건 등으로 서원 운영과 위상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자료이다.

『심원록』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참배 후 본관·이름·관직·字·날짜·방문목적·기타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 자신의 흔적을 남긴다. 『심원록』은 『임원록』이나 『원록』과 함께 중요한 문서로 다루었기 때문에 등재 여부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었다.

서원 방문의 목적은 참배가 가장 많았고, 帶恩, 숙박 등을 위해 방문하기도 한다. 참배하기 위해 서원을 방문하는 인사는 새로 발령된 관찰사와 인근 고을의 수령·찰방·都事 등으로 사당에 알묘 후 방문 사실을 증명하는 『심원록』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다. 지방관뿐만 아니라 소·대과에 급제한 인사들의 新恩 인사, 전직관료, 유학 등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원을 방문하였고, 후

손·방손·외예들을 막론하고 서원을 방문한 후 『심원록』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옥동서원의 심원록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방문자 관련 자료

번호	자료명	작성연대
1	尋院錄	甲午 11月~丁未 3월(1714~1749)
2	尋院錄	戊申 3月~乙丑 4月(1721~1745년)
3	尋院錄	戊子 8月~壬寅 11月(1768~1782)
4	尋院錄	壬寅 5月~戊子 9月(1782~1828)
5	尋院錄	丙子 5月~乙酉 正月(1816~1825)
6	尋院錄	戊子 5月 26日~丁巳 5月(1828~1857)
7	尋院錄	戊午 3月~癸酉 8月(1858~1933)
8	尋院錄	戊子 4月~甲子6月 11日(1888~1921)
9	尋院錄	날장

(1) 1714년(숙종 40)~1749(영조 25)의 『심원록』³¹⁾

이 문서는 승원된 이후의 방문 인사 명부이기 때문에 자료 가치가 있다. 이 자료와 비슷한 시기의 자료들과 비교 분석을 한다면 서원 운영에 대한 전말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문서 예를 들면 1714년(숙종 40)의 『임원록』과 『원록』, 『준분록』, 『분향록』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심원록에는 표점을 찍어 중요한 인물을 표시하였는데, 표시한 인물 중 申濬은 세 번째로 기록된 인물이다. 신준은 1714년(숙종 40) 增廣試에 진사 3등에 입격하고 신은 차 옥동서원을 방문했다. 그 외 방문자의 성관을 살펴보면 興陽李·中和楊·高靈申·國原(忠州)朴·唐城洪·文城柳·聞韶金·密城朴·封城徐·永山鄭·完山李·完山崔·晉陽鄭·忠原崔·苞山郭·豐山金·豐壤趙·夏山曹·河城鄭·黃澗南氏 등의 가문에서 서원을 찾아 이름을 남겼다. 또 방문자의 거주지는 경상우도의 星州·安陰, 충청도의 永同·連山·黃澗 그리고 경기 振威에서 방문하였고, 거주지를 기재하지 않은 인사들은 상주지역 인사로 추정된

31) 『尋院錄』, 甲午年 十一月 十九日~丁未年 閏三月 二十五日.

다.

(2) 1721년(경종 19)~1745년(영조 21)의 『심원록』³²⁾

이 기록은 18년간 서원을 방문한 명단이다. 방문한 성관을 살펴보면 장수황씨, 夏山成·豐壤趙·管城全·聞韶金·義城金·平山申·花山權·興陽李·管城陸·光山盧·錦城朴·綾城具·碧珍李·安定羅·礪山宋·驪興閔·延安田·烏川鄭·完山李·月城金·月城李·鳳城琴·三州李·淸道金·坡平尹·河洞鄭·河城鄭·咸陽呂·花山金氏 등이 방문하였다. 이들 중 황희의 후손인 장수황씨 가문과 外裔들의 방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외에 가문은 금성 박씨·파평 윤씨·하산 成氏들이다. 방문자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상주를 비롯해 金山·金泉·大邱·石木·善山·龍宮·龍潭·仁同·咸昌 등이다. 전라도 龍潭을 제외하면 경상도이거나 대다수 상주 인근 고을이었다.

(3) 1768년(영조 44) 8월~1782년(정조 6) 4월의 『심원록』³³⁾

이 문서는 15년간 서원을 방문한 명단이다. 방문한 가문의 성관은 33개 이상이며 제향자 후손인 장수황씨 가문의 방문율이 가장 높았고, 풍양조씨·풍산류씨·선산김씨 가문이 그 뒤를 이었다.

이중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1780년(정조 4)에 방문한 후 이름을 남긴 입재 정종로이다. 우복 정경세의 6대손으로 상주목 장수황씨의 외후손이며 1790년(숙종 26) 옥동서원 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1795년(정조 19)에는 옥동서원 「문루상량문」과 현판 「청월루」, 「옥동서원당재급수석명명기」를 지어 서원 운영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이 문서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이처럼 본 『심원록』을 통해 정종로는 서원의 위상 강화에 기여한 옥동서원 대표 인물로 평가될 중요한 자료 중 1건 일 것이다.

표점을 찍어 둔 명단은 宋應望·李穡·姜世鷹·金聲秋 이었고, 이들은 모두 문과 급제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강세응과 김성추의 본관은 각각 진주강씨, 상산김씨로 상주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특히 상주 낙양 출신인 강

32) 『尋院錄』, 戊申三月七日~乙丑四月二日.

33) 『尋院錄』, 戊子 八月~壬寅 十一月.

세응은 1780년(정조 4) 문과에 급제하여 전적을 시작으로 사헌부감찰·지평·이조좌랑·사간원정언 등을 역임하였고, 외직으로 성환찰방과 경성도호부 판관 등을 역임한 정치적 능력과 학문을 겸비한 인물이다.

(4) 1782년(정조 6)~1828년(순조 28)의 『심원록』³⁴⁾

이 자료는 옥동서원 사액 준비와 사액후의 방명록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옥동서원은 1788년(정조 12) 6월 사액을 위한 청액 임원진을 구성하여 상경한 후 8개월 만에 사액 되었다. 당시 정국이 서인[노론]의 주도로 운영된 점을 감안하면 남인계 서원인 옥동서원의 사액은 상주목뿐만 아니라 영남 전 지역에 강한 시사점을 준 사례이다. 방문한 성관을 살펴보면 장수황·광산김·풍양조·반남박·상산김·하산성·한산이·경주손·광릉안·광산노·남양홍·남원이·여흥민·예천송·문소김·상산황·성산여·야성송·연안이·월성손·은진송·의령남·진양강·진양하·철성남·흥양이씨 등이다.

황희의 후손인 장수황씨 가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광산김·풍양조씨 문중 순으로 서원을 방문했다. 광산김씨는 외손들의 방문이며, 풍양조씨는 15세기에 낙동 주변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가문으로 趙光璧·趙靖·趙翊·趙榮遠 등의 인사를 배출한 상주의 명문가이다. 또 李學源·金斗應·黃冕源·閔光迪·安正履·趙錫虎·孫會慶·宋應壘·宋元陽·姜申永 등에 표점을 찍어 중요한 인물을 표시하였다.³⁵⁾ 이들은 문과·생원·진사시에 급제한 인물들로 거주지는 상주·한성·문의·성주·파주 등의 고을이다.

이처럼 서원이 사액된 후 다양한 가문들이 방문한 것은 상주목 서부지역 남인계 서원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또 동부지역 남인계 서원의 중심은 도남서원이 영도하였고, 관내는 노론계 활동의 본거지인 흥암서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34) 『尋院錄』, 壬寅 吾月~戊子 九月.

35) 과거 급제한 인물 중 조석호의 자는 正則, 호는 三省齋, 본관은 풍양이며, 1783년(정조 7) 식년시 갑과 2위로 합격하였고, 전적·예조좌랑을 역임하였다. 또 손회경의 자는 聖際, 호는 竹隱, 본관은 慶州이며, 1783년(정조 7) 식년시 병과 9위에 합격한 뒤 전적·감찰·전라도사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송응망은 자는 汝瞻, 호는 東湖이며 1783년(정조 7) 식년시 병과 17위로 합격한 후 전적·감찰·예조좌랑·지평 등을 지낸 인물로 옥동서원을 방문하여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5) 1816년(순조 16)~1825년(순조 25)의 『심원록』³⁶⁾

이 문서에 방문한 성관을 살펴보면 상주김 · 밀성박 · 상산김 · 의성김 · 장수황 · 전주이 · 광산김 · 벽진이 · 여주이 · 평산신 · 풍양조 · 고령신 · 남양홍 · 남평문 · 성산여 · 성주이 · 연안이 · 영양남 · 오천정 · 의령남 · 진산강 · 창녕성 · 창녕조 · 초계정 · 풍산홍 · 함양박 · 華順崔 · 檜山金 · 흥양이 씨 등의 문중 인사들이 서원을 찾아 참배 후 이름을 남겼다. 이중 상주 · 상산김씨 가문의 비율이 높았고, 밀성박 · 의성김 · 선산김씨 문중 등 순으로 방문했다. 방문자들의 거주지는 상주를 비롯한 保寧 · 沃川 · 善山 · 仁同 등 인근 고을 인사들이다. 상산김씨 金益耜에는 표점을 찍어 중요한 인물로 표시하였다. 그는 1801년(순조 1) 문과에 합격하여 정언·비인현감·문천군수 등을 역임하였고, 金履安의 문인으로 학문이 출중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6) 1828년(순조 28)~1857년(철종 8)의 『심원록』³⁷⁾

이 기록은 30년간 서원을 방문한 명단을 기록한 문서이다. 방문한 성관을 살펴보면 장수황 · 진산강 · 管城全 · 풍양조 · 고령신 · 선산김 · 경주김 · 고성이 · 광산김 · 남양홍 · 宣城李 · 순천김 · 안동권 · 안동김 · 礪山宋 · 沃川全 · 全州柳 · 전주이 · 진양정 · 창원황 · 해주오 · 흥양이 · 甘泉文 · 光陵李 · 唐城洪 · 밀양박 · 缶林洪 · 상산김 · 西原李 · 성산배 · 성산이 · 安定羅 · 야성송 · 永山金 · 오천정 · 龍潭金 · 龍潭韓 · 일선김 · 죽산안 · 청송심 · 파평윤 · 풍산류 · 한산이씨 등 43개의 문중 인사들이 사당에 참배 후 이름을 남겼다.

황희의 후손인 장수황씨 가문의 방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진산강 · 관성전 · 풍양조씨 문중이 그 뒤를 이었다. 방문객의 거주지는 상주 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金山 · 밀양 · 榮州 등의 가문에서 서원을 찾았다. 방문자 중 표점을 찍은 인물들도 많았다.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1848년(헌종 14) 상주 공성면에 세거하는 여산 송씨 가문의 宋奎弼과 宋台霖을 들 수 있다.³⁸⁾

36) 『尋院錄』, 丙子 五月~乙酉 正月.

37) 『尋院錄』, 戊子 五月 二十六日~丁巳 五月.

(7) 1858년(철종 9)~1933년의 『심원록』³⁹⁾

이 문서는 72개 이상의 가문이 서원을 방문한 사실을 기록했다. 1933년까지의 명단이긴 하나 실제로는 1858년(철종 9)부터 1889년(고종 26)까지의 방문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1990년부터 1931년까지 42년간의 방문기록은 없었고, 1932년과 1933년의 경우는 각 1명씩 찾은 기록 이외는 방문자는 없었다. 방문자 중 제향자의 후손 장수항씨 가문의 방문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창녕성·풍양조씨 문중에서도 서원을 찾아 참배 후 이름을 남겼다.

19세기에 들어 상주지역을 대표했던 노론계 가문 창녕성씨의 방문은 특별한 방문이었다. 방문자들의 거주지는 상주가 가장 많았고, 용담·문경 등 인접한 고을에 분포하고 있었다. 또 방문자 중 표점을 찍어 중요함을 표시한 인물은 吳承鉉·高允相·趙在元·金圭錫·高夢洙·李源祚·黃峻老·盧鎮岐·盧德奎·洪祐昌·趙在一·李鍾善·張晉遠·李尙季·黃起源·朴鳳煥·趙萬淳·盧恒敬·張箕遠·金錫倫·高基升·高水+式·金庸源·李敦煜·黃漢植·趙昇衍·李基一·黃義健·鄭淳采·洪大原 등이다. 대다수 생원·진사시와 문과에 급제한 자들로 거주지는 상주 또는 인근 고을이었다.

방문자 중 주목되는 인물은 1859년(철종 10) 9월 19일에 방문하여 알묘 후 이름을 남긴 李源祚⁴⁰⁾이다. 그는 정종로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1809년(순조 9)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 후 1850년(철종 1) 경주부윤에 오르고, 1854년 대사간과 공조판서를 지낸 인물이다. 또 洪翰周⁴¹⁾가 상주목사를 재

38) 송규필의 자는 文徵, 호는 南臯이며 정종로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다. 그는 1814년(순조 14) 식년시 병과 11위로 급제한 후 전적·감찰·지평·연원도찰방 등을 역임한 후 낙향하여 棣華堂을 지어 후학을 양성하고 향약을 제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송태림은 1819년(순조 19)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지평·이조정랑·양산군수·돈녕도정 등 내외직을 역임 후 고향인 옥동서원을 방문하여 알묘 후 이름을 남겼다.

39) 『尋院錄』, 戊午 三月~癸酉 八月.

40) “外裔星山李源祚周賢 壬子 同月十九日祇 謁宿”(『尋院錄』, 戊午 三月~癸酉 八月), 이원조(1792~ 1871)의 본관은 星山이고, 자 周賢, 호는 凝窩이다. 定憲의 시호를 받았다. 할아버지는 李敏謙이고 친아버지는 李亨鎭이며, 어머니는 咸陽朴氏 朴鸞慶의 딸이다. 친부의 양모가 장수항씨이다. 정언 李奎鎭에게 입양되어 가업을 이었다. 趙承洙와 정종로의 문인이며 柳鼎文, 柳致明 등과도 교류하였다. 문집으로 『凝窩集』이 전한다.

41) 흥한주의 상주목사 재임기간은 1858년 11월부터 1862년 1월까지다. 흥한주의 자는

직하던 1861년(철종 12)에 아들인 洪祐昌⁴²⁾의 방문도 눈에 띈다. 그는 예조·형조판서를 역임한 노론계의 당색을 가진 인물이었다.

또 다른 명단 중에는 제향자의 후손 黃起源의 방문은 특별했다. 그는 1828년(순조 28)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장령·通禮院右通禮·종부사정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高基升의 경우는 문과 급제를 기념하기 위해 서원을 방문하였고, 그 내용을 「七月望日遊玉洞清越樓」·「玉洞清越樓三十人會話」⁴³⁾에 남겼다.

상주목사 李晩綏⁴⁴⁾와 閔種烈⁴⁵⁾도 방문하였다. 특히 민종열은 1889년(고종 26)에 서원을 중수한 후 『옥동서원중수기』를 남기는 등 수년간 옥동서원의 원장으로 추대되어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 인물이었다.

(8) 1888년(고종 25)~1921년의 『심원록』⁴⁶⁾

이 자료는 1888년(고종 25) 4월부터 1921년 6월 11일까지 옥동서원을 방문한 명부이다. 특히 황희 후손들의 방문 비율이 높았고, 흥양이·연안이·진양정씨 문중에서도 서원을 찾았다. 방문자들의 거주지는 상주가 가장 많았으며 坡州·星州·黃澗·榮州·知禮·禮山·京城 등지에서도 서원을 찾아 참배 후 이름을 남겼다. 중요한 인물로는 鄭厚默·姜春熙·鄭哲愚·張會根·姜景熙·李建晩·李相憲 등에 표시를 했다. 지방관 방문의 경우는 일제강점기에도 방문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이 옥동서원의 『심원록』은 서원으로 승원과 사액 후 방문한 인물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위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 방문했던 인물의 학맥과 인적 구성과 정치적 성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이다.

憲卿, 호는 海史이다. 『智水點筆』, 『海翁詩文集』이 전한다.(『목선생안』, 『상산지』)
 42) “豐山後人洪祐昌幼盛 己卯 辛酉六月二十九日奉審”(『尋院錄』, 戊午 三月~癸酉 八月).
 43) 『恁堂集』
 44) “地主眞城李晩綏聞鳴 癸未 甲申(1884)四月祇 謁”(『尋院錄』, 戊午 三月~癸酉 八月).
 45) “地主驪興後人閔種烈辛卯 同年四月初四日 以院宇重修次看審祇 謁”(『尋院錄』, 戊午 三月~癸酉 八月).
 46) 『尋院錄』, 戊子 四月~甲子六月十一日.

또 옥동서원의 실질적인 운영계층을 비롯하여 서원과 직간접적으로 이해 관계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을 기록한 것으로 당시 상주를 비롯한 인근지역 사람의 동향을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4) 제향 관련 문서

서원의 인적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문서 중에는 제향 관련 문서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다. 옥동서원의 경우는 『알묘록』, 『분향록』과 『집사분정』, 『준분록』 그리고 『시도기』, 『도기』, 『추향시돈사록』을 들 수 있다. 제례 주관 또는 참석한 인사를 기록한 것으로 제례별 참석자의 직임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서원의 운영과 집사분정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들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제향 관련 자료

번호	자료명	작성연대	비고
1	焚香錄	甲子 3月~壬申 1月	
2	焚香錄	庚午 3月~己卯 10月	
3	焚香錄	己卯 10月 15日~戊子 3月	
4	焚香錄	辛丑 9月~丁未 10月	
5	焚香錄	辛丑 正月~癸卯 12月	
6	焚香錄	戊子 3月~癸巳 6月	
7	焚香錄	丁卯 10月~乙亥 正月	
8	焚香錄	丁酉 11月~庚子 12月	
9	焚香錄	壬戌 7月~丁卯 10月	
10	焚香錄	庚戌 2月~丁巳 9月	
11	焚香錄	丁巳 9月~壬戌 正月	
12	焚香錄	丁未 3月~庚午 2月	
13	焚香錄	壬戌 4月~戊辰 7月	
14	焚香錄	己亥 9月~甲辰 11月	
15	焚香錄	甲辰 正月~庚戌 正月	
16	焚香錄	甲午 11月~己亥 10月	
17	焚香錄	乙巳 正月~戊申 3月	
18	焚香錄	戊申 3月 망~己未 正月 망	

19	焚香錄	丁未 9月~壬戌 7月	
20	焚香錄	癸巳 8月 朔~甲辰 6月	
21	焚香錄	甲辰 7月 망	
22	駿奔錄附執事分定記	庚寅 春~癸丑 春	
23	分定	己未 3월 初 4일	
24	分定	丁巳 2월 初 1일	
25	分定	미상	
26	分定	戊午 2월 初 1일	
27	分定記	己巳 2월 初 2일	
28	分定抄	丁巳 8월 初 1일	
29	分定抄	丙辰 9월	
30	分定抄	乙卯	
31	分定抄	甲寅	
32	分定抄	丙辰	
33	分定抄	辛未 2월	
34	分定抄	戊辰年 秋享	
35	執事分定	丁巳 3월 初 3일	
36	執事分定	庚申 9월 初 3일	
37	執事分定	미상	
38	駿奔錄	戊申 2월 3日~丁丑 춘	
39	駿奔錄	庚戌 3월 4日~戊午 9월	
40	駿奔錄	丙戌 9월 7日~戊午 9월	
41	駿奔錄	乙丑 9월 12日	
42	駿奔錄	己未 3월 7日~丁亥 3월 10日, 己亥 3월 10日	
43	駿奔錄	庚午 3월 3日~癸丑 3월 春	
44	駿奔錄	戊寅 9월 秋~丙戌 3월 4日	
45	駿奔錄	甲午 11월 19日~戊申 2월 3日	
46	駿奔錄	辛亥 3월 初3日~己巳 9월	
47	駿奔錄-1	癸卯 3월 12日	合冊
48	駿奔錄-2	乙丑 9월	
49	駿奔錄-3	丙子~丙申	
50	時到記	辛巳 9월 7日~壬午 3월 10日	
51	時到記	癸未 3월~甲申 3월	
52	時到記	辛亥 3월 7日	
53	時到記	辛酉 3월 15日	
54	時到記	壬子 3월 3日	
55	時到記	丙辰 춘향	

56	時到記	壬子 9月 7日~乙卯 3月 9日	
57	時到記	丁巳 3月 3日 大享	
58	任司錄	12月 初1日	
59	時到記	丁亥 3月 8日 大享時	
60	時到記-1	己酉 3月 일	合冊
61	到記-2	丁未 9月 7日 秋享時	
62	時到記-3	戊申 9月 3日	
63	到記	庚戌 3月 12日	
64	時到記	初 1日	
65	時到記	乙巳 3月 12日	
66	玉洞書院大享時到記	丙子 9월, 丁丑~庚辰	
67	追享時敦事錄 到記附	丙午 12月 1日	
68	謁廟錄	乙卯 9月 20日	
69	笏記		

(1) 분향록

분향록은 21건으로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분향에 참석한 명단을 기록한 문서이다. 분향은 朔望禮와 正謁禮로 나누어 행하였으며 이 중 18세기 분향록이 12건으로 가장 많다. 삭망례는 매달 음력 초하루와 보름날, 정알례는 매년 정월 초에 향을 피워 올리는 비교적 간단한 의례이다. 이 두 분향은 대부분 황씨의 주도로 진행되었고, 그 외 鄭·李·趙·呂·姜·盧·朴·孫·琴氏 등이 참석하여 분향례를 올렸다.

주목할만한 자료는 1728년 3월에 기록된 華齋 黃翼再(1682~1747)와 황익재가 사망한 후 그의 묘지를 쓴 족질 黃沈(1688~1763)이 함께 참배한 분향록이다. 황익재는 1788년(정조 12) 정조의 영남 남인 등용 정책 중 충신 재평가 사업에서 죄의 누명을 벗고 신원된 인물이다. 황익재와 황침은 학문을 함께 한 각별한 사이였고⁴⁷⁾, 특히 황익재는 息山 李萬敷(1664~1732), 淸臺 權相一(1679~1759), 星湖 李瀾(1681~1763), 大山 李象靖(1711~1781)과도 학문적으로 두터운 유대 관계를 맺었다.⁴⁸⁾

47) 『화재집(華齋集)』, 권1·3.

48) 향만기, 「화재 황익재의 삶과 학문형향」, 『한문학논집』5, 근역한문학회, 2018, pp.177~183.

(2) 집사분정과 준분록

이 두 자료는 모두 28건이다. 옥동서원 향사를 거행하기 위해 참석한 명단과 헌관 및 각자의 직무를 정하여 기록한 문서이다. 옥동서원의 집사분정은 향사 당일 오후 4~5시에 이루어지며 강당인 蘊輝堂 분정판에 지난 향사 때 헌관 이하 제 집사의 명단을 한지에 묵서하여 붙여둔다. 분정판은 다음 향사 때까지 게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관례는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이 중 주목할 『준분록』은 甲午年 11월의 기록이다. 작성연대는 1714년(숙종 40)이며 당시 초헌관에 李泰至를 선임하였고, 아헌관 姜均, 종헌관은 李應棹를 선임하였다. 李泰至(1674~?)는 옥동서원 원장이었으며 그는 蒼石 李竣의 증손이다. 이듬해인 1715년 乙未年(숙종 41)의 봄과 가을 향사의 초헌관도 이태지를 선임하였고, 나머지 헌관은 이응도와 黃鎭岳, 趙世容을 선임하였다.

(3) 시도기(도기)

이 문서는 17건으로 일종의 방명록이다. 옥동서원의 춘추향사 때 방문한 인사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문서이다. 본관과 성명, 거주지를 기록하거나 성명을 먼저 기재하고 그 아래에 字와 출생 干支, 他鄉을 구분하여 기록한 『시도기』가 있는 반면, 간략하게 직임만 구분하여 명단을 기록한 문서도 있다. 특히 1786년(정조 10) 丙午年 12월 2일의 『시도기』는 立齋 鄭宗魯(1738~1816)의 방문이 기록되어 있어 주목할 문서이다.

또 12월 10일 방문 명부에 옥동서원 청액관련 인물인 황경간, 황성휴, 황서희 등의 인물도 기록되어 있다. 명부에 기록된 인사들은 옥동서원의 청액 활동에 깊이 관여한 점을 감안 한다면 그들의 활동을 살펴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추향시돈사록

이 자료의 표제는 『추향시돈사록』이며, 속제는 「到記附 敦事錄」으로 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追享의 諸執事를 기록한 「돈사록」과 방문자 명부인 「시도기」로 구성되어 있어 있다.

이 문서에서는 황희의 7대손 황효헌과 10대손 황뉴를 추가로 배향하기 위한 공론이 있었고, 이후 두 인물을 추배하기 위한 향사를 거행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문서의 작성연대는 1786년(정조 10)이고, 명단을 살펴보면 이듬해 창액활동 관련 인물과 임원 명단 대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전체 기록된 인원은 344명이며 추향을 위한 집사분정 명단과 1786년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방문한 명단까지 기록되어 있다.

「돈사록」은 추향을 주도한 院任이 가장 먼저 기재되어 있다. 院長은 趙安經이고, 齋席 즉 齋任은 呂文復과 李國培로 기록한 것을 보면 당시 원장 1인, 재임 2인 체제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추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각종 사전 작업을 담당했던 이들, 즉 位版 제조를 위한 집사를 선임하였다. 이어 추향을 알리기 위한 향회가 개최되었고, 이와 관련된 통문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분정 내용은 위판 나무의 별목을 담당한 伐版都監 2인과 위판 제조를 담당한 造版都監 2인, 집계 1인, 장의 2인, 酒有司 2인, 추향과 관련해 개최된 향회 때의 公事員 3인, 曹司 2인, 통문을 찬술한 製通 3인, 통문을 轉寫한 寫通 6인, 告由祭製祝 1인, 合享製祝 1인, 笏記修正有司 2인을 선임하였다.

또 황효헌의 제상과 향탁 준비를 담당한 畜翁先生設床卓有司 2인, 황뉴의 제상과 향탁 준비를 담당한 반간선생설상탁유사 2인, 위판이 옮겨짐에 따라 전식의 위판 이동을 담당했던 사서선생상탁이안유생 1인, 寫奉安文有司 2인, 황효헌 위판의 寫版을 담당한 축옹선생사판 2인, 황뉴 위판의 사판을 담당한 반간선생사판 2인, 황효헌의 위판을 奉版한 축옹선생봉판 1인, 황뉴의 위판을 봉판한 반간선생봉판 1인을 선임하였다.

추향의 전 과정을 기록할 집사도 분정하였다. 都廳 2인, 도청유사 4인, 추향 과정을 기록한 日記有司 3인, 시도기 작성을 담당한 도기유사 5인을 임명하였다. 이어 추향 때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집사로 술자리를 지휘하는 酒監 3인, 술잔 돌림을 담당하는 行盞有司 9인, 음식상을 담당하는 鋪陳排床有司 5인, 손님 접대를 담당하는 接賓有司 5명, 南草 분배를 담당했을 輪草有司 6인, 그리고 방문객들이 데리고 온 奴僕의 음식과 말의 먹이를 담당하는 奴馬糧分給有司 3인도 분정하였다.

추향이 진행되는 동안 모두 79인의 집사를 분정을 했으며, 성씨를 살펴보면 黃氏 33명, 趙氏 10명, 李氏 6명, 孫氏 5명, 姜·盧·宋氏 각 4명, 呂·鄭氏 각 3명, 金·柳·洪氏 각 2명, 權·琴·吳·全·曹氏 각 1명 순으로 나타난다. 황효헌과 황뉴가 배향되는 만큼, 후손인 長水黃氏 일문이 적극적으로 추향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부기된 「시도기」의 명단은 성명을 먼저 기재하고 그 아래에 字와 출생 干支, 他鄕에서 방문하였을 경우 해당 고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자별로 나열하면 12월 1일 1명, 2일 2명, 3일 1명, 4일 2명, 8일 1명, 9일 1명, 10일 88명, 11일 128명, 12일 31명, 13일 3명으로 전체 방문객은 258명이다. 방문객의 대부분은 정종로와 같이 대부분이 상주목에 거주하는 인사들이었다. 그 외에 他鄕의 경우는 善山에서 3인이 방문했고, 안동·김산·옥천·용궁·문경에서 각각 1명씩 방문하였다.

이들의 성씨를 살펴보면 黃氏 64명, 趙氏 38명, 金氏 37명, 李氏 22명, 宋氏 12명, 盧·孫·呂氏 각 8명, 鄭·河氏 각 7명, 姜·康·權·琴·柳·蔡氏 각 4명, 郭·成·吳·全氏 각 3명, 徐·申·曹氏 각 2명, 羅·南·沈·韓·洪氏 각 1명이 방문하였다.

이처럼 『추향시둔사록』은 서원의 추향 절차와 인적 구성을 살펴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지역 향촌사회에서 옥동서원의 위상과 추향이 결정된 단계부터 位版 제조, 추향 일시 통보, 床卓, 위판 寫版, 각종 기록, 손님 접대까지의 과정을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3. 경제 관련 자료

일반적으로 서원의 경제적 기반은 院位田, 院奴婢, 院屬, 屬寺·屬店·除役村의 소출·공납·신역 및 중앙관료·지방관·사림들의 현물 기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제 기반 중 핵심은 토지와 노비였다. 서원 건립 초반 서원전 확보에는 국가 또는 지방관에 의해서 토지가 지급되는 屬公田과 조선 건국 이후 불교시설이 유교시설로 교체되는 가운데 서원에 귀속된 寺社位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옥동서원은 1714년(숙종 40)에 승원되었기 때

문에 이러한 혜택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 재산 가치는 토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노비였다. 현전하는 옥동서원의 토지대장은 간지만이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작성 연대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자료를 통해 단편적이거나 옥동서원의 토지보유 현황 및 변화과정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들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옥동서원 경제 관련 자료

번호	자료명	작성연대	비고
1	玉洞書院守護生案	辛卯 9月(1891년)	
2	玉洞書院別所稷案	癸亥 12月 15日	
3	玉洞書院 債務者 名簿	壬申 9月 日	
4	玉洞書院本別所居齋所田結錄	丁未 12月	
5	玉洞書院下人案	戊子 4月(1860년)	
6	玉洞書院院生都案	庚申 6月	
7	玉洞書院院生等案	乙酉 12月	
8	白玉洞書院本別所田畝卜數記	己丑 10月(1769년)	
9	玉洞書院 流用記	戊子 4月~丁亥 5月 15日	
10	玉洞書院 日用文簿	壬戌 正月	
11	玉洞書院 日用簿	乙丑 八月	
12	玉洞書院各所金錢出納簿	丁卯 十二月	
13	玉洞書院金錢出入簿	미상	
14	玉洞書院穀物收支簿	미상	
15	玉洞書院賭租及諸收入簿	壬子 三月 初三日	
16	現穀收支簿	癸卯小春節	
17	土地目錄	乙巳	
18	白玉洞書院所納田畝	己未 10月 3日	고문서
19	玉洞書院 上書	丁未 六月(1847년)	고문서

20	玉洞書院 上書	丁未 七月(1847년)	고문서
21	玉洞書院 上書	丁未 十二月(1847년)	고문서
22	慶尙監營 完文	丁未 十二月(1847년)	고문서
23	玉洞書院 稟目, 2건	丁未 七月(1837년 7월)	고문서
24	玉洞書院 稟目	己酉 八月(1849년 8월)	고문서
25	玉洞書院 稟目	己未 十二月(1859년 12월)	고문서
26	玉洞書院 完議	壬辰 六月(1892년 6월)	고문서
27	尙州牧使 下帖	辛未 八月(1971년 8월)	고문서
28	下帖	壬辰 五月(1892년 5월)	고문서
29	土地賣買明文	(1725, 1726, 1727년)	고문서
30	本所, 別所 衿記	미상	고문서

1) 書院田 관련 자료

『백옥동서원소납전답』⁴⁹⁾의 문서는 기미년 10월 3일에 奎氏가 백옥동서원에 전답을 납입한 내역이다. 서원 초창기 경제적 기반은 후손이나 지방관, 문인 등의 기부와 지원이 일반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배향자 전식의 후손이 기증한 것으로 보인다. 작성연대는 사서 전식을 배향한 1714년(숙종 40)부터 사액이 되는 1789년(정조 13)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백옥동서원본별소전답부수기』⁵⁰⁾와 『옥동서원본별소거재소전결록』의 자료는 일종의 토지대장으로 당시 옥동서원이 보유한 토지를 기록한 것이다. 전자는 기축년(1769년 추정) 10월에 작성한 것이고, 후자는 정미년 12월에

49) 『白玉洞書院所納田畝』, “白玉洞書院所納田畝 內北小先員畝七斗落只自院□□ 檢洞堤下畝五斗落只 備落 別北畢里堤下畝四斗落只 乙未十月三日 奎[手決]”

50) 『白玉洞書院本別所田畝卜數記』, “己丑十月日 白玉洞書院本別所田畝卜數記. 居齋所. 一新煒六畝十卜 新川四斗落. 冊九畝廿五卜 新川六斗落.... 仍巖頓三十一垵田十五卜八束 三十二田二卜五束 三十三田十一卜三束內 三卜庫子菜田.... 二儉轡七畝十六卜六束 梨洞六斗落 別所去 二新菅二十九畝二十九卜六束 介古川十斗落 種九斗落 放賣....”

작성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居齋所, 本所, 別所 별로 구분하여 지역·토지 결수·경작자·매매여부 등을 수록하였다. 서원의 대략 거재소, 본소, 별소의 전답의 규모는 대략 10결로 이었다.

이 중에는 방대한 사실과 경작자들의 신분도 기록되어 있다. 경작자들은 庫子私耕 · 廟直火直私耕 · 使令私耕 · 色吏私耕 · 首奴私耕 · 驅從私耕 · 齋直私耕들로 대부분 서원과 관련된 인사들로 보인다. 또 서원전의 확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買得이었는데, 옥동서원에서는 이건을 전후하여 경제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답을 꾸준히 매득하였다. 매득한 고문서는 <표 6>의 내용과 같이 1725 · 1726 · 1727년의 토지매매 명문이다. 이 명문 내용을 살펴보면 옥동서원 인근의 토지 약 1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옥동서원이 소유한 토지는 18세기 초의 1결 이래로 계속 확대되어 18세기 말이 되면 약 10결에 이르렀다.

이 자료를 통해서 옥동서원 전답의 분포와 서원 주위의 양반가 및 노비 전답을 매득한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수 있을 것이다.

2) 書院奴婢 관련 자료

서원노비는 서원 내의 각종 잡역 및 서원전답의 경작 등 생산 분야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身貢 납부의 의무가 있다. 이들은 조선후기로 가면서 그 수의 증가와 함께 신공을 납부하는 납공노비가 크게 확대되어 갔다. 따라서 서원 측의 관심은 신공의 효과적인 징수에 있었고, 이 신공은 서원경제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사액서원의 노비들은 각 관아로부터 군포와 잡역을 면제 받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서원 노비들에 대한 免役 특권 때문에 서원은 점차 노비·양정의 부역 도피처로 변모해 갔다.

옥동서원 노비관련 자료는 부족한 편이다. 토지와 원속 관련 자료들에 비해 노비관련 자료가 없는 것은 18세기 이래로 노비 도망의 증가 등으로 雇工 형태의 인력 수급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옥동서원 노비 관련 내용으로 접근하기 위해 『옥동서원수호생안』, 『옥동서원하인안』, 『옥동서원원생도안』, 『옥동서원원생등안』, 『본·별소깃기』, 『백

『옥동서원본별소전답부수기』등을 상세히 검토해본다면 서원 노비와 그 변화 내용을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토지관련 자료인 『본·별소깃기』, 『백옥동서원본별소전답부수기』에 나타나는 作人들이 대부분 서원내 잡역에 종사하는 고공인 내지 인근 양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옥동서원의 하인안 또는 수호생안 등의 자료에는 노비 담당의 원역을 양인들이 담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3) 院屬 관련 자료

옥동서원 원속과 관련된 자료들은 『옥동서원수호생안』, 『옥동서원하인안』, 『옥동서원원생도안』, 『옥동서원원생등안』, 『완문』, 『상서』, 『품목』 등이 전해지고 있다. 원속은 서원 소속을 줄인 말로 서원 재정을 위한 인적 재원을 일컫는다. 이들 원속의 신분과 역할은 본관과 타관 노비로 나눌 수 있다. 본관 노비는 서원을 중심으로 그 인근과 관내에 거주하는 노비들로서 주로 서원 전답을 경작하며, 서원의 잡역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타관 노비는 외거노비로서 감사나 소재지 지방관으로부터 군포와 잡역을 면제받는 대신 신공을 납부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옥동서원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노비 관련 자료보다 고공인 내지 양인들을 활용하여 서원을 운영한 원속 관련 자료가 더 많이 남아있다.

(1) 『옥동서원원생등안』⁵¹⁾은 乙酉年 12월에 상주목사의 재가를 받은 원속 명단이다. 원속의 명단은 院生 4명, 廟直 1명, 齋直 1명, 庫子 1명, 差使 1명으로 직역별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묘직과 고자는 서열이라는 내용을 표시하였다. 또 모두 8명의 원속이 원내의 사역을 담당하였고, 원생은 수호생과

51) 『玉洞書院院生等案』, “乙酉十二月日 玉洞書院院生等案 院生崔快孫住牟東華陽 金末芻住牟東安平 金鳳石住牟東芝庄 崔快得住牟東華陽 廟直廉致萬住牟東一貫 廟直李文伊住牟東新德 庫子廉萬福住牟東玉洞 差使尹卜金住牟東玉洞 原合八名”.

동일하게 양속 양인으로서 명칭만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2) 『옥동서원원생도안』⁵²⁾은 庚申年 6월에 상주목사의 재가를 받은 원속 명단이다. 묘우수직원생 20명과 영정수호원생 9명 등 모두 29명의 명단과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원납유생이며 피역인으로서 원내의 사역을 담당했다. 일반적으로 서원에 소속된 守直軍, 守護軍 등은 군역에 종사할 의무가 있는 常民들을 사액서원의 중요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하고, 다른 역은 면제하는 혜택이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수호군들이 서원을 侍衛하지는 않았으며 기타 역이 면제되는 대가로서 서원 측에 身貢을 받치거나, 서원 내의 각종 행사에 동원되어 일을 돕는 정도였다.

이처럼 옥동서원에 피역을 위해 입속한 원생들 가운데 일부를 수호생으로 삼아서 신공을 받기도 하고, 실제 서원 내에 있는 방촌 황희의 영정을 시위하는 등 잡역을 도왔던 것을 알 수 있다.

(3) 『옥동서원하인안』⁵³⁾은 戊子年 4월에 상주 玉洞書院에서 작성하였고, 기재된 이들은 상주목사의 면역 재가를 받은 인물들이다. 명단을 살펴보면 박팔득, 김말돌, 최명운, 김팔강 등 신묘년 수호생안과 동일한 인물들이다.

이들 수호생들은 서원 부근에 살고 있었고, 이외 묘지기, 재지기, 고지기, 사령, 구종 등의 직역과 명단, 거주지를 함께 기재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 서원 내에 사역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서의 작성 연대는 현재 옥동서원에 남아있는 1847~1848년 사이의 품목과 상서를 참고하면 당시 15명의 가족을 부리고 있었으며, 옥동서원이 사액을 받았던 1789년 이후 근 100명의 원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완문의 기록 등을 참고해보면 19세기 중반까지 옥동서원에서는 15명의 원속이 사역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하인안에 기록된 10명의 원속은 서원의 경제적 기반이 더욱 약화되어갔던 19

52) 『玉洞書院院生都案』, “玉洞書院院生都案 院上 玉洞書院 廟宇守直院生 孫尙得功城巨夜 故代高?失立日牟東 藍谷 孫就三功城巨夜 劉性才牟東書院...(중략)庚申六月日玉洞書院齋任黃’姜”.

53) 『玉洞書院下人案』, “戊子四月日 玉洞書院下人案 玉洞書院下人案 守護生 朴八得 住牟西可幕 金奎瑟 住牟東安平...(중략)使令 壹名 李文伊 住牟(東)玉洞”.

세기 후반인 1888년으로 추정된다.

(4) 『옥동서원수호생안』⁵⁴⁾은 신묘년 9월 상주목사의 재가를 받은 10명의 명단이 적힌 수호생안이다. 이 문서를 통해 『옥동서원하인안』과, 옥동서원이 사역을 받았던 1789년 이후 약 100명의 원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완문의 기록과 1847~1848년 사이의 품목과 상서에 15명의 가족을 부리고 있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19세기 중반까지 옥동서원에서는 15명의 원속이 사역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호생안의 기록 시기는 서원의 경제적 기반이 가족화되었던 19세기 후반인 1891년으로 추정된다. 수호생은 성명과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원내에서 廟直, 齋直, 庫直, 差使, 驅從 등의 담당은 성명만 기재되어 있다. 이들은 옥동서원을 중심으로 인근 모서면 가막리, 모동면 안평·오도리 등지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원내의 사역을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황희의 문묘종사 관련 자료

『방촌선생승무소시사적』은 황희의 文廟從祀를 위해 작성한 상소문과 각 지역의 사람들이 주고 받았던 通文과 發文을 엮은 것이다. 통문과 발문은 충청도, 경기도 등 각 지역 사람들이 주고 받았던 것으로 『請陞庶疏廳士林通文』, 『甲申三月十五日發文』, 『寺洞畱宗中通文』, 『疎』, 『士林疎』, 『玉洞書院答疏廳士林通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상소문은 1883(고종 20)년 12월 22일에 경기도에 사는 황희의 후손 黃心顯이 올렸다. 하지만 고종은 문묘에 배향하는 일은 중대한 일이니 후일 공의를 기다리라는 비답을 내렸다.⁵⁵⁾ 이 비답 내용으로 인해 문중과 각 지역 유림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54) 『玉洞書院守護生案』, “辛卯九月 守護生 朴八得 住牟西可幕 金泰亨 住牟東安坪 崔明云 住牟東吾道 金八江 住牟東吾道 廟直 鄭老郎 齋直 尹福金 庫直 玄所岩 差使 金鳳雲 驅從 廉關俊 金英喆”.

55) “楊州幼學黃心顯疏, 請臣之先祖故領議政翼成公 黃喜陞庶. 批曰: “陞庶, 禮之重也, 不可遽施. 更俟後日公議.” (『고종실록』권20, 20년 12월 22일)

1884년(고종 21) 4월 4일에 유생 李承瑬를 소두로 전국 유림의 공론을 모아 연명한 두 번째 상소문을 올렸다. 고종의 비답은 체모를 존중하고 그 일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갑자기 시행할 수 없다 하였다.⁵⁶⁾ 1884년 6월 6일 李世夏를 疎首로 다시 황희의 문묘 배향을 요청하였지만 윤택하지 않는다고 비답이 내려졌다.⁵⁷⁾

5년 후 1891년 6월 4일 洪在衡 등은 이색과 황희의 문묘 상소를 다시 올리게 된다. 하지만 문묘에 배향하는 것은 가볍게 논의할 수 없는 점이 있다며 결국 윤택하지 않았다.⁵⁸⁾ 이처럼 고종 연간에 4차례에 걸쳐 승무 상소를 올렸으나 고종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후 승무 상소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시도한 흔적은 보였다. 그 흔적은 영양향교에 소장된 고문서로 황희 승무 관련 통문 1건인데, 1894년(고종 31) 2월 27일에 이승조, 이세하 등이 연명한 승무 상소들 들고 입성하여 승무 활동 중 한양에 있는 영양 邸吏에 발송한 통문이다. 통문의 내용은 현지 분위기가 긍정적인 상황을 기록하였고, 재소하기 위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었다.⁵⁹⁾

이후 이와 관련된 상소문의 내용이나 비답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승무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급변했던 정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황희의 승무 상소는 문종과 전국의 관련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황희의 승무 상소는 실패하였으나 당시 황희의 위상과 사람의 인식

56) “八道儒生李承瑬等疏, 請翼成公 黃喜陞廡。批曰: “廡享之不可遽施, 乃尊其禮而重其事也。不必煩疏。爾等退修學業。”(『고종실록』권21, 21년 4월 4일)

57) “八道儒生李世夏等疏, 請翼成公 黃喜陞廡。賜批不許。”(『고종실록』권21, 21년 6월 6일)

58) “方外儒生幼學洪在衡等疏請, 文靖公 李穡, 翼成公 黃喜躋配聖廡。批曰: “黃翼成之制作憲章, 李文靖之師表後學, 宜有是論。而陞廡事體, 至慎重且重, 有不可輕議。爾等諒悉, 退修學業。”(『고종실록』권28, 28년 6월 4일)

59) “右通諭事黃翼公龐村先生陞廡事已有通告而去二 月二十七日入城多士陳章叫閤既承優批感祝無地而將 擬再疎滴置闕里祠復享事太學進禮不可竝舉則多 士之廣日經費難以接濟故思不獲已貴邑邸吏處錢文三拾 兩先此入用以此下錦千萬幸甚 右敦通于 英陽校中 甲午五月 日 發文幼學李承瑬 李世夏 趙漢奎 崔宣九 柳英植 崔錫喜 柳嶸 等”(갑오년 이승조 통문, 출처 <http://yn.ugyo.net>)

그리고 조선말기 향촌 사림의 동향과 그들의 연대 관계 등을 보여주고 있는 자료이다.

5. 기타 고문서

옥동서원의 고문서는 대체로 19세기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通文, 稟目, 上書, 單子, 笏記, 簡札 등 다양한 종류가 소장되어 있다. 자료를 정리하면 <표 7>와 같다.

<표 7> 옥동서원 기타 고문서 자료

번호	자료명	작성연대
1	通文	壬戌 3月 21日
2	通文	戊子 11月 3日 (1888년)
3	通文	戊辰 4月 26日
4	通文	甲午 元月 5日(1954년)
5	通文	癸亥 5月 10日, 금호서당
6	通文	戊辰 12月 6日, 옥성단소
7	通文	壬戌 5月 1日
8	稟目	庚寅 9月 16日, 附 題音
9	稟目	丁巳 11月 23日
10	稟目	庚辰 10月 16日
11	稟目	丙辰 3月 13日
12	稟目	丙辰 3月 10日
13	稟目	丙辰 3月 8日
14	稟目	己未 12月 6日
15	稟目	壬辰 5月, 題音 附記
16	稟目	壬辰 4月, 題音 附記
17	稟目-7	戊申 2月
18	稟目-6	丁未 7月
19	稟目-5	丁未 7月
20	稟目-4	己酉 8月
21	明文	擁正 5년 丁未 1月 16日(1727년)
22	明文	擁正 4년 2月 16日(1726년)
23	明文	擁正 3(1725)

24	明文-3	康熙 11年 壬子 1月 6日(1672년)
25	明文-2	康熙 47年 戊子 7月 8日(1708년)
26	明文-1	壬寅 11月 30日
27	上書-3	丁未 12月
28	上書-2	丁未 7月
29	上書-1	丁未 6月
30	等狀-1	丁巳 11月 16日
31	等狀-2	丁巳 12月
32	單子	辛未 11月 22日
33	單子	乙丑 正月 9日
34	單子	甲子 6月 8日
35	單子	壬申 5月 12日
36	單子	
37	簡札-1	辛未 3月 12日
38	簡札-2	
39	簡札	己未 火月
40	簡札(成冊)	
41	簡札	己丑 4月 27日
42	監營完文	丁未 12月 日
43	完文-9	甲戌 10月
44	完文-8	戊寅 11月
45	完議	壬辰 6月 2日
46	告目	丙辰 3月 22日
47	告目	丙辰 3月 22日
48	己亥春以換洞事	
49	甘結	丙子 3月 18日
50	牌旨	己丑 4月 1日, 玉洞書院色吏

<표 7>의 고문서 중에는 서원의 조직과 운영 및 경제 그리고 제향 관련 문서들과 비교 검토할 자료가 다소 있다. 예를 들면 丁未年의 상서와 완문, 丁未·乙酉·乙未年의 품목, 壬辰年의 완문 등은 서원의 원속 관련 고문서로 경제 관련 자료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고문서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갑오(1954년) 1월 5일 통문

이 통문은 옥동서원 會中에서 응와 이원조⁶⁰⁾의 親盡을 맞이하여 不遷

位⁶¹⁾에 대한 사안을 상주군의 각 문중과 校院에 알리기 위해서 작성한 통문이다. 또 그의 不祧의 특별한 제례를 알리고, 상주의 모든 사람이 현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斯文의 큰 의식이 온전히 치러지길 기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통문에는 원장 黃在穆 외 16명의 원임과 회원들이 연명하였다.

이 통문은 조선시대 이래로 우리나라에 잔존하는 유교문화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즉 顯祖에 대한 불천위 여부를 논의하고, 이를 도내 유림의 公議를 얻어 시행함으로써 가문과 조상의 격을 높이려는 조상 숭배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2) 戊子(1888년) 11월 3일 통문

이 통문은 涑水壇所에서 옥동서원으로 보낸 것이다. 속수단소는 涑水書院⁶²⁾을 말하는 것으로 1509년 지방 유림의 공의로 申祐·孫仲嘯·金宇宏·趙靖·趙翊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했다.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된 후 단소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지역 유림들은 서원의 復設을 추진하였고, 복설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각 지역에 통문 발송한 것 중 옥동서원에서도 받은 통문이다.

(3) 康熙 11년 1월 명문

옥동서원 소장 자료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1672년에 작성된 것이다. 1672년 외에도 1708년과 壬寅年의 명문이 점련되어 있다. 이들 명문은 당시 서원 인근의 전답을 매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토지대장과

60) 이원조는 1859년에 옥동서원을 방문한 후 심원록에 이름을 남긴 인물이다. 그는 1871년에는 종일품 판의금부사에 올랐으나 취임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1881년 定憲의 시호를 받았고, 유림들은 晚歸亭에 첩로 만든 興學倡善碑를 세웠고, 1908년 한 개마을에서도 神道碑를 세웠다. 『性經』, 『毫宇漫稿』, 『凝窩雜錄』, 『耽羅綠』 등의 저서를 남겼다.

61) 불천위는 국가에 세운 공훈이나 벼슬, 학문이나 덕행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결정의 주체가 국가이면 國不遷이라 하고, 유림이 공론으로 결정하면 유림불천이 된다. 유림불천의 경우 도내의 유림이 공의하면 道不遷이라 하고, 향내의 유림이 결의하면 鄉不遷이 된다. 이에 비해 공론을 거치지 않고 문중에서 결정한 경우 私不遷이라 하는데 도내와 향내보다는 격이 낮은 것으로 여긴다.

62) 속수서원은 경북 의성군 단밀면 속암리에 위치하고 있다.

함께 당시 옥동서원의 경제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4) 壬辰 5월 16일 下帖

1892년 5월 16일 상주목이 옥동서원에 발급한 하체이며, 말미에는 土地賣買明文이 점련되어 있다. 하체가 발급되기에 앞서, 옥동서원은 서원이 소재한 천하동의 洞稷 계원이 서원의 사환사경답을 사사로이 방해했다며, 상주목에 품목을 올려 반환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옥동서원에 13두락의 사환사경답이 있었는데, 그 중 8두락을 동계 계원이 몰래 방해하였던 것이다. 이에 상주목사는 전답의 내력을 증빙할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옥동서원과 동계 측이 각각 자료를 제출하였다. 본 하체는 상주목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해당 전답에 대한 반환을 결정한 뒤, 옥동서원에 발급한 것이다. 이러한 분쟁은 조선후기 서원의 경제적 기반과 그 운영실태를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된다.

6. 옥동서원의 서책과 책판

서원의 설립 초기에는 제향보다 교화와 교육기관의 기능이 일차적이었다. 따라서 서원은 교육에 필요한 서책은 필수였고, 이를 위해 서책의 구입과 수집, 관리, 출판은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⁶³⁾

옥동서원의 서책과 책판은 1984년 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에만 해도 수백 책의 고서가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2004년 동산문화재 조사에서는 성책류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은 책이 망실된 상태였다.

현재 소장 중인 서책은 『敬菴集』 2책(권1~13), 『蘭溪先生文集』 1책, 『丹山先生文集』 2책(권1~2), 『辨整錄』 1책, 『默巖文集』 1책, 『四勿齋禮說營件契案』 1책, 『石田武口詩集』 1책, 『惺窩集』 4책, 『穌齋先生文集』 4책, 『長溪二稿全』 1책, 『化寧時友會詩帖』 1책, 『確齋集』 1책, 『嶺南文苑』 17책으로

63) 윤희면, 「조선후기 서원의 도서관 기능 연구」, 『역사학보』 186, 역사학회, 2005; 배현숙, 「소수서원 수장과 간행 서적고」, 『서지학연구』 31, 한국서지학회, 2005; 옥영정, 「『竹溪志』의 編纂과 版本에 관한 書誌의 研究」, 『서지학연구』 31, 한국서지학회, 2005; 옥영정, 「엄격한 서책 관리와 도서관 역할」,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전체 37책이 남아있다.

책판의 경우는 방촌 황희의 문집인 『厖村先生文集』과 『厖村集』, 반간 황뉴의 문집 『槃澗集』이 있으며, 장수황씨의 족보인 『黃氏世譜』와 『長溪二稿』 등 총 5종 94장의 책판이 소장되어 있다. 문집별로 남아 있는 책판을 살펴보면 『방촌선생문집』은 10장과 『방촌집』 45장, 『槃澗集』 9장, 『黃氏世譜』 19장, 『長溪二稿』 14장이다.

서책과 출판은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적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원마다 별도의 서고가 없는 이상 동·서재나 강당의 협실에 이들 책을 보관하였다. 책이 많은 곳은 별도의 장서고를 만들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서원에서 직접 간행한 서적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내린 內賜本과 지방관아에서 퍼내거나 인근 지역 서원과 문중에서 발간해 기증한 책들을 보관하였다.

옥동서원 역시 사액서원으로서 내사본뿐만 아니라 출판 및 기증받은 책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래되는 내사본은 없었고, 남은 서책 또한 전술처럼 소량만 남아있다.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옥동서원의 미공개된 자료를 포함하여 현전하는 자료들 모두를 수집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분류하였다. 또 분류된 자료의 내용과 특징도 살펴보았다.

옥동서원은 서원으로 승원한 1714년 이래로 작성된 『원임록』과 『원록』을 분석해보면 18세기 중반이후 제향자 황희 후손의 원임직 참여와 원생 입록이 급속히 늘어난 반면, 전식의 후손은 현저히 저조했다. 또 『심원록』과 『준분록』, 『분향록』, 『시도기』 등에서도 황희의 후손이 압도적인 방문과 참여율을 보였다. 이것은 옥동서원의 주체가 장수황씨 가문임을 반증하는 것이고, 점차 문중서원 성격이 강해져 갔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같이 문중서원 성격에서 벗어나고자 그들은 18세기에 남인계 인사의 원장 추대와 19세기에 들

어 중앙 관료의 원장을 추대한 사실에서 남인계 서원이라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옥동서원의 경제적 기반은 토지와 원생이 중심이었다. 18세기 후반의 사액 전까지 다른 사액서원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었지만, 19세기 이래로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어 院生들이 바치는 除役費에 의존하여 서원을 경영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 약화에 따른 서원 활동의 제약은 결과적으로 상주에서 옥동서원의 위상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院屬店의 離脫과 전식의 후손인 옥천전씨들과의 位次 是非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대원군의 서원 훼철령 이후 흥암서원[享 宋浚吉]과 더불어 存置되면서, 다시금 상주의 남인을 대표하는 서원으로서 그 위상이 격상되었다. 그 예로 1883년(고종 20) 12월과 1884년 4월과 6월, 1891년 6월, 4차례 걸쳐 전국적으로 황희에 대한 문묘종사 運動이 전개했던 사실과 1894년 2월에 또다시 승무 상소를 시도했던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 글은 옥동서원의 전체 자료의 내용과 유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각 자료에 대한 상세한 특징이나 서원의 종합적인 내용을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 자료를 토대로 서원의 운영과 경제적 기반 등 개별 연구를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소청일기』, 『본원일록』, 『옥동서원임원록』, 『옥동서원원록』, 『옥동서원심원록』, 『옥동서원분향록』, 『조선왕조실록』, 『홍재전서』, 『일성록』, 『승정원일기』, 『장수황씨세보』, 『방촌실기』, 『희암집』, 『변암집』, 『반간집』, 『시려집』, 『우복집』, 『입재선생문집』, 『옥동서원요람』,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설석규, 『조선시대 유생 상소와 공론정치』, 선인, 2002.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사)방촌황희선생사상연구, 『백성의 신 황희와 그 후예들』, 책미래, 2018.

이수환, 「영남서원의 자료 현황과 특징」, 『대구사학』 65, 대구사학회, 2001.

_____, 「서원 기록자료의 정리현황과 과제」,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 원임의 구성과 성격」, 『민족문화논총』 6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7.

_____, 「조선후기 영남지역 원사의 건립과 변화 검토」, 『한국서원학보』 6, 한국서원학회, 2018.

옥영정, 「서원 자료의 보존 관리, 활용방향」, 『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김학수, 「상주 진주정씨 우복종택 산수헌 소장 전적류의 내용과 성격」, 『장서각』 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 강학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유학연구』 4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9.

채광수, 「조선후기 영남지역 노론계 가문의 분포와 서원 건립 추이」, 『한국서원학보』 8, 한국서원학회, 2016.

정진영, 「壬亂前後 尙州地方 士族의 動向」, 『민족문화논총』 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7.

_____, 「18세기 서원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 『조선시대사학보』 72, 조선시대사학회, 2015.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yn.ugyo.net>)

한국고전종합 DB(<http://db.itkc.or.kr>)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Archives in Okdong Seowon in Sangju

Kim, soon-han*

This study arranged previously undisclosed archives including disclosed ones in Okdong Seowon and reviewed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rchives. Okdong Seowon had been developed from Hoingdang(翼堂) sealed with the portrait of Hwang Hee to Sawoo(祠宇) to Youngdang(影堂). In 1714, Saseo Jeon hick was also enshrined and it was elevated to Seowon and in the following year, it was moved to the current location, and named by King in 1789.

A remarkable characteristic of Okdong Seowon's diverse archives consist of those from the time that it became Seowon in the 1650's and those after being named by King until the 1900's. The archive is very important showing of the Seowon's position by figuring out its establishment, organization, education, and socio-economic relations. And the books and published sources could be very helpful for culture of education and publication.

Okdong Seowon was named by local heritage in 1984 and the researches about it by lots of researchers have been accumulated. In the process of preparing to rise to national

* Institute of Korean Cultural Studies, Yeungnam University/
starjji@yu.ac.kr

heritage, the archive of the Seowon was broadly disclosed and the topics of the researches were various including human organization, management, being named by King, Seungmu(陞廬), sacrifice rites. However, the existing sources are few and in-depth studies are limited. This study aims at rearrange and collect the list of all the archives including new ones in and report the current status in order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Currently, old books and book board stored in Sadang and Kangdang in Okdong Seowon were sent to and store in Sangju Museum in three times. The owned sources consists of old books, documents, portraits, and book board. The old documents are 316 cases and 550 items, and book boards and other boards are 105 items there.

Keywords: Okdong Seowon, Okdong Seowon Old Document, Hwang Hee. Bangcheon Seugnuso, Seowon Archives

이 논문은 2019년 12월 13일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2월 2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26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결정된 것임.

宋代의 서원교육과 士人 사상의 통합*

朱汉民**

I. 序論

II. 本論

一、理学初兴与书院教育

二、南宋书院的《四书》教育

三、《四书》学的教育宗旨

四、宋代士人的思想整合

< 국문요약 >

송대 문화사에 중요한 문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시에 이루어진 서원과 理學의 흥기와 번영이었다. 정치의 가장자리에 처했던 이학가들은 그들의 문화중심의 입장을 견지하며, 개인적 교습이나 서원 교육의 방식을 통해 학술연구, 인재양성 및 학파구축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송대 서원이 이학사상과 사서교육의 근거지가 되게끔 적극 노력하였다. 정치와 문화 두 가지 측면의 주체가 된다는 사대부집단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학가들은 “學以成聖”의 교육이념을 적극 추진하고 실천하였다. 문화교육에 이루어진 이학의 성공은 송대 士人들의 사상적 통합을 촉진시켰고 이학으로 하여금 점차 송대 사인들의 보편적 사상공식으로 되도록 하였다.

주제어 : 『사서』학, 서원, 이학, 교육, 사상공식

* 基金项目：国家社科基金重点项目：《四书学与中国思想传统的重建和整合研究》（15AZD032）

** 中國 岳麓书院 國學研究院院長 / zhuhanmin@163.com

I. 序論

两宋时期，在复兴儒学、回归儒家之道的思想背景下，理学派成为其中的中坚力量，但是理学家的思想主张并不能够得到朝廷的认可，因此理学及其《四书》学主要通过书院教育等民间教育、地方学术的方式传播和推广。恰恰由于这一种民间教育、地域学术的形态和途径，推动了理学的广泛传播与推广，促进了宋代士人的思想整合，推进了两宋时期士大夫群体的思想共识的形成。

我们拟通过书院的理学及《四书》学教育，进一步探讨宋代儒学的思想整合问题。理学从学术初起到繁荣发展，均与宋儒建立的书院教育、学术传播与思想整合有密切关系。

II. 本論

一、理学初兴与书院教育

汉代经学的兴起，完全是朝廷“罢黜百家，表彰六经”的自上而下的学术推动，并主要借助于太学以及相关的博士制度。而理学初兴，却主要是儒家士大夫自下而上的学术传播，主要借助于民间学术—教育机构的书院。

书院是唐宋时期兴起的一种新的学术—教育组织形式。“书院”萌芽于唐，盛行于宋。最早的唐代书院还只是皇家的藏书之地，后来由逐步演变成民间的藏书、读书之地。到了宋初，“书院”逐渐演化为民间的私人讲学的教育机构，以后进一步发展为教书、写书、出书的重要学术教育机构。

宋代书院不是偶然出现的，而是千余年来中国传统教育形式不断发展、演化的结果，书院吸收了先秦私学争鸣、汉代精舍研经、魏晋谈玄析理、隋唐寺院禅修的学术与教育传统，满足了宋代士人自由讲学、研究经典、学术辩论、修身养性的不同文化任务，这些历史上不同的讲学形式、修身方法，在

宋代书院的教育制度和教学方法中均可以找到。可见，书院之所以能够成为延续千年的教育-学术机构，缘于其集传统教育形式之大成。宋代书院作为一种新的教育组织，不仅仅在教育组织形式方面集传统之大成，其传播的思想内容理学及其《四书》学也是如此。宋代书院形成后，面临一个重要的历史机遇，即唐宋之际学术变革、理学及其新经典体系的形成，理学家急于寻找一种新的教育组织与学术传播的组织机构。宋儒不仅希望批判佛道二教，也努力摆脱汉唐经学的约束，希望实现宋代儒学的重建。宋代书院的发展过程，就是与宋代文化复兴、重建儒学思潮紧密联系在一起。

考察宋代学术史可以发现，书院的兴起与理学思潮几乎是同时发生的。宋代学术初兴于庆历之际，被认为广义的“道学”（理学）先驱人物包括范仲淹、孙复、石介、胡瑗等士大夫集团，他们既是早期道学的倡导者，也是宋代早期书院教育的推动者。早在北宋时期，以范仲淹为首的庆历士大夫集团，¹⁾均是推动宋代儒学复兴的推动者，同时也是创办书院以改革教育的教育家。天圣四年（1027年），范仲淹丁忧居南京应晏殊聘请掌教应天府书院。他通过掌教应天府书院以推动端正士风的教育改革，据《年谱》记载：“公常宿学中，训智学者，皆有法度，勤劳恭谨，以身先之，由是四方从学者，辐凑其后，以文学有声名于场屋、朝廷者，多其所教也。”²⁾范仲淹在应天府书院的教育实践，推进了书院教育的发展与完善，也推动了书院与宋学的紧密联系，特别是培养了著名的“宋初三先生”孙复、石介与胡瑗等，这三个人又成为北宋教育改革的重要人物。其中胡瑗是推动地方官学改革、创立“苏湖教法”的著名人物，他推动地方学校以“经义”、“治事”的分斋教学，以培养有体有用之人才，促进了宋代儒学的复兴和发展。孙复、石介则致力于书院教育的改革，是书院成为宋学兴起的学术和教育大本营。孙复就是范仲淹掌教应天府书院时培养的杰出人物，后来他又在应天府书院任教，后来他长期居泰山讲学读书，并创建著名的泰山书院。孙复长期主持泰山书院，称

1) 笔者赞同李存山先生的观点，广义的“新儒学”应该包括范仲淹、孙复、石介、胡瑗等在内。笔者还认为，这一个广义的“新儒学”，也就是以“义理之学”为主要学术范式的“宋学”。参阅李存山的《宋代“新儒学”与“理学”》，载《中原文化研究》，2019年第2期。

2) 范能潜编：《范仲淹全集》，《范文正公年谱·天圣五年》，南京：凤凰出版社，2004年，第720页。

“泰山先生”。石介也是如此，曾求学于应天府书院，但他后来又拜孙复为师，执弟子礼。石介推动推动了宋学和书院的共同发展，故而创办和主持了徂徕书院。石介有非常明确的“道学”目标的追求，他有着鲜明的传承和复兴儒家之道的道统意识，并且将此道统意识与书院建设结合起来。他在《泰山书院记》中，就将道统承传与书院使命统一起来，他说：“夫尧、舜、禹、汤、文王、武王、周、孔之道，万世常行不可易之道也。……吾学圣人之道，有攻我圣人之道者，吾不可不反攻彼也。”³⁾由于石介长期在徂徕并主持书院讲学，学者称他为“徂徕先生”。范成大《石鼓山记》将徂徕列为北宋四大书院。他说：“始诸郡未命教时，天下有书院四：徂徕、金山、石鼓、岳麓。”⁴⁾从范成大的说法中，可以看到石介等宋初儒者在书院教育进程中的重要地位。

熙宁变法以后，王安石的“荆公新学”通过官学途径而获得极大发展。王安石扶持官学的发展，特别是通过在中央官学和地方官学推行“三舍法”，强调一切士人均需通过官办学校才能够获得仕进的机会，还以《三经新义》统一学校教学和选拔官员。这样，就使得作为宋学学派之一的“荆公新学”的地位发生了重大变化，获得了官方儒学的地位，也成为一切士人必须学习的基本科目和教材。王安石的“荆公新学”不仅抑制了理学的发展，同时也抑制了书院的发展。但是，就在王安石“荆公新学”如日中天的时候，迫使理学派进一步开启民间教育的模式。理学家未能够通过官学传播自己的学术，他们开始探讨以非官方的书院教育形式，以推动理学及《四书》学的传播。

关于北宋理学家派的书院讲学活动，从留下的文献记载来看，主要有理学开山周敦颐晚年隐居庐山，创办濂溪书堂，在此读书讲学。据潘兴嗣《周敦颐墓志铭》记载，周敦颐“曾过浔阳，爱庐山，因筑室其上，名之曰濂溪书堂，每从容为予言：……次濂溪者，异时与子相从于其上，歌咏先王之道，足矣！”⁵⁾据度正《周敦颐年谱》记载，濂溪书堂始建于嘉佑6年（1061年），而

3) 石介：《徂徕石先生文集》卷5《怪说下》，北京：中华书局，1984年，第63页。

4) 全祖望撰，朱铸禹汇校集注：《全祖望集汇校集注》，中册，《鮚埼亭集外编》卷45《答张石痴征士问四大书院帖子》，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1722页。

5) 周敦颐著，陈克明点校：《周敦颐集》附录1《周敦颐墓志铭》，北京：中华书局，1990年，第85页。

且周敦颐在此书堂实现其“与子相从于其上，歌咏先王之道”的专门从事学术和教育的人生理学。他在书堂“汲汲于传道受业”，同时也与同道人士相与讲学论道，如度正《周敦颐年谱》记载北宋治平2年（1065）江南西路转运使李大临“以诗谒先生于濂溪书堂”。⁶⁾由此可见，周敦颐晚年隐居庐山的濂溪书堂，也是新儒家学者通过“书堂”、“书院”形式，从事学术研究、思想传播的重要基地。

以书院为基地从事民间讲学，成为理学派的一个传统。周敦颐之学的继承和发扬者、理学奠基人是程颢、程颐两兄弟，他们也是通过书院研究与传播理学。与二程兄弟讲学活动有关的书院有两所，一所是原有的嵩阳书院，一所是新创建伊皋书院。嵩阳书院是北宋著名的四大书院之一，二程兄弟长期以家乡洛阳为基地从事学术、教育活动，故而史上称之为“洛学”。嵩阳书院创建与北宋初年，许多大儒在此讲学，它同时也成为二程兄弟的讲道之所。后代学者对此事有许多追记。当然，二程“洛学”讲学更多的书院，应该是“伊皋书院”。元丰5年（1082年），文彦博曾经赠送程颐一处庄园，程颐在此创办了伊皋书院。后改名“伊川书院”。程颐“伊川”之名号与此有关。二程兄弟的学术教育活动不仅仅是洛理学的私人教育虽然没有强大的政府资源，其办学条件也非常有限，但是理学的教育是凭借其思想的影响力、学术的说服力，影响了一大批有思想、有才华的有志青年。程门弟子学术思想特别活跃，由于他们继承了二程这一种私人讲学的传统，使得北宋形成的理学能够大盛于南宋时期。

可见，书院的民间性质，更能够让民间学术的理学获得更多自由发展的空间，故使得理学成为当时最有影响的宋学学派。理学派真正能够成为朝野士人、士大夫比较普遍关注、认真学习、逐渐认同的思想学说，是到了南宋时期，这与理学家进一步在民间社会创办、运用书院教育、全面推广和传播理学及《四书》学有密切联系。

6) 周敦颐著，陈克明点校：《周敦颐集》附录1《周敦颐年谱》，北京：中华书局，1990年，第100页。

二、南宋书院的《四书》教育

南渡以后，东南理学出现大盛的局面，南宋的不同学统大多是二程洛学之传的结果。而且，南宋理学之所以发达，并且在社会知识界形成一个广泛的政治力量与文化力量，与理学家充分借助于书院作为理学及《四书》学的学术重镇和教育基地密不可分。他们将理学的内圣外王之道广泛传播于民间社会，深刻影响了朝野的士人、士大夫群体。南宋理学繁荣书院发达，并且理学成为大多数书院的主要学统。

南宋初年最早创办书院，在民间社会从事理学的学术研究、人才培养活动者，是胡安国、胡宏父子。南宋建炎4年，胡安国、胡宏父子从荆门隐居湖南湘潭碧泉，创办了碧泉书院。胡宏为碧泉书院写的上梁文提出：“伏愿上梁以后，远邦朋至，近地风从；袞穰下以纷芳，继杏坛而跲济。”⁷⁾书院建成后，许多志学求道的青年，皆来此求教于胡宏，故而碧泉书院具有典范意义，即以书院组织开拓地域性理学的“学统”。通过书院教育以创建理学学统，成为南宋以后的重要教育形式和主要学术形态。

南宋乾道、淳熙年间进入理学发展的大盛时期，同时也是书院教育的大盛时期。当时，著名理学家朱熹、张栻、吕祖谦、陆九渊等均是通过创办书院，以培养理学人才，推动理学学术的发展。与此相关，理学化的《四书》学教育，也一直和书院有着密切的联系。

南宋乾道初，张栻主持北宋四大书院之一的岳麓书院。张栻希望将这一所书院能够成为理学学术和人才培养的基地。张栻在他撰写的《潭州重修岳麓书院记》中，认为岳麓书院应该避免官学教育有种种弊端，要回归儒家的“为己之学”、“学以成人”的教育理念。他希望将岳麓书院办成不同于官学的一种儒家教育的典范，不能够以科举利禄为教育目标，而是应该追求“成就人材，传道以济斯民也”。因此，以内圣之学为重点的《四书》学自然成为岳麓

7) 胡宏著，吴仁华点校：《胡宏集》，《碧泉书院上梁文》，北京：中华书局，1987年，第202页。

书院的主要教材。张栻特别强调以《论语》、《孟子》和《大学》、《中庸》教育学生的的重要性，为了书院教育需要，他专门撰写了《孟子说》、《论语解》作为书院教学的讲义。他在《孟子说序》中说：“岁在戊子(乾道四年)，栻与二三学者，讲诵于长沙之私塾，窃不自揆，缀所见为《孟子说》。”乾道九年刻写成书，正式作为岳麓书院教学讲义。他在书前作《孟子讲义序》(又为《讲义发题》)一篇，对学生说：“栻以所见与诸君共讲之，愿无忽深思焉。”并在“讲义序”中主张“义利之辨”为入学首要课程。这一年，他还完成了代表作《论语解》，“辑《论语解》为同志者切磋之资”，并要求学生“所当终身尽心者，宜莫先乎此也”。⁸⁾可见，理学化《四书》成为书院教育的重要特色。

朱熹更是推动书院教育的创新和发展的著名理学家。他也是乾道年间开始在福建创建精舍和书院讲学。乾道六年(公元1170年)，他于福建建阳县创建寒泉精舍，五年后与理学家吕祖谦在此讨论、编撰《近思录》。淳熙十年(公元1183年)于武夷山建武夷精舍。绍熙五年(公元1194年)又于建阳建竹林精舍，因学徒增多而不能容，故加以扩建并改名为沧州精舍。朱熹虽不明称其为书院，而实际上却仍把它们同书院等同视之，有时甚至直接称之为书院。如《朱子语类》卷九十载其所说：“新书院告成，明日欲祀先圣先师，古有释菜之礼。”此处所言“新书院”即是新扩建的沧州精舍。朱熹通过福建创办的诸多书院，奠定了闽学学统。朱熹推动的书院教育，是为了进一步实现他的教育理念，所以他也是一边在书院从事《四书》学研究，一边以《四书》为教材培养生徒，《四书章句集注》、《四书或问》其实就是他在书院的学术成果和教育成果。而且，朱熹不仅以他注释的《四书》作为书院教材，还将《四书》的基本教育理念、教学方法，浓缩为书院的学规、学箴、教学法，落实与书院的教育制度和教学实践。南宋淳熙七年(公元1180年)朱熹知南康军时，主持修复白鹿洞书院，书院落成后，朱熹即往书院给学生讲授《中庸》首章之义。⁹⁾另外，朱熹还请著名理学家陆九渊于书院讲《孟子》，陆九渊讲《孟子》中“君子小人喻义利章发论”，这一内容，后来编成《白鹿洞书堂讲义》。同时，朱

8) 张栻著，杨世文点校：《张栻集》，《南轩先生文集》卷14《论语说序》，北京：中华书局，2015年，第969页。

9) 朱熹撰，朱杰人、严佐之等主编：《朱子全书》，第21册，《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34《答吕伯恭》，上海：上海古籍出版社；合肥：安徽教育出版社，2002年，第1502页。

熹在沧州精舍讲学时，还要求学者“将《大学》、《论语》、《中庸》、《孟子》及《诗》、《书》、《礼记》，程张诸书分明易晓处反复读之，更就自己身心上存养玩索，著实行履。”¹⁰⁾特别值得一提的是，朱熹亲自制定了体现《四书》学教育理念的《白鹿洞书院揭示》。朱熹选取《四书》学教育思想的精髓，制订《白鹿洞书院揭示》，其中以《孟子》中的“父子有亲，君臣有义，夫妇有别，长幼有序，朋友有信”，作为书院的“五教之目”；以《中庸》中的“博学之，审问之，慎思之，明辨之，笃行之”，作为书院的“为学之序”；以《论语》中的“言忠信，行笃敬”以及《孟子》中的“惩忿窒欲，迁善改过”，作为书院生徒的“修身之要”；以《论语》、《孟子》中的“己所不欲，勿施于人；行有不得，反求诸己”为书院生徒的“接物之要”。这一《揭示》，通过对为学目的、内容、方法的规定，将书院教育完全纳入了理学化《四书》的轨道。《揭示》出现后，不断为其它书院所采用，到南宋后期，几乎为天下书院所共遵，对书院教育乃至公立学校教育都产生了深刻影响。

陆九渊则在江西贵溪创建象山精舍讲学，学术和教育活动皆达到极盛。陆九渊也重视《四书》学，他本人就提出，除了《孟子》特别重要外，其他“如《中庸》、《大学》、《论语》诸书，不可不时读之，以听其发扬告教。”¹¹⁾可以说，在其思想体系建构过程中，陆九渊对以儒家《四书》均有大量的吸收，其中，尤其以《孟子》为多，是其学术建构的主要资源。全祖望肯定陆九渊之学的内在精神与学术取向源自孟子：“象山之说，先立乎大者，本乎《孟子》。”¹²⁾陆九渊在主持象山精舍时，学术也是很盛，据其《年谱》记载：“郡县礼乐之士，时相谒访，喜闻其化，故四方学徒大集……先生居山五年，阅其簿，来见者逾数千人。”¹³⁾陆九渊讲学注重《孟子》学的“发明本心”，其《年谱》载：“(陆九渊)首诲以收敛精神，涵养德性，虚心听讲，诸生皆俯首拱听。非徒讲经，每启发人之本心也，间举经语为证，音吐清响，听者无不感动兴起

10) 朱熹撰，朱杰人、严佐之等主编：《朱子全书》，第24册，《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74《沧州精舍示学者》，上海：上海古籍出版社；合肥：安徽教育出版社，2002年，第3593-3594页。

11) 陆九渊：《陆九渊集》卷5，《与戴少望》，北京：中华书局，1980年，第63页。

12) 黄宗羲著，全祖望补修：《宋元学案》卷58《象山学案》，北京：中华书局，1986年，第275页。

13) 陆九渊：《陆九渊集》卷36《年谱》，北京：中华书局，1980年，第501-502页。

。”¹⁴⁾象山精舍从学陆九渊者人数之多，并且形成了以象山精舍为基地的象山学统。

全祖望所说：“朱学以格物致知，陆学以明心，吕学则兼取其长，而复以中原文献之统润色之。”¹⁵⁾乾淳四君子之一的吕祖谦，系浙江婺州人，他所创立的学派称“婺学”或“金华学派”。吕祖谦晚年在婺州明招山创建丽泽书堂，据史书记载，他晚年“会友于丽泽书院，既歿，郡人即而祠之。”¹⁶⁾吕祖谦在丽泽书院讲经史之学时，留下了一些讲义。据吕祖谦“附录”卷一的《年谱》记载，他于淳熙六年编有《尚书讲义》，则是主持丽泽书院的讲义。在《宋元学案·东莱学案》中，收录有吕祖谦的《丽泽讲义》，内容包括《论语》、《孟子》《中庸》、《大学》等《四书》内容，同时也包括《周易》、《诗经》、《周礼》等儒家经典。

全祖望说：“故厚斋(王应麟)谓岳麓、白鹿，以张宣公(栻)朱子(熹)而盛；而东莱(吕祖谦)之丽泽、陆氏(九渊)之象山，并起齐名，四家之传遍天下。则又南宋之四大书院也。”¹⁷⁾南宋四大书院教学卓有成果，成为闻名全国的教育重镇，它们标志着中国书院史发展到了一个新的历史时期。与此同时，《四书》逐渐成为培养、教育士人、士大夫的教材而提升为儒家经典文本。

三、《四书》学的教育宗旨

南宋书院教育的成功，在于这些理学化书院的精神吸引力和学术创造力。而宋代书院之所以能够做到这一点，在于它们很好地贯彻和实践了理学化的《四书》学教育宗旨。为了说明这一点，我们需要进一步探讨、解析理学化的《四书》学教育宗旨。

14) 陆九渊：《陆九渊集》卷36《年谱》，北京：中华书局，1980年，第501页。

15) 黄宗羲著，全祖望补修：《宋元学案》卷51《东莱学案》，北京：中华书局，1986年，第1653页。

16) 顾允成：《小辨斋偶存》卷7，《文津阁四库全书》，第1296册，北京：商务印书馆，2006年，第688页。

17) 全祖望撰，朱铸禹汇校集注：《全祖望集汇校集注》，中册，《鮑琦亭集外编》卷45《答张石痴征士问四大书院帖子》，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0年，第1723页。

宋代以后，儒学往往又被称之为“圣学”，但是在不同历史语境与不同经典体系中，“圣”的意义是不同的。早期儒家讲的“圣”是圣王，他们认为《六经》的制作者即三代先王才是“圣”，上古时期的尧舜禹汤文武周公通过治理国家、征服天下，并以其“德”而配天而成为“圣王”；但是，宋代以后，宋儒所讲的“圣”是儒者士人的“圣学”，《四书》作者孔曾子孟等是儒家士人圣贤的典范，宋儒主张普通士子通过学习、实践《四书》而“成圣”。所以，《四书》学成为一切普通士人如何成“圣”的“圣典”。

两宋时期，理学家通过民间书院的推广和教育，逐渐使理学化《四书》成为宋代士人普遍接受的思想共识，以推动宋代士人思想的整合。《论语》、《孟子》、《大学》、《中庸》本出于先秦儒家子学，本来就是儒家创办私学教学之用。宋代士大夫从《五经》之学回归先秦儒学，恰恰就是希望从先秦儒家子学中，需求新的思想资源。可见，无论是先秦作为子学的《论语》、《子思子》、《孟子》，还是到了两宋作为民间学术思潮的《四书》学，其知识创造、价值承担的主体一直是士人群体。宋代士人对这一类士人之学表现出特别的兴趣，他们纷纷以这些典籍作为自己或门徒“学以成圣”的基本经典，故而建立了一种新的经典体系，即《四书》学体系。

宋代士大夫群体以《四书》学著作为典范，启动以“求道”为目标的“修身”、“成人”、“成圣”的人生历程。而且，他们特别强调，《四书》的学习和研究并不是那一种学识炫耀、功利追求的“为人之学”，朱熹在《中庸章句序》中强烈批判了秦汉以来学术界出现的种种弊端，他说：“秦汉以来，圣学不传，儒者惟知章句训诂之为事，而不知复求圣人之意以明夫性命道德之归。”¹⁸⁾宋儒希望建立的《四书》教育体系，就是希望士人们通过《四书》学习而能够成就内在人格、实现自我完善，也就是说，他们推动的《四书》学教育完全是一种“为己之学”。

宋代士大夫之所以提出回归先秦儒家的“为己之学”，是因为宋初以来，尽管士大夫的政治地位大大提升，他们的政治主体意识、文化主体意识大大增强，但是他们整体的道德素质、人格精神有待进一步提升和完善。宋初以

18) 朱熹撰，朱杰人、严佐之等主编：《朱子全书》，第24册，《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75《中庸集解序》，上海：上海古籍出版社；合肥：安徽教育出版社，2002年，第3640页。

来,从中央的太学到地方官学,主要存在几个重要的弊端。其一,就是所谓“自汉儒至于庆历间,谈经者守训诂而不啻”,¹⁹⁾从宋初朝廷规定国子监学习《五经》,到后来拓展到《九经》,其实均是将汉代以来以经学的章句训诂作为主要教学内容,皮锡瑞说:“经学自唐以至宋初,已陵夷衰微矣,然笃守古义,无取新奇;各承师傅,不凭胸臆;犹汉唐注疏之遗也。”²⁰⁾士子沉溺其中而不能自拔,更不用说能够以经典修身,提升自己的精神人格。其二,宋代朝廷努力将学校教育与科举选拔结合起来,使学校教育成为科举的附庸,功利之习占据学校的主导地位。朱熹针对这一现象批评说:“所谓太学者,但为声利之场,而掌其教事者不过取其善为科举之文,而尝得隽于场屋者耳。士之志于义理者,既无所求于学,其奔趋辐凑而来者,不过为解额之滥,舍选之私而已。师生相视漠然如行路之人,间相与言,亦未尝闻之以德行道艺之实。而月书季考者,又只以促其嗜利苟得,冒昧无耻之心,殊非国家之所以立学教人之本意也。”²¹⁾上述两个原因,使得士林风习出现种种缺乏德性、争名夺利等一系列急于改善的现象,具有忧患意识的宋儒倡导重读先秦儒家的《论语》、《孟子》、《大学》与《中庸》,将这些儒家子学看作是使得士大夫群体的“为己之学”,确实是一种有感而发的教育主张。宋代《四书》学的兴起,始于宋代士大夫倡导一系列新的文化理想与教育理念,理学及《四书》形成后,他们需要在民间书院进一步从事学术推广和思想整合,希望形成一种以理学化《四书》学的思想共识。

中国的传统教育与学术向来是一体的。孔子整理《六经》、为《六经》作传记的学术研究,其实是为培养儒家士人教育服务的。所以,《六经》及其传记之学既是儒学的学术成果,又是儒教的教育成果。宋儒不满汉唐儒家的《五经》之学,批判这一种经学教育让士子沉溺于章句训诂的知识教育,故而致力于《四书》学的经典诠释和义理建构,这一些与《四书》相关的解义、讲义、章

19) 王应麟:《困学纪闻》卷8《经说》,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8年,第1094页。

20) 皮锡瑞著,周予同注释:《经学历史》卷8 《经学变古时代》,北京:中华书局,1959年,第220页。

21) 朱熹撰,朱杰人、严佐之等主编:《朱子全书》,第23册,《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69《学校贡举私议》,上海:上海古籍出版社;合肥:安徽教育出版社,2002年,第3363页。

句、集注、答问等，同样既是《四书》学的学术成果，又是从事教育的教学成果。

所以，从书院教育的视角考察宋儒建构的《四书》学成为士人普遍接受的基本教材，对确立士人基础知识、建构士大夫价值信仰、塑造士大夫人格的均产生了深刻影响。宋儒建构的《四书》学，显然不等同于孔子、曾子、子思、孟子的思想，而是经过宋儒创造性诠释而建构的《四书》学，那么，宋儒注释的《四书》学，究竟会以什么核心思想、价值信仰来塑造两宋以来的士人呢？

理学家诠释的《四书》学，其根本宗旨就是把《四书》看作是培养士人“学为圣人”之书。在汉代经学体系中，《五经》体系是以三代圣王之治的典范引导当朝帝王仿效之，所以说，汉代以来已经奠定的《五经》体系其实是“先王之政典”的帝王之学。《五经》的核心是以先王为目标的国家治理和礼法制度，士大夫研究《五经》学，就是从《五经》中寻求治理国家的制度和办法，以协助、成就帝王的政治事业。而《论语》、《孟子》、《大学》、《中庸》只是由士人之书而提升为《五经》的传记之学，故而宋儒建构的《四书》学体系，应该首先是一种士大夫之学。《四书》主要是以孔、颜、曾、孟等为典范，引导后来的士人仿效他们“学以成圣”，即是鼓励士人自己开启以“成圣”为目标的“修身”历程。无论是先秦作为子学的《论语》、《曾子》、《子思子》、《孟子》，还是汉代作为《五经》的传记之学，或者是两宋作为独立经典的《四书》学，其知识创造、价值承担的主体一直是士人群体。理学家一直强调，他们之所以推动《四书》的学习和研究，其目标并不是一种学识炫耀、功利追求的“为人之学”，而完全是为了自己内在的人格精神、理想追求、自我完善，也就是一种“为己之学”。

所以，宋儒主张以《四书》作为培养士人的基本教材，特别强调《四书》“学以成圣”的教育宗旨。他们要求士人群体必须让自己确立一个高远的目标，就是通过《四书》的学习，而达到孔、颜、曾、孟那样思想高度的“君子”、“圣贤”。所以，那些积极推动《四书》教育的宋儒，其实均是强调《四书》是士人的成圣之书。程颐说：“修身，当学《大学》之序。《大学》，圣人之完书也。”²²⁾“《论语》为书，传道立言，深得圣人之学者矣。”²³⁾“《中庸》之书，决是

22) 程颢、程颐著，王孝鱼点校：《二程集》，北京：中华书局，1981年，第311页。

传圣人之学不杂。”²⁴⁾张载也认为：“要见圣人，无如《论语》、《孟子》为要。”²⁵⁾到了南宋，特别是经过朱子作《四书集注》之后，这一观点已经成为宋代儒学的主流观点。他们将《四书》完全看作是士人群体如何成圣的“圣贤之书”：

圣贤之书，要旨每寓于篇首。《大学》之首，揭明德、新民、止至善之要领；《孟子》之首，辨仁义与利之界限；《中庸》之首，明性、道、教之一原，皆要旨也。至若《论语》一书，孔门弟子记诸善言，隐然自有次序。²⁶⁾

由此可见，在宋儒的集体意识、思想共识中，《四书》学之所以特别重要，就在于其核心思想是指导士人“学为圣贤”。

宋儒奠定了《四书》体系，希望宋代士人能够仿效孔、颜、曾、孟等先秦士人，开启宋代士人以“成圣”为教育目标，《四书》的核心是圣化士人。人们会问，宋代《四书》学鼓励士人“学以成圣”的历史原因是什么？我们必须将这一问题植入唐宋变革、士大夫崛起的大历史背景，才能够对宋代出现的这一种“学以成圣”思潮做出合理的解释。其实，希望士人“学以成圣”，其中包括确立士人的两个重要目标。

其一，宋儒《四书》学鼓励士人“学以成圣”，是希望崛起的宋代士大夫具有崇高的道德人格，能够承担起与君主共治天下的重大责任。我们知道，唐宋变革之际，宋代士大夫群体的社会出身、政治地位发生了变化，使得他们承担的政治责任、历史使命更重，与这一种责任意识、使命意识相关的就是对士人的道德要求和人格期望。宋儒之所以将圣人作为自己的人生最高目标，表达出前所未有的既能够进取担当意识，其原因即在于只有“圣贤”这样的道德境界和崇高人格，才能够承担得起“与君主共治天下”的政治责任。宋代士大夫迫切需要提升士人的道德要求和人格期望的思想资源，而《四书》等先秦

23) 程颢、程颐著，王孝鱼点校：《二程集》，北京：中华书局，1981年，第44页。

24) 程颢、程颐著，王孝鱼点校：《二程集》，北京：中华书局，1981年，第153页。

25) 张载撰，章锡琛点校：《张载集》，北京：中华书局，1978年，第272页。

26) 周应合：《景定建康志》卷29《建明道书院》，《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674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1986年，第572页。

儒家子学恰恰具有更加丰富的资源。所以，宋儒诠释的《四书》学，将《四书》的教育宗旨确定为“学以成圣”的目的，首先是与培养士人以“圣贤”为标准的道德境界和崇高人格，希望他们能够在未来承担起与君主共治天下的重大责任。

其二，宋代《四书》学鼓励士人“学以成圣”，还包含一个重要思想，就是希望宋代士大夫尽快推进“道治合一”政治理想，能够在与君主共治天下中完成自己的历史使命。所以，朱熹在《大学章句序》中，虽然首先肯定上古圣王“教治”合一的道统，但是他的主要目标则是强调春秋以来孔子及其诸弟子是无“君师之位”却能够兴道统之教。在《中庸章句序》中，朱熹特别强调“子思子忧道学失其传而作”的道统意义，他说：“若吾夫子，则虽不得其位，而所以继往圣，开来学，其功反有贤于尧舜者。然当是时，见而知之者，惟颜氏、曾氏之传得其宗。及曾氏之再传，而复得夫子之孙子思。”²⁷⁾宋儒建构的《四书》学，就是这一种能够满足儒家士大夫承担道统传承、复兴孔孟之道的经典体系。朱熹建构了以《四书》为经典文献依据、以孔孟程朱为授受谱系的道统论。朱熹建构的《四书》学道统论，希望“士”如何以“帝师”、“大夫”的双重身份，既以道统教育帝王、又以道统治理国家。可见，宋儒的道统论包括两个阶段：有“君师之位”的圣王道统与无“君师之位”的士人道统，前者以《五经》为代表，后者以《四书》为代表。朱熹及其宋儒将代表士人道统的《四书》提升为儒家核心经典，就是突出了士人群体承担道统的重要意义。

四、宋代士人的思想整合

由上可见，宋儒《四书》学确定的“学以成圣”的书院教育目标，是为了鼓励士人崛起的宋代士大夫具有崇高的道德人格，能够承担起与君主共治天下的重大责任，在秦汉以后“君师”分离的条件下，能够承担起以道统教育帝王、以道学治理国家的重大责任。宋代书院鲜明地倡导“学以成圣”的教育理念，

27) 朱熹撰，朱杰人、严佐之等主编：《朱子全书》，第24册，《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76《中庸章句序》，上海：上海古籍出版社；合肥：安徽教育出版社，2002年，第3674页。

以满足作为政治主体、文化主体的宋代士人群体的普遍追求，推动了理学在民间社会的广泛传播，促进了宋代士人的思想整合，最终推进了两宋时期士人群体的思想共识的形成。

南宋书院的理学及其《四书》学教育，其产生的思想整合作用和文化传播功能到底有多大呢？我们可以以庆元党禁历史事件为时间轴心来考察这一问题。

庆元党禁事件发生之前，由于南宋理学发展的大盛，推动了书院教育的大盛。南宋著名理学家朱熹、张栻、吕祖谦、陆九渊等均是通过创办书院的理学大家，他们不仅培养了大量推崇理学的士人，故而全祖望有所谓“四家之徒遍天下”之说，特别是能够将这一能够表达士大夫价值理想、人格理想的学说，发展成为民间士人普遍认同的思想学说。这一个以民间书院为依托的新儒学思潮的兴起，不仅仅是局限于谈论性理的少数道学家的事，而是体现出宋代士大夫群体崛起。而庆元党禁事件的发生，可以理解为君主、权臣的政统力量与士人、理学的道统力量的一场政治较量和文化博弈。这也能够从一个角度，反映出地方书院在宋代士人思想整合中所发挥的作用。

在庆元党禁事件中，以朱熹为代表的士大夫文化集团，不幸卷入韩侂胄、赵汝愚的朝廷党争之中。但是，从庆元党禁的演化过程和历史结局来看，均可以看出南宋新儒家文化集团已经成为君主、权臣的政统力量所警惕、防范与打击的政治力量。庆元党禁事件爆发后，首先受到打击的是所谓“道学之人”，他们统统均看作是“逆党”、“伪学”，理学家著作书籍被禁毁，科举考试中凡涉理学之义理者，一律不予录取，同时还包括理学家注释的六经、《论语》、《孟子》、《中庸》、《大学》也难逃厄运。特别是赵扩还下诏订立《伪学逆党籍》，入籍者除了宰执赵汝愚、留正、王蔭、周必大等人外，特别是包括了朱熹、徐谊、彭龟年、陈傅良、薛叔似、刘光祖、吕祖俭、叶适、杨简、袁燮、杨宏中、蔡元定、吕祖泰等学术活跃的儒家士大夫。看到《伪学逆党籍》的名单，可以发现庆元党禁打击的“伪学逆党”，将乾道淳熙年以来体现学术大盛、学派林立的不同学派，即除了朱熹闽学学派之（朱熹、蔡元定等）外，还包括张栻湖湘学派（彭龟年）、吕祖谦婺学学派（吕祖俭、吕祖泰等）、陆九渊象山学派（杨简、袁燮等），特别是还有被看作是事功之学

的浙东学派（陈傅良、叶适、徐谊等）著名学者。他们中有的罢官，有的被捕，有的充军，甚至还有被迫害至死。也就是说，南宋朝廷的权力集团其实是将活跃在学术思想领域的不同学派均看作是自己的敌人。可见，庆元党禁实际上是南宋帝王、权臣构成的统治集团对宋代自由学术、民间书院的一次政治打击，使得乾道、淳熙年间的那种书院繁荣、学派林立的局面不再存在。

虽然在君主及权臣组合的政统力量与士人及书院组合的道统力量之间的政治较量中，政统力量取得了短暂的胜利，而士人学术、民间书院的道统力量受到严重打击。但是，由儒家士大夫群体共识形成的道统力量却赢得长久的人心。庆元党禁事件只维持几年之久，统治集团意识到士大夫反抗力量的强大，在所谓“真伪已别，人心归正”的大趋势下，伪学、逆党之禁全面废解。理学家即纷纷平反，理学和书院均走向发达。此后，由理学家推动的书院教育得到更大的发展，理学及其《四书》学更成为书院教学的主要内容。

考察庆元党禁解除之后的书院，不仅仅是数量大增，而且是理学化程度更高。朱熹理学及其《四书》学已经完全成为书院教育的主要内容。如南宋学者徐元杰在《延平郡学及书院诸学榜》中就规定，书院生徒“早上文公《四书》轮日自为常程，先《大学》、次《论语》、次《孟子》、次《中庸》。《六经》之书，随其所已，取训释与经解参看。”²⁸⁾这一规定，不仅强调了以朱熹《四书集注》为主要学习内容，而且还体现了朱熹所主张的研习次第。宋末建康明道书院则不仅规定“礼仪皆仿白鹿书院”，²⁹⁾而且从该书院的系列讲义可以看到，当时明道书院的讲学中，《四书》是最主要的内容。其中，程必贵于景定三年（公元1262年）、胡崇于淳祐十一年（公元1251年）、赵汝训于宝祐三年（公元1255年）、胡立本于景定元年（公元1260年）开堂讲《大学》，程必贵于景定三年（公元1262年）、张显于开庆元年（公元1259年）开堂讲《中庸》，吴坚、周应合于开庆元年（公元1259年）开堂讲《论语》。³⁰⁾他们有关

28) 徐元杰：《梅野集》卷12《延平郡学及书院诸学榜》，见《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1181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1986年，第775-776页。

29) 周应合：《景定建康志》卷29《建明道书院》，《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489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1986年，第312页。

30) 周应合：《景定建康志》卷29《建明道书院》，《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489册，台

《四书》的阐释、发挥，均为继承程朱之说而来。甚至偏处四川郫县（今三台县）一隅，由该县士人杨子谟私人创建、存续于孝宗淳熙年间至理宗宝庆二年（公元1226年）的云山书院³¹⁾，其生徒也以《四书》为主要学习内容：“吉月、月半诵《论》、《孟》、《中庸》、《大学》语。”³²⁾南宋后期学者熊禾也谈到当时以《四书》学为核心的理学受到广大士人尊崇的情形说：“孔孟后千五百余载，道未有如文公之尊。……《四书》衍洙泗之传，《纲目》接《春秋》之笔。当今寰海数州之内，何人不读其书。”³³⁾南宋著名藏书家、目录学家陈振孙《直斋书录解题》中特设《论语》、《孟子》类，认为“今国家设科取士，《语》、《孟》并列为经，而程氏诸儒训解二书，常相表里，故合为一类。”³⁴⁾目录学中的这一变化，从一个侧面反映了理学《四书》学著作在当时学界广泛流传的历史状况。

理学及其《四书》即成为书院教学的主要内容。理学派通过书院而推动的《四书》学教育，更是使理学的《四书》学教育成为南宋士林普遍文化共识。应该说，作为士大夫之学的《四书》学教育，对宋代士人、士大夫群体的思想观念、道德水平的提升产生了积极作用。特别是南宋时期，从与金兵的对立，到反抗强悍的蒙古人，南宋士大夫群体表现出难得道德意志，“靖康之变，志士投袂，起而勤王，临难不屈，所在有之。乃宋之亡，忠节相望，班班可书；匡直辅翼之功，盖非一日之积也。”³⁵⁾如南宋末年，岳麓书院师生与潭州将士共同参加守城战斗，浴血奋战，全部战死在战场，鲜明反映出理学及《四书》教育产生的社会效果。

到了南宋后期，特别是到了元明清时代，理学及其《四书》学的地位一步步提升，上升到官方的国家学说与意识形态，成为每一个读书人必读的教科

北：台湾商务印书馆，1986年，第318-331页。

31) 参见胡昭曦：《四川书院史》，成都：巴蜀书社，2000年，第11页。

32) 魏了翁：《鹤山集》卷74《杨公墓志铭》，《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1173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1986年，第164页。

33) 熊禾：《勿轩集》卷4《重修武夷书院疏》，《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1188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1986年，第800页。

34) 陈振孙：《直斋书录解题》卷3《语孟类》，《景印文渊阁四库全书》，第674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1986年，第572页。

35) 脱脱等撰：《宋史》卷446《忠义传序》，北京：中华书局，1977年，第13149页。

书。理学及其《四书》学之所以能够上升为国家学说与意识形态，应该是源于理学及《四书》学的学术声望、文化影响，而帝王及朝廷不过是顺应士人社会的主流思潮，以获得士大夫群体的广泛支持，进而提升自己权力的声誉和影响。特别是提升理学地位最用力的是元朝、清朝，他们原本属于少数民族入主中原，故而更加需要借用理学及其《四书》学的声誉和地位以提升自己权力的合法性。他们对于理学思想与帝国政治存在的矛盾，又是通过对理学及其《四书》学的不断修正、篡改，如《四书》学的士大夫道统论就与帝国皇权的政统就存在鲜明矛盾，而明清帝王很轻易就将自己说成的道统的代表。

Seowon Education and Integration of Sain Thought in Song Dynasty

Zhu,han min^{*}

In Song Dynasty's cultural history, there was an important cultural phenomenon and it was rising and flourishing of Seowon and Li studies at the same time.. Scholars of Li who were marginalized from the politics, having their own perspective focusing on culture and conducting personalized tutoring or Seowon education for researches, training students and establishing schools, tried to make Seowon in Song Era become the base for Li thought and education of Four Books. In order to satisfy scholar groups for becoming subjects in both perspectives of politics and culture, the scholars pursued and practiced the educational ideology of "Accomplishing the greatness through studies"(學以成聖)". The success of Li studies promoted the ideological integration of Sain(士人) in Song Era, and made Li studies become a universal ideological agenda for them.

Keywords : Studies about Four Great Books, Seowon, Li Studies. Education in Seowon, Ideological Agenda

이 논문은 2019년 12월 13일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2월 2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26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결정된 것임.

* Director, Institute of China Studies, Aknok Seowon.

조선왕조 서원제도 수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조선 서원 문헌을 중심으로 한 토론 -

邓洪波** · 赵伟***

I. 序論

II. 本論

1. 书院之名始见于世宗初年，可以将朝鲜书院的创建时间推前一百二十余年
2. 引入白鹿洞故事，不始于中宗三十七年，而始于此百余年的世宗二十一年
3. 周世鹏与李滉同为朱子学者，但周被划为勋旧派，其书院贡献被低估
4. 白云洞书院不是安文成公庙的附属建筑
5. 论书院在朝鲜的移植，周世鹏、卢庆麟、李滉三个人的贡献最大
6. 嘉靖万历年间，是朝鲜书院引入移植期，成于是期的《竹溪志》《迎风志》《吴山志》三部书院志书，大致可以呈现书院移植的历程
7. 书院、祠庙为东方欠典，需从中国引入
8. 朝鲜官绅眼中的中国书院
9. 朝鲜以教育为接口引入书院，因而其早期书院被明确定位于教学授受的学校
10. 书院从事科举之业，与倡导为己之学并不矛盾

III. 结语

<국문요약>

서원은 동아시아 士人들의 공동의 문화교육조직이다. 조선은 명나라 강정 연간에 중국으로부터 서원제도를 수용하였으며 『죽계지』, 『영봉지』, 『오산지』 등 서원지들이 서원의 수용과정을 잘

* 基金项目：国家社科基金重大项目“中国书院文献整理与研究”（15ZDB036）.

** 제 1저자: 中國 湖南大学教 教授 / denghongbo2000@126.com

*** 제 2저자: 中國 湖南大学岳麓书院 博士研究生 / wwjgst@163.com

보여준다. 우선 주세붕은 주자 백록동서원 고사를 따라 처음으로 백운동서원을 설립하고 『죽계지』를 엮었으며, 근사(謹祀), 예현(禮賢), 수우(修宇), 비름(備廩), 점서(點書) 등의 운행제도를 세웠고, 조선서원의 시작과 기초를 닦는 데 공을 세웠다. 다음으로 노경린은 영봉서원을 설립하고 『영봉지』를 엮었으며 사우를 세워 선현들을 모시고 서원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그리고 『묘원정의록』, 『학규록』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구축도 처음으로 시도하였는데 서원의 발전에 공이 있다. 그리고 주세붕을 이어서 백운동서원을 운영하였던 이항은 상소를 올려서 사액을 청구하였는데 서원 사액 제도의 시초를 열어주었고, 그 후에 학자의 신분으로 10개소 정도의 서원 건립에 관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백록동서원게시』를 해석하여 널리 보급시키고, 『성학십도』에도 편입하였으며 조선서원 제도를 집대성하는 데 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서원제도, 서원문헌, 서원이식, 동아시아 서원, 조선 서원

I. 序論

书院是东亚地区儒家士人围绕着书进行文化积累、研究、创造与传播的文化教育组织。它起源于七世纪末的中国唐朝，十五世纪二三十年代传到朝鲜半岛，十七世纪中叶传到日本列岛，十九世纪末二十世纪初发展受挫，或撤废，或停办，或改为学堂、学校，有近1300年历史。据统计，书院数量中国至少有7525所，朝鲜半岛670所（狭义376所），日本100余所。¹⁾ 它为东亚地区教育、学术、文化、出版、藏书等事业的发展，对学风士气、民俗风情的培植，国民思维习惯、伦常观念的养成等都作出了重大贡献。朝鲜书院由中国引入，是东亚书院近1300年发展史的有机组成部分，而在其发展中又形成了自己的特色。

本文趁主持国家社科基金重大项目“中国书院文献整理与研究”掌握大量文献资料之便，以《竹溪志》·《迎风志》·《吴山志》·《庐江志》，以及《李朝实录》与当年各书院学规章制度等朝鲜时代的书院文献为主，围绕中国书院制度如何移植到朝鲜王朝这一问题展开讨论，颇有些不同于学术界尤其是韩国前辈与时贤的认知与观点，抛砖引玉，敬祈方家批评指正。

II. 本論

1) 有关书院的统计数据，中国、日本部分参见邓洪波《中国书院史》（武汉大学出版社，2012年）；韩国多少不一，韩国金相根《韩国书院制度之研究》（台湾嘉新水泥公司文化基金，1965）作670（狭义376）所，李春熙《李朝书院文库目录》（大韩民国国会图书馆，1969）为650所，丁淳睦《韩国书院教育制度研究》（岭南大学民族文化研究所，1979）、郑万祚《朝鲜时代书院研究》（集文堂，1997）、李树焕《朝鲜后期书院研究》（一潮阁，2001）为903所，李相海《书院》（悦话堂，2002）作909所，而日本渡部学统计又有680、674、650所等不同数字。为便于叙说，本文用金相根先生《韩国书院制度之研究》的统计，谨此说明。

1. 书院之名始见于世宗初年，可以将朝鲜书院的创建时间推前一百二十余年

书院之名，在朝鲜始见于世宗即位之年（永乐十六，1418）十一月所颁教令，其称：“其有儒士私置书院，教诲生徒者，后闻褒赏。”²⁾至世宗二年（1420），就有两批儒士因此获奖。先是正月，“金堤前教授官郑坤，私置书院，境内与他乡自愿来学者，无不教训；光州生员崔保民，私置书院，训诲生徒”，受到“量宜注授”之赏。³⁾九月，平安道观察使后：“咸从县人生员姜友谅，私置书院，教授学徒，请依前日教旨，除旁近州郡教导以褒之。”世宗因“命下吏曹”授官。⁴⁾由此可知，起于民间、具有教学功能的书院，在世宗初年比较活跃，也受到朝臣与地方官的重视。但令人费解的是，对这些民间学校性质的“儒士私置书院”，后世学者大多视而不见，而120余年之后丰基郡守周世鹏创建的白云洞书院却被奉作东方书院的鼻祖。

作为民办教育机构的“儒士私置书院”，活跃于世宗初年，也即明永乐年间，时在十五世纪二十年代，这与韩国学者书院源于私学、李滉创立的士林书院运动等观点之间，很容易建立书院缘起、成立的内在逻辑关系，将书院的创建时间推前一百二十余年。为何弃而不取，视而不见？何以致此，实在值得专文探讨。

2. 引入白鹿洞故事，不始于中宗三十七年，而始于此前百余年的世宗二十一年

通行的观点认为，中宗三十八年（嘉靖二十二年，1543），丰基郡守周世鹏依朱子白鹿洞故事“肇创”朝鲜书院。近年，李树焕⁵⁾、金紫云⁶⁾等韩国学者

2) [日]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李朝实录·世宗实录(第一) [M]. 东京：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1956, p.24.

3) 학습원동양문화연구소, 앞의 책, 1956, pp.454-455.

4) 학습원동양문화연구소, 앞의 책, 1956, p.616.

引《李朝实录·中宗实录》，将朝臣鱼得江称作第一次提出引入中国书院机制的人，虽然朝臣鱼得江的提议比郡守周世鹏的创建仅早一年，但事涉书院起源，值得珍视，谨将相关材料移录于下，以供研究参考。

汉之郑玄，聚徒教授。隋之王通，讲学河汾。唐之李渤，为南唐白鹿洞主，学者云集，至赵宋初，其徒尚数千人，宋帝赐九经以奖之。朱、张、程、朱，各有门徒，其出于门者，皆名公硕儒，青出于蓝。李公择贮山房万卷之书，以与学者共之，朱熹建武夷精舍，修白鹿书院。此道不行于东国，遐裔之儒，何所问业？庆尚、全罗、忠清、江原四道，士尚诗书。臣意忠清、江原、全罗各一道中央，庆尚左右道，各得一大寺刹，聚道内名儒，勿论生员、进士，岁以四仲之月，分上下斋，读书年例。庆尚道以州郡学田之出，为六月都会及冬三朔会读之需，今可移之为四仲之资，官补不足。常养四十人或二三十人，多少不拘此数，以秩高守令为试官，率二教授或县监，备三员劝课训述，计其分数，生员、进士，于文科馆汉乡试给分有差，幼学直赴生员、进士覆试。如此则士皆乐趋，不劝而勤矣⁷⁾

洪波按：上文“数千人”，当为“数十人”之误；“朱、张、程、朱”，当为“周、张、程、朱”之误。考诸《李朝实录·世宗实录》，朝鲜第一次引入中国书院制度，至少可以上溯到世宗二十一年（正统四年，1439），比周世鹏、鱼得江要早百余年，其称：

初，兼成均注簿宋乙开上书，请令各官学校明立学令，命下礼曹，与成均馆议之。成均馆议曰：谨按朱文公淳熙间在南康，请于朝，作白鹿洞书院，为学规。其略曰：“父子有亲，君臣有义，夫妇有别，长幼有序，朋友有信。右五教之目。尧、舜使契为司徒，敬敷五教，即此是也。学者学此而已。”此但言其大纲耳。后编次《小学》书，非独明伦，首之以立教，终之以敬身，修身大法，无所不备。是故许鲁斋聚学者而谓之曰：“今始闻进学之序。若必欲相从，当悉弃前日所学章句之习，从

5) [韩]李树煥. 朝鲜时代书院的成立与发展[A]. 朱汉民、李弘祺. 中国书院（第六辑）[C]. 长沙：湖南教育出版社，2004, p.194.

6) [韩]金紫云. 朝鲜时代绍修书院讲学研究[D]. 首尔：韩国学中央研究院. 2013, p.36.

7) [日]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李朝实录·中宗实录（第五）[M]. 东京：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1960, pp.446-447.

事于《小学》。不然，当求他师。”众皆曰：“唯。”先生亦朝夕精诵不辍，笃志力行，以身先之，虽隆寒盛暑不废也。伏望依朱文公、许鲁斋故事，成均四部学堂以至乡校，皆以《小学》为学令。命令议政府诸曹及艺文馆、春秋馆、集贤殿同议以闻。议政府金议后曰：“《小学》乃天下万世所共尊仰之书，称为学令不可，请勿举行。”从之。⁸⁾

由此可知，朱子《白鹿洞书院学规》《小学》，因成均馆臣提议，在议政府诸曹及艺文馆、春秋馆、集贤殿等朝臣中已广为人知，实可将其视为中国书院制度引入之始。

3. 周世鹏与李滉同为朱子学者，但周被划为勋旧派，其书院贡献被低估

周世鹏仿白鹿洞创建白云洞书院，其首创之功得到充分肯定，至有“吾东书院之设，鼻祖于慎斋”之说。⁹⁾但相较于李滉，则被等而下之，他对于书院的贡献被严重低估。

其实，周世鹏（1495-1554）和李滉（1501-1570）一样，也是虔诚的朱子学者。他在《竹溪志》卷五《晦庵八大字》跋中，曾谈到自己的学朱经历，其称：

某六岁时学《小学》，已知晦庵先生绍承孔子，后后蒙，执其卷必肃，读其书必谨。十岁诵《四书注解》，仍读五经，益知先生生平之苦。及观《纲目》《近思录》《楚辞》诸书，犹以未见《全书》为恨。辛丑岁，始借得友人《全书》，今年又得《语类》，每盥手跪阅，洋洋乎如侍几案，亲承面教也。¹⁰⁾

自六岁到五十岁，四十余年研读朱子著作，而且始终如侍案承教，必肃、

8) [日]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李朝实录·世宗实录（第三）[M].东京：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1956, p.65.

9) 朴承任：《答四印堂书》，卢庆麟，〈庙院定议录〉，《迎风志》[M]，朝鲜王朝明宗间刻本。

10) [朝鲜]周世鹏，《竹溪志》卷五，[M].韩国：安承奎跋识重刊本，1968.

必谨，盥手跪阅，实在难能可贵。令人不解的是，同为朱子学者，同任丰基郡守，经营同一所书院，前后相差仅六年，周世鹏被后世学者列为勋旧派，其功仅止步于始创，李滉则尊为士林派领袖，其影响则绵延于后世。

4. 白云洞书院不是安文成公庙的附属建筑

周世鹏创建的白云洞书院被韩国学者尊为朝鲜最早的书院，但论者大多认为，它因祭享道学之祖安珦而建，是文成公祠庙的附属建筑。其实不然，兹引周氏自记以证其误。周世鹏《竹溪志序》称：

嘉靖辛丑（中宗三十六年，1541）七月戊子，余到丰城，是年大旱。明年壬寅大饥，其年立晦轩祠堂于白云洞。又明年癸卯，移建学宫于郡北，别立书院于晦轩庙前……夫教必自尊贤始，于是立庙而尚德，立院而敦学，诚以教急于已乱救饥也……今乎竹溪，文成公之阙里，若欲立教，必自文成公始。某以无似，当太平之世，忝宰是邦，于一邑不得不任其责，遂竭心力，乃敢立其庙而架其院，置其田而藏其书，一依白鹿洞故事，以俟来哲于无穷。¹¹⁾

周世鹏《奉安文成公遗像跋》称：

后来继今者，诚不以愚鄙所建为忽，而一心致敬于公庙，使贤士皆乐藏修于书院，则必有心会于晦轩者，而其于兴起斯文亦未必无小补云。¹²⁾

由上可知，建祠庙、移学宫、立书院，三位一体，同属周郡守尊贤重教、培养人才的学政工程，所谓“立其庙而架其院”，“立庙而尚德，立院而敦学”、“致敬于公庙”、“藏修于书院”，祠堂与书院之间似无轻重，不分伯仲，两者并列，仅仅是分工不同而已。周世鹏《与安牧使玮书》称：

11) [朝鲜]周世鹏,《竹溪志》卷首, [M].韩国:安承奎跋识重刊本, 1968.

12) [朝鲜]周世鹏,《竹溪志》卷一, [M].韩国:安承奎跋识重刊本, 1968.

业已立庙，庙前立书院，两事已毕，所欠者书册耳.¹³⁾

周世鹏《学田录跋》称：

某以无似，忝守是邦，既立文成公庙奉安影幀，思有庙不可以无书院，于是立书院；思有书院不可以无田，于是立田立宝米，以为吾徒藏修之廩.¹⁴⁾

如上所述，立庙、立书院，两事毕而求书，是庙、院、书三者并列；由立庙而立书院，由立书院而至立田立米，是庙、院、田、米四者递进，凡此种种，都看不出偏正，遑论附属。有意思的是，成世昌作于仁宗元年（嘉靖二十四年，1545）的《白云洞文成公庙记》¹⁵⁾，到崇祯三甲申（乾隆二十九年，1764。按：此为明朝灭亡后朝鲜士人在非官方场合使用的纪元方式）序刊本的《晦轩先生实记》卷四中，却不再称作“庙记”，而径题为《书院记》，其轻庙重院的意味十分明显。虽时过境迁，不足为道，但祠庙与书院孰轻孰重，在文成公后裔心中自有分寸。

需要指出的是，虽然奉祀先贤先儒的祠庙被纳入广义的书院而予研究，但诚如上述，在周世鹏看来，书院和祠庙是区别并列的，“敦学”、“尚德”，各司其事。同时，书院是学校性质的教育机构的基本属性，以及“教必自尊贤始”的传统教育理念，又使得书院和祠庙走到一起，甚至缠绕难分，混为一体。大致而言，“书院事体亚于乡校……不足于书院者，称为乡贤祠，转相慕效，日以寝盛”。由于当时“朝无禁制，士无定论，唯意所欲，不复顾惮”¹⁶⁾，因此又出现“以家庙而为乡祠，以乡祠而为书院”的乱象。¹⁷⁾于是，就有了“我东书院但为先贤之祠堂……未见其养士讲学之实也”的弊端¹⁸⁾，最终招致禁毁。

13) [朝鲜]周世鹏,《竹溪志》卷一, [M].韩国:安承奎跋识重刊本, 1968.

14) [朝鲜]周世鹏,《竹溪志》卷三, [M].韩国:安承奎跋识重刊本, 1968.

15) [朝鲜]周世鹏,《竹溪志》卷首, [M].韩国:安承奎跋识重刊本, 1968.

16) [日]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李朝实录·孝宗实录[M].东京: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3, p.434.

17) [日]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李朝实录·正祖实录(第三)[M].东京: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6, p.332.

18) [朝鲜]洪汝河,《木斋先生文集》〈咸宁书院立约文〉[A]; 转引自 丁淳佑,〈韩国初期书院

5. 论书院在朝鲜的移植，周世鹏、卢庆麟、李滉三个人的贡献最大

周世鹏依朱子白鹿洞故事，首创白云洞书院，首修院志《竹溪志》，初立谨祀、礼贤、修宇、备廩、点书“五者不可废一”的运行机制，其于书院在朝鲜的移植与展开，实有肇始、奠基之功。

卢庆麟，字仁甫，又作仁父，号四印堂。明宗十年（嘉靖34年，1555），牧守星州。十四年，创建迎风书院，于院东立景贤祠奉祀金宏弼、李兆年、李仁复等，因作《迎风志》，以纪其成。其立祠象贤、立院养贤之举，虽无开创之效，但面对“有学校安事书院”的质疑，他与众多官绅往复磋商，以《庙院定义录》记录当年引入、展开书院制度的实况，且首立《学规录》彰显制度建设，其于书院在朝鲜的移植实有拓展之功。

明宗四年（嘉靖二十八年，1549），李滉以周世鹏继任者的身份经纪白云洞书院，依白鹿洞故事，上书请求赐额，奠定东方书院的赐额制度，后以学者身份作《迎风书院记》《易东书院记》《伊山书院记》，又作《伊山书院学规》，直接或间接参与近十所书院的建设，更解析推广《白鹿洞书院揭示》，并将其列入《圣学十图》，推向整个半岛乃至东洋日本，其于朝鲜书院的移植实有集成功。

周、卢、李三人，李的声名最显，得到充分肯定，乃至有拔高之嫌，周则称名于肇始，而不谈其奠基，卢寂寂无闻。需要指出的是，周、卢二人作为书院创建人，都自觉总结其建院历史，留下了专门的书院志，若能详考《竹溪志》《迎风志》等书院志，朝鲜早期书院的发展情形当会日渐清晰。这将是我们日后研究的一个方向。

6. 嘉靖万历年间，是朝鲜书院引入移植期，成于是期的《竹溪志》《迎风志》《吴山志》三部书院志书，大致可以呈现书院移植的历程

在教育史上的意义》[J].《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7（3），pp.23-30.

庆尚监司林潭曾论及朝鲜书院的发展史，其称：“我东方书院之作，始于嘉靖年间，厥初创建未过十所，俱闻于朝，明举祀典。逮至万历以后，庙宇之作，岁益浸盛，比邑相望。”¹⁹⁾即称“比邑相望”，表明朝鲜书院已经走过引入、模仿、移植、接受的全过程，开始进入可以独立发展的新阶段。大致而言，朝鲜书院的移植、接受期有六十年左右，时在16世纪下半叶，即嘉靖中期到万历中期，也即李朝中宗、仁宗、明宗、宣祖时期，据统计，是期书院总数约120所，有20余所书院得到朝廷赐额。

考诸文献，成书于这个时期的《竹溪志》《迎风志》《吴山志》三部书院志，可以呈现朝鲜书院引入与移植、接受的历程。

《竹溪志》，序刊于朝鲜中宗三十九年（嘉靖二十三年，1544），是“朝鲜第一所书院”创建人周世鹏的杰作，意在应对来自各方的“疑怪”、“众笑”、“群谤”。是志六卷，分安氏行录、尊贤录、学田录、藏书录、杂录、别录，卷首为周氏自序，其后为陆续补入的成世昌文成庙记，李滉上书、申光汉书院记，其体例“以与书院有关的记录为中心”²⁰⁾。《竹溪志》有两大任务，一是回答安珦“既从祀国学，达于州县，何必立庙；既有学校，何必别立书院”这两大问题，从而证明建庙立院的合法性。二是要详细介绍东国前所未有的书院制度，以便接引推广，使其内化成朝鲜自己的制度。其基本策略是，顺应当年热衷朱子学术的社会思潮，“依朱子白鹿洞书院故事”，大量辑录朱子著作中的相关文献，编为尊贤、学田、藏书、杂、别等五录，将中国书院讲学、研究、祭祀、藏书、刻书、学田的基本规制分类呈现，既释“疑怪”，更提供模范，以便取法而利推广。虽然这样做有止即事而述古多的毛病，但它可以达到“刮瞽压惊”、“开悟”、“心降”，化解“异论”的效果，因而获得书院同道的理解。²¹⁾

19) [日]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李朝实录·仁祖实录（第二）[M].东京：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1962, p.446.

20) [韩]郑万祚，〈韩国书院的历史与书院志的编纂〉[J].《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7（6），pp.11-12.

21) 盧慶麟，〈迎风志·庙院定义录〉载，朴承任，〈答四印堂书〉称：“吾东书院之设，鼻祖于慎斋，当时创见不无坐井之议，故其为志非止即事，兼多述古，要以刮瞽压惊，实出于不得已，如使中人以上见之，固已心降，或有味者，纵有异论，岂能家到户说，以开悟之哉。”又，盧慶麟，〈答朴重甫黄仲举书〉称：“武陵先生涉世久，虑事密，《竹溪

《迎风志》，刊于朝鲜明宗十五年（嘉靖三十九年，1560），晚于《竹溪志》十六年，由书院创建人卢庆麟编纂。志分书院录、李氏行录、学规录、藏书录、学田录、庙院定义录等六部分，前有李滉《迎风书院记》。迎风书院创建、修志之时，也面临着两个问题。一是书院作为新引入的制度，其正当性、合法性仍受社会质疑，“既有学校，安事书院？”（卢庆麟《与黄仲举书》）这仍是一个需要回答的老问题。二是在建院过程中，围绕着奉祀李兆年、李仁复、金宏弼三人，而产生的祠院关系、入祀标准、奉祀主配、道德之师与忠节一行之师、儒佛矛盾等问题。对第一个问题，卢持“书院与学校实相表里”而予化解，并将《大明一统志》所载九十府州三百一十三所书院的资料全部抄录到《书院录》中，且列表统计。如此将“中原书院详录几尽”，既有“援据故事以解齿颊”的无奈（朴承任、黄俊良《答四印堂》），也有其“谕众通知”的深意，即“使东人皆知书院与学校实相表里，向之疑者反谓书院在明朝如彼其多，在本国亦宜尚之，终至见闻不駭，的知当然”（卢庆麟《答朴重甫黄仲举书》），为书院的发展进一步扫清思想障碍。这种做法，曾得到李滉的肯定，其称《迎风志》“尽录上国书院，可以晓世人訾毁书院之惑”（李滉《答四印堂书》）。²²⁾至于第二个问题，则应李滉要求，卢庆麟将自己与李桢、黄俊良、尹春年、金希彦、朴承任、李滉等人相互讨论的22封书信，辑为《庙院定义录》，收入院志，“以使后人知今日往复之意”。这是反映朝鲜官绅当年如何移植、接受书院的最鲜活的史料。在讨论中，他们确立了一系列原则，如祠院应当并立，院以养贤，祠以表忠。立祠本意在使“学者追慕尊仰，立的以为准也”。崇道学应当重于尚忠义，故而奉祀有主配之分等等。这些原则既本于中原书院，渊源有自，又影响后世朝鲜书院的发展，源远流长，使得朝鲜书院有了注重祭祀的特色。

《吴山志》，刊于宣祖二十三年（万历十八年，1590），由吴山书院创建人柳云龙（1539-1601）编纂。志分四卷，卷一记享祀人吉再事迹，分行录、祭文、碑阴记三目，卷二分享祀、祭仪、展谒三目，记祭祀之事，卷三为学规，分有司、院士、居业、劝课、防检、交际、相正，养贤、修宇、点书、

杂志》非欲言烦，当今迪教牖民之道，不得不婉辞反覆矣。”

22) 卢庆麟,《庙院定义录》,《迎风志》[M],朝鲜王朝明宗间刻本.

典仆等十一目，卷四为考证，记书院创建之事。吴山书院创建时，朝鲜书院已是“比邑相望”，开始进入独立发展阶段，故而院志一改竹溪、迎风二志动辄大量援引中国书院文献之习，已经基本本土化，兹引柳云龙卷二之卷首识语为证，其称：

书院告成，享祀有日，不可无祭仪及院规，谨取陶山、易东、伊山、白云、金乌、川谷、屏山等书院定规，及《五礼仪》，略加参述如左，类皆出于前贤酌定已试之效，一无起于贱末创见臆择之说，后之览者，其毋以曾经鄙人之手而忽之哉。²³⁾

上文所及《五礼仪》为朝鲜儒学经典著作，陶山到屏山各书院皆为朝鲜书院，由此可知，吴山书院的运作规制已经基本本土化，不必再援中原书院故事“以解齿颊”。当然，中国书院的影响还是有迹可寻。吴山书院奉祀治隐先生吉再，依墓而建。查吉再墓，有段柳云龙的按语，其称：

《一统志》：闵子书院，在济南府西五里闵子墓前。高节书院，在绍兴府余姚县东北十五里严子陵墓侧。杜陵书院，在衡州府来陵县北二里杜甫墓前。以此观之，书院之建于先贤墓侧尚矣，非今创为，而亦有可据也审矣。²⁴⁾（洪波按：来陵县，当作耒阳县）

由此可知，依吉再墓而建吴山书院，仍然是援用《大明一统志》先贤墓侧建书院之例，事属“可据”，还是竹溪、迎风论证书院合法性的老方法、老模式。

综上所述，从《竹溪志》（1544）大量移录朱子及中国先贤著述，到《迎风志》（1560）一整卷抄录《大明一统志》各府州三百余所书院史料，到《吴山志》（1590）仅在按语中提及《大明一统志》所载三书院，这是一个中国因素递减的过程。与此同时，从竹溪书院谨祀、礼贤、修宇、备廩、点书五条院规隐于《杂录》，到迎风书院专辟《学规录》，纪载谨祀、礼贤、劝课、修宇、

23) [朝鲜]柳云龙,《吴山志》卷二[M].朝鲜王朝宣祖间刻本.

24) [朝鲜]柳云龙,《吴山志》卷四[M].朝鲜王朝宣祖间刻本.

考廩、点书、择院长七条院规，再到吴山书院祭祀、院规各自独立成卷，院规又细化成有司、院士、居业、劝课、防检、交际、相正、养贤、修宇、点书、典仆，共计十一条，这又是一个朝鲜本土因素递增的过程，显示朝鲜书院有“发展成为乡村教化工具”的倾向。²⁵⁾ 如此递相减增，正是书院在朝鲜移植、接受的一个大致历程。

7. 书院、祠庙为东方欠典，需从中国引入

朝鲜本无书院和祠庙，视作东方欠典，得从中国引入，这是当年李氏朝鲜官绅的共识，兹将相关资料引录如下，以供参考。

周世鹏中宗三十九年（嘉靖二十三年，1544），作《竹溪志序》，其称：

我国旧无祠若书院，欲由我而始，不亦近于汰乎？²⁶⁾

李滉明宗四年（嘉靖二十八年，1549）十二月作《上监司沈公书》，其称：

惟我东国，迪教之方一遵华制，内有成均四学，外有乡校，可谓美矣，而独书院之设前未有闻，此乃吾东方一大欠典也。²⁷⁾

李滉明宗十五年（嘉靖三十九年，1560）作《迎风书院记》，其称：

夫书院之与家塾党庠制虽不同，而义则同归，其有关风化也甚大。故知道之士，愿治之主，莫不于是而拳拳焉。所以中国书院鼎盛于近古，我东书院亦昉于今日。观其或因于其人之自建，或作于后人之象贤，或由于守令之创立，或出于朝廷之劝奖，皆所以广教思、敦化原也，而其有庙以祀先贤者，则其于崇道作人之方为尤备也。²⁸⁾

25) [韩]赵峻皓, 〈从书院志看朝鲜初期书院的性格——以《竹溪志》、《迎风志》、《吴山志》为中心〉][J].《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0(3), pp.14-18.

26) [朝鲜]周世鹏, 《竹溪志》卷首, [M].韩国: 安承奎跋识重刊本, 1968.

27) [朝鲜]周世鹏, 《竹溪志》卷首, [M].韩国: 安承奎跋识重刊本, 1968.

卢庆麟明宗十四年（嘉靖三十八年，1559）首秋《与李承宣书》，其称：

所示书院祠庙事，不无怪讶。以愚所见，欲立院立祠者，盖以吾东方崇德象贤之典，报功追远之意，寂然泯绝，实是文治一大欠典。试以眼前之所近者言之，有若金庾信将相新罗，合三为一，蜗角战息，万世永赖，而寥寥四顾，环岭表无一间之祠，视中国立祠庙许多，所祀者能尽如庾信之功乎？有如吉再，扼衣郑门，绰有师承，竟任王氏五百年纲常，真儒劲节，实千载一人，而萧然故里，不闻有乡先生之庙，况复立书院以祀百世之师乎？……有功德如庾信，有学有节如吉再者，亦因此以有院有祠，则圣治之阙典从可以兴废矣。《大明一统志》所载祠庙凡千有余所，而有一功一节者咸与焉。书院凡三百有余所，而虽只有文章之士如苏若黄者皆与焉，况下于苏黄者亦有之哉……呜乎甚矣，中国之好贤何如彼其盛，而吾东方劝贤之典何至此其阙略也欤！²⁹⁾

8. 朝鲜官绅眼中的中国书院

朝鲜书院由中国引入，那中国书院在东国官绅的眼中又是怎样的景象呢？试举几例，以见其概。

李滉《上监司沈公书》，从白鹿洞书院切入，介绍书院的历史与山长制，其称：

夫书院之名古未有也，昔南唐之世，李渤旧隐庐山白鹿洞，创立学宫，置师生以教之，谓之国庠，此书院之所由始也。宋朝因之，而其中叶犹未盛，天下只有四书院而已。渡江以后，虽当百战抢攘之日，而闽浙湖湘之间斯文蔚兴，士学日盛，转相慕效，处处增置，无废不复，非独我文公之于白鹿洞为然也。胡元窃据，犹知首立太极书院，以倡天下。逮我大明当天，文化大阐，学校之政益以修举。今《一统志》所载考之，天下书院总有三百余所，其所不载者想尤多也……凡书院必有洞主或山长为之师，以掌其教。此一件大事，尤当举行。³⁰⁾

28) [朝鲜]卢庆麟,《迎风志》卷首, [M].朝鲜王朝明宗间刻本.

29) [朝鲜]卢庆麟,《迎风志》,〈庙院定义录〉 [M].朝鲜王朝明宗间刻本.

李滉此说, 后来被《李朝实录·明宗实录》接受消化, 并以“史臣曰”的形式采录,³¹⁾ 流传甚广, 影响甚大。李滉《迎风书院记》, 其视角转向书院起源, 由三代之学校体系讲起, 其称:

昔在三代之隆, 教法极备, 家有塾, 党有庠, 州有序, 国有学, 盖无适而非学也。降及后世, 教坏而学崩, 则国学乡校仅有文具, 而家塾党庠之制寥寥焉, 至使笃志愿学之士抱坟策无所于归, 此书院之所由起。³²⁾

卢庆麟《与黄仲举书》, 则从学校与书院关系入手, 涉及学校、书院、精舍, 其称:

稽诸中朝, 则遍列邑皆设学校, 又有书院若精舍, 月试学生, 择其积分高等者升诸书院, 又拔其尤者升诸精舍, 皆务作成有序, 而致其精也。书院实与学校相表里。³³⁾

由月试积分之法, 明显感到, 其取材于《宋史·尹谷传》, 与潭州州学、湘西书院、岳麓书院有关。

柳云龙《庐江志》卷一收录的金惟一斋《上府伯权草涧文海书》, 由宋初四书院切入, 重点介绍岳麓书院, 事关张栻、朱熹、吕祖谦“东南三贤”, 其称:

呜呼, 书院之建其来尚矣, 宋初只有四书院, 曰白鹿、崇阳、岳麓、睢阳, 所谓尤著天下者也。渡江以后, 虽当百战抢攘之日, 而有志之士转相效慕, 创而新之, 无废不复, 如张南轩、吕东莱诸先生, 汲汲乎, 眷眷乎, 记其颠末, 以昭后学。而其他朱洞之首度, 尹则之请朝, 潘、宋之增修, 刘洪之再造, 皆自我文公发之也。今以《一统志》所载考之, 天下之书院总三百余所, 其所不录者又不知其几何也。

30) [朝鲜]周世鹏, 《竹溪志》卷首, [M]. 韩国: 安承奎跋识重刊本, 1968.

31) [日]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李朝实录·明宗实录(第一) [M]. 东京: 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 1960, p.547.

32) [朝鲜]卢庆麟, 《迎风志》卷首, [M]. 朝鲜王朝明宗间刻本.

33) [朝鲜]卢庆麟, 《迎风志》, 〈庙院定义录〉 [M]. 朝鲜王朝明宗间刻本.

洪波按：崇阳、尹则、刘洪，当为嵩阳、李允则、刘珙之误。金惟一斋上书于宣祖六年（万历元年，1573），金氏时任庆尚道安东府庐江书院洞主，对中国宋初四书院，尤其是岳麓书院的发展有如此深入了解，可见书院之推广已有相当程度。

9. 朝鲜以教育为接口引入书院，因而其早期书院被明确定位于教学授受的学校

教育是朝鲜引入书院制度的接口，因而其早期书院的功能定位非常明确地设定为从事教育教学的学校。在当年的书院文献中，可以看到“设院养贤”、“设院养士”、“立院养士”、“建院欲以育才”、“立院以为学者藏修”、“书院与学校相表里”、“院者欲以寓士子之讲习”、“院以养贤”、“书院乃所以广育人才”等等非常清晰的表述。诚为李滉所称：“惟有书院之教盛兴于今日，则庶可以救学政之缺，学者有所依归，士风从而丕变，习俗日美，而王化可成。”正因为如此，“则书院非止为一邑一道之学，乃可为一国之学矣。”（李滉《上监司沈公书》）³⁴⁾也即书院就是一邑、一道、一国之学校。事实上，经过努力，确有一批书院成长为“国庠”，卢庆麟《呈金先生师鲁书》称：“书院之盛在中国无虑三百余所，在本国创自绍修，已为国庠者多。”黄俊良在《答四印堂书》中也有类似的说法：“书院之作创自白云，多至五六所，已为国庠。”³⁵⁾书院既为学校，二者功能重叠，由此引发“书院大妨学校”的疑虑，招致“既有学校，安事书院”的质问，也就在情理之中，它从反面证明社会已经认可书院的学校属性。

10. 书院从事科举之业，与倡导为己之学并不矛盾

34) [朝鲜]周世鹏,《竹溪志》卷首, [M].韩国:安承奎跋识重刊本, 1968.

35) [朝鲜]卢庆麟,《迎凤志》,〈庙院定议录〉[M].朝鲜王朝明宗间刻本.

书院既定位于学校，在科举时代，其从事举业，就是题中之义，中国³⁶⁾、朝鲜概莫能外。朱熹在白鹿洞书院办举人讲习班，事见其《招举人入书院状》³⁷⁾，具体情况可以参见拙作《中国书院史》³⁸⁾第三章第二节，此处存而不论。

周世鹏规定，司马与初试入格者在白云洞书院有优先入院肄业的权力，其称：“凡入院之士，司马则如入大学；其次初试入格者；虽非初试入格，其一心向学有操行而愿入者，有司稟于斯文许入。夫开院固欲迎贤，若滥入则不肖者间之，非徒耗廩，将有损于书册什物。愚者至而贤者必不肯来，亦荒废院宇之一渐也，其择尤不可不谨也。”³⁹⁾他自己则常常“匹马来宿，与儒生讲论经义”，大倡“尊贤兴学之意”，故而“来栖之人不四、五年，皆为名士，连捷巍科，人谓入院者便登第”，其“有益于国家养育人材之道至矣”。⁴⁰⁾

李滉在周世鹏之后六年，同样以丰基郡守身份经营白云洞书院，认定“书院非止为一邑一道之学，乃可为一国之学”，“可以救学政之缺”⁴¹⁾，未见其反对科举之言行。而其后所订《伊山院规》，第一条就规定“文章科举之业亦不可不为之”，其称：

诸生读书，以《四书》《五经》为本原，《小学》《家礼》为门户。遵国家作养之方，守圣贤亲切之训，知万善本具于我，信古道可践于今，皆务为躬行心得、明体适用之学。其诸史子集、文章科举之业，亦不可不为之，旁务博通。然当知内外本末、轻重缓急之序，常自激昂，莫令坠堕。自余邪诞、妖异、淫僻之书，并不得入院近眼，以乱道惑志。⁴²⁾

“科举之业”虽“不可不为”，但又以本末、内外、轻重将其匡定在末、外、

36) 张劲松,〈论科举与古代书院的起源——以唐代江西家族书院为例〉,《大学教育科学》, 2006(1), pp.75-77.

37) 赵所生,薛正兴,《中国历代书院志》[M].南京:江苏教育出版社,1995, p.35.

38) 邓洪波,《中国书院史》·增订版[M].武汉:武汉大学出版社,2012, pp.141-142.

39) [朝鲜]周世鹏,《竹溪志》卷五, [M].韩国:安承奎跋识重刊本,1968.

40) 朝鲜史编修会,《朝鲜史料丛刊(十七)》1,京城:朝鲜总督府,1937.

41) [朝鲜]周世鹏,《竹溪志》卷首, [M].韩国:安承奎跋识重刊本,1968.

42) 邓洪波,《中国书院学规集成》[M],上海:中西书局,2012, p.1844.

轻的位置，这是科举时代明智而又无奈的选择。伊山之后，濂溪⁴³⁾、陶山⁴⁴⁾等朝鲜早期著名书院，皆沿用、抄录李滉所订制度，以规范院中举业教学工作。受其影响，院中师生研习举业就成为了后世书院生活的常态。⁴⁵⁾

当然，主流之外，也有例外，如栗谷李珣在《隐屏精舍学规》中就不同意退溪李滉的作法，他规定“若欲做科业者，必习于他处”⁴⁶⁾，朴世采制定的《文会书院院规》也明言：“今宜院外别设一斋，以待隶举业者，使毋得辄升讲堂，肆做时文，以犯大戒。”⁴⁷⁾他们将科举排除在书院之外。

应该指出，举业及决科利禄的危害，绝非“本末内外”一纸规定所能制约、匡定，必须设法加以解决。对此，周世鹏和李滉都有清醒的认识，并不约而同采用“为己之学”而予化解。

周世鹏用“为己之学”化解科举之害的努力长期被人忽视，考诸文献，至少有两点值得引起注意。一是制度限制。规定“别置入院录。凡入院之士，必自录姓名，且记其来寓年月”。如此登记题名，是因为“后来者必披履历指曰：某也学而为己，某也学而为人，某也生而有愧，某也没而无忤。其穷达虽殊，而贤愚亦远。呜呼，可不惧乎？可不勉乎？”⁴⁸⁾这是利用君子重名的儒家理念来约束科名利欲之心。诚所谓“善待之际，兼示务本之义，不专决科鬻利之资，则不一善夫”（黄俊良《答四印堂》）。⁴⁹⁾二是编纂《竹溪志》，借圣贤之言大伸“为己之学”之旨。诚如周世鹏《竹溪志》自序所称，院志尊贤、学田、藏书、杂录、别录诸篇，“必表出朱子所著而为之冠”，意在表明晦轩安珣先生“慕朱子之意，其说皆为己之学，实出于仲尼、颜曾思孟、两程之要旨，而与后世为人之学，其义利、内外、精粗、本末有霄壤之判矣。”⁵⁰⁾这是用整部书院志来宣扬“为己之学”，尤其《别录》以下实分为学、立

43) 邓洪波,《中国书院学规集成》[M], 上海: 中西书局, 2012, p.1837.

44) 邓洪波,《中国书院学规集成》[M], 上海: 中西书局, 2012, p.1847.

45) [韩]朴钟培,〈从学规看朝鲜时代的书院教育〉[J].《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0(2), pp.29-36.

46) 邓洪波,《中国书院学规集成》[M], 上海: 中西书局, 2012, pp.1860-1861.

47) 邓洪波,《中国书院学规集成》[M], 上海: 中西书局, 2012, pp.1864.

48) [朝鲜]周世鹏,《竹溪志》卷五, [M]. 韩国: 安承奎跋识重刊本, 1968.

49) [朝鲜]卢庆麟,《迎风志》,〈庙院定议录〉[M]. 朝鲜王朝明宗间刻本.

50) [朝鲜]周世鹏,《竹溪志》卷首, [M]. 韩国: 安承奎跋识重刊本, 1968.

教、辟邪三篇，“上祖仲尼，下及晦翁，皆所以明天理，抑邪说，阐晦轩之志”，“指其所向”，⁵¹⁾其倡导为己之学的用心，值得引起特别注意。

至于李滉用古人“为己之学”化解时人“为人之学”之害的努力，以及讲学、藏修的方式方法，建设士林书院的理念等，所论甚多，表扬甚力，此则略而不论。比较好奇的是，虽然李滉和周世鹏后先相随，相向而行，共同开创了朝鲜“前古所无之盛举”的白云洞书院事业，都认同书院举业而又对其保持警惕，且同样以“为己之学”的方法去对冲化解其“为人之学”的危害，但后世学者为何要将周、李划为朝鲜书院两个不同发展时期的代表，并且有抑周扬李的倾向？此其一。

其二，有关入院资格，周世鹏明文规定有三条，即司马、初试入格者、虽非入格其一心向学有操行而愿入者。为何后世不计第三条，而简化为所谓“入格”的问题，且将其上升到区别周世鹏与李滉二人书院观的重要标准，并将“罢格论”的胜利看成是朝鲜书院本质得以确立的标志。

III. 结语

书院是东亚儒家士人共同的文化教育组织。朝鲜在明嘉靖万历年间引入中国书院制度，《竹溪志》《迎风志》《吴山志》可以呈现书院移植历程。周世鹏依朱子白鹿洞故事，首创白云洞书院，首修院志《竹溪志》，初立谨祀、礼贤、修宇、备廩、点书的运行机制，功在肇始、奠基。卢庆麟创建迎风书院，作《迎风志》，立祠象贤、立院养贤，且首立《庙院定义录》《学规录》彰显制度建设，功在拓展。李滉继周世鹏之后经纪白云洞书院，上书请求赐额，奠定书院赐额制度，后以学者身份参与近十所书院的建设，更解析推广《白鹿洞书院揭示》并列入《圣学十图》，其功在集大成。

51) [朝鲜]周世鹏,《竹溪志》卷六, [M].韩国:安承奎跋识重刊本, 1968.

 참고문헌

- [日]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李朝实录·世宗实录(第一)[M].东京: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1956.
- [韩]李树焕.朝鲜时代书院的成立与发展[A].朱汉民、李弘祺.中国书院(第六辑)[C].长沙:湖南教育出版社,2004:194.
- [韩]金紫云.朝鲜时代绍修书院讲学研究[D].首尔:韩国学中央研究院.2013:36.
- [日]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李朝实录·中宗实录(第五)[M].东京: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1960:446-447.
- [日]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李朝实录·世宗实录(第三)[M].东京: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1956:65.
- [朝鲜]卢庆麟.迎风志[M].朝鲜王朝明宗间刻本.
- [朝鲜]周世鹏.竹溪志[M].韩国:安承奎跋识重刊本,1968.
- [日]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李朝实录·孝宗实录[M].东京: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1963:434.
- [日]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李朝实录·正祖实录(第三)[M].东京: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1966:332.
- [朝鲜]洪汝河.木斋先生文集·咸宁书院立约文[A].转引自丁淳佑.韩国初期书院在教育史上的意义[J].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7(3):23-30.
- [日]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李朝实录·仁祖实录(第二)[M].东京: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1962:446.
- [韩]郑万祚.韩国书院的历史与书院志的编纂[J].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7(6):11-12.
- [朝鲜]柳云龙.吴山志[M].朝鲜王朝宣祖间刻本.
- [韩]赵峻皓.从书院志看朝鲜初期书院的性格——以《竹溪志》、《迎风志》、《吴山志》为中心[J].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0(3):14-18.
- [日]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李朝实录·明宗实录(第一)[M].东京:学习院东洋文化研究所,1960:547.
- 张劲松.论科举与古代书院的起源——以唐代江西家族书院为例[J].大学教育科学,2006(1):75-77.
- 赵所生,薛正兴.中国历代书院志[M].南京:江苏教育出版社,1995:35.
- 邓洪波.中国书院史·增订版[M].武汉:武汉大学出版社,2012:141-142.
- 朝鲜史编修会.朝鲜史料丛刊(十七).京城:朝鲜总督府,1937:1.
- 邓洪波.中国书院学规集成[M].上海:中西书局,2012.
- [韩]朴钟培.从学规看朝鲜时代的书院教育[J].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0(2):29-36.

Some Issues About the Introduction of
Academy Institution in Joseon
Dynasty(朝鮮王朝移植书院制度的几个问题)
— Discussion Based on Joseon Dynasty's
Academy Documents(以李氏朝鮮书院文献为主的讨论)

—

Deng Hong-bo*, Zhao Wei**

The academy(书院) was formed in the Tang Dynasty of China at the end of the seventh century, and later developed into the common cultural and educational institution of Confucian scholars in East Asia, it has a history of nearly 1,300 years. Korea's academies were introduced from China and formed part of East Asian academies. In its development process, formed its own characteristics. This paper is based on the academy documents of the Korean era, such as Records of Jukgye (竹溪志), Records of Yeongbong (迎凤志), Records of Osan (吴山志), Records of Yeogang (庐江志),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李朝实录) and the literature of academy rules and regulations, etc. In view of how the Chinese academy institution was introduced into the Korean Dynasty, this paper has some

* Professor, Hunan University, China

** Ph.D Program, Hunan University, Hunan Province, China

different views from the South Korean scholars.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the Baegundong Academy (白云洞书院), which was founded by Joo Se-bung (周世鹏), the Governor of Poongki (丰基), in the Zhongzong (中宗) period, was the beginning of the academy of Korea, and also the beginning of the introduction of Chinese academy institution by Korea. However, according to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s early as in the early years of Shizong (世宗), private academies of Confucian scholars with teaching functions had appeared in the society, which should bring forward the beginning of the history of Korean academies by more than 120 years. Korea's introduction of the Chinese academy institution did not begin during the Zhongzong period, at least as far back as the 21st year of Shizong, more than 100 years ago. By the second half of the 16th century, during the Korean Zhongzong, Renzong (仁宗), Mingzong (明宗) and Xuanzu (宣祖) periods, academies and temples were regarded as institution not found in Korea, which needed to be introduced from China, and Korean academies entered the period of introduction. Generally speaking, the introduction and acceptance period of Korean academies is about 60 years. The three books compiled in this period, Records of Jukgye, Records of Yeongbong and Records of Osan, can roughly show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academy institution.

Joo Se-bung, Rho Gyeongrin (卢庆麟) and Lee Hwang (李滉) made the largest contribu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academy institution. Joo Se-bung and Lee Hwang both believed in Zhuzi-ology (朱子学), but Joo is considered to be the conservative faction, and his contributions are greatly

underestimated by later generations. Zhu Xi's behavior in the Bailudong Academy (白鹿洞书院) became the object that Joo Se-bung imitated. He founded the Baegundong Academy, compiled the Records of Jukgye, and put forward five institutions. His achievement lies in his first creation. Some scholars believe that Baegundong Academy is the earliest academy in Korea, it is thought to be an adjunct to the Mun-sung-gong Temple (文成公庙), but this is not the case. In Joo Se-bung's opinion, the Academy and the Temple are different and parallel, one is to urge people to learn, the other is to worship people with virtue, each has its own function.

Rho Gyeongrin founded Yeongbong Academy (迎凤书院) and wrote the Records of Yeongbong. He built a temple to honor the sage and an academy to support Confucian scholars. But it also raises questions about why academies should be set up when there are official schools. He wrote the Resolution of the Temple and Academy (庙院定义录) to record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the academy institution. In addition, he wrote the Records of Learning Regulations (学规录), emphasizing the construction of institutions. His contribution was to expand the influence of the academy institution. Lee Hwang managed Baegundong Academy after Joo Se-bung. He begged the king to bestow plaque for the academy, thus establishing the institution of plaques for the academies. Later, as a scholar, he wrote many articles about academies, and directly or indirectly participated in the management of nearly ten academies. At the same time, he explained and promoted the Bailudong Regulation (白鹿洞书院揭示), and spread it to the whole Korean peninsula and even

Japan. His achievement was to perfect the Korean academy institution.

Among Joo Se-bung, Rho Gyeongrin and Lee Hwang, Lee Hwang's reputation was the most prominent, which was fully recognized and even suspected of being overpraised. Joo Se-bung's reputation stems from creating Baegundong Academy, but his role in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academy institution is not recognized. Rho Gyeongrin's work has not received any recognition. If we can make a detailed study of the academy records, the development situation of the academies in Korea will become increasingly clear.

Key words : Academy Institution, Documents of Academy, Introduction of the Academy Institution, East Asian Academies, Korean Academies

이 논문은 2019년 12월 13일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2월 2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26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결정된 것임.

조선후기 礪山 竹林書院의 운영과 위상

이경동*

-
- I. 머리말
 - II. 서원의 건립
 - III. 추향과 '竹林'으로의 사액
 - IV. 老論系 서원으로의 정착과 운영
 - V. 맺음말
-

<국문요약>

죽림서원은 전라도 여산에 위치했던 兩湖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이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학자인 조광조, 이황, 이이, 성혼, 김장생, 송시열을 배향하였으며 서인-노론계의 학문과 정치의 중심지로 기능하였다. 죽림서원의 건립은 인조반정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죽림서원이 서인의 정치적 성장과 맞물려서 건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죽림서원의 건립은 김장생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김장생이 정묘호란 과정에서 호소사로 활동할 당시 근거지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663년(현종 4) '죽림'으로의 사액은 죽림서원이 명실상부한 서인계 서원으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했다. 사액의 과정은 송시열, 송준길 등 서인계 산림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는 배향인물의 추향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사액 이후 서인들은 서원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으며, 儒疏 등 정치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중심지적 역할을 수행했다. 노소분기가 분명해진 18세기부터는 노론계의 서원활동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이와 함께 조정에서는 호남의 도통 서원으로 죽림서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후 죽림서원은 고종대 서원훼철령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양호 지역을 아우르는 노론계 도통서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키워드 : 서원, 죽림서원, 김장생, 송시열, 서인, 노론, 도통

* BK21+ 고려대학교 한국사학미래인재양성사업단 연구교수 / geistlkd@korea.ac.kr

I. 머리말

죽림서원은 礪山(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에 위치한 兩湖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이다. 김장생 등 兩湖지역 山林 인사들을 중심으로 黃山書院으로 건립·운영되었으며, 1663년(현종 4)에 ‘竹林’으로 사액받았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학자인 조광조, 이황, 이이, 성혼, 김장생, 송시열을 배향하였으며,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학파적으로도 서인-노론계의 영향을 받은 서원이다. 건립 이후에도 서인계 인사들인 宋時烈·宋浚吉·俞樾·尹宣攀 등이 서원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학술적인 활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18세기에 이후에도 李穡를 비롯한 노론계 인사들이 방문했던 다양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죽림서원은 호서·호남의 경계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적으로도 다양한 교류와 논의의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죽림서원 인근에 건립된 臨履亭과 八卦亭은 각각 김장생과 송시열이 거처하던 장소였다. 죽림서원이 위치한 礪山府는 稅倉이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1845년에는 김대건 신부가 黃山浦를 통해 페레를 주교와 다블뤼 주교를 데리고 오기도 한 장소기도 하다.¹⁾ 호서와 호남의 접점에 위치한 礪山府와 이곳에 위치한 죽림서원은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인사들이 방문했다. 죽림서원은 고종대 서원훼철령으로 서원으로서의 명맥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단소를 짓는 등 지역 유림들의 노력으로 전승되었으며 1960년대 죽림서원이 지역 유림들의 公議로 복원되면서 현재까지 제향 등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죽림서원에 대해서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관과 관련하여 임리정·팔괘정과의 관련성을 다룬 조경학 분야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죽림서원을 다루었다.²⁾ 죽림서원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영남지역과 비교하여 양호지역 서원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경향과 관련이 있

1) 죽림서원 인근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이철성, 「19세기 강경의 공간적 특징과 생활상」, 『朝鮮時代史學報』 75, 2015 참조.

2) 이현우·노재현, 「논산 臨履亭과 八卦亭의 입지 및 조영 특성」, 『韓國傳統造景學會誌』 31-2, 2013.

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중에서도 이이 배향 서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야 소현서원·자운서원·송담서원과 관련된 연구들이 각 1편씩 제출된 수준이다.³⁾ 이러한 연구경향은 1868년(고종 5)에 서원훼철령 당시 남아있는 47개 院·祠와 서원 관련 자료의 보존 상태가 준수한 영남지역 서원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

본고에서는 이이 배향 서원의 대표적인 서원인 죽림서원이 조선후기에 걸쳐 운영된 양상과 위상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965년에 발간된 『竹林書院誌』와 송시열·유계·윤증 등 西人系 인물들의 문집, 그리고 『實錄』, 『承政院日記』를 비롯한 연대기 자료 등을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우선 『竹林書院誌』에는 서원의 연혁이나 규정과 관련된 자료들이 대폭 수록되어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다. 이와 더불어 『宋子大奎』을 비롯한 당시 죽림서원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의 문집에는 해당 인물들이 서원에서 활동했던 내용이나 서원 운영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竹林書院의 운영과 전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서원의 건립

황산서원은 1626년(인조 4) 김장생의 주도로 건립되었다. 건립 당시에는 이이와 성혼을 배향하였으며, 지역에 通文을 돌려 서원 건립을 알리고 전체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를 통해 황산서원은 해주의 소현서원과 강릉의 송담서원, 파주의 자운서원 다음으로 이이를 배향하는 네 번째 서원으로 건립되었다. 이전에 건립된 이이 배향 서원들이 이이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던데 반해 황산서원은 김장생 등 이이의 문인들이 거주지 인근에 건립

3) 정만조, 「조선후기 파주 사족(士族)과 서원활동」, 『한국서원학보』 1, 2011 ; 임호민, 「17세기 강릉사족의 松潭書院 建立과 栗谷陸廡疏 전개과정」, 『울곡학연구』 18, 2009 ; 이경동, 「조선후기 해주 소현서원의 운영과 위상」, 『韓國思想史學』 61, 2019.

4)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2012 ; 이수환, 「2000년 이후 한국 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67, 2017.

되었다는 점에서 문인집단에서 학파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⁵⁾ 황산서원 건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김장생이 송준길에게 보낸 서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黃山書院의 일은 지난번 편지에 대략 언급하였지만 이번에 또다시 자세히 말하고자 하네. 지난 병오년(1606, 선조39)에 崔命龍이 이곳에 와서 글을 읽으려고 하였지만 오래 머물기 어려운 형편이었기에, 宋興周와 尹雲衢 등 네다섯 사람과 서로 약속하여 黃山江 가에 집을 지어 강학하는 곳을 마련하고 이를 계기로 栗谷의 사당을 세우려고 하였네. 내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곳을 찾아가 살펴보니 바로 오늘날 사당을 세운 그 장소였네. 그러나 경영한 지 얼마 안 되어 益山 사람 蘇鳴國이 나와 틀어져서 당시 재상 宋言愼을 찾아가 혈뜰기를, “김 아무개가 최명룡과 함께 鄭澈을 위해서 서원을 세운다.” 하였고, 송언신 또한 최명룡을 다텔려고 했기 때문에 즉시 그 일을 중단하였네.

(b) 反正 후에 송흥주가 와서 말하기를, “황산서원의 일을 이제는 할 만하다.”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30년 전에는 나 또한 하려고 하였었지만 이제는 늙었다. 80세 노인이 어떻게 왕래하면서 독서할 수 있겠는가. 공들이 알아서 하게.” 하였네. 이에 송흥주가 곧바로 여러 고을에 通文을 돌렸는데, 정작 율곡을 위해 사당을 세운다는 말은 빼놓고서 다만 “精舍를 세우되 朱子の 白鹿洞書院의 옛 법규와 같이 하고자 한다.”고 하였다네. 나는 그 말을 듣고서 곧바로 송흥주를 불러 말하기를, “율곡을 위해서 사당을 세우려고 하면서 이를 숨기고 말하지 않은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 하여 곧바로 그 통문을 고쳤고, 아울러 牛溪까지 열거하니 여러 고을에서 돕는 자들이 많았네.

(c) 財力도 적지 않아서 굳이 두세 칸 규모로 제한할 것이 없어 한결같이 『朱子大奎』의 釋宮을 모방하여 지었네. 기둥, 서까래, 시렁, 東房, 西室, 아랫목, 구들장, 屋漏, 담[窓], 東戶, 西牖, 양쪽 기둥, 中堂, 東序, 西序, 동서 夾室, 東廂, 西廂, 玷, 모서리[堂廉], 阼階, 西階, 側階, 北階, 廟庭碑, 堂塗, 대문, 문설주, 문지방, 내외의

5) 17세기 전반 김장생 등 율곡학파계열은 서원의 건립 뿐만 아니라 이이와 관련한 다양한 현장·추송활동을 전개했다. 『율곡집』, 『격몽요결』, 『성학집요』를 간행 혹은 중간했으며, 조정에서는 이이에게 文成公이라는 시호를 내려주었고 문묘종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활동은 인조반정을 통해 서인의 정치적 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이경동, 『조선후기 정치·사상계의 栗谷 李珣 인식 변화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p.97~161 참조.

글방 등의 名目이 질서 정연하여 모두 옛 제도를 회복함으로써 후생이 보더라도 놀랄 만한 또 하나의 일이었네.

(d) 옛적 鐵原郡守로 있을 때, 監司 申湜의 말에 따라 春川에 退溪를 위하여 서원을 세울 적에 『爾雅』의 釋宮圖를 모방하여 강당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그 제도를 알 수 없다고 나에게 가르쳐 달라 하기에 내가 그 제도를 알려 주어 바로 짓도록 하였네. 퇴계는 춘천 사람이 아니며, 또한 한번도 그곳을 지나간 적이 없었고, 또 羅州와 牙山 두 고을에 五賢을 위해서 서원을 세웠지만 오현은 원래 그 지방 사람이 아니며, 星州 또한 程子와 朱子를 배향한 서원을 세웠지만 그에 대해 말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유달리 율곡에 대해서만 말들을 하니,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이처럼 편파적인가. 험뜯는 자들에게 동요된 것에 지나지 않으니, 가소로운 일이네.

(e) 서원의 上樑은 성대한 일이기에 송흥주가 술과 반찬을 마련하여 인근 선비들을 초대하였는데 7, 80명이 모였네. 이는 도움을 청하고자 초청한 것은 아니었지만, 모임에 온 사람들이 간혹 쌀과 무명을 가지고 오기도 하였고 추후에 보내어 돕는 자도 있었네. 나 역시 그곳을 찾아가 참석하였고, 감사 閔聖徽도 그 모임에 왔었네. 이와 같은 데 지나지 않으니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聖俞(李時稷)가 礪山縣監으로 있을 때 서원의 일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러 유생들의 마음은 허전하지 않을 수 없었네. 이 편지를 성유에게 보여 주는 것이 좋겠네.⁶⁾

위 내용에는 (a)宣祖代 황산서원 건립 추진과 실패 이유, (b)仁祖代 황산서원 건립 추진과정, (c)황산서원의 건축 구조, (d)제향인물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응, (e)서원의 上樑과 참여자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황산서원의 건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경과를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礪山 인근에 이이를 배향하기 위한 목적의 서원을 건립하기 위한 움직임은 1606년(선조 39)경부터 진행되었다. 서원 건립 추진에는 김장생 이외에도 최명룡, 송흥주, 윤운구 등이 참여하였으며, 강학과 함께 이이의 배향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여산에 이이 배향 서원 건립이 추진된 이유는 1604년 해주 은병정사의 재건과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⁷⁾ 은병정사가

6) 『沙溪全書』 卷3, 書, 「答宋明甫(浚吉)」.

이이가 생전에 강학활동을 했던 장소였으며, 『栗谷集』의 편성을 담당했던 중심지였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김장생 또한 은병정사의 재건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장생 자신이 거주하던 여산에 강학처를 마련하면서 이이를 배향하기 위한 사당을 건립하려는 시도는 은병정사 재건의 연장선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서원의 건립은 시행되지 못했다. 이는 서원의 건립 추진 소식을 전해들은 益山의 蘇鳴國이 이러한 시도를 鄭澈의 사당을 짓는 것이라고 宋言愼에게 무고하면서 서원의 건립을 저지시켰기 때문이었다.⁸⁾ 소명국이 이이가 아닌 정철을 제기하며 서원의 설립을 저지시킨 것은 정철에 대한 東人系의 비판적인 시각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서원의 설립을 좌절시키고자 한 의도로 추정된다. 동인계는 정철은 기축옥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이발과 최영경을 장살시켰다는 동인계의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이를 소명국은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⁹⁾

이후 광해군대까지 礪山 인근에 이이 배향 사당이나 서원의 건립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인이 정계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던 仁祖反正 이후에서야 가능했다. 우선 김장생은 자신이 노령을 이유로 건립 추진을 송흥주를 비롯한 인사들에게 일임했다. 그런데 송흥주는 서원 건립 통문을 돌리면서 의도적으로 이이를 배향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동의 배경으로는 비록 礪山이 김장생을 비롯한 율곡학파 주요 인사들의 활동지역이기는 했지만, 이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미흡했기 때문으로 이

7) 당시 은병정사의 재건 과정에 대해서는 이경동, 「조선시대 해주 소현서원의 운영과 위상」 『韓國思想史學』 61, 2019, pp.251~257 참조.

8) 당시 소명국은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북인계 사족으로서, 김장생과 교우관계를 유지하다 불미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김장생과 결별하고 북인으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광해군대에 소명국은 조정과 익산을 왕래하며 활동하였다. 특히 소명국은 초기에는 柳永慶을 중심으로 한 小北에 관여하다가 유영경이 失勢한 이후에는 이이첨을 중심으로 한 大北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자처하게 되는 등 북인의 분화에 있어 주목할만한 인물이기도 하다. 선조대 말부터 광해군대까지 소명국의 활동에 대해서는 오경택, 「17세기 前半 全州地域 士族의 정치·사회적 동향」, 『한국학논총』 37, 2012, pp.157~168 참조.

9) 이에 대해서는 윤정, 「선조대 鄭澈·成渾 관작삭탈의 정치사적 의미 -南冥學派의 정치위상 제고의 명분에 대한 분석-」, 『남도문화연구』 30, 2016 참조.

해된다. '따라서 이이와의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의 서원 건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못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김장생은 송흥주를 불러 이이를 배향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 질책하며 이이 뿐만 아니라 성혼까지 배향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점은 인조반정 이후 달라진 서인계의 위상과 함께 정치적·학문적 종장이던 이이와 성혼에 대한 배향을 공식화함으로써, 배향인물을 통한 서원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 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산 인근에 거주하면서 성혼과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던 파평윤씨 계열의 참여를 독려하여 서원 건립의 타당성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도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¹⁰⁾

김장생은 배향인물과의 관련이 없는 礪山에서 굳이 이들을 배향하려는 이유에 대해 春川에서 이황을 배향하는 서원이 건립된 것, 羅州와 牙山에서 五賢의 서원이 건립된 것, 그리고 星州에서 程子和 朱子의 서원이 건립된 사례를 들며 서원의 건립이 반드시 배향인물과의 연고만이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은 이이와 성혼을 배향하기 위한 서원이 여산에 건립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황산서원은 많은 물력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통해 건립되었다. 김장생의 언급을 통해 미루어보면, 서원은 상당한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서원의 구조는 두 세 칸 규모로 제한하지 않고 『朱子大全』에 釋宮의 예를 따라서 지었다고 하였다. 이는 대략 김장생의 『家禮輯覽』 圖說의 「寢廟辨明圖」에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존하는 서원의 건축물 중에서 김장생이 구상한 건축물은 돈암서원의 凝道堂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표현방법에서 미루어보면 中堂을 중심으로 오른편에 東序·夾室·東廂이 왼편에 西序·夾室·西廂이 있는 대규모의 건물로서, 「寢廟辨明圖」에 준하여 황산서원을 건립했을 것으로

10) 노성현에 거주하던 파평윤씨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로 윤선거와 윤증 부자를 들 수 있다. 윤선거의 부친 尹煌은 성혼의 사위로서 혼맥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황의동, 「明齋儒學의 家學的 淵源에 대한 연구」, 『哲學論叢』 33, 2003). 따라서 김장생이 황산서원의 건립 과정에서 파평윤씨 계열의 참여를 독려하였던 것은 이러한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추정된다.¹¹⁾

서원의 건립 과정에서 참여자의 규모는 上樑에서 확인된다. 상량은 송흥주가 주도했으며, 전라감사 閔聖徽를 포함하여 70~80여명에 참여한 행사였다.¹²⁾ 참여자의 규모나 지위를 통해 볼 때 서원은 지역사회에서의 각별한 관심을 통해 건립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원의 건립이 완료된후 이이와 성혼의 위판이 봉안되었으며 釋菜禮가 행해졌다.¹³⁾

黃山書院은 건립이후 점차적으로 兩湖 지역 거점으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서원 건립 다음해에 발생한 丁卯胡亂때 황산서원이 兩湖號召使로 활동하던 김장생의 幕府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¹⁴⁾ 김장생은 황산서원에 머무르며 의병과 군량에 대해 처리하고 출납 장부를 정리하

11) 서원의 구조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의 서원 건축을 토대로 황산서원(죽림서원)은 강당이 없고 사우-동·서재-유도문-홍살문의 구조로 되어 있는 강당이 없는 형태였으며, 이것이 임리정과 팔괘정이 강당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하였다(이현우·노재현, 「논산 臨履亭과 八卦亭의 입지 및 조영 특성」, 『韓國傳統造景學會誌』 31-2, 2013). 그러나 김장생이 인용했다는 『朱子大全』의 「儀禮釋宮」은 이와 같이 단정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의례석궁」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는 廟寢制·學宮制 건축양식과 관련된 복잡한 측면을 나타낸다(정기철·심우갑, 「朱子大全 儀禮釋宮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4-5, 1998). 또한 사우 전면에 위치한 두 채의 건물을 동·서재로 규정된다면 왜 東齋에 해당하는 곳을 憲章堂이라는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해명이 뚜렷하지 않다. 17세기 중반 송시열 등이 유숙했던 기록에도 강당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고(『宋子大全』 卷122, 書, 「與或人」 “愚自金松崖葬所乘舟南下 約會市南于黃山……乘舟上下 吟詠笑語 其夜宿于黃院之講堂”), 19세기 宋秉璫이 서원 휘철 이전에 방문기록에서도 자신이 憲章堂에서 유숙했다고 기록되어 있다(『淵齋集』 卷19, 雜著, 「遊黃山及諸名勝記」 “泊黃山 走謁竹林書院 登八卦亭……往臨履亭 亭是沙翁所嘗遊息 而中廢復建 訪先子舊宅 茅屋三間 房二廚一 前有堂 嘗聞以此爲內室以八卦亭 爲外舍云 還院 宿憲章堂”). 서원의 입지와 건립당시 김장생이 송준길에게 보낸 편지에서 유추해 보면, 죽림서원은 적지 않은 규모로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죽림서원이 휘철이후 약 1세기 후에 재건된 점이라는 측면도 반드시 현재의 서원의 모습이 과거의 서원과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은 황산서원의 원형에 대한 지표조사를 포함한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12) 중앙 정계에서 활동했던 주요인사 중에서 張維는 황산서원의 中丁 祝文을 작성하는 등의 태도로 미루어 보면, 중앙정계의 인사들도 황산서원의 건립 이후 서원의 향사나 운영 등에 일정하게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谿谷集』 卷9, 祭文, 「黃山書院中丁祝文」). 이러한 점은 황산서원이 단순히 지역 거점 서원을 넘어 학파나 정파의 주요 서원의 하나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13) 『沙溪全書』 卷44, 附錄, 「年譜」 丙寅年條; 『牛溪年譜』 丙寅年條.

14) 김장생의 兩湖號召使 활동에 대해서는 우인수, 「정묘호란시 삼남지역 호소사(號召使) 활동과 그 의미」, 『朝鮮史研究』 20, 2011, pp.76~85 참조.

며 호소사의 역할을 수행했다.¹⁵⁾ 김장생뿐만 아니라 당시 의병에 참가한 인물들의 활동도 확인할 수 있는데 김장생의 문인 具瑩의 경우 당시 분소에서 義穀差員으로 황산서원에 체류하였으며,¹⁶⁾ 宋國澤은 김장생과 함께 黃山書院에 머무르며 兵糧을 정리하고 帳目을 정리하였다.¹⁷⁾ 이를 통해 황산서원이 단순한 서원의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김장생을 중심으로 한 학문집단의 거점으로 기능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정묘호란 이후 조정에서 낙향하는 기간 동안 김장생은 황산서원 인근에 臨履亭을 짓고 우거하며 황산서원을 중심으로 강학활동을 지속하였다.¹⁸⁾ 이를 통해 김장생은 이이에게서 내려오는 자신의 학통을 서원의 건립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호서와 호남의 경계에서 지역 여론을 수합하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황산서원은 김장생에 의해 건립된 후 정묘호란 당시 양호호소사의 막부로 기능하며 양호지역의 거점으로 자리잡아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에 건립된 이이 관련 서원들이 강학처(소현서원), 묘소(자운서원), 외향(송담서원) 등 이이와 직접적인 관련성 속에서 건립되었다면, 황산서원은 이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었던 지역에 건립되었다는 점에서 이이를 중심으로 한 학문 집단이 학파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

III. 추향과 '竹林'으로의 사액

1631년(인조 9) 김장생의 사망은 황산서원 운영의 변화를 가져왔다. 대체로 김장생의 문인을 중심으로 황산서원이 운영되었다. 1647년(인조 25)에는 황산서원에서 俞槩와 尹文舉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김장생 사후에도 김장생의 문인들이 황산서원을 그들 문인들이 교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¹⁹⁾ 이러한 점은 황산서원

15) 『沙溪全書』卷46, 附錄, 「舉義錄」.

16) 『竹牖詩集』卷上, 七言絕句, 「黃山書院寓興(丁卯胡亂分朝時 以義穀差員 久留此院作)」.

17) 『四友堂集』「年譜(上)」丁卯年 8月條.

18) 『竹林書院誌』上編, 「書院事蹟及規約」.

이 위치한 지리적 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礪山府는 江景과 인접해 있으면서 지리적으로 호서와 호남을 연결짓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兩湖를 중심으로 형성된 김장생 문인들에게 황산서원은 중심지적 역할을 수행했다.

김장생 문인들의 활동은 1648년(인조 26) 김장생의 추향으로도 이어졌다.²⁰⁾ 김장생의 추향은 이전의 이이와 성혼을 배향한 것과 다른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 이이와 성혼의 배향을 위한 황산서원의 건립이 김장생을 중심으로 한 이이 문인들의 의도였다면, 김장생의 추향은 황산서원과 그 인근이 김장생이 활동하였던 仗履之所이자 講學之所였다는 점에서 추향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김장생을 이이와 성혼의 嫡傳으로서의 위상을 兩湖 지방에서 공인받는 의미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宋時烈·宋浚吉·俞榮·尹宣舉 등 당대 대표적인 서인계 인사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그들의 스승인 김장생의 병향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김장생의 추향이 이루어진 다음해인 1649년부터는 이이와 성혼의 祝詞도 기존에 하나로 작성했던 것에서 별도로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²¹⁾ 이는 김장생을 추향하면서 기존에 단일하게 진행되었던 祝文을 세 神位별로 별도로 작성하기 위한 조치였다.

김장생의 추향 이후 황산서원은 더욱 서인계 인사들의 중심 서원으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황산서원은 점차 서인계 인물들이 방문하여 토론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장소로 정착되었다. 이시기 황산서원을 중심으로 한 모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653년(효종 4) 있었던 황산서원의 모임이었다. 당시 이 모임에는 송시열, 윤선거, 유계 등 당시 김장생 문인들이 대거 참석하였다.²²⁾ 이들은 강당에서 숙박하다가 윤희와 관련하여 쟁변하였다. 이와 관련

19) 『石湖遺稿』 卷7, 附錄, 「年譜」 丁亥年 夏條.

20) 『沙溪全書』 卷47, 「院享錄」.

21) 『同春堂集』 卷11, 書, 「與宋英甫(時烈○己丑)」.

22) 『宋子大全』 卷122, 書, 「與或人」; 『宋子大全附錄』 卷2, 「年譜(一)」 癸巳年 閏7月 21日; 『魯西遺稿』 卷15, 雜著○日記, 「癸巳」; 『魯西遺稿附錄』 上, 「魯西先生年譜」 癸巳年 閏7月 癸丑.

한 내용은 俞槩가 작성했던 「黃山記遊」와 송시열이 或人에게 준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계사년 윤7월 21일에, 尤齋 宋英甫(송시열)가 燕江에서 물결을 따라 黃山の 講院에 이른 것은 오랜 약속 때문이었다. 나는 마침 東峽(강원도 철원)을 구경하다가 때에 맞춰 서둘러 돌아와 이날 晡時에 도착했는데, 영보는 이미 먼저 그 자리와 있었고, 宋興伯·誠伯이 그를 따라왔으며, 尹伯奮(윤원거)·君聘(윤응상)·吉甫(윤선거) 세 사람은 魯城에서 이르렀고, 壺山 사또 權浩然(권성원)·銀山 사또 李一卿(이정기)이 또한 앞뒤로 이르렀다. 사방 수백천리의 사람들이 4년 동안 수 천 만 리나 떨어져 있다가 드디어 강산이 맑고 탁 트인 곳에 함께 모여 하루가 다하도록 모임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진기한 일이요 성대한 모임이었다. 서로 바라보고 웃으니 그 즐거움이 도도하여 마침내 술을 가져오게 하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²³⁾

(b) 나는 金松崖(金慶餘)의 葬地로부터 배를 타고 남으로 내려와 市南(俞槩)과 黃山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그것은 시남의 表叔 南公이 錦山郡守로 있어 그곳에 가 있었으므로 금산에서 오기가 편리해서였습니다. 大尹을 비롯하여 龍西 尹伯奮(윤원거), 龍安 원인 朴子以(朴承健), 礪山 원인 權浩然(권성원), 恩山 원인 李一卿(이정기) 및 나의 從姪인 基隆·基厚도 함께 모였는데, 배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읍조리고 담소하며 흥겹게 놀았고, 그날 밤 黃山書院의 강당에서 자면서 또 윤희의 이야기를 꺼내 쟁변한 것이 전보다 더욱 많았습니다. 대강 간추리면, 대운이 윤희를 칭찬하기를, 성인에 가까울 정도이어서 우리와 같은 무리는 충분히 그 정밀함과 깊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는 사실 윤희의 정밀함과 깊이는 모르네. 그러나 주자를 공격하는 한 가지 일이 斯文亂賊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네.”하니, 윤이 말하기를, “의리는 천하의 공적인 것이네. 그가 자기의 견해로 주자의 註說을 평론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라고 이와 같이 공박하는가.”하기에, 내가, “하늘이 주자를 세상에 낸 것은 진실로 공자를 낸 마음에서 낸 것이네. 주자가 나온 이후에는 한 가지 이치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없고 한 글자도 분명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무엇이 의심스러워 그가 감히 개돼지 같은 창자로 의논을 가한단 말인가. 그리고 혹 주자의 글을 지적하여 헤아려 보면서 ‘이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말한

23) 『市南集』 卷19, 記, 「黃山記遊」.

정도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가 어떻게 감히 주자의 『中庸』을 쓸어 없애 버리고서 자기의 설로 대신한단 말인가.”하니, 윤이, “이것은 그가 高明한 탓이네.” 하였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매도하기를, “공은 과연 주자는 고명하지 못하고 윤휴가 도리어 더 우수하다고 보는가. 그리고 僭賊을 고명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王莽·董卓·曹操·劉裕는 모두가 고명한 탓이었던가. 그리고 옛날의 이른바 고명은 尊德性에서 나와 道中庸의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인데, 공의 이른바 고명은 어찌하여 이와 서로 어긋나는가.”하니, 윤은 그제 서야, “고명이라고 한 것은 내가 잘못 말한 것으로 경솔한 소치이네.”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이미 난작이라고 말한다면 경솔하다는 말은 절대 그에 맞는 율(律)이 아니네. 대체로 『春秋』의 법에는 亂臣賊子에 대해서는 그의 편당부터 먼저 다스리게 되어 있네. 왕도 정치를 하는 이가 나온다면 공은 마땅히 윤휴보다 먼저 죄를 받게 될 것이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쟁변하기를 거의 다투어 올 때까지 계속하였는데, 호연 등 제공은 초저녁에 잠이 들었고, 시남만이 누워서 듣고 있다가 밤이 깊자 그도 잠들었습니다.²⁴⁾

위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황산서원에서의 모임은 계획적으로 진행되었고, 김장생의 문인인 송시열·유계·윤선거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지방관에 미치기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모임은 참석자들에게도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의해 「黃山會遊圖」가 그려졌고 1680년(숙종 6)에는 송시열이 「黃山會遊圖」의 後書を 작성하면서 당시의 만남을 회상하였다.²⁵⁾

尹鑄에 대한 송시열과 윤선거의 견해 차이를 보였던 이 대화는 바로 황산서원에서 벌어졌다는 점도 주목해 볼 수 있다. 밤이 깊도록 진행된 윤선거와의 논쟁은 황산서원에서 발생했다. 또한 이후 황산서원에서의 윤선거와의 논쟁은 이후에도 윤휴와 윤선거에 대한 비판과 맞물리며 지속되었다.²⁶⁾

24) 『宋子大全』 卷122, 書, 「與或人」.

25) 『宋子大全』 卷148, 跋, 「書黃山會遊圖後」.

26) 송시열은 尹宣舉의 江都受難에 대한 윤증의 평가에 대한 辛酉擬書 사건 이후 윤증에 대한 비판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에도 황산서원에서의 윤휴에 대한 논쟁을 지속하기도 하였다(『宋子大全』 卷78, 書, 「答韓汝碩(戊辰七月)」). 신유익서 사건을 전후로 한 송시열과 윤휴 사이의 논란은 李銀順, 『朝鮮後期黨爭史研究』, 一潮閣, 1988, pp.39~47 참조.

황산서원에서는 학문적 교류나 문인들의 집합처 기능뿐만 아니라 講學 활동과 관련된 사항도 확인된다. 1659년(효종 10) 尹拯은 황산서원 齋舍에서 『朱子書』를 강학하였다.²⁷⁾ 1662년(현종 3) 송시열의 자제인 宋疇錫은 죽림서원에 분향을 하고, 제생들과 상읍례를 행하며 함께 강학하기도 했다.²⁸⁾ 이러한 활동들을 주목해 보면, 서인계 인물 중 礪山을 중심으로 형성된 많은 문인들의 자제들이 황산서원에 모여서 강학활동을 지속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서원이 선현의 享祀와 함께 실질적인 강학활동의 기점으로 기능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장생의 사후 황산서원의 운영에서 서인계 문인들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俞樾의 활동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유계는 김장생을 추향할 때 제문을 직접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²⁹⁾ 1657년(효종 8) 김장생이 추증되고 文元公의 시호가 내려짐에 따라 神位를 변경할 때에도 죽림서원의 사우에 祝文을 작성하는 역할을 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³⁰⁾ 특히 유계는 황산서원에서 활동하며 院長[山長]까지 역임하면서 적극적으로 서원 운영에 관여하였다.

유계의 활동은 1653년 황산서원에서의 모임 당시 院長으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산서원의 운영 전반의 사항을 규정하는 節目을 제정하는 데까지 미쳤다.³¹⁾ 총 9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節目은 居齋儒生の 掃灑, 應待, 講會 등 생활방식 전반이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어 실질적인 초기 황산서원의 운영 일반을 이해할 수 있다.³²⁾ 유계와 함께 송시열도 인근의 팔괘정을 건립하여 체류하면서 황산서원을 중심으로 이 지역은 서인의 중심지로 점차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1663년(현종 4)에는 황산서원의 중수가 추진되었다. 중수에는 전라감사 趙龜錫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³³⁾ 송준길은 황산서원 중수와 관련하여 조

27) 『明齋年譜』 卷1, 기해년 1월조.

28) 『鳳谷集』 卷5, 行狀, 「祖考尤庵先生家狀」.

29) 『市南集』 卷22, 祭文, 「礪山竹林書院沙溪先生並享祭文(戊子)」.

30) 『市南集』 卷22, 祝文, 「礪山竹林書院沙溪金先生贈諡改題祝文」.

31) 『市南別集』 卷7, 雜著, 「竹林書院節目(九節)」.

32) 「죽림서원절목」의 내용은 <부록> 참조.

33) 조귀석은 황산서원 뿐만 아니라, 인근의 八卦亭도 동시에 건립하였다(『鳳谷集』 卷5,

귀석과 의견을 교환하였고,³⁴⁾ 유계와 윤증은 황산서원 중수를 위한 통문을 돌려서 중수에 필요한 물력을 확보했다.³⁵⁾ 중수의 과정은 송시열이 작성한 廟庭碑에 나타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중건 당시 전라감사 조귀석, 호산군수 여태제가 주관하고, 최종적인 마무리는 전라감사 정만화가 지원하였으며, 山長이던 俞槩와 掌議 송광식이 郡內 蘇執中, 송유식, 오두환, 김기와 함께 감독하여 중수를 완료하였다.³⁶⁾ 중수의 과정에서 송시열·송준길·유계·윤증을 비롯한 礪山 인근의 서인계 문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과 함께, 전라감사의 지속적인 물력 지원에 의해 중수가 추진되었다.

한편 황산서원의 중수와 함께 서인계 문인들은 조광조와 이항의 추향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조광조와 이항을 추향하려는 목적은 滄州精舍와 해주 紹賢書院의 배향 원칙을 따르기 위한 목적이었다.³⁷⁾ 송시열이 김수항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추향의 추진은 중수 과정에서부터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⁸⁾ 그 결과 황산서원의 추향은 1663년(현종 4) 12월에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宋時烈과 尹拯은 봉안과 관련된 祭文을 작성하였다.³⁹⁾ 봉안시 조광조와 이항의 위패는 이이와 성혼과 나란히 두지 않고 位次를 상위에 올려 두고 그 아래에 이이와 성혼의 위패를 두는 것으로 정리하였다.⁴⁰⁾ 다만 이전에는 윤선거가 정한 방식에 따라 성혼이 이이의 상위에 놓여 있었는데, 병향과 함께 성혼과 이이의 순서를 변경하여 소헌서원의 체례를 따랐다.⁴¹⁾ 위차의 변경은 이후 성혼계 인사들에 의해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行狀, 『祖考尤庵先生家狀』). 八卦亭은 이후 송시열이 근거하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34) 『同春堂續集』 卷2, 書, 「答趙禹瑞」.

35) 『明齋遺稿』 卷31, 雜著, 「黃山書院重修通文」; 『市南集』 卷14, 通文, 「黃山書院重勅通文」.

36) 『宋子大全』 卷171, 碑, 「竹林書院廟庭碑」.

37) 『沙溪全書』 卷47, 「院享錄」; 『宋子大全附錄』 卷5, 「年譜(四)」 癸卯年 12月條.

38) 『宋子大全』 卷54, 書, 「與金久之(癸卯十月二十九日)」.

39) 『靜庵續集附錄』 卷4, 祭文, 「礪山竹林書院奉安靜菴退溪二先生文(宋時烈)」; 『宋子大全』 卷151, 祝文, 「礪山竹林書院奉安靜菴退溪二先生文」; 『明齋遺稿』 卷33, 祭文, 「黃山書院並享靜庵退溪時告三先生文(癸卯)」; 『明齋遺稿』 卷33, 祭文, 「黃山書院奉安二先生祭文(癸卯)」.

40) 『宋子大全』 卷72, 「答李擇之(己未四月二十五日)」.

41) 『宋子大全隨筭』 卷10, 「隨筭」 “竹林位次 魯尹始以牛栗爲定 後以栗牛爲正而改之”

송시열이 수정한 위차로 지속되었다.⁴²⁾

당시 추향은 인근의 관료 및 문인 등이 대규모로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당시 추향에 宋浚吉이 首獻, 李惟泰가 副獻, 公州牧使인 鄭榮漢이 終獻을 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참여자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⁴³⁾ 또한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추향에는 대략 200~1,000여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병향을 마치고 송시열은 『朱子大全』에 수록된 玉山講義를 강의하기도 하였다.⁴⁴⁾ 17세기 전반 황산서원의 건립 당시 70~80여명에 이르는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압도적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⁴⁵⁾ 이와 더불어 1663년(현종 5) 9월에 송시열은 廟庭碑를 건립하여 서원의 내역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⁴⁶⁾ 이 廟庭碑에서 김장생 이외에 인물들의 연고가 없음에도 여기에 이들을 배향하는 이유에 대해 주희의 사우 기문을 인용하여 논리를 합리화했다. 또한 배향인물의 선정은 滄州精舍와 紹賢書院의 예를 따랐음을 밝혔다.

1662년(현종 4) 12월 병향 이후 황산서원에서는 곧바로 서원의 사액을 추

42) 위차 문제는 병향이 이루어지고 10여 년이 지난 1675년(숙종 1)에 이이와 성혼의 位次 논란이 있었다. 성혼 계열에서 이이와 성혼의 위차를 바꾼 것으로 논란이 있었다. 윤증은 당초부터 이이를 위로 두고 성혼을 다음에 두는 것이 원칙이었지 송시열이 의도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라고 답하였다. 이에 대해 윤증이 송시열을 옹호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실제로 송시열의 자의로 위차를 변경했다기 보다는 소현서원의 위차에 따라 황산서원의 위차를 조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宋子大全』 卷110, 書, 「與尹拯(乙卯八月十八日)」; 『宋子大全』 卷110, 書, 「與尹拯(丙辰正月)」; 『明齋遺稿』 卷16, 書, 「與成汝中(九月二十二日)」; 『明齋遺稿別』 卷2, 書, 「與懷川(乙卯以後往復)」). 특히 현종 2년에 소현서원에서 성혼을 追享할 당시 송시열·송준길·유계가 관여했으며, 윤증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明齋年譜』 卷1, 辛丑年 2月條), 이들이 황산서원의 병향을 추진했던 인물들임을 고려해보면 소현서원과 배향방식을 동일하게 하고자 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43) 『南圃集』 卷15, 「南郊日記(下)」 甲辰 正月 初五日戊辰.

44) 『沙溪全書』 卷47, 「院享錄」; 『宋子大全附錄』 卷5, 「年譜(四)」 癸卯年 12月條.

45) 반면 이러한 참여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나주에서 활동했던 김만영은 이황의 학설을 지지하였던 학자로서, 송시열에 초청에도 불구하고 황산서원의 병향에 참석하지 않았다(『南圃集附錄』 卷1, 「行狀(任遠)」). 이는 이황계열 인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황산서원이 가진 학파적 속성을 드러내준다. 김만영의 학술적 경향에 대해서는 최석기, 「남포(南圃) 김만영(金萬英)의 『중용(中庸)』 해석과 그 의미」, 『漢文學報』 23, 2010 참조.

46) 『宋子大全』 卷171, 碑, 「竹林書院廟庭碑」.

진했다. 사액의 건의는 다음해인 1663년 여산 유생 송유광 등이 상소하여 사액을 요청하였다.⁴⁷⁾ 서원의 사액은 김장생이 왕래한 장소라는 이유가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院宇가 중복으로 있다는 이유로 사액을 허락하지 않았다.⁴⁸⁾ 이에 대해 같은해 11월 大司憲으로引扈에 입시한 송준길은 黃山書院의 사액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고, 실제 사액은 이듬해 5월에 이루어졌다.⁴⁹⁾ 서원의 남설을 규제하는 당시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황산서원의 사액이 결정된 데에는 당시 산림계 주요 인물의 하나였던 宋浚吉의 요청을 통해 시행되었던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산림을 중용했던 국정 운영의 양상이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⁵⁰⁾

한편 서원 ‘竹林’으로 사액된 것을 알고 있었던 송시열은 尹宣舉 형제에게 편지를 보내 황산서원이 ‘竹林’으로 사액될 것을 알리는 한편, 본 뜻은 주희의 竹林精舍에서 온 것인데, 혹여라도 晉代의 竹林七賢이나 北宋代의 寇準과 대나무의 얽힌 사연과 혼동할 수 있을 것임을 염려하여 묻는 자가 있거든 해명해 주기를 청하기도 하였다.⁵¹⁾ ‘竹林’이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해당 서원이 주희의 정통을 잇는 서원으로 공인받게 됨과 동시에 이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학파의 위상을 획득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죽림이라는 사액의 명칭이 지역명이 아닌 주희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주목해보면, 당시 사액의 과정은 주희-이이-김장생으로 이어지는 도통관을 확립하려는 서인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47) 『顯宗實錄』 卷8, 5년 2월 26일(己未); 『顯宗改修實錄』 卷10, 5년 2월 28일(辛酉).

48) 『顯宗實錄』 卷8, 5년 3월 3일(乙丑); 『顯宗改修實錄』 卷10, 5년 3월 3일(乙丑); 『書院謄錄』 甲辰三月初七日.

49) 『書院謄錄』 乙巳五月十五日.

50) 17세기 중·후반 산림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禹仁秀, 『朝鮮後期 山林勢力研究』, 一潮閣, 1999, pp.148~170 참조.

51) 『宋子大全』 卷36, 書, 「與尹汝望吉甫(乙巳六月)」 “聞黃山院額 以竹林批下 非久禮官來宣矣 如見彼中章甫 說與之如何 竹林精舍 是朱子講道之所 而或以晉之沈冥 宋之翦插 歎焉 有問者 幸有以解之”; 『宋子大全隨劄』 卷4, 「隨劄」 “二十板○晉之沈冥 晉之竹林七賢 皆沈冥於酒 ○宋之翦插 宋寇準 貶雷州道出公安 翦竹插於神祠之前 祝曰 準若不負朝廷 此竹當復生 其竹果生筍成林 邦人號曰相公竹云”

IV. 老論系 서원으로의 정착과 운영

사액이후 죽림서원은 서인-노론계 서원의 성격을 띠며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 서원을 중심으로 운영된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자면, 1668년(현종 9)에 尹拯은 宋尙敏과 황산서원에서 『朱子大全』을 通讀하고 筭疑를 만들기도 하였다.⁵²⁾ 1669년에는 죽림서원의 원유들이 윤선거의 사당을 세우자는 의논을 발의하기도 하였다.⁵³⁾ 1676년(숙종 2) 윤선거의 문인 尹擥은 죽림서원을 배알하였다.⁵⁴⁾ 이러한 양상을 통해 죽림서원은 서인계 서원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면밀히 추진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죽림서원은 兩湖 지역의 여론의 결집처로서의 기능도 활발하게 수행했다. 『竹林書院誌』에는 서원의 院任으로 有司를 2인을 두는 규정을 두었는데, 당시 有司는 湖西와 湖南에 각 1인씩을 두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⁵⁵⁾ 이러한 점은 당시 우·을 문묘종사의 과정에서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의 儒疏가 활발하게 진행된 점을 미루어볼 때, 당시 죽림서원의 역할이 호서와 호남의 의견을 조율하고 종합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서원의 운영 방식을 통해 엿볼 수 있다.⁵⁶⁾ 호남과 호서의 경계에 위치한 죽림서원은 지역 사회의 공론의

52) 『朱子大全』 卷46, 書, 「答李雲舉(戊申六月二十四日)」. 윤증이 작업한 筭疑가 이후 송시열이 편성한 『朱子大全筭疑』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송시열이 『朱子大全筭疑』에 작업에 착수한 것은 甲寅禮訟이후 덕원으로 유배된 숙종 1년부터였으며, 이 과정에서 金壽增·金壽興·金壽恒·朴世采·權尙夏·金昌協 등의 문인들의 조력으로 숙종 42년에 완성되었다(姜文植, 「宋時烈的 『朱子大全』 연구와 편찬-『朱子大全筭疑』, 『節約通編』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43, 2008). 다만 辛酉擬書로 인해 송시열과 윤증이 결별한 숙종 7년 이전까지는 송시열과 윤증은 사제지간으로 상호 영향을 미쳤으므로 『朱子大全筭疑』의 모본에 해당하는 어떤 작업에 일정부분 관여했을 것으로는 짐작할 수 있다.

53) 『明齋遺稿』 卷9, 書, 「上草廬(己酉)」.

54) 『德浦遺稿』 附錄上, 「年譜」 丙辰年 4月 15日.

55) 『竹林書院誌』 上編.

56) 서원의 사회적 활동과 관련해서는 通文과 儒疏가 있다. 통문은 서원과 관련된 인물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종합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유소는 지역의 정치적 견해를 조정해 제출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또한 유소활동은 학파의 정치적 입장과 연계되어 17세기 이후로 활성화되었으며, 만민소의 거점으로 서원이 기능하기도 하였다. 서원을 중심으로 한 통문과 儒疏 활동에 대해서는 설석규, 『朝鮮時代 儒生上疏와 公論政治』, 선인, 2002 ; 최연숙, 「19세기 도산서원의 사회 인식과 소통 방식」, 『도산서원을 통해 본 조선후기 사회사』, 새물결, 2014 참조.

거점으로 기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⁵⁷⁾

한편 죽림서원은 송시열이 병향됨으로써 한층 노론계 서원의 경향을 보였다. 1694년(숙종 20) 기사환국으로 송시열에 대한 평가가 신원된 직후, 전라도 생원 오두형의 疏頭로 송시열을 추향하기를 청하면서 죽림서원의 추향이 시행되었다.⁵⁸⁾ 송시열의 죽림서원 추향은 기존에 서인계 문인들의 중심 서원이던 죽림서원이 송시열 추향과 계기로 노론계 중심의 서원으로 변모되어 감을 의미했다. 이러한 점은 소론계에 속해있는 윤증을 중심으로 한 문인들이 죽림서원에서의 활동이 제약을 이루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정조 즉위년에는 소헌서원의 원유들이 죽림서원의 추향례에 따라 소헌서원에도 송시열을 추향하기를 청하는 것을 통해 볼 때, 이전과 달리 소헌서원의 추향의 전범으로 죽림서원이 그 근거가 되기도 했다.⁵⁹⁾

송시열의 추향과 함께 죽림서원을 중심으로 한 노론계 서원으로서의 경향은 송시열의 적전인 권상하와 호남의 도학자인 김인후도 죽림서원에 추향하자는 움직임이 18세기에 걸쳐 이어지기도 했다.⁶⁰⁾ 이러한 노력들은 당시 이이를 중심으로 아래로는 김장생과 송시열을 위로는 김인후를 도학의 계보로 설

57) 유감스럽게도 죽림서원은 서원 공론활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通文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통문은 헌종 12년 8월 고산향교에 보낸 통문이다. 고산현에 살던 국환성 형제의 사우를 재건해달라는 내용으로 현재 호남기록문화유산 홈페이지(<http://www.memoryhonam.c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죽림서원이 가진 호서 및 호남에서의 영향력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尹宣擧의 祠宇를 짓자는 발의를 죽림서원 院儒들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송시열의 祭文을 작성하는 등의 작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보면, 우율 문묘 종사 당시 황해도와 함께 충청, 전라도 지역의 儒疏 활동의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황해도의 소헌서원과 전라도의 儒疏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58) 『肅宗實錄』 卷27, 20년 9월 5일(庚午); 『承政院日記』 361冊, 숙종 20년 9월 5일(庚午); 『書院謄錄』 甲戌十月十九日; 『沙溪全書』 卷47, 『院享錄』.

59) 『承政院日記』 1389冊, 정조 즉위년 9월 26일(甲午).

60) 영조 원년 전라도 유생 김택현 등 1천여인이 김인후의 문묘종사를 추진했으며(『英祖實錄』 卷3, 1년 2월 8일(丙子); 『承政院日記』 586冊, 영조 1년 2월 8일(丙子)), 이후 정조 21년에 김인후가 최종적으로 문묘에 종사되었다(『正祖實錄』 卷46, 21년 5월 12일(辛亥); 『承政院日記』 1776冊, 정조 21년 5월 12일(辛亥)).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죽림서원의 역할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관련 자료의 부실로 직접적으로 죽림서원의 활동을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하려는 당시 노론계 인물들의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⁶¹⁾

송시열의 병향 이후 죽림서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인물들의 양상을 확인해 보면, 거의 대부분 노론계 인사들에 의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에 이르러 호락논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죽림서원 방문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호론계 인사인 蔡之洪,⁶²⁾ 낙론계 인사인 宋明欽,⁶³⁾ 楊應秀,⁶⁴⁾ 沈潮⁶⁵⁾ 등의 방문이 확인되는데, 이는 호론과 낙론 모두 학술적인 대립과는 별개로 죽림서원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낙론계 인사들은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죽림서원의 방문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당시 죽림서원이 가진 학파적 위상이 적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중반까지도 이어졌는데 1866년(고종 3) 송병선의 방문 사례가 대표적이다.⁶⁶⁾

노론계 인사들의 활동은 단순한 방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의 강학을 포함한 운영에 대해 직접으로 관여하기도 하였다. 李緯는 1744년(영조 20) 俞拓基에게 편지를 보내 죽림서원이 속히 講長을 선발하여 강학을 면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고,⁶⁷⁾ 그 스스로 齋規를 작성하여 서원에 걸어둘 정도로 죽림서원에 깊숙이 관여하기도 했다.⁶⁸⁾ 윤봉구는 1753년경 죽림서원에서 太極圖와 『大學』 강설을 하여 학문적 위상을 공고하게 유지하기

61) 노론계 인물들은 도통의 계보에서 김인후를 자신들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노론계는 이이가 김인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근거로 도통의 계보에서 김인후가 중요한 인물임을 점차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문묘종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 김인후에 대한 문묘종사와 이를 중심으로 노론계의 김인후 현창 활동에 대해서는 金相五, 「河西 金麟厚의生涯와 文廟從享의 經緯」, 『전북사학』 5, 1981 및 김남이, 「河西 金麟厚 상의 형성과 시대적 맥락-생애자료에 대한 비교변증을 통해」, 『東洋古典研究』 59, 2015 참조.

62) 『鳳巖集』 「年譜(上)」

63) 『櫟泉集』 卷19, 附錄, 「年譜」 己未年 2月條.

64) 『白水集』 卷1, 書, 「上陶菴先生」; 『白水集』 「年譜」 乙丑年 5月條.

65) 『靜坐窩集』 「年譜」 丙寅年 2月 乙卯.

66) 『淵齋集』 卷19, 雜著, 「遊黃山及諸名勝記」; 『淵齋集』 卷50, 附錄, 「年譜(宋哲憲)」 丙寅年 4月條.

67) 『陶菴集』 卷10, 書, 「與俞子恭(肅基○甲子)」.

68) 『白水集』 「年譜」 乙丑年 5月條.

도 했다.⁶⁹⁾ 송시열의 8대손인 송달수가 1846년(헌종 12) 사우들과 죽림서원에 모여 朱子書를 강론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⁷⁰⁾ 이러한 점은 당시 노론계 인사들이 죽림서원에 강학을 비롯한 제반사항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1753년에 죽림서원에서 송시열의 影幀을 봉안하려고 하자, 윤봉구는 죽림서원이 송시열은 單享하거나 首享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봉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 대신 서원 인근에 위치한 팔괘정에 봉안하여 조두의 예는 하지 않는 것을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⁷¹⁾ 윤봉구의 이러한 태도는 죽림서원이 가진 상징성과 함께 조광조, 이황, 이이, 성혼, 김장생, 송시열을 배향하는 도학서원으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유지하고자 했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송시열의 영정이 서원 내에 위치할 경우 자칫 도학서원으로서의 입장이 아닌 송시열의 서원으로 인식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결과 윤봉구의 입장을 존중하여 관련 사안이 정리되었다.

학파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조정에서도 죽림서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통해 지원을 이어갔다. 사액 이후 성균관에 배정되어 있던 영광의 角耳島(角里島)를 移屬하여 지원을 하기도 했으며,⁷²⁾ 1759년에는 우의정 이후가 전라감영에서 『小學』 및 기타 經籍을 인출하여 礪山の 竹林書院에 보내주어 사림을 흥기시키기를 청하여 허락을 받는 등 서책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⁷³⁾ 1797년(정조 21)에는 『鄉禮合編』을 반사하는 서원에 포함되어 있기도 했다.⁷⁴⁾ 이러한 점은 죽림서원이 가진 상징성과 중요도를 엿볼 수 있게

69) 『屏溪集』 卷41, 講義, 「竹林書院太極圖講說」; 『屏溪集』 卷42, 講義, 「竹林書院儒生大學講說答問」.

70) 『守宗齋集』 卷13, 附錄, 「家狀(宋秉琦)」.

71) 『屏溪集』 卷31, 書, 「答竹林書院儒生(癸酉)」.

72) 『承政院日記』 351冊, 숙종 19년 2월 7일(辛巳); 『承政院日記』 352冊, 숙종 19년 5월 27일(庚午); 『竹林書院誌』 上編, 「靈光角耳島事蹟(己巳三月初三日)」. 기존에 성균관에 소속되어 있던 각이도의 이속은 성균관의 재정 열악으로 인하여 다시 복귀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특별한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실제 시행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73) 『英祖實錄』 卷94, 35년 12월 16일(壬辰); 『承政院日記』 1176冊, 영조 35년 12월 16일(壬辰).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학파 뿐만 아니라 조정 차원에서도 죽림서원은 조선에 소재한 수많은 서원중에서 호남의 道學書院으로 조정에서 인식되기도 했다.

右議政 趙寅永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斥邪綸音을 撰進하였을 때 正學을 밝힘으로써 異端을 물리치는 근본으로 삼은 것은 마치 중국이 융성하면 오랑개가 감히 업신여기지 못하고, 元氣가 충실하면 疾病이 침범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先賢을 表章하여 人士를 勸勉하는 방도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이러한 때의 先務로 삼아야 합니다. 各道の 書院가운데 關西의 仁賢, 海西의 紹賢, 松京의 崧陽, 畿輔의 道峰, 湖南의 竹林, 嶺南의 玉山·陶山, 湖西의 華陽·黔潭의 여러 곳은 모두 道統과 관계되는 분을 제향하는 곳인데, 우리 聖上께서 登極하신 후에 사모하시는 뜻을 전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만약 일례로 致祭하는 恩典이 있게 되면, 儒學을 존송하는 정치를 더하고 道德을 숭상하는 뜻을 보이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 신이 또 言端으로 인하여 잇따라 陳啓할 것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經行이 있는 사람을 別薦하여 진실로 이미 많은 人才를 얻었으나, 山林 사이에서 혹 守善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누락되었다면, 아마도 山野에 어진 사람을 남김없이 舉用하는 도리가 아닌 듯싶습니다. 또 명년 봄은 式年으로서 응당 천거해야 할 때에 해당하니, 각도에 신칙해서 더욱 搜訪하여 반드시 독실하게 공부하고 힘써 행하는 선비를 사실대로 천거하게 하되,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많고 적은 것에 반드시 구애받지 말게 하고,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또 구차하게 數만 채우지 않도록 하소서. 요컨대 마땅한 사람을 얻는 데 힘써서 차례대로 시험하여 임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감히 陳達합니다.”하니, 大王大妃가 하교하기를, “正學을 밝힌 후에야 邪敎를 물리칠 수 있으니, 書院에 致祭하는 일을 조속히 거행하도록 하라. 經行이 있는 선비를 別薦하도록 아뢴 것 또한 매우 좋으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라.”하였다.⁷⁴⁾

조정 차원에서도 죽림서원은 호남에서는 유일한 道統書院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조선후기 전체에 걸쳐 서인-노론계 인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취로서, 당시 노론계 도통론의 입장을 강화하고, 이를 구현하는

74) 『日省錄』 정조 21년 6월 2일(辛未).

75) 『憲宗實錄』 卷6, 5년 11월 10일(壬寅).

서원으로서 의미가 있었다.⁷⁶⁾

이상과 같이 죽림서원은 김장생의 주도로 17세기 전반 건립된 이후 호서·호남의 대표적인 노론계 서원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이이-김장생-송시열 등 노론계 도통을 형성하는 인물들을 배향함으로써 노론계 도통관을 나타냄과 동시에 노론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방문하거나 서원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서원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19세기 후반에는 호남의 유일한 道統 서원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점은 죽림서원이 가진 지역적·학문적 상징성을 보여준다.

V. 맺음말

죽림서원은 김장생의 주도로 건립된 이후 兩湖의 대표 서원으로서 성장하였다. 특히 이이를 배향한 서원중에서는 이이와의 직접적인 연고가 없었던 지역에서 건립된 최초의 사례임과 동시에 인조반정 이후 율곡학과 서인계의 정치적 성장과정에서 건립·사액된 서원이라는 점은 죽림서원의 운영과 전개는 조선후기 정치사의 전개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전개되었던 위차논란이나 서인계 인물들의 방문과 현안 논의들은 죽림서원이 학문뿐만 아니라 정치적 현안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 걸쳐 죽림서원은 17세기 전반 김장생을 중심으로 한 서원 건립, 17세기 중반 송시열·송준길·유계 등 호서계 산림의 주도로 서원의 추향과 사액 시행, 18세기 이후 노론계 서원으로서의 정립과 노론계 인사들의 서원 활동의 3단계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죽림서원은 단순히

76) 호남에서 죽림서원의 사회적 역할은 고종대 만동묘 훼손에 대해 죽림서원에 모여 호남유림의 의견을 취합하고자 한 움직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만동묘 훼손에 대해 호남에서는 죽림서원에서, 영남에서는 흥암서원의 주도로 문경향교에서 도회가 열렸다(윤희면, 『조선후기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pp.150~153 참조). 호서와 호남의 경계지점에 위치하는 지리적인 이점과 함께 김장생이 건립하였으며, 조광조-이황-이이-성혼-김장생-송시열로 이어지는 도통의 계보를 배향하는 서원이라는 상징성은 죽림서원이 지역과 학파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

해당 지역에 제한된 서원으로 기능하기보다는 호서와 호남의 여론 형성과 학문적 중심지로 점차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19세기 조정에서 호남의 도통의 대표 서원으로 죽림서원을 인식한 점은 죽림서원이 가진 위상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備邊司謄錄』 『書院謄錄』
 『谿谷集』 『南圃集』 『櫟泉集』 『魯西遺稿』 『德浦遺稿』 『陶菴集』 『同春堂集』 『明齋遺稿』 『屏溪集』 『白水集』 『鳳谷集』 『鳳巖集』 『沙溪全書』 『四友堂集』 『石湖遺稿』 『宋子大全』 『守宗齋集』 『市南集』 『淵齋集』 『牛溪集』 『靜庵集』 『靜坐窩集』 『竹牖詩集』
 『竹林書院誌』

설석규, 『朝鮮時代 儒生上疏와 公論政治』, 선인, 2002
 禹仁秀, 『朝鮮後期 山林勢力研究』, 一潮閣, 1999.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李樹煥, 『朝鮮後期書院研究』, 一潮閣, 2001.
 李銀順, 『朝鮮後期黨爭史研究』, 一潮閣, 1988.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최연숙 등, 『도산서원을 통해 본 조선후기 사회사』, 새물결, 2014

姜文植, 「宋時烈的 『朱子大全』 연구와 편찬-『朱子大全節疑』, 『節約通編』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43, 2008.
 김남이, 「河西 金麟厚 상의 형성과 시대적 맥락-생애자료에 대한 비교변증을 통해」, 『東洋古典研究』 59, 2015.
 金相五, 「河西 金麟厚의 生涯와 文廟從享의 經緯」, 『전북사학』 5, 1981.
 오경택, 「17세기 前半 全州地域 士族의 정치·사회적 동향」, 『한국학논총』 37, 2012.
 우인수, 「정묘호란시 삼남지역 호소사(號召使) 활동과 그 의미」, 『朝鮮史研究』 20, 2011.
 윤정, 「선조대 鄭澈·成渾 관작삭탈의 정치사적 의미 -南冥學派의 정치위상 제고의 명분에 대한 분석-」, 『남도문화연구』 30, 2016
 이경동, 「조선시대 해주 소현서원의 운영과 위상」, 『韓國思想史學』 61, 2019.
 이경동, 「조선후기 정치·사상계의 栗谷 李珣 인식 변화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2012.
 이수환, 「2000년 이후 한국 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67, 2017.
 이철성, 「19세기 강경의 공간적 특징과 생활상」, 『朝鮮時代史學報』 75, 2015.
 이현우·노재현, 「논산 臨履亭과 八卦亭의 입지 및 조영 특성」, 『韓國傳統造景學會誌』 31-2, 2013.

임호민, 「17세기 강릉사족의 松潭書院 建立과 栗谷陸廡疏 전개과정」, 『율곡학연구』 18, 2009.

정기철·심우갑, 「朱子大全 儀禮釋宮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4-5, 1998.

정만조, 「조선시대 파주 사족(士族)과 서원활동」, 『한국서원학보』 1, 2011.

최석기, 「남포(南圃) 김만영(金萬英)의 『중용(中庸)』 해석과 그 의미」, 『漢文學報』 23, 2010.

부록

「竹林書院節目」(俞榮, 『市南先生別集』 卷7, 雜著)

구분	내용	비고
1	一 本院 吾東道統正脈之所在 則事體鄭重 尤有自別 出入藏修之人 着念此意 益加自勉 毋或有貽累於尊嚴之地爲宜 본원은 우리 동방 도통 정맥이 있는 곳으로 事體가 鄭重하고 매우 자별하다. 출입하여 장수하는 사람들은 이 뜻을 염두에 두어 더욱 스스로를 면려하여 혹여라도 尊嚴한 땅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	-기본원칙
2	一 齋任既不能恒留院中 則逐日瞻掃之節 一任院隸 恐有疏忽之歎 別擇儒林中勤學勵行之人二員 朝夕供饋文房諸具燈油等節 磨鍊措置 以爲居齋爲宜 齋任은 이미 항상 院中에 머무를 수 없으므로 逐日에 瞻掃하는 의절은 한결같이 院隸에게 맡기되 혹여라도 소홀한 탄식이 있게 되면, 별도로 유림 중에 학문에 힘쓰고 행동을 면려하는 사람 2원을 별도로 선발하여 朝夕의 供饋·文房諸具·燈油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조치토록 하여 居齋로 삼음이 마땅하다.	-원임
3	一 居齋儒生 既同周旋於諸先生宮牆之內 則此無異三席請益之日矣 不可以燕居 或有放過也 每日瞻拜之暇 內外室堂階庭 親檢灑掃 時讀課工之餘 諸賢狀德文字 時時盤讀 道德光華 聲音容儀 若將親襲者然 薰陶德性 感發志氣 無如詩禮 周召兩南 明倫一篇 朝講夕誦 日以爲度 且於游息之間 夙興夜寐箴 敬齋箴 四勿箴 白鹿院規 講讀成誦 以收日益之效爲宜 朝講小學 朝謁後 夕誦詩傳 夕謁後 居齋儒生은 이미 여러 선생들과 서원[宮牆] 안에서 함께 주선하니, 이는 三席請益하는 날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거재유생은] 燕居할수는 없으나 혹 放過는 있다. 매일 瞻拜하는 여가에 안과 밖의 室堂과 階庭은 [거재유생이] 직접 점검하며 灑掃하고 때때로 課工의 여가에 독서하며, 諸賢들의 狀德文字를 때때로 깊이 읽으면, 道德의 光化와 聲音의 容儀가 마치 직접 엄습한 것과 같을 것이다. 德性을 薰陶하고 志氣를 感發하는 것은 『詩經』·『禮記』 만한 것이 없다. 『周南』·『召南』과 『明倫』 1편을 아침에 강하고 저녁에 외워서 날마다 정도로 삼고 또 游息의 사이에는 「숙흥야매잠」·「경재잠」·	-원생

구분	내용	비고
	「사물잡」·「백록동규」를 강독하고 成誦하여 날마다 진전되는 효과를 거두어 들임이 마땅하다. 아침 『小學』의 진강은 朝謁한 후에 진행하고, 저녁 『詩傳』의 진강은 夕謁한 후에 진행한다.	
4	一 居齋生外 有意工夫 挾冊裹糧而來者 饌物及燈油一體措置 許其居接 雖爲舉業之人 旣入詩禮之場 則朝夕拜謁講誦 不可不隨例爲之 與齋生一體做去爲宜 거재유생 외에 공부에 뜻을 두어 책을 끼고 곡식을 싸가지고 오는 자가 있으면, 찬물 및 등유 일체를 措置하고 居接을 허용한다. 비록 과거공부[舉業]가 목적인 사람이라도 이미 詩禮의 場에 들어왔으면 朝夕으로 배알하고 講誦하는 것을 규례에 따라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齋生들과 함께 일체로 做去함이 마땅하다.	-원생
5	一 春秋享祀朔望焚香之節 旣有前例 別無更論 而春服旣成之日 秋陽始曝之時 濟濟多士 禮會於先生禮法之場 諧謔閑談 亦甚可惜 正齋之日 直月率入齋諸生 小學或孝經, 程朱之書 惟意講究 文義疑晦處 尤庵杖屨 方住邇地 問目就質 罷齋之日 獻官爲賓爲介 鄉射飲禮 惟意行之 使新進年少 習熟古禮爲宜 춘추향사, 삭망례, 분향례의 의절은 이미 전에 규례가 있으니 별도로 다시 논하지 않는다. 춘복이 이미 이루어지는 날과 秋陽이 비로소 쬌어지는 때에 濟濟한 많은 선비들이 선생이 예법한 장소에서 禮會하는데, 해학하고 한담하니 또한 심히 애석하다. 正齋日에 直月이 입재하는 제생들을 이끌고 『小學』이나 혹은 『孝經』, 程朱의 책을 오직 講究에 뜻을 두고 文義가 의심스럽거나 어려운 곳은 尤庵의 杖屨가 가까운 지역에 거처하므로 問目별로 나아가 질의한다. 罷齋하는 날에는 獻官이 賓이나 介가 되어 오직 뜻에 따라 행하고 신진 연소배들로 하여금 古禮를 익히도록 함이 마땅하다.	- 入齋규정
6	一 近來士習不古 求瑕於返璧 索癢於完肌 平地風波者或有之 此是互鄉惡習 誦先生之言 學先生之道者 豈有是哉 如此之人 或提誘之 或罰責之 甚者鳴鼓斥之 事有難處者 來稟量處爲宜 근래 士習이 옛날과 같지 않아 자질구레한 것에 시비를 걸어[求瑕於返璧 索癢於完肌]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는 互鄉의 惡習으로 선생의 말을 외우고 선생의 도를 배우는 자가 어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 처벌규정

구분	내용	비고
	이와 같은 사람은 혹은 끌어다 회유하거나 혹은 벌하여 책망하는데 심한 자는 복을 쳐서 배척하고, 일이 난처한 것과 관련된 자는 와서 아뢰어 헤아려서 처결함이 마땅하다.	
7	一 或齋任或齋生有違院謨者 直月規察釐正 直月不能自規者 祭享時收公議處之 又或來稟爲宜 齋任이나 齋生 중에 院謨를 위반한 자가 있으면 직월이 糾察 釐正하되, 직월이 스스로 규찰할 수 없는 자는 제향할 때 공의를 모아 처결하고 또 와서 아뢰임이 마땅하다.	- 처벌규정
8	一 學宮 乃士林藏修處 遠近學士入來審院 各別厚待之不緊 游觀者 切勿接待爲宜 학궁은 곧 사림의 장수처로 遠近의 학사들이 들어와 서원을 봉심할 적에 각별히 후대하나 긴요하지 않은 遊觀과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접대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 방문규정
9	一 色不入書不出 乃退翁門扁上所揭之規也 院門內 宜無雜色出入之事 而至如女巫禱鈴之聲 亦甚未安 院村密邇之地 一切禁斷 院中書冊 則絕勿出院門外爲宜 여성[色]은 서원에 들어올 수 없고, 책은 나갈 수 없는 것이 곧 퇴계선생께서 문에 걸어두셨던 규약이다. 서원 경내에는 마땅히 雜色이 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女巫가 굿하고 방울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경우는 또한 심히 未安하니, 院村의 가까운 곳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일체 금단한다. 院中의 서책은 절대로 서원 문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됨이 마땅하다.	- 기타

The Management and the Status of Yeosan Jukrim-seow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Lee, Kyungdong*

Jukrim-seowon, located in Yeosan, is the representative *seowon* in Chungcheong and Jeolla provincial region. Eminent scholars of Joseon, such as Jo Gwang-jo, Yi Hwang, Yi Yi, Seong Hon, Kim Jang-saeng, and Song Si-yeol, were enshrined in this seowon, and it was functioned as the political, academic center of *Seoin*(西人)-*Noron*(老論) branch. The establishment of *Jukrim-Seowon* was led by *Seoin*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a group of scholars who succeeded the studies of Yi Yi. The process of building this *seowon* was interconnected with the political growth of *Seoin*. It was led by Kim Jang-saeng who lived nearby, and the place was used as the base when Kim was active as Hososa, a recruiting official for volunteer army, during the First Manchu Invasion of Korea in 1627. The official charter of 1663 by the central government meant that *Jukrim-seowon* became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seowon* of Chungcheong and Jeolla region. The chartering process was promoted by the apprentices of Kim Jang-saeng, including Song Si-yeol and Song Jun-gil, who were active in the central politics, and it coincided

* Research Professor, Korea University / geistlkd@korea.ac.kr

precisely with the project that enshrined more Neo-Confucian scholars in Joseon dynasty. After being chartered, *Seoin* participated in the management of *seowon* more actively, and *Jukrim-seowon* became the central place of political activities like *Yusa*(儒疏), literally Scholars' Petition. From the 18th century, activities of the scholarly successors of Kim Jang-saeng and Song Si-yeol are verified. Moreover, the government started to recognize *Jukrim-Seowon* as the one of the renowned *seowon* along with *Dosan-seowon* in Andong and *Sohyeon-seowon* in Haeju. Until it was abolished in 1868 by *seowon* reorganization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Jukrim-seowon* was operated as the capital *seowon* of the scholarship and the public opinion in Chungcheong and Jeolla provinces.

Key words : Seowon(書院), Jukrim-seowon(竹林書院), Kim Jang-saeng (金長生), Song Si-yeol(宋時烈), Seoin(西人), Noron(老論), Neo-Confucian orthodoxy(道統)

이 논문은 2019년 12월 13일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2월 2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26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결정된 것임.

회보

1. 주요 연혁

2018. 4. 27 : 제16회 연구발표회(중국 청도대학교)
2018. 10. 13 : 제17회 연구발표회(중국 니산 성원서원)
2018. 12. 15 : 제18회 연구발표회(한중연) 및 《총회》개최
2019. 03. 25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학술회의 지원 대상 선정
2019. 04. 27 : 제19회 연구발표회(한중연)
2019. 10. 11~13 : 제8회 동아시아 서원 국제학술대회(중국 맥라시 굴자서원)
2019. 11. 01 : <한국서원학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2019. 11. 15 : 2019년 한국서원학회 국내학술대회(영남대학교)

2. 활동

- 제16회 연구발표회(2018. 4. 27, 중국 청도대학교)
 - 발표 ① 18세기 말 19세기 초 英陽縣 雲谷影堂의 置廢 (채광수, 경일대)
 - 발표 ② 조선전기 교육정책과 16세기 안동지역 서당 건립 활동 (이병훈, 영남대)
 - 발표 ③ 상주 옥동서원의 사액과정 (김순한, 영남대)
- 제17회 연구발표회(2018. 10. 13, 중국 니산 성원서원)
 - 발표 ① 16세기 안동지역 서당 설립상황과 서원화 과정(정순우, 한중연)
 - 발표 ② 선산 금오서원 건립과 제향인물 선정 논의(이병훈, 영남대)
 - 발표 ③ 도산서원 교육내용의 공부론(김자운, 공주대)
 - 발표 ④ 18세기 말19세기 초 영양현 운곡영당의 치폐(채광수, 영남대)
 - 발표 ⑤ 청액일기를 통해서 본 상주 옥동서원의 사액과정(김순한, 영남대)
- 제18회 연구발표회(2018. 12. 15, 한국학중앙연구원)
 - 발표 ① 화양구곡도와 우암학파의 도통의식(정은주, 한중연)
 - 발표 ② 18세기 도동서원의 도서관행과 장서관리(김정운, 경북대)

- 제19회 연구발표회(2019. 4. 27, 한국학중앙연구원)
 - 발표 ① 공간을 통해 본 서애학의 계승양상 (김학수, 한중연)
 - 발표 ② 향(鄕)에 대한 퇴계의 이해와 실천(한재훈, 연세대)
 - 연구윤리 교육 (정수환, 한중연)

- 제 8회 동아시아 서원 국제학술대회(2019. 10. 11~13 중국 맥라시 굴자서원)
 - 기조발표 ①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과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이상해, 성균관대)
 - 기조발표 ② 한국 서원의 인문성과 현대적 발전(김학수, 한중연)
 - 발표 ③ 17세기 초반 盧守愼의 道南書院 祭享論: 朱子學과 陽明學의 拮抗(김학수, 석션발표)
 - 발표 ④ 17~18세기 문경 근암서원의 변천으로 본 조선후기 서원 전승의 일사례(이병훈, 영남대)
 - 발표 ⑤ 태주학과 왕간의 강학 활동 연구(이우진, 공주대)
 - 발표 ⑥ 退溪의 ‘鄕’에 대한 化民易俗 鄕約과 書院을 中心으로(한재훈, 연세대)
 - 발표 ⑦ 조선 소수서원 운영의 공공성과 집단성(정수환, 한중연)
 - 발표 ⑧ 禮安 汾江書院의 창건과 請額 활동(채광수, 영남대)
 - 발표 ⑨ 18세기 후반 尚州 玉洞書院 請額活動과 賜額의 意味(김순한, 영남대)
 - 발표 ⑩ 서원의 인문성: 강회를 통한 학풍의 형성과 전개(이종록, 한중연)
 - 발표 ⑪ 書院의 社會史: 庶類系 儒賢의 登場과 社會的 外裝(권지은, 한중연)

- 2019년 한국서원학회 국내학술대회(2019. 11. 15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 발표 ① 18~19세기 유교적 상장례의 정치·경제적 함의 (김성우, 대구한의대)
 - 발표 ② 노상추 일가의 의례 활동과 친족 관계(김정운, 경북대)
 - 발표 ③ 조선후기 선산지역 원사건립과 금오서원의 위상 변화(이병훈, 영남대)
 - 발표 ④ 노상추의 중앙 관료 생활 -‘오위장과 금군장을 중심으로’(정해은, 한중연)
 - 발표 ⑤ 노상추의 매매정보 수집과 토지매매(정수환, 한중연)

한국 서원학회 회칙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서원학회(韓國書院學會)라 칭한다.(이하 “학회”라고 약칭한다)

제 2조(소재)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학회는 한국 서원의 제분야에 걸친 학문적 연구와 자료 발굴·정보교환·토론 등의 학술활동을 벌이며,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대중화에 유념함으로써 한국사의 체계화에 기여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학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학술 활동을 한다.

1. 연구논문 발표회
2. 특별 학술회의 및 세미나
3. 문화 유적 학술 답사
4. 서원지 및 서원자료집 발간
5. 학회지 발간
6. 기타 학문 연구와 회원 친목에 필요한 사업

제 5조(회원) 학회의 회원은 서원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시에도 회비를 납부해야 정회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8.12.15.>

제 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회의나 세미나에서 연구물을 발표할 수 있으며, 또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배부 받고 여기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연구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학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회기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제 8조(명예회원) 회장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학회의 사업이나 재정에 기여한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9조(기록과 문서 보존) 각급 임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상황을 소정양식에 의해 기록하고 대내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는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제 10조(시행세칙) 학회의 운영은 본 회칙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행 세칙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과 업무

제 11조(기구)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삭제 <2017.01.20.> 3. 이사회 4. 편집위원회

제 12조(임원과 직무)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7.01.20.>
2. 부회장(1인):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2인):학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독한다.
4. 삭제 <2017.01.20.>
5. 이사(20인 이내):총무, 재무, 연구, 기획, 섭외, 출판, 지역이사로 하고 학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6. 편집위원(10인 내외):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을 심사 하며,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을 기획·편집한다.<개정 2018.12.15.>

7. 자문위원(무정수):학회의 회장과 감사를 역임한 회원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학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8. 연구윤리위원(15인 이내):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를 심의 처리한다.

제 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제 14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15.>

제1절 총회

제 15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의결)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중요 안건의 예심) 총회에서 의결할 중요 사안은 이사회에서 사전에 심의한다.<개정 2017.01.20.>

제18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2. 삭제 <2017.01.20.>
2. 예산안 및 결산 승인
3. 회칙의 개정과 조직의 개편
4.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절 평의원회

제 19조 삭제 <2017.01.20.>

제 20조 삭제 <2017.01.20.>

제3절 이사회

제 21조(구성과 소집)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22조(기능)

1. 학회의 사업을 분장하고 추진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집행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개정 2018.12.25.>

제 23조(업무분장) 이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분장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 이사와 섭외이사를 둘 수 있다.

1. 총무이사:학회 조직·회원 관리, 재산·도서·문서·장부·기록·자료 관리
2. 연구이사:연구 발표회, 학술회의와 세미나, 유적 답사의 기획과 추진
3. 재무이사:재정·회계·기금의 관리, 예산·결의안 작성
4. 기획이사:사업계획, 연구프로젝트 수주 및 기획, 학회 발전 방안 연구
5. 출판이사: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실무 담당

제24조(간사) 학회의 연구, 행정, 연락, 도서관리 등의 제반 실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절 편집위원회

학술지와 기타 출판물의 기획, 편집, 심사를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25조(구성과 운영) <개정 2018.12.25.>

1. 편집위원은 학회 이사를 포함하여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인정되는 자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단, 편집위원의 위촉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 실무는 출판이사가 담당하며, 편집간사가 보조한다.
4.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3월, 9월)으로 개최한다. 단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은 필요시 수시로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편집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
7.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속한다.

제 26조 (편집위원장의 임명과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회장이 임명하며, 유고시 회장이 재임명 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편집위원장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 27조(기능)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심사자 선정
2. 심사 확정 논문에 대한 처리
3. 학보 내용과 관련된 기획 등 학보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4.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기획 및 심사
5. 학회지 등에 게재할 저작물의 심사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28조(편집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수준 제고를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편집자문위원은 필요시 전임 회장을 비롯해 학계의 원로 중진 가운데 편집위원장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2. 편집자문위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3.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4. 학보의 편집과 간행에 대해 자문한다.

5.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자문

제5절 연구윤리위원회

제 29조(구성과 소집) 회장, 편집이사 및 연구이사 중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30조(기능) 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그 처리를 심의 결정한다.

제 31조(연구윤리 문제의 처리) 연구윤리 문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제3장 재정

제 32조(예산 편성) 학회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 및 각종 보조비와 기부금 등으로 편성한다.

제 33조(수익사업) 학회는 공동 연구비, 공동 저작의 인세나 저작권 기타 학술활동과 관련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학회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사업에서 회원 수익금 중 일부를 헌납 받을 수 있다.

제 34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01.20.>

제 35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2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정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 36조(결산보고)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을 수시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결산 내역과 사업 실적을 12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제 37조(기금의 조성하고 운영) 학회의 특수 사업 추진이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특수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은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 운영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편집 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의 학회지인 『韓國書院學報』(이하 ‘학보’라 약칭함)의 편집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학보는 서원 연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한다.

- ① 연구논문
- ② 비평논문(說林, 論壇 등을 포함)
- ③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3조(인쇄 및 발행) 학보는 년2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 ① 인쇄일은 6월 23일, 12월 23일로 한다.
- ②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제4조(투고 제한) 학보에는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 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제5조(논문 심사)

-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와 원고작성규정의 준수 유무, 학회지 성격에 부합 여부를 우선 심의한 후 이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별도의 전문 학자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8.12.15.>
- ②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위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단 투고자와 같은 소속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 ③ 심사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6조(논문 심사 절차)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 독창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 수정후 게재(B), 재심사(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② 게재 판정을 제외한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일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A,A) (A,A,B):게재
(A,B,B) (B,B,B):수정 후 게재
(A,A,C) (A,A,D) (A,B,C) (A,B,D):편집위원 또는 제3자에게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의뢰
(A,C,C) (B,B,C) (A,C,D) (B,C,C) (B,B,D) (C,C,C):수정후 재심사
(A,D,D) (B,C,D) (B,D,D) (C,C,D) (C,D,D) (D,D,D):게재불가
- ⑤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하며, 심사위원 전원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원고의 기한) 원고의 투고와 논문게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① 원고의 투고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01.20.>
- ②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에 한해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인쇄일(6월 23일, 12월 2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8.12.15.>

제8조(심사료와 게재료 청구)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심사료와 게재료를 청구한다.<개정 2018.12.15.>

제9조(지적재산권)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의거하여 《한국서원학보》에 수록된 원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학회에 귀속한다.<개정 2018.12.15.>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이 편집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논문투고 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학술지 『韓國書院學報』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와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종류) 논문은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으로 나뉘며, 모두 심사의
대상이 된다.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특정 연구자에게
집필을 위촉한 논문을 가리킨다. 일반투고논문은 기획과 무관한 개
별적 자유투고 논문을 가리킨다.

제3조(원고의 분량) 논문은 편집된 논문집 기준으로 35쪽(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 쪽수는 본
문, 각주, 도표, 그림,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등을 모두 포함한다.
35쪽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게재료(원고지 5매당 10,000원)를 부과
한다.

제4조(원고의 조건)

- ① 논문은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 ② 국문으로 논문 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5개 내외),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5
개 내외) 순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 ③ 우리 학회의 특성상 본문은 외국어(중문, 일문, 영문)로 작성이 가
능하다. 단 중문·일문 논문의 경우 초록은 한글과 영문의 2종을
제출해야 한다. 영문 논문의 경우에도 한글과 영문 초록을 제출한
다. 한글 논문의 외국어 초록은 英文을 기본으로 하지만 우리 학
회의 특성상 中文·日文 투고도 인정한다. 단 중문·일문으로 투고
시에는 영문으로 제목, 필자명, 주제어를 병기해야 한다.

④ <원고작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투고 기한) 논문집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2회 발간한다. 논문의 투고 기한은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하며,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 기한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될 수 있다.

제6조(원고의 투고 제한)

- ①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 ② 다른 학술지 등에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③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경우 향후 투고를 제한한다.

제7조(심사료와 게재료 납부)

- ①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논문은 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심사비를 요청하며, 심사료를 납부한 논문에 한해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18.12.15>
-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책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8.12.15>
- ③ 심사료와 게재료는 한국서원학회 개설 계좌로 납부한다.

제8조(논문 작성) 논문은 ‘한글과컴퓨터 워드프로그램[한글 2002이상, *.HWP]’ 또는 그것과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제9조(원고 투고) 투고하는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원고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반려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한국서원학회 홈페이지(www.ksw2007.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털에서 ‘한국서원학회’ 검색]
- ②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에 정한 원칙대로 작성된 논문을 다음의 주소로 발송한다 (접수 : ksw2007@ksw2007.or.kr).
- ③ 논문 투고시 홈페이지에서 <논문접수신청서>와 <저작권이용동의

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 ④ 투고자는 해당 논문을 <KCI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 내지 기타표절프로그램에서 검사를 마친 후 결과서를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제10조(원고의 저작권 이양 동의) 논문 투고자는 우리 학회에서 정한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를 읽고, 투고자의 논문이 《韓國書院學報》에 게재됨과 동시에 투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서원학회’ 이양함을 동의하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별도의 서명이 없더라도 논문 투고시 동의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논문접수신청서>와 함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이나 학회 메일로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8.12.15>

1)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

- ①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 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 ② 저자가 저자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
- ③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의 개인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 ④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종설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및 워크숍 등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2)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서

- ① 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이 한국서원학회에 속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단, I(1)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다.

3) 저작권의 소유 및 서명에 대한 단서

- ① 저자 중 1인(논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자)이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본 저작권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② 게재논문의 저작권이 저자가 아닌 저자를 고용하고 있는 학교, 회사, 연구소 혹은 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는 해당 단체의 저작권 담당자가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③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혹은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④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본 논문이 학술대회에서의 초록을 제외한 다른 형태로 발간되지 않았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서약 한다.
- ⑤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학회지에 게재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도 학회지 게재 이후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발간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 ⑥ 상기인(들)은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⑦ 본 저작권이양동의서 파일을 작성하여 한국서원학회 온라인논문 투고 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부 칙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원고작성 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기본 원칙) 투고하는 논문은 제목, 성명(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제목, 성명, 소속, 직위의 영문표기 or 병기), keyword(영문 or 영문 병기)의 순서로 작성한다. 투고된 원고가 작성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2조(저자 표기) 투고자의 소속은 성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투고자의 소속과 직위를 병기한다. 공동연구의 경우는 제1저자를 명시한다. <개정 2018.12.15>

<예> 단독 :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공동 : 제1저자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병훈(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제3조(장·절 표기) 장과 절의 기호 표기 방식은 I. 1. 1) (1) / II. 1. 1) (1) / III. 1. 1) (1) / IV. 1. 1) (1)의 순서로 한다.

<예> IV. 李天封의 한강학 계승과 한강학파에서의 위상

1. 寒岡學의 수용과 師門의 협찬활동

1) 寒岡學의 수용 양상

(2) 川谷書院 증건론

제4조(본문의 작성)

① 본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일문, 중문, 영문]로 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② 본문 작성시 활자크기는 한글 10포인트, 인용문과 각주는 9포인트

트로 한다.

- ③ 문단 모양은 기본적인 작성방식을 따른다. 왼쪽 여백(0), 오른쪽 여백(0), 들여쓰기(0), 문단 위(0), 문단 아래(0), 낱말 간격(0), 정렬 방식(양쪽 혼합), 줄 간격 160%.

제5조(한자 표기) 본 학술지의 특성상 漢字를 그대로 노출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으나, 한자어의 가독성을 위해 자주 중복되거나 일반적인 단어는 가급적 한글을 사용한다.

제6조(인용문 작성) 본문의 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로 번역된 인용문의 경우, 인용원문은 각주에 제시한다. 인용문은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제7조(인용시 작성) 본문에 인용된 시의 경우는 원시를 먼저 쓰고 풀이를 병립하여 작성한다.

<예> 派者同水 갈래가 저도 근원이 같은 물이면

百川雖異則水 온갖 냇물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물

제8조(문헌 표기) 단행본·문집·학회지 등은 『 』(유니코드 300E, 300F)으로 표기하며, 논문·단행본 속의 작은 제목 등은 「 」(유니코드 300C, 300D)으로 표기한다. 단 학위논문은 『 』으로 표기하며, 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문은 연도 뒤에 알파벳(a, b) 붙여 구분한다. 논문명과 학술지명 사이에 쉼표(.)를 붙여 구분한다.

<예> 정만조, 「조선시대 파주 사족과 서원활동」, 『한국서원학보』1, 한국서원학회, 2011.

김덕현, 「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독해」, 『한국서원학보』1, 한국서원학회, 2011(a).

추제협, 『근기 퇴계학의 형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김인걸, 「서원 연구의 현재적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서원학보』1, 한국서원학회, 2011, p.214.

제9조(작품 및 인용 표기) 작품명은 < >(유니코드 3008, 3009), 원문인용·대화 등은 “ ”(유니코드 201C, 201D), 간접인용 및 강조는 ‘ ’(유니

코드 2018, 2019) 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曹植, 『南冥集』 卷2, 〈遊頭流錄〉, “新雨水肥, 激石漬碎…….”

제10조(표·그림·사진의 구분) 논문에 사용된 표, 그림, 사진 등의 구분은 < >(유니코드 FF1C, FF1E)로 표기한다.

<예>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제11조(각주 번호) 각주의 번호는 기본적으로 쉼표(.)나 마침표(.) 다음에 붙인다.

<예> 언급이 여러 차례 보이는데,1) 심지어 유생들을 가르치기까지 하였다.2)

제12조(중복 인용) 중복 인용되는 책이나 논문의 경우 ‘앞의 책’ 혹은 ‘앞의 논문’을 사용한다. 같은 저자의 글이 중복되는 경우는 연도와 영문소문자로 구분한다.

<예> 김학수, 앞의 논문(2007), pp.41-42.

정만조, 앞의 책(2012), p.22.

이수환, 앞의 논문(2015), p.17.

정순우, 앞의 논문(2013a), p.213.

제13조(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각주와 참고문헌은 저자, 제목, 책이름, 편집기관(혹은 출판사), 출판연도, 수록 페이지의 순서로 기록한다. 참고문헌은 원서를 먼저 제시하고, 연구논문과 저서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한다.

<예> 이해준, 「노강서원 자료의 유형과 성격」, 『한국서원학보』1, 한국서원학회, 2011, p.17.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5, pp.150-153.

제14조(초록 작성) 국문과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과 주제어를 제출한다.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하며, 영문 초록은 300단어 이내로 한다. 주제어(keyword)는 5개 이하로 한다. 영문 이외의 외국어 초록은 제목과 저자, 소속, 주제어는 英文을 병기한다. <개정 2018.12.15>

제15조(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

<개정 2018.12.15>

부 칙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관련 연구물을 간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기능) 이 규정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제재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 3 조(연구윤리위원회) 제1조(목적)와 제2조(기능)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에서 10명 내외로 편집위원장이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개정 2018.12.15.>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모든 학술활동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 위원장이 위임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8.12.15.>

제 4 조(표절 및 중복게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① 타인의 연구결과를 본문이나 주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② 이미 타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연구내용을 첨삭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중복게재(자기표절)’로 간주한다.

제 5 조(심의 및 판정)

①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논문표절시스템(KCI 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 등)으로 검증한 후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8.12.15.>

- ② 표절 및 중복게재로 제보된 논문의 심의 및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 6 조(제재조치)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행한다.

- ①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투고를 금지하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 ② 해당 논문이 이미 학보에 게재된 경우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제 7 조(공고)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한국서원학회 회보에 공지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한다.

제 8 조(소명기회)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 9 조(기타) 제4조에 해당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 외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고의로 자료나 통계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 ② 학회 명의를 도용하여 연구사업이나 출판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이 윤리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서원학회 5기(2018.3-2020.2) 임원

고 문 : 정만조, 이해준, 정순우
회 장 : 이수환(영남대)
부 회 장 : 김학수(한중연)
감 사 : 장동표(부산대), 최광만(충남대)
총무이사 : 이병훈(영남대)
재무이사 : 김자운(공주대)
연구이사 : 조영화(대경대), 김종석(국학진), 옥영정(한중연),
김경옥(목포대), 정우락(경북대), 손숙경(동아대),
김대식(경인교대), 권오영(한중연), 최석기(경상대)
기획이사 : 조준호(경기도박물관), 채광수(영남대)
출판이사 : 이우진(공주교대), 이근호(한국체육대)
지역이사 : 경기·강원 이규대(강릉대), 전라·제주 김봉곤(전남대)
경상 정진영(안동대)
간 사 : 이신예(한중원), 김순한(영남대)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 김학수(정치사회사, 한중연)
편 집 위 원 : 등홍파(중국서원, 악록서원), 유재춘(문화사, 강원대),
정우락(국문학, 경북대), 조인철(건축·풍수,
원광디지털대), 정수환(사회경제사, 한중연),
강봉수(윤리교육, 제주대), 이우진(교육사, 공주교대)
편 집 간 사 : 김순한(영남대)

인쇄일	2019년 12월 27일
발행일	2019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서원학회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80 영남대학교 인문관 353호
전화	053-810-3706
팩스	053-810-4696
이메일	ksw2007@ksw2007.or.kr
홈페이지	www.ksw2007.or.kr
발행인	이수환
학회비	종신회원(60만원), 일반회원(3만원)
	기관회원(5만원), 외국회비(\$50)
회비납부계좌: 대구은행 508-12-677669-6, 이수환(한국서원학회)	

인쇄소 삼성정밀인쇄사(053-255-3255)

ISSN 2234-8603

The Journal of Korean Seowon Studies

NO. 9

Dec, 2019

Contents

Articles

- UNESCO's World Heritage Listing Process and Outstanding Universal Value Lee, Sang-hae 1
- A Study on the Process of Siding to Noron of Jeong Yeochang's Family in Namgye
Seowon in Hanyang between 16th and 18th CenturiesPark, So-hee 31
- How Seowon and Sawoo could be a politically ways and means.
- A case study on Song Sang-Hyun's one - Jung, Su-hwan 63
- The management of Namyang-Hyanggyo(南陽鄉校) in the 19th century and its social
status in the local community Kim, Ja-woon 93
- A Studies about Seowon in China for 70 YearsXiao, Yongming · Ryu, Yeomwi 125
-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Archives in Okdong Seowon in Sangju Kim, Soon-han 141
- Seowon Education and Integration of Sain Thought in Song Dynasty Zhu,Han-min 187
- Some Issues About the Introduction of Academy Institution in Joseon Dynasty
(朝鮮王朝移植书院制度的几个问题) - Discussion Based on Joseon Dynasty's Academy
Documents(以李氏朝鮮书院文献为主的讨论) - Deng, Hong-bo · Zhao, Wei 207
- The Management and the Status of Yeosan Jukrim-seow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Lee, Kyung-dong 231
- Bulletin261

Association Notes

KOREAN SEOWON STUDIES ASSOCIATION

<http://www.ksw2007.or.kr> e-mail : ksw2007@ksw2007.or.kr

